

2022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2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목 차

제 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17
2. 조사배경 및 취지	17
3. 조사대상 현황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현황	18
4. 조사방식	18
5. 설문조사 설계	18
1) 표본설계	18
2) 자료수집방법	18
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9
7. 설문조사 문항 구성: 6영역-기본 28문항-상세 72문항의 구조	19
8. 심층면접 조사 문항 구성: 반구조화된 질문지	19
9. 모니터링 내용 구성	19

제 2장 설문조사 결과

I. 응답자 기본 현황	23
II. 거주 유형, 시기 및 이유	25
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25
2.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25
3.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26
4. 현재 거처 거주기간	26
5.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26
6.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27
III. 거주 비용	28
7. 현 거처 점유형태	28
8.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28
9.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28
10. <세>를 연체한 이유	28
IV. 거주 환경	29
11. 동네 주거환경	29
12. 이웃과의 사회 관계	29
13.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30

13_1.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30
13_2.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30
13_3.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30
13_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30
13_5.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30
V. 거주 공간	31
14. 현 거주지 내부시설	31
14_1.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31
14_2.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31
14_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31
14_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32
14_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32
14_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32
14_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33
15. 현재 거처 상태	33
16.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35
17.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35
17_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36
18.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37
VI. 거주 지원과 욕구	37
1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37
20.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38
21.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38
22.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39
23.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39
24.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40
2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40
2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41
27.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42
28.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43
29.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43

제 3장 심층면접 결과

I.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 특성	49
II. 주거지에서의 관계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	49
1. 가구 구성과 가구주 특성	49
2. 수급현황과 경제활동 여부	50

III. 주거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	50
3. 거처유형과 거주 여건	50
4. 거주기간과 거주 이유	51
5. 거처의 시설 상태	52
6. 여름철과 겨울철의 어려운 점	54
7. 현재 거처의 물리적 상태	55
8. 주거환경	59
9.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	59
10. 이웃과의 관계	61
11. 범죄피해경험	62
12.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성	62
IV.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거지에서의 지원 서비스	63
13.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63
14. 주거복지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경험	64
15.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입주의사 여부와 의사 없는 이유	65
16. 이외 사회복지 소요	69

제 4장 모니터링 결과

I. 시민인권모니터단의 실태조사 모니터링 활동 개요	75
II. 공간(거주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75
III. 사람(주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76
IV. 조사(질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77
V. 단원 의견	78

제 5장 제언

I. 조사 결과 요지와 인권	83
1. 비주택 주거 유형, 그리고 인권	83
2. 비주택 주거시설 현황, 그리고 인권	83
3. 비주택 거주시기와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인권	84
4. 비주택 거처의 점유 형태와 주거비용, 그리고 인권	85
5. 비주택 거주민의 소득수준 및 생계 비용, 그리고 인권	86
6.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그리고 인권	87
7. 이웃과의 관계 및 범죄노출 위험, 그리고 인권	88
8. 비주택 거주민의 가장 바라는 점	88
II.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89
III.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권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과제	93

1. 비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적 기준 제시	94
2.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와 쪽방상담소의 통합적 기능 강화	94
3. 주거상향을 위한 반값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 활성화	94
4. 교통·보행이 편리한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강화	95
5.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건강 현황 실태 파악과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95

참고 문헌	96
관련 규정	96
관련 국제기준	96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I. 응답자 기본 현황

1. 성별	101
2. 연령대	101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102
4. 수급 종류 (다중응답)	102
5. 장애 여부	103
6. 장애 유형 (다중응답)	103
7.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104

II. 거주 유형, 시기 및 이유

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107
2.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110
3.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112
4. 현재 거처 거주기간	115
5.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118
6.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120

III. 거주 비용

7. 현 거처 점유형태	127
8.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129
9.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130
10. <세>를 연체한 이유	132

IV. 거주 환경

11. 동네 주거환경	137
12. 이웃과의 사회 관계	147
13.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150
13_1.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0

13_2.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1
13_3.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2
13_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3
13_5.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4

V. 거주 공간

14. 현 거주지 내부시설	167
14_1.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167
14_2.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169
14_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171
14_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173
14_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175
14_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178
14_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180
15. 현재 거처 상태	183
16.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220
17.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225
17_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227
18.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228

VI. 거주 지원과 욕구

1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235
20.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237
20_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과 관련된 경우	242
21.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243
22.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245
23.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247
24.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252
2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57
2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266
27.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279
28.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296
29.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301

부록 설문지/질문지/보고서

1. 실태조사 설문지	307
2. 심층면접 질문지	319
3. 모니터링 보고서	320

<표 차례>

<표 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36
<표 2>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43
<표 3>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 특성	49
<표 4> 성별	101
<표 5> 연령대	101
<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102
<표 7> 수급 종류 (다중응답)	102
<표 8> 장애 여부	103
<표 9> 장애 유형 (다중응답)	103
<표 10>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104
<표 1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107
<표 12>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109
<표 13>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110
<표 1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111
<표 15>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112
<표 16>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114
<표 17> 현재 거처 거주기간	115
<표 1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거주기간	117
<표 19>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118
<표 20> 응답자 특성별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평일	118
<표 21> 응답자 특성별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주말	119
<표 22>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120
<표 23>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1순위)	122
<표 24>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124
<표 25> 현 거처 점유형태	127
<표 26>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 점유형태	128
<표 27>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129
<표 28>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130
<표 29>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131
<표 30> <세>를 연체한 이유	132
<표 31> 응답자 특성별 - <세>를 연체한 이유	133
<표 32> 동네 주거환경	137
<표 33>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140
<표 34>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142
<표 35>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	144
<표 36>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	146
<표 37> 이웃과의 사회 관계	147
<표 38> 응답자 특성별 - 이웃과의 사회 관계	149
<표 39>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150

<표 40>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1) 신체적 구타	152
<표 41>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2) 정신적 괴롭힘	153
<표 42>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3) 성추행, 성폭행	154
<표 43>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4) 금품갈취	155
<표 44>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5) 강제 노동	156
<표 45>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6) 특정 종교 강요	157
<표 46>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7) 감금	158
<표 47>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8)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159
<표 48>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0
<표 49> 응답자 특성별 -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0
<표 50>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1
<표 51> 응답자 특성별 -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1
<표 52>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2
<표 53> 응답자 특성별 -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2
<표 5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3
<표 55> 응답자 특성별 -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3
<표 56>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4
<표 57> 응답자 특성별 -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4
<표 58>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167
<표 59>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168
<표 60>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169
<표 6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170
<표 62>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171
<표 63>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172
<표 6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173
<표 65>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174
<표 6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175
<표 67>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177
<표 68>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178
<표 69>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179
<표 70>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180
<표 7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182
<표 72> 현재 거처 상태	184
<표 7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187
<표 7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	189
<표 75>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3)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191
<표 76>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193
<표 77>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	195
<표 7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	197
<표 79>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	199
<표 80>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	201

<표 81>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9) 화재 위험이 있다	203
<표 82>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	205
<표 8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	207
<표 8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2) 냉난방이 취약하다	209
<표 85>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	211
<표 86>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213
<표 87>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	215
<표 8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	217
<표 89>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	219
<표 90>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다중응답)	220
<표 9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	222
<표 92>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다중응답)	224
<표 93>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225
<표 94> 응답자 특성별 -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226
<표 95>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227
<표 96>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228
<표 97> 응답자 특성별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1순위)	230
<표 98> 응답자 특성별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다중응답)	232
<표 9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235
<표 100> 응답자 특성별 -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236
<표 10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237
<표 102>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	239
<표 103>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다중응답)	241
<표 104>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과 관련된 경우	242
<표 105>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243
<표 106> 응답자 특성별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244
<표 107>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245
<표 108> 응답자 특성별 -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다중응답)	246
<표 109>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247
<표 110> 응답자 특성별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1순위)	249
<표 111> 응답자 특성별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다중응답)	251
<표 112>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252
<표 11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1순위)	254
<표 11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다중응답)	256
<표 11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57
<표 11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1) 주택구입자금 대출	259
<표 11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2) 전세자금 대출	260
<표 11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261
<표 11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4) 주거급여(월세보조)	262
<표 120>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5) 주거급여(집수리)	263

<표 121>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64
<표 12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265
<표 123>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267
<표 124>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1) 주택구입자금 대출	268
<표 125>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2) 전세자금 대출	269
<표 12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270
<표 12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4) 주거급여(월세보조)	272
<표 12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5) 주거급여(집수리)	274
<표 12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76
<표 130>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278
<표 131>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280
<표 13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1) 주택구입자금 대출	282
<표 133>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2) 전세자금 대출	284
<표 134>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286
<표 135>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4) 주거급여(월세보조)	288
<표 13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5) 주거급여(집수리)	290
<표 13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92
<표 13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294
<표 13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8) 기타	295
<표 140>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296
<표 141>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1순위)	298
<표 14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중응답)	300
<표 143>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301

<그림 차례>

<그림 1> 성별	23
<그림 2> 연령대	23
<그림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23
<그림 4> 수급 종류 (다중응답)	23
<그림 5>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24
<그림 6> 장애 여부	24
<그림 7> 장애 유형 (다중응답)	24
<그림 8>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25
<그림 9>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25
<그림 10>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26
<그림 11> 현재 거처 거주기간	26
<그림 12>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27
<그림 13> 현 거처 점유형태	28
<그림 14>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28
<그림 15> <세>를 연체한 이유	28
<그림 16> 동네 주거환경	29
<그림 17> 이웃과의 사회 관계	29
<그림 18>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30
<그림 19>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31
<그림 20>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31
<그림 21>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31
<그림 22>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32
<그림 2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32
<그림 24>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32
<그림 2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33
<그림 26> 현재 거처 상태	34
<그림 27>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35
<그림 28>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35
<그림 29>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37
<그림 30>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37
<그림 3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38
<그림 32>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38
<그림 33>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39
<그림 34>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39
<그림 35>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40
<그림 3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40
<그림 37>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41
<그림 38>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42
<그림 39>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43
<그림 40> 성별	101
<그림 41> 연령대	101

<그림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102
<그림 43> 수급 종류 (다중응답)	102
<그림 44> 장애 여부	103
<그림 45> 장애 유형 (다중응답)	103
<그림 46>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104
<그림 47>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107
<그림 48>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110
<그림 49>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112
<그림 50> 현재 거처 거주기간	115
<그림 51>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121
<그림 52> 현 거처 점유형태	127
<그림 53>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130
<그림 54> <세>를 연체한 이유	132
<그림 55> 동네 주거환경	138
<그림 56> 이웃과의 사회 관계	147
<그림 57>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151
<그림 58>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0
<그림 59>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1
<그림 60>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2
<그림 61>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3
<그림 62>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164
<그림 63>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167
<그림 64>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169
<그림 6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171
<그림 66>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173
<그림 6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175
<그림 68>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178
<그림 69>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180
<그림 70> 현재 거처 상태	185
<그림 71>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221
<그림 72>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225
<그림 73>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228
<그림 74>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235
<그림 75>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238
<그림 76>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243
<그림 77>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245
<그림 78>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247
<그림 79>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252
<그림 80>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58
<그림 81>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267
<그림 82>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280
<그림 83>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297

제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부산지역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주거권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2. 조사 배경 및 취지

- 여기서 말하는 ‘비주택’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와 2019년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비주택 또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말함.
- 현재 ‘비주택’이란 용어는 국가통계나 주거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거처’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이외의 거처’임.
- 그리고 이때의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기타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비주택으로 구분되는 거처들은 실제 상태 기준으로는 비주택이지만, 법적 상태는 주택일 수 있으며, 비주택 거처유형들 간의 구분도 쉽지 않음.
- 이처럼 비주택 거처 유형들 간 구분도 쉽지 않은데, 쪽방은 고시원·고시텔, 여관·여인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이면서 동시에 컨테이너인 경우도 존재함. 특히 쪽방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 여관·여인숙을 쪽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시원을 포함시키기도 함.
- 게다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홈리스는 문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현재는 집이 있지만 주거 상실 위기에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거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외에 ‘상당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함.
- 더욱이 2018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특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을 방문한 후 ‘고시원 거주민은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홈리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따라서 비주택 중에서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홈리스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쪽방에 대한 정의가 공식화되지 않아, ‘쪽방’을 별도의 거처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쪽방은 가장 빈곤한 가구들이 선택하는 열악한 공간으로, 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은 쪽방을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며,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실·세면실·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쪽방 주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인 노숙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한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는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실시함. 이때의 비주택 유형인 ‘쪽방은 주로 1인이 거주하는 좁은 방으로,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이 없으며, 판잣집,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의 형태를 말하는 것임.

3. 조사 대상 현황 :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현황

- 현재 집계 가능한 쪽방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민은 약 910명 정도로 파악됨. 이는 2022년 10월 5일 기준, 동구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쪽방 거주민 현황임.
-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2022.8.16.기준 동구쪽방상담소 이용자 442명과 2022.9.30.기준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이용자 468명 중에, 200명을 면접 설문조사하였고, 10명을 심층인터뷰함. 그리고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 15명이 30곳의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함.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주택유형 중, ‘주택이외의 거처’ 비율은 5.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5.2% 보다 높으며, 인천 8.1%, 서울 7.5%, 제주 7.0%, 경기 6.1% 다음으로 높은 비율임.
- 사실상, 현재 부산광역시 <통계연보>에서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가구 현황과 <주택실태조사>에서 ‘주거취약층’ 가구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현황을 ‘비주택 거주민’ 현황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 그리고 2017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택이외의 거처 실태조사>에서도 ‘주택이외의 거처’의 분포 비율이 수도권 51.5%, 비수도권 48.5%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는 정도이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 실시한, 2022년 <주택이외의 거처 실태조사>결과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4. 조사 방식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2022년 11월 1부터 11월 18일까지,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 실태조사는 비주택 유형 중 ‘쪽방 거주민’ 200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고, 10명을 심층인터뷰하고,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원 15명이 30곳 주거지를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5. 설문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 ◆ 조사 대상 :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쪽방 등)
- ◆ 표본 크기 : 200부
- ◆ 표본추출방법 : 임의표집

2) 자료수집방법

- ◆ 자료수집도구 : 조사 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
- ◆ 조사 방법 : 일대일면접조사
- ◆ 조사 기간 : 2022.11.1.~11.10.

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73	86.9
	여성	26	13.1
연령대	50대 이하	68	34.9
	60대	66	33.8
	70대 이상	61	31.3
장애 여부	장애 있음	32	16.0
	장애 없음	168	84.0
합계		200	100.0

항목		빈도	%
수급 여부	수급	147	73.5
	조건부 수급	20	10.0
	차상위계층 수급	9	4.5
수급 종류	비수급	24	12.0
	생계급여	161	33.5
	의료급여	152	31.7
	주거급여	167	34.8
	교육급여	0	0.0
합계		200	100.0

7. 설문조사 문항 구성: 6영역-기본 28문항-상세 72문항의 구조

영역	문항수		내용
	기본	상세	
I. 응답자 기본 현황	1	7	성별, 출생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종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록 주소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II. 거주 유형, 시기 및 이유	6	4	거처 종류, 현 거처 쪽방 여부, 비주택 거처 거주시기, 현 거처 거주 기간,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거주 이유
III. 거주 비용	3	8	거주 비용, 세 연체 경험, 세 연체 이유
IV. 거주 환경	3	13	주거 환경, 이웃과의 관계, 인권침해 경험
V. 거주 공간	7	24	거처의 내부시설, 거처의 상태,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이 경우 도움 받을 곳
VI. 거주 지원과 욕구	8	16	현 거처의 거주 의사, 지속시 그 이유,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경험, 정보제공 및 상담 받는 곳 이주 희망하는 곳 고시원·고시텔에 대한 공공 기준 필요 항목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못한 이유 주거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8. 심층면접 조사 문항 구성: 반구조화된 질문지

1. 주거지에서의 관계적(동거인, 지인) 상황과 경제적(소득·수급) 여건
 2. 주거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
 3.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거지에서의 지원 서비스
 4. 참여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주거 기준과 주거 환경 간의 차이점
 5. 향후 적절한 주거 기준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
- ※ 임대주택 등 주거 상황을 위한 복지서비스 활용 여부 등

9. 모니터링 내용 구성

- ◎ 공간(거주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 사람(주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 조사(질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 단원 의견

제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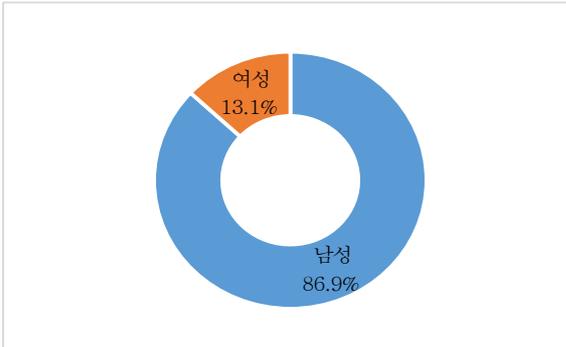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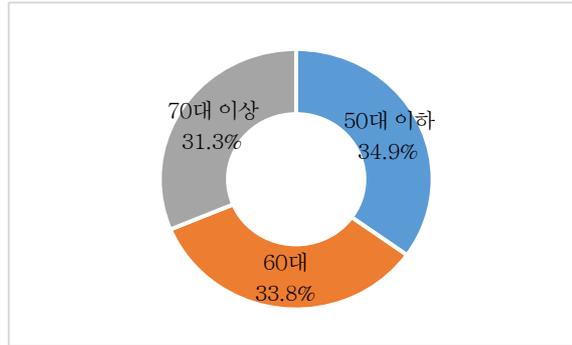
I. 응답자 기본 현황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86.9%, 여성 13.1%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 이하 34.9%, 60대 33.8%, 70대 이상 31.3%로 나타났음.

<그림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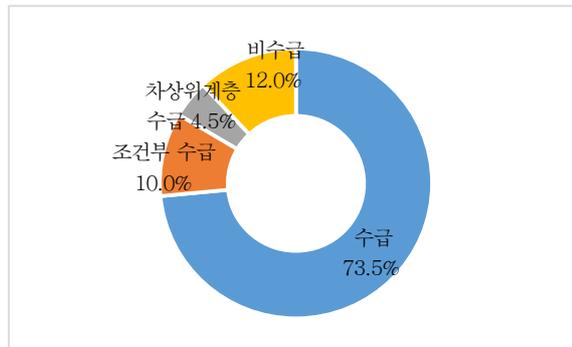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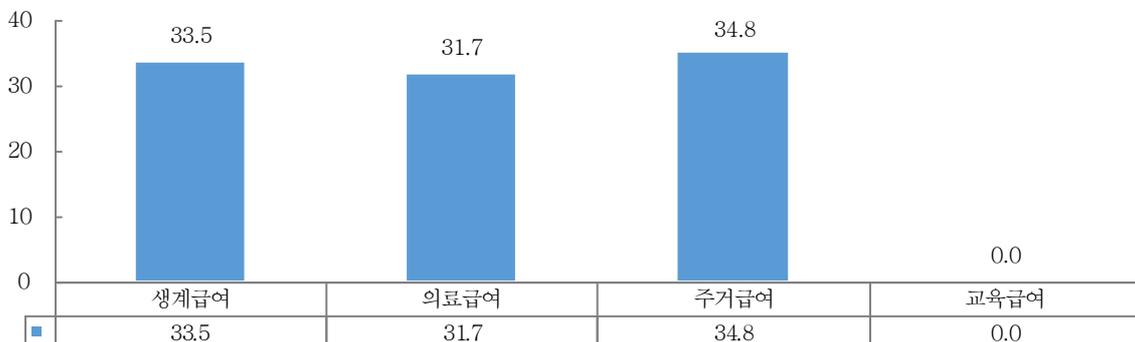
-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수급 73.5%, 조건부 수급 10.0%, 차상위계층 수급 4.5%, 비수급 12.0%로 나타났음.

<그림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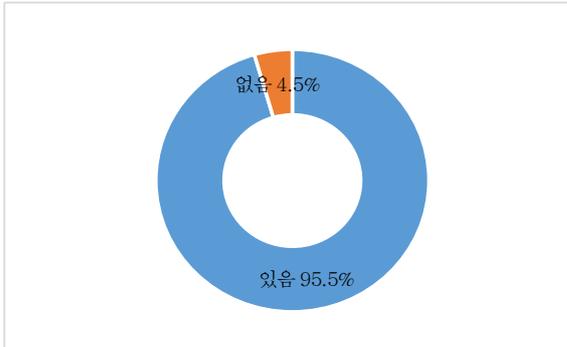
- 응답자의 수급 종류 (다중응답)는 생계 33.5%, 의료 31.7%, 주거 34.8%, 교육 0.0%로 나타났음.

<그림 4> 수급 종류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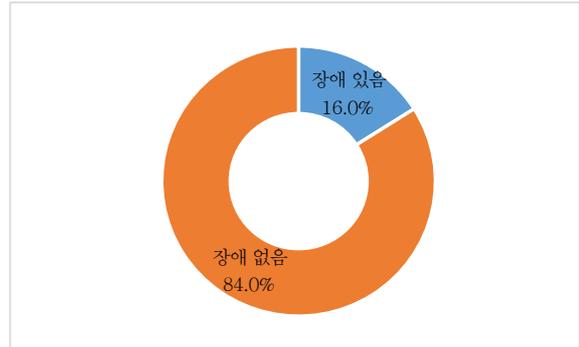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는 있음 95.5%, 없음 4.5%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장애 여부는 장애 있음 16.0%, 장애 없음 84.0%로 나타났다.

<그림 5>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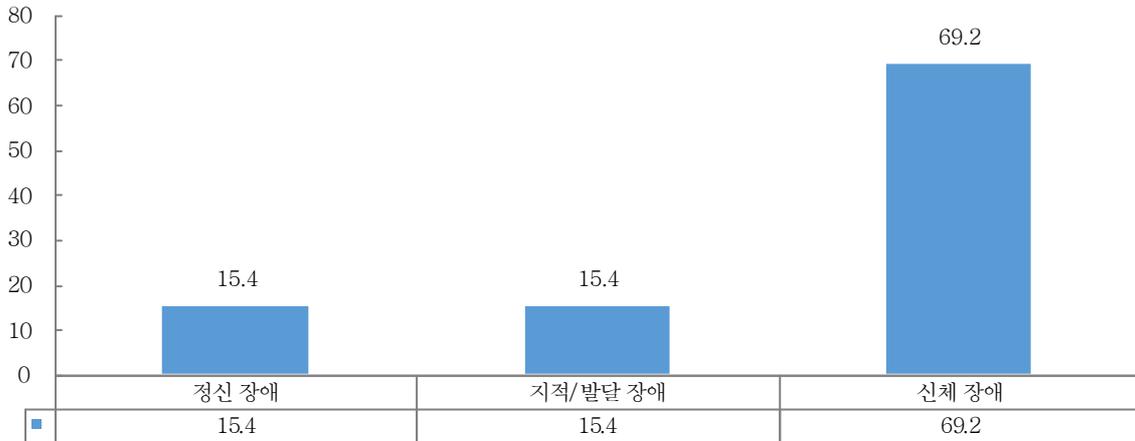


<그림 6> 장애 여부



- 응답자의 장애 유형 (다중응답)은 정신 장애 15.4%, 지적/발달 장애 15.4%, 신체 장애 69.2%로 나타났다.

<그림 7> 장애 유형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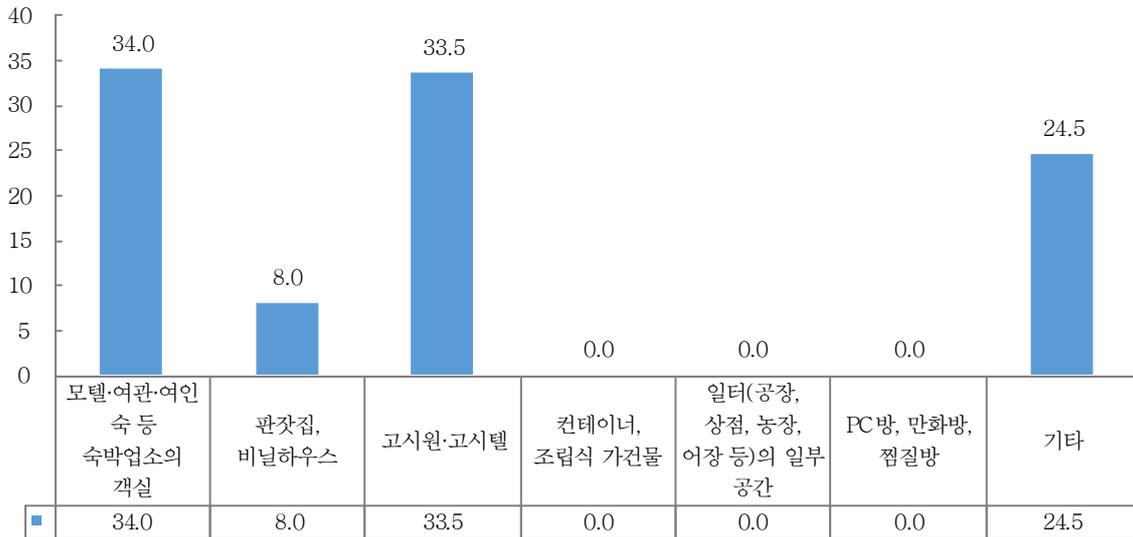


II. 거주 유형, 시기 및 이유

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시원·고시텔 33.5%, 기타 24.5%, 판잣집, 비닐하우스 8.0%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49건)의 세부내용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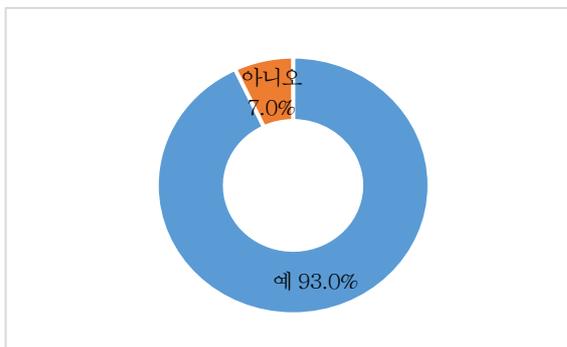
<그림 8>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2.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는 예 93.0%, 아니오 7.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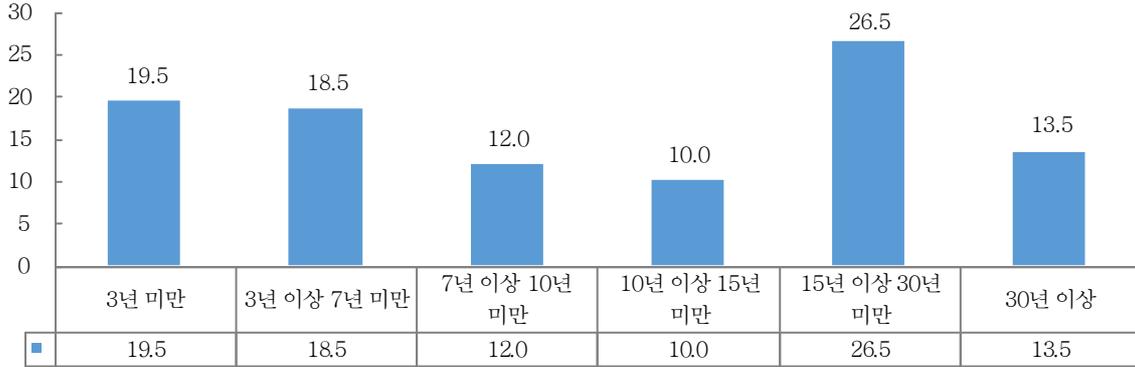
<그림 9>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3.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는 15년 이상 3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년 미만 19.5%, 3년 이상 7년 미만 18.5%, 30년 이상 13.5%, 7년 이상 10년 미만 1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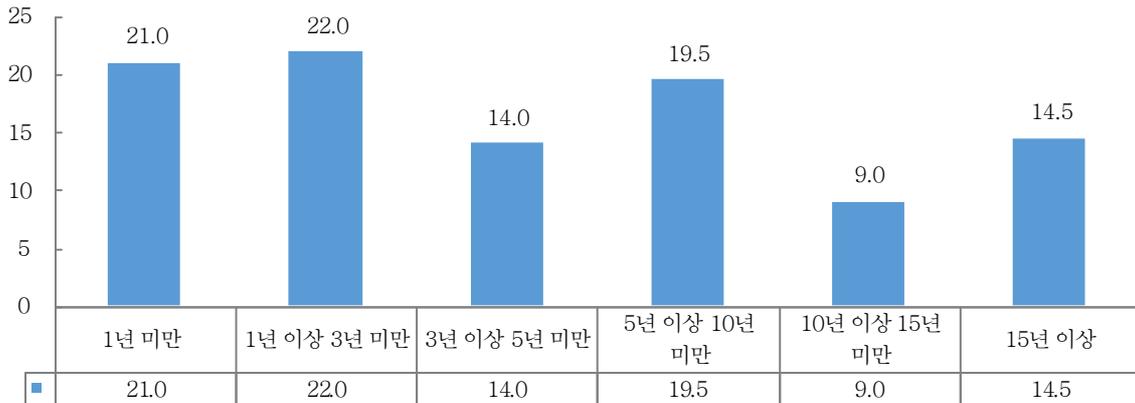
<그림 10>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4. 현재 거처 거주기간

- 현재 거처 거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미만 21.0%, 5년 이상 10년 미만 19.5%, 15년 이상 14.5%, 3년 이상 5년 미만 14.0%, 10년 이상 15년 미만 9.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1> 현재 거처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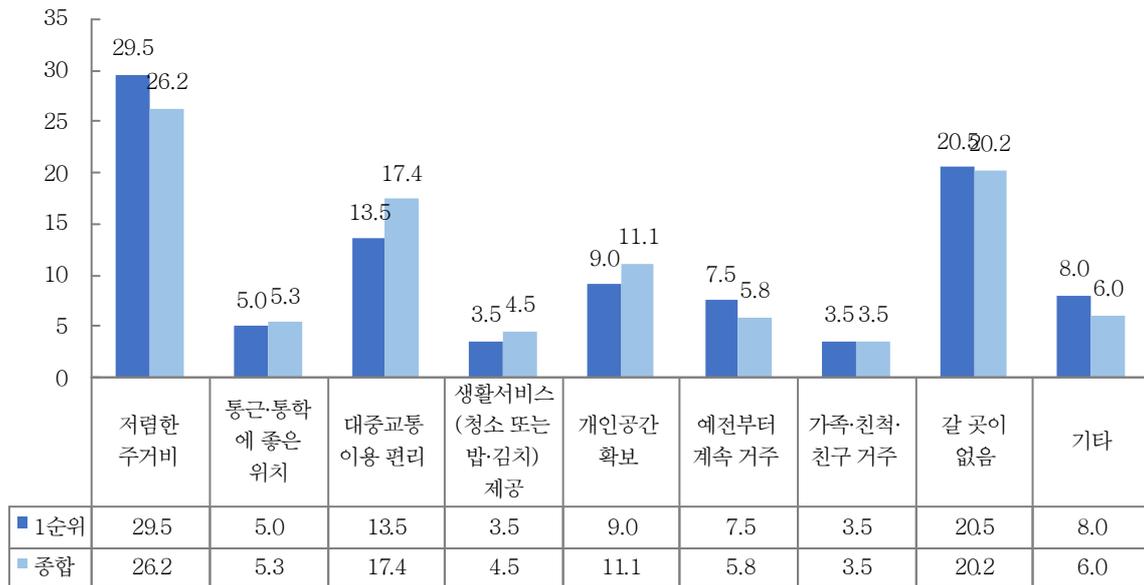
5.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은 평일 17.3시간, 주말 18.2시간으로 나타났음.

6.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음 20.5%, 대중교통 이용 편리 13.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 21.3%, 갈 곳이 없음 19.8%, 개인공간 확보 13.2%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97건)는 저렴한 주거비가 2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음 20.2%, 대중교통 이용 편리 17.4%, 개인공간 확보 11.1%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그림 12>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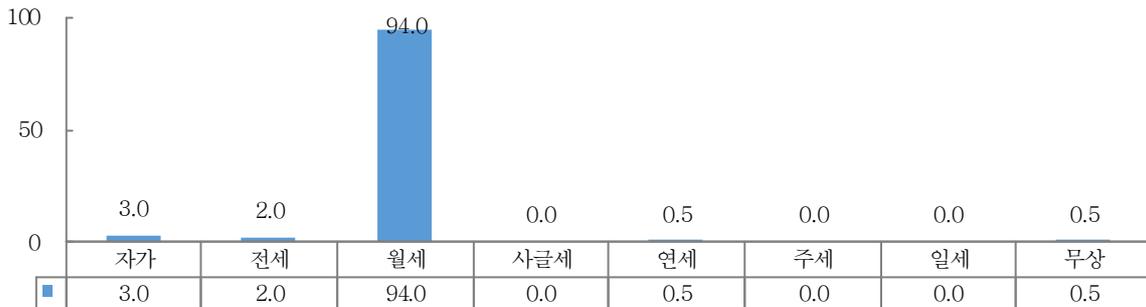


Ⅲ. 거주 비용

7. 현 거처 점유형태

○ 현 거처 점유형태는 월세 94.0%, 자가 3.0%, 전세 2.0%, 연세, 무상 각 0.5%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3> 현 거처 점유형태



8.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는 자가는 매입 가격 305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5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세는 보증금 338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2만원, 월세는 보증금 60만원, 월세 21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1만원, 연세는 연세 20만원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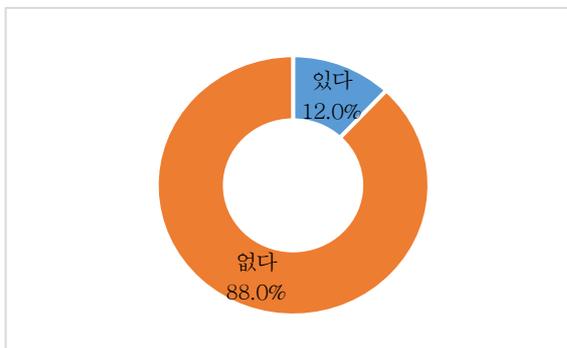
9.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는 있다 12.0%, 없다 88.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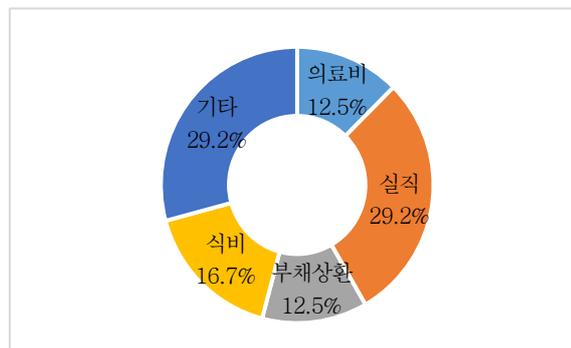
10. <세>를 연체한 이유

○ <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4명의 연체 이유는 실직, 기타가 각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비 16.7%, 의료비, 부채상환 각 12.5%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4>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그림 15> <세>를 연체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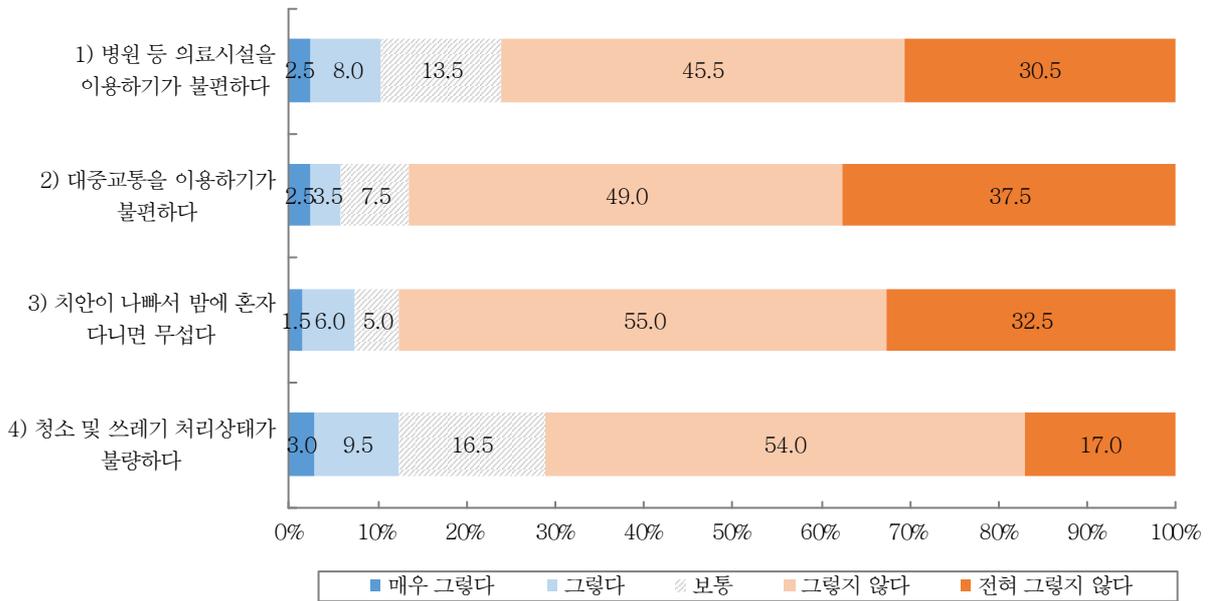


IV. 거주 환경

11. 동네 주거환경

- 동네 주거환경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 정도는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12.5%), 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10.5%), 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7.5%),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6.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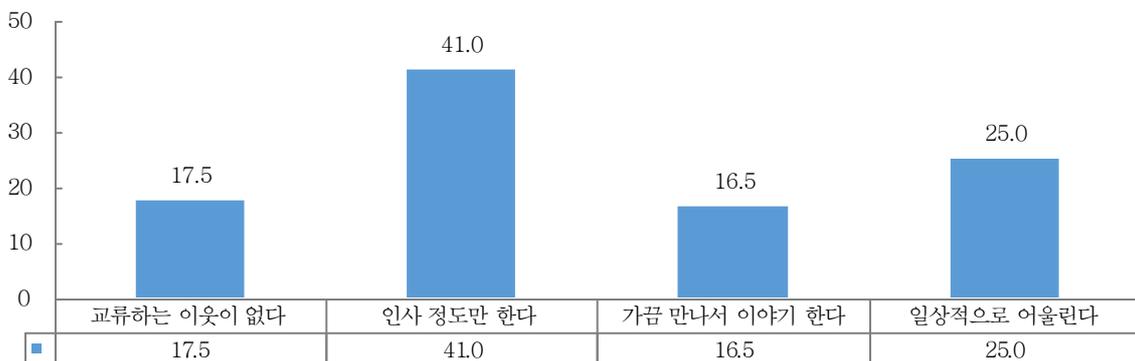
<그림 16> 동네 주거환경



12. 이웃과의 사회 관계

- 이웃과의 사회 관계는 인사 정도만 한다가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5.0%,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17.5%,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16.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이웃과의 사회 관계



13.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있다는 2) 정신적 괴롭힘(6.0%), 8)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4.0%), 1) 신체적 구타(2.0%), 4) 금품갈취(0.5%), 6) 특정 종교 강요(0.5%), 3) 성추행, 성폭행(0.0%), 5) 강제 노동(0.0%), 7) 감금(0.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8>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13_1.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13_2.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83.3%, 기타 16.7%로 나타났음.

13_3.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13_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13_5.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87.5%, 기타 12.5%로 나타났음.

V. 거주 공간

14. 현 거주지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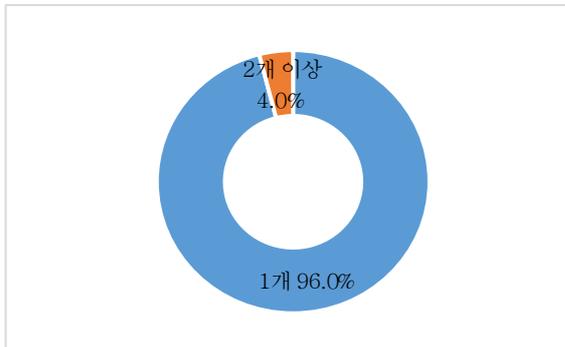
14_1.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는 1개 96.0%, 2개 이상 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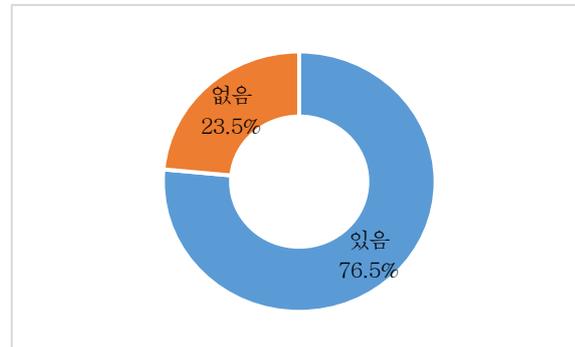
14_2.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는 있음 76.5%, 없음 23.5%로 나타났다.

<그림 19>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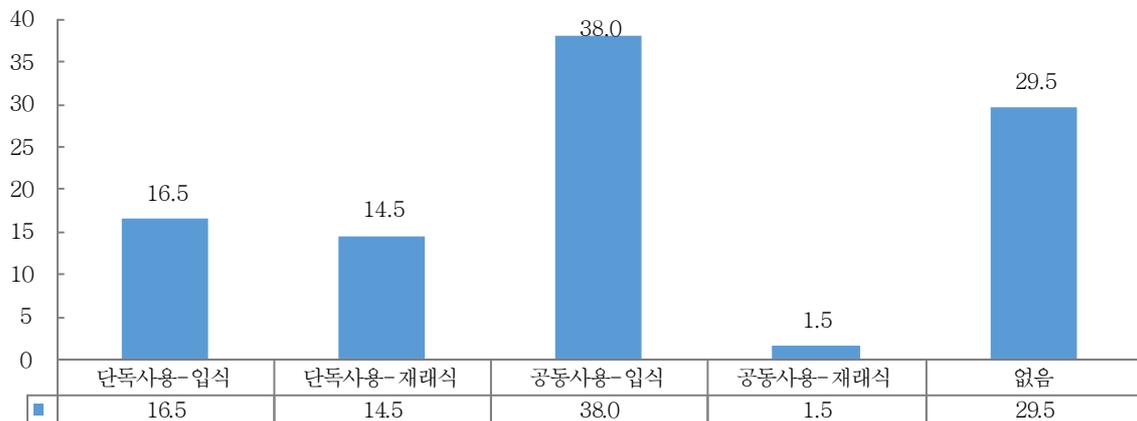
<그림 20>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14_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는 공동사용-입식이 3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없음 29.5%, 단독사용-입식 16.5%, 단독사용-재래식 14.5%, 공동사용-재래식 1.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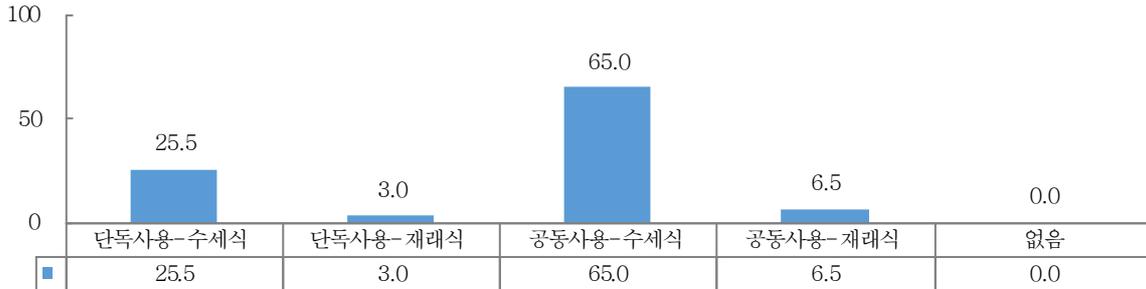
<그림 21>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14_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는 공동사용-수세식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사용-수세식 25.5%, 공동사용-재래식 6.5%, 단독사용-재래식 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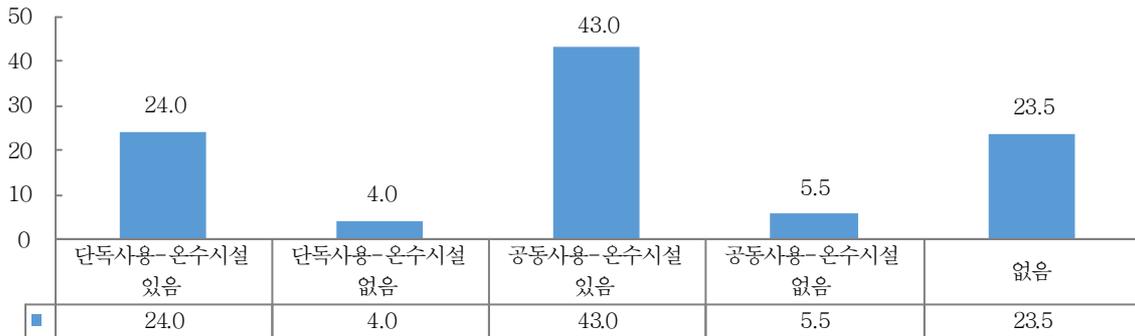
<그림 22>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14_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이 4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4.0%, 없음 23.5%,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5.5%,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4.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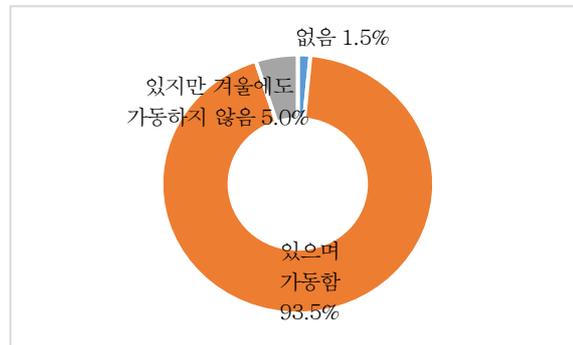
<그림 2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14_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는 없음 1.5%, 있으며 가동함 93.5%,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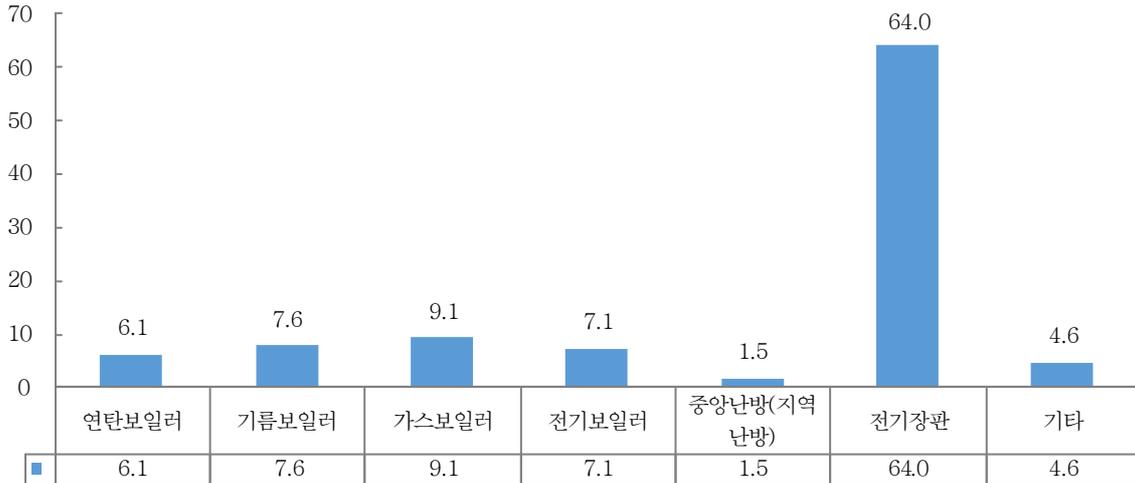
<그림 24>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14_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는 전기장판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스보일러 9.1%, 기름보일러 7.6%, 전기보일러 7.1%, 연탄보일러 6.1%, 기타 4.6%, 중앙난방(지역난방) 1.5%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9건)은 전기판넬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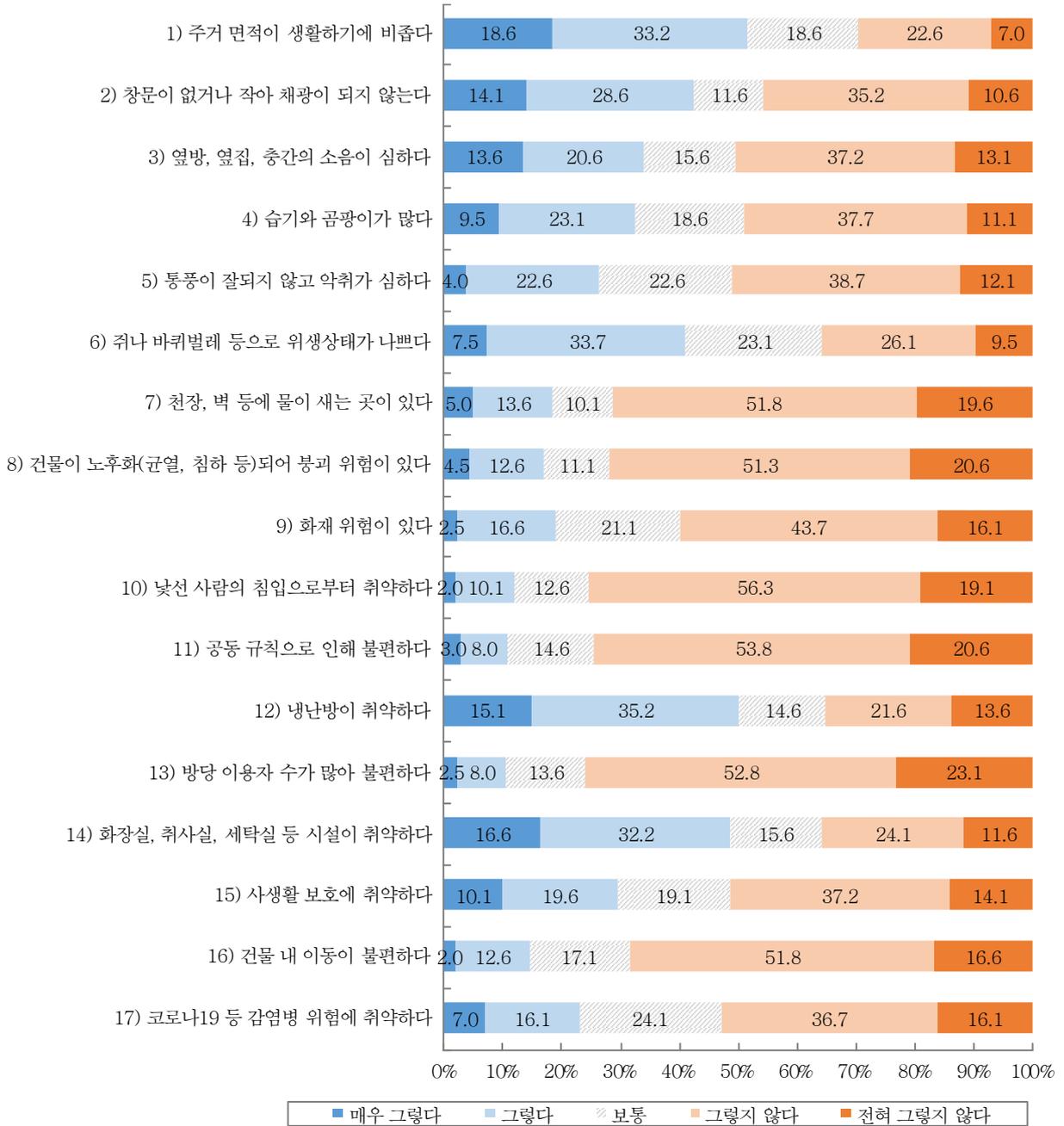
<그림 2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15. 현재 거처 상태

- 현재 거처 상태는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 정도는 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51.8%), 12) 냉난방이 취약하다(50.3%), 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48.7%),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42.7%),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41.2%), 3)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34.2%),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32.7%), 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29.6%), 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26.6%), 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23.1%), 9) 화재 위험이 있다(19.1%), 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18.6%), 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17.1%), 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14.6%), 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12.1%), 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11.1%), 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10.6%)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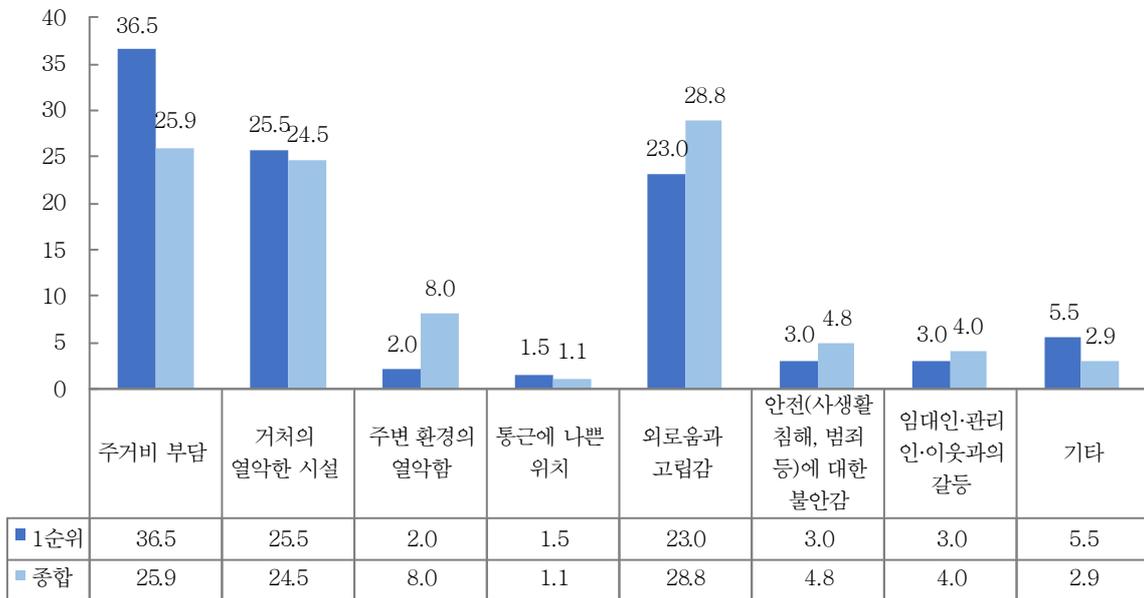
<그림 26> 현재 거처 상태



16.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1순위 응답은 주거비 부담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 25.5%, 외로움과 고립감 23.0%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2순위 응답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 23.4%, 주변 환경의 열악함 14.9%, 주거비 부담 13.7%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75건)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 25.9%, 거처의 열악한 시설 24.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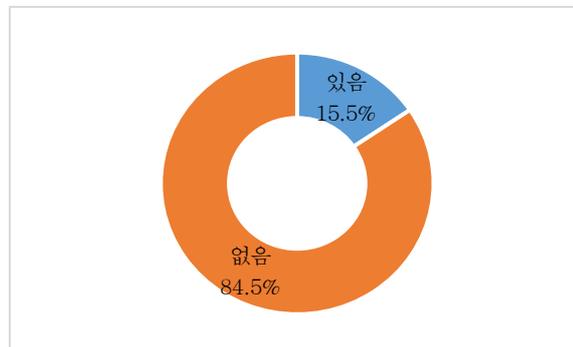
<그림 27>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17.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는 예 15.5%, 아니오 84.5%로 나타났음.

<그림 28>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17_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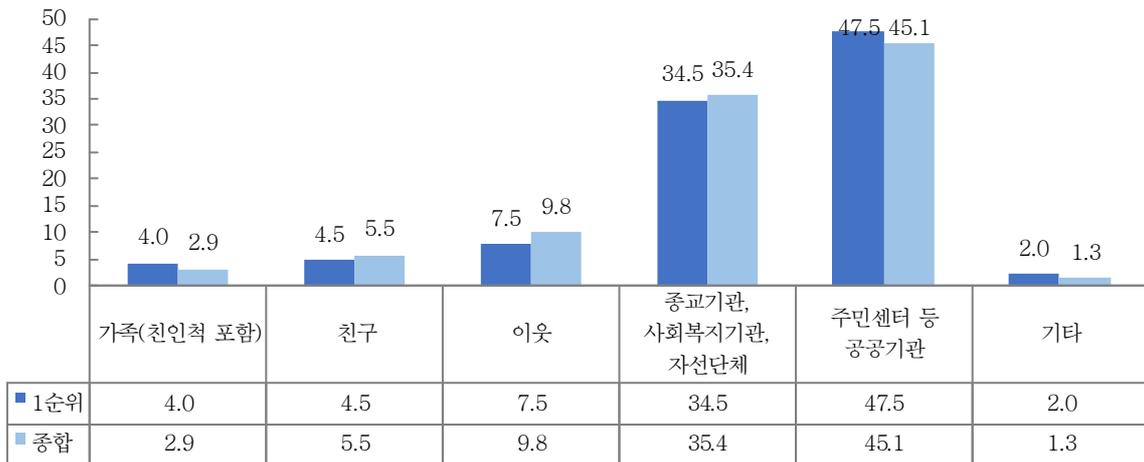
<표 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항목	응답 수
양동이 등을 동원하여 직접 물을 퍼냄	9
119 신고 및 출동	3
집 밖으로 대피함	3
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3
집주인한테 알리고, 집주인이 해결함	2
거주지 옮김	2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2
구청에 재해구호 요청	1
구청에서 지원금 수령	1
물을 구해 뿌리고 소화기 사용	1
자연스럽게 빠지고나서 뒷정리를 했다	1

18.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1순위 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7.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5%가 높게 나타났다.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2순위 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2.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3%가 높게 나타났다.
- 1, 2순위 종합결과(379건)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1%,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5.4%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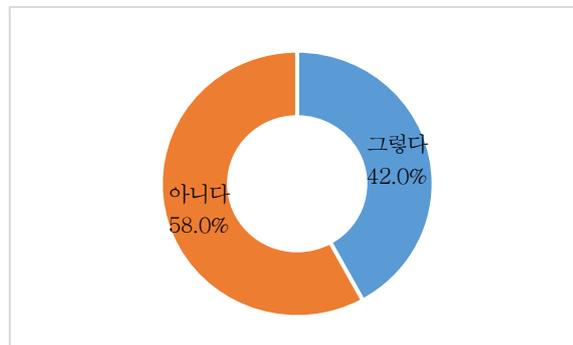


VI. 거주 지원과 욕구

1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은 그렇다 42.0%, 아니다 58.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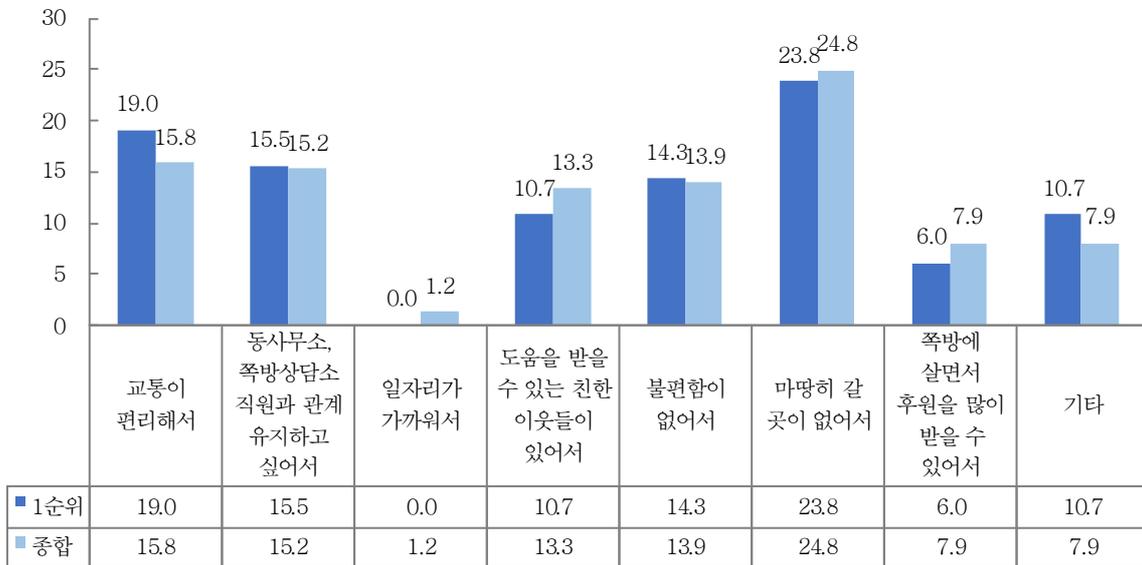
<그림 30>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20.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1순위 결과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19.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2순위 결과는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16.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4.8%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165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15.8%,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2%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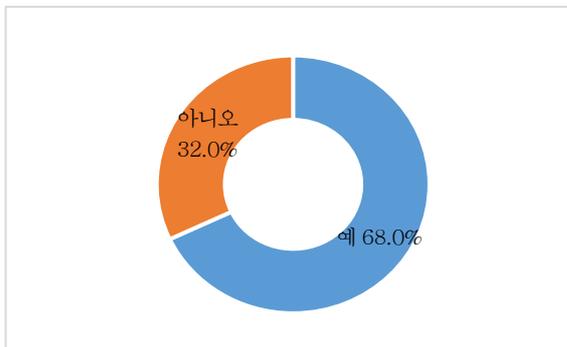
<그림 3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21.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는 예 68.0%, 아니오 32.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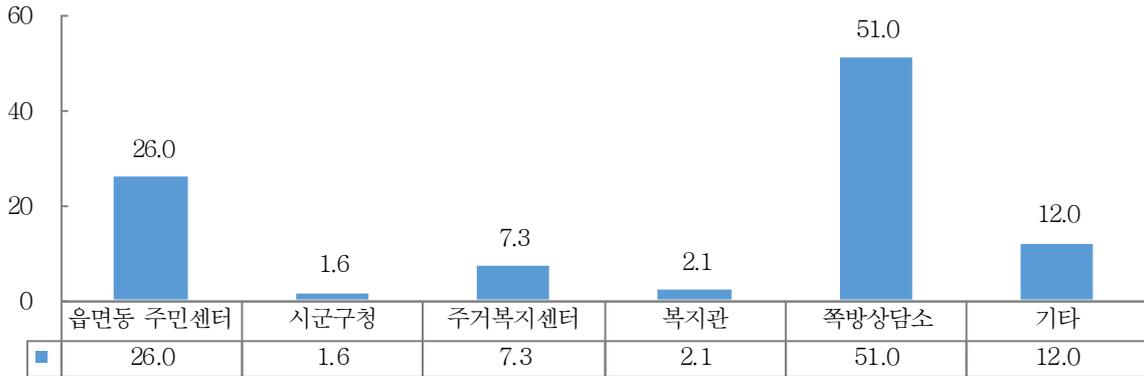
<그림 32>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22.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은 쪽방상담소가 5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26.0%, 기타 12.0%, 주거복지센터 7.3%, 복지관 2.1%, 시군구청 1.6%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 (23건)의 세부내용은 LH공사, 이웃, 가족 등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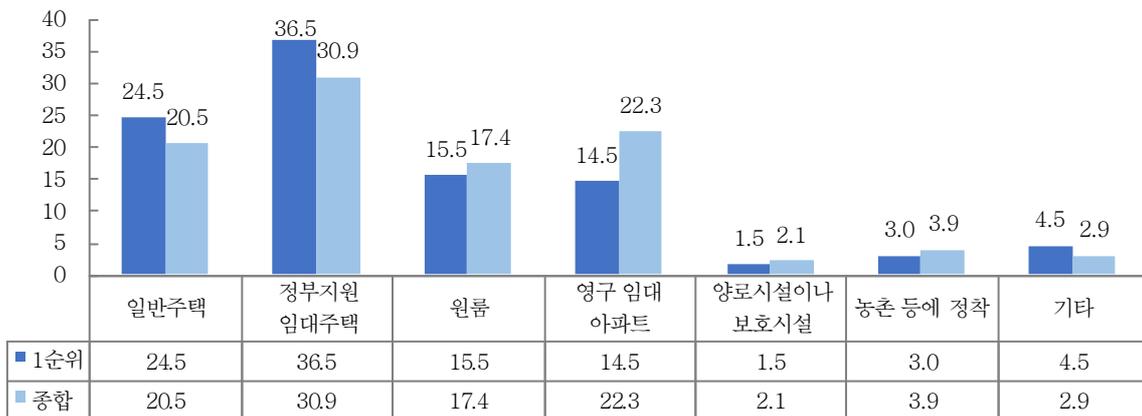
<그림 33>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23.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1순위 응답은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4.5%, 원룸 15.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2순위 응답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3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지원 임대주택 24.9%, 원룸 19.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85건)는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 22.3%,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0.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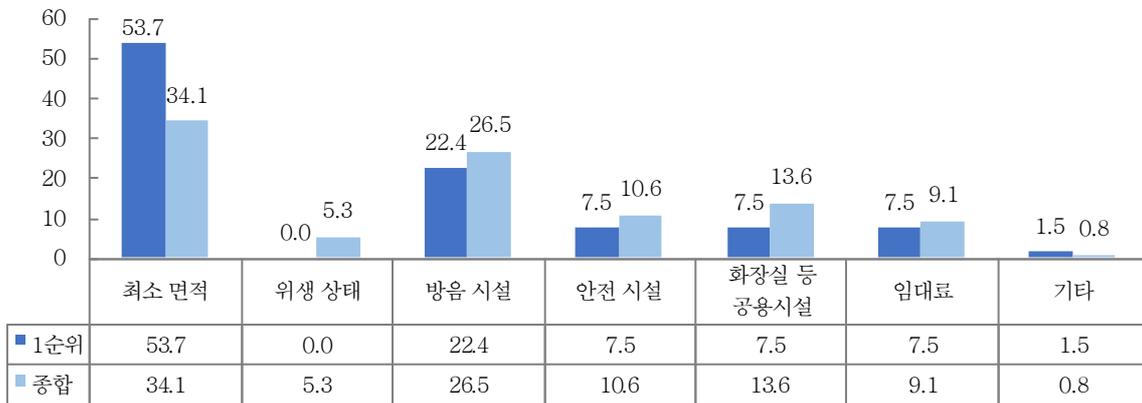
<그림 34>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24.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1순위 응답은 최소 면적이 5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 22.4%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2순위 응답은 방음 시설이 3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장실 등 공용시설 20.0%, 안전 시설, 최소 면적 각 13.8%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132건)는 최소 면적이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 26.5%, 화장실 등 공용시설 13.6%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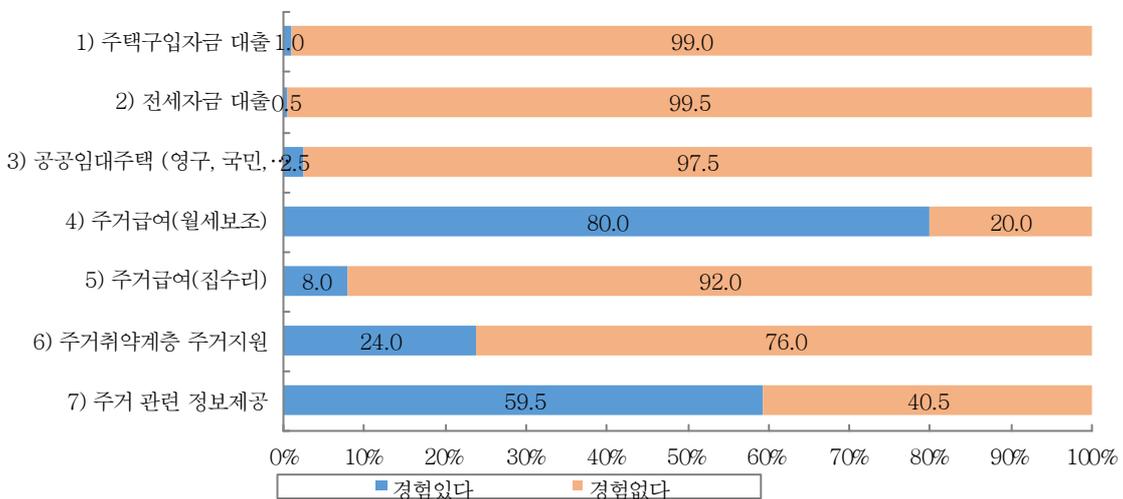
<그림 35>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2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해당 경험 있다는 4) 주거급여(월세보조)(8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59.5%),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24.0%), 5) 주거급여(집수리)(8.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2.5%), 1) 주택구입자금 대출(1.0%), 2) 전세자금 대출(0.5%)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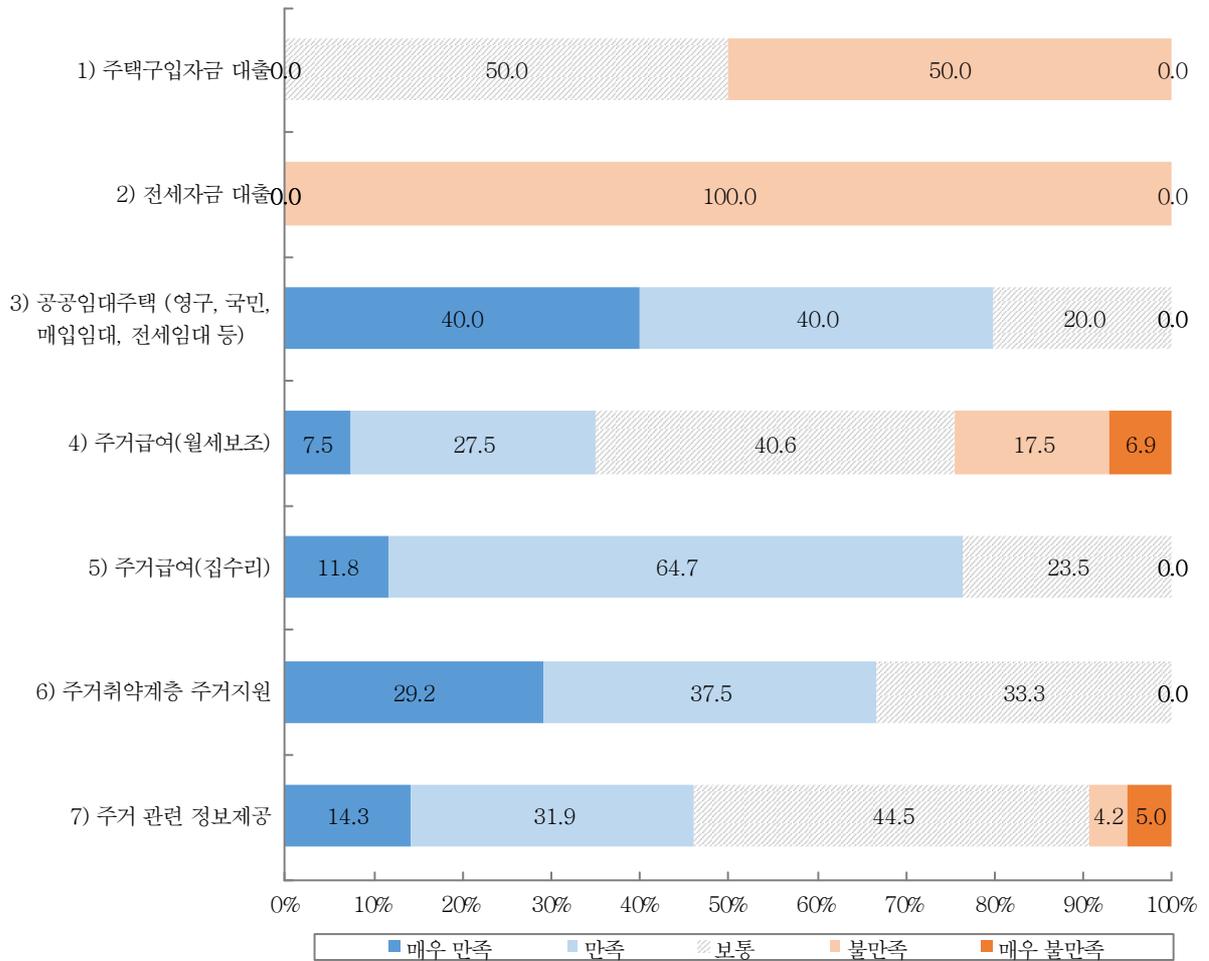
<그림 3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2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매우 만족+만족)’ 정도는 3) 공공임대주택(80.0%), 5) 주거급여(집수리)(76.5%),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66.7%), 7) 주거 관련 정보제공(46.2%), 4) 주거급여(월세보조)(35.0%), 1) 주택구입자금 대출(0.0%), 2) 전세자금 대출(0.0%), 8) 기타(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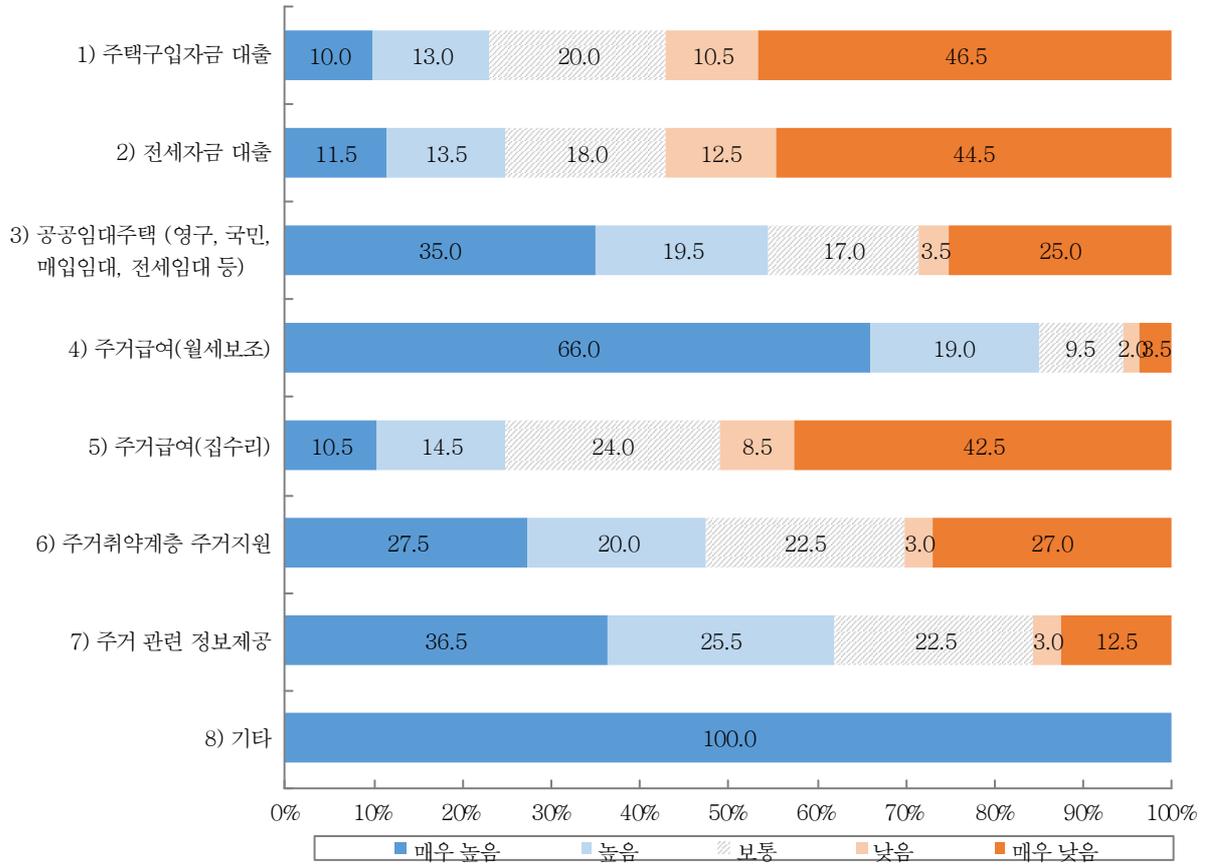
<그림 37>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27.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은 ‘높음(매우 높음+높음)’ 정도는 8) 기타(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85.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62.0%), 3) 공공임대주택(54.5%),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47.5%), 2) 전세자금 대출(25.0%), 5) 주거급여(집수리)(25.0%), 1) 주택구입자금 대출(2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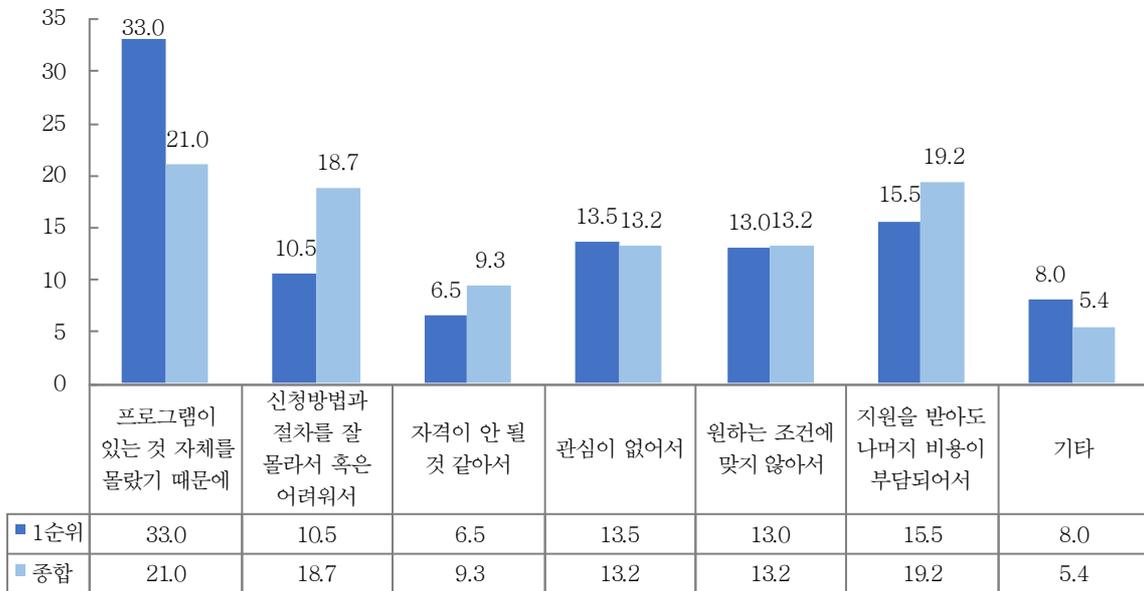
<그림 38>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28.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5.5%, 관심이 없어서 13.5%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가 2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3.1%,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13.4%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86건)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 2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9.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18.7% 순으로 주요하게 나타났음.

<그림 39>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29.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항목	응답수
주거급여 인상 및 지원 강화	11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9
방음시설 강화	8
위생상태 점검 및 관리	8
안전시설 강화	4
주거면적 확대	4
최소면적 확대	4

항목	응답수
월세 지원	3
공용시설 확대	2
LH원룸형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한다	1
LH전세임대 공급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1
가전제품등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원 연계가 필요	1
거주공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필요	1
공간이 협소하고 방음시설이 안돼서 여건이 좋아지면 나가고 싶다	1
공공예절에 대한 패널티	1
공공임대주택 증가	1
공동화장실 계단을 오르기가 어렵다	1
공동화장실 이용 불편(이동)	1
공용시설 기능강화	1
교통이 편리한 위치면 좋겠다	1
기초 수급비 상향지원 원함	1
내가 원하는 지역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1
내부(벽,천장 등)수리 필요	1
넓은 평수에 소음이 덜 한 곳에서 살고 싶다	1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이 없는 곳에 살도록 해주세요	1
방음시설 등 부대시설 확대	1
방충망설치	1
보일러기름지원	1
부대시설 강화	1
비용 부담없이 임대주택이나 원하는 생활형태로 살 수 있도록 지원 바람	1
사생활 보호기능 강화	1
사생활보호를 위한 방음장치	1
생활급여 상향지원	1
생활비지원	1
서민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1
소음·방음 등 사생활 보호기능 강화	1
수급비를 올려주시면 좋겠다	1
수급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가 힘들다	1
수리 신청하는 것이 수월했으면 좋겠다	1
싱크대 교체 원함	1
썩크대 고쳤으면 좋겠다	1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1
욕실과 화장실 따로 설치 (주거비용없이)	1
우울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1

항목	응답수
일을 하고 싶다	1
임대료 설정	1
임대료가 저렴하고 더 깨끗한 곳에 살고 싶다	1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위치가 평지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1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1
임대주택이 평지에 있으면 좋겠다	1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살고 싶다.	1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주거지가 필요함	1
전세자금대출 원함	1
좋은 집에 살고 싶다	1
주거복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1
주거비를 주인과 처리하고 본인한테는 생계비만 주는 것을 바란다	1
주거상향 조정부탁	1
주거상향시 집기류(TV, 세탁기 등) 지원연계가 필요함	1
주거생활 생활여건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1
주거이동시 비용지원 등 필요함	1
주거하는 곳을 편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1
주거환경 개선, 임대료 하향	1
주민센터에서 구입해서 주거비 지원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1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1
쪽방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 (철거 늦게 되길 원함)	1
쪽방이라도 철거 안 되고 계속 살고 싶고, 안 되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1
폐가 수리해서 임대해주는 정책 활성화	1
현 거주지에서 오래 살고 싶다 (재개발 안했으면 좋겠다)	1
화장실 개조	1
화장실이 너무 좁다	1
화장실 청결	1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1

제 3장

심층면접 결과



I.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 특성

○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및 인터뷰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 특성

순번	참여자	성별	연령	현 주거지 유형	현 주거지 거주기간	현 주거 비용	현 주거지 특징	바라는 바
1	A	여	44년생	주택	약 20년 (총50년)	자가	단독부엌·다락, 공동화장실 흡벽 허물어짐 침수·철거지역	집수리(흡벽) 현 주거지에서의 거주 지속
2	B	남	60년생	고시텔	약 8개월	월세 (23만원)	각층공용화장실·샤워기·주방 중앙집중식 난방 노숙(1년) 후 쪽방 거주	화재 예방 좀 더 큰 공간 귀농
3	C	남	74년생	주택	약 3개월	임대 (잘모름)	약 10년 쪽방 거주, 단독부엌	늦은 시간 소음 최소화
4	D	남	44년생	여인숙	약 12년	월세 (22만원)	약 12년 쪽방 거주,	좀더 큰 공간 (최소 2평 이상)
5	E	남	52년생	여인숙	약 5년	월세 (26만원)	거리 노숙 후 쪽방 거주	접근성 좋은 주거 상황 (정신건강·여가시설 접근성)
6	F	남	56년생	여관	약 3년	월세 (27만원)	최근 2만원 월세 인상	화재예방 섬으로 이주
7	G	남	53년생	여인숙	약 4년	월세 (19만원)	약 3년 소란스런 이웃	화재예방 현거주지에서의 주거 상황
8	H	남	95년생	고시원	약11개월	월세 (21만원)	주거급여 17만원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황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9	I	여	59년생	주택	약 10년	월세 (10만원)	겨울 수도관 얼음	겨울철 물 공급 접근성 좋은 주거 상황 (주택 선호)
10	J	남	52년생	주택	약 4년	보증금 (200만원) 월세 (16만원)	단층 연립(고시텔 개량형) 단독 부엌·화장실(샤워) 단독 검침기	화재 예방 좀더 큰 공간

II. 주거지에서의 관계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

1. 가구 구성과 가구주 특성

- 참여자 10명 모두, 1인 1가구 형태이며, 9명이 50대 이상이며, 1명이 20대 중후반이었음.
- “예, 저 혼자 삽니다 ... 내년이면 아흔이네요.” (참여자 A)
 - “지금 사람 하나 건사도 안 되는데, 반려견까지는 생각 못하는 거죠. ... 60년생이에요” (참여자 B)
 - “내년에는 50입니다 ... 대부분 혼자다보니” (참여자 C)
 - “44년생입니다” (참여자 D)
 - “혼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면 꼭 보호자를 찾아요.” (참여자 E)
 - “스물여덟... 이제 혼자서” (참여자 H)
 - “이제 64, ... 혼자만 있어” (참여자 I)
 - “(혼자 사시는 곳인가요) 네, 그렇죠 ... 52년생입니다” (참여자 J)

2. 수급현황과 경제활동 여부

- 참여자 10명 모두 주거급여 17~23만원 정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음. 이외 기초생활급여, 긴급생계급여, 의료급여, 공과금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음. 참여자는 질병 및 고령으로 인해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간간히 한시적인 공공근로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정기적이며 낮은 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 중이었음.
- “수급되기 전까지 내가 (일을) 했지... 회사는 이제 늙어서 못가니깐 ... (병원) 가면 1,500원 주고 약값도 500원 주고 ... 전기세가 감면이 되니까” (참여자 A)
- “시에서 나오는, 나라에서 나오는 주거비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보장, ... 몸도 불편해서 안 되고, 수급 받으면 (일)그런 거 일절 못 하게 하더라고요. 저번에 구청에서 ... ” (참여자 B)
- “국가에서 혜택을 보니까, (전기세) 혜택이 한 70% 보니까 ...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일할 데가 없고 ...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일할 능력도 안 되고” (참여자 C)
- “수급비 몇 푼씩 나오는 거 하고 노령연금이 30만원씩 나옵니다 ...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죠.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핑계로 해서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참여자 D)
- “수급자라고, ... (수급비) 그거 나오는 걸로, 주거비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다 ... 수급받기 전에 ... 몇 개월 (일)하다가 뇌경색이 와서, 치료받고, ... 수급 신청해서 ... 그래서 (일) 못하고 ... 의료비도 혜택을 보는 거죠” (참여자 E)
- “국민건강...1종...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뽀뽀한데” (참여자 G)
- “주거지 비용이 20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비 27만원이고 ... 거기서 주거비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참여자 F)
- “생계비는 긴급 생계비만 전에 받았었고 지금 받는 건 주거급여 밖에 ... (긴급 생계비) 그거 딱 받았어요. 초반에 좀 받았고 ... 면접을 보면 안 되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상하차를 해서 막노동을 하려고 하면 무릎 수술한 게 있어서” (참여자 H)
- “수급자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돈에 쪼달리고 ... 공공근로라도 좀 하면 안 되냐 하니깐, ‘그 돈 갖고 아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참여자 I)
- “(주거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받는 게 총 70만 원인가 ... 그리고 이것도 이것저것 합치면, 수도세 ... 전기세가 같은 ...” (참여자 J)

Ⅲ. 주거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

3. 거처유형과 거주 여건: 여인숙/여관, 고시원/텔, 일반주택, 기타

- 참여자 10명의 거처유형은 여인숙/여관 4명, 고시원/텔 2명, 일반주택 4명(다가구 3명, 단독 1명) 임. 여인숙/여관의 경우 방 안에서 보온밥통으로 취사하고 공동 화장실/샤워실/세탁기를 사용함. 고시원/텔의 경우 간단한 공동 취사실/화장실/샤워기/세탁기를 사용함. 일반주택의 경우 방1, 부엌 1, 화장실 개별 또는 공동, 세면실은 부엌 또는 화장실에 간이 호스 내지 샤워기를 달아 사용함.
- “... 옛날에 일본 사람들, 소 마구간이라는 했던 동네입니다. 다닥다닥 붙어가, ... 근데 피난민이 내려와 집을 뜯어 고침, 스투트 치고, 붉은 벽을 쌓고 ... 집은 ... 부엌을 짓고, ... 4평짜리 집이고, 다락이 있고, ... (화장실 변기는) 앉아서 하는 ... 다리가 불편한 할매들이 ... 공동변소를 고쳐서 ...” (참여자 A) (참여자 A)
- “(주거가) 쪽방, 고시원”(참여자 B)

- “일반주택인데, 옛날 건물, ... 2층까지 해서, 4가구인데,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옛날 건물, ... 양 쪽으로 2가구, 2가구 ... 한 공간 안에 4가구가 살죠 ... 전부 남자” (참여자 C)
- “3층 건물인데요. 2층에 방이 몇 개 있고, 3층에 몇 개 있고 그런 곳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없는 사람들이 집세만 내고 방세만 내고 들어와서 사는 데입니다. 여인숙이었는데, 지금은 여인숙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 임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에 화장실이 있고, 3층에 보면 씻고 간단히 샤워할 수 있고, ... 지금 사는 데가 한 평 반인가, 말도 못하게 비좁습니다 ... 세탁기가 옥상에 있어요.”(참여자 D)
- “여관으로 되어 있던 건데, 그냥 들어가서 보증금 없이 사는 거지, 세만 주고, 다달이 26만원” (참여자 E)
- “고시텔인데,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다 여관으로 붙어 있는데 ... (방안에) 화장실은 있어 ... (부엌은) 없고” (참여자 F)
- “여인숙입니다. (방 하나에, 방 안에 화장실이나 부엌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고 ... (방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방)안에서 밥 하고 반찬은 뭐 그냥 사 갖고 먹고, (냉장고도)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밥을 할 때는) 보온밥통 ... (찌개) 그거는 한 번씩 버너에다 ... 국 같은 거 먹고 싶으면 한 번씩 끓여 먹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 먹습니다, 그냥 밥만 먹지. ... (세수하고 머리감는 것은) 공동 세면장, 화장실하고 세면장, 거기서 그릇 씻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지 ... (여인숙) 거기도 사람이 없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러니까, 3층에 2명, 2층에 2명, 이것밖에 없어, 주인하고 같이 3층에는 ... (만약 예전처럼) 단체로 (여럿이 많이) 다 있으면 화장실 쓰기가 좀 불편하지, 지금 두 명이 있어 좀 괜찮은데, 사람 또 많이 (들어)오면 또 복잡하지 ... (방은) 1~2평 됩니다. 이불, 자는데 깔판, 이불 요만큼” (참여자 G)
- “근데 제가 사는 건 고시원이고 ... 1평에서 조금 더 큰 ... (옷을) 걸 수 있긴 한데 조그맣게, 걸 수 있는 데 있고 ... 근데 냉장고를 좀 그 안에서 몇 개가 있어도 주인 주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그냥 다 공동으로 ... (고시원은 한 층으로만 되어) 한 서른명, 스물 다섯명 ... (월세가) 21만 원이어요. ... 주거급여는 17만 원 쯤 받고 ” (참여자 H)
- “주택, 방 하나 부엌 하나 ... 전세금 100만 원 걸고 달세 10만 원 준다 ... ” (참여자 I)
- “방 하나에다가, 부엌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 옆방도 그렇게 생기고, ... 연립처럼, 여러 개로 ... 그냥 방마다 ... 1층으로 ... 다섯 가구 ... 주인이 단층짜리 큰 거를 사서, 칸을 딱딱 나눈 것 같아요.” (참여자 J)

4. 거주기간과 거주 이유

- 현 주거지 거주기간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0년 정도이며, 거주 이유는 질병·실직·가출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어, 쪽방상담소 내지 지인 소개 또는 전단지 보고 현 주거지에 거주하게 됨.
 - “그래 아마 20년 가까이 되는 거” (참여자 A)
 - "8개월 가까이 됩니다 ... 소망관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소개해 줘서. 그리고 여기 선생님 소개 받고" (참여자 B)
 - “한 3개월 ... 그때, 몇 년, 여인숙에, 몇 년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줘 가지고” (참여자 C)
 - “처음에는 2011년도인가, 그때 들어와 가지고, ○○동에서, 가게를 했었습니다. ... 다 말아먹고 ... 전포동에 사람 재우는 데가 있데요, 거기서 한 2~3개월 있다가, 근데 여기가 전에는 진역에 있었거든요. 이 사무실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줘서, 그 집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여자 D)
 - “지금 제가에 있는 데는 (상담소) 여기서 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들어간 거지, ... 방을

그 전에는 몰랐었고, 노숙할 적에 소망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 그 옆에 있었거든, 보면 월세방, 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달방을 조금 알고 있었지, 거기들, 그래서 간 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E)

- “12월부터 작년(2021년) ...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동네에서 ... 한 2~3주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노숙하고 있는데, 희망등대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 노숙자들 찾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하고, 이런 곳이 있다. 가자 해서, 그때는 이게 뭐가,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 겁나긴 하는데, 약간, 노숙 같은 거, 진짜 아예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 힘들었을 때거든요. 배도 너무 고프고 춥고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 갔고, 희망등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도움 받아서, 12월에서 갑자기 여기 자리가 났다 해서, 그래서 받고 나온 건데 ... 솔직히 만약에 (희망등대 직원을) 못 만났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 반바지 긴팔 한 개,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10월이다 보니까, 그때가 9월, 10월이었거든요. (노숙하고) 있었을 때가. 못 만났으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지. 걱정이죠.” (참여자 H)
- “내가 돌아다녔어 ... (주거비용) 거기에 이 계약서를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5. 거처의 시설 상태: 면적, 부엌/화장실/목욕시설/난방시설, 단독/공동사용

- 면적: 여인숙/여관/고시원/고시텔의 경우 1~1.5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고시원/텔의 경우 침대와 수납장 등 가구가 고정되어 있어 키가 큰 사람의 경우 다리를 펴기 힘들 정도이며, 다가구의 경우 화장실에 샤워기를 이용하기 위해 몸을 돌리기 힘들 정도라고 함.
 - “(방 크기) 그게 얼마 안돼, 조금만 해, 혼자 있기도 딱 맞아 ... 부엌도 적고 혼자 딱, 딱 ... 가스 레인지하고” (참여자 I)
 -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의자 있으면 ... (옷 보관은) 행거 같은 걸로 ... 목욕탕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거라, 불편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냐 하지만, 나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니까 ... (화장실 공간이) 크지는 않지, 사람이 이렇게 딱 서서, ...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팔이 닿을 정도라” (참여자 J)
- 연료: 일반주택의 경우 LPG가스로 취사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함. 1명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함.
 - “(LPG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씹니다” (참여자 A)
 - “그냥 일반 가스(LPG)” (참여자 C)
 - “주택에는 통(LPG)으로 써 ... 기름 보일러로 쓰고” (참여자 I)
 - “도시가스”(참여자 J)
- 부엌: 여인숙/여관의 경우 공동취사실이 없고 방 안에서 간이취사도구를 사용함. 고시원/텔의 경우 간단하게 취사도구를 갖춘 공동취사실이 있다고 함. 주택의 경우 방안에 싱크대가 있거나 당초 부엌이 없었는데 한쪽 구석에 부엌을 지었다고 함. 고시텔의 경우 기본적인 식자재 및 기자재가 제공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등으로 주거 이전할 경우 이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함.
 - “집은 (없던) 부엌을 짓고, ... 4평짜리 집이고, 다락이 있고” (참여자 A)
 - “살림도구는, 별로, 안에 주방 시설도 있으니까, 싱크대 다, 그거 다 놓아져 있고” (참여자 C)
 -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고시텔에서는 기본적인 김치하고 밥 있잖아요. 밥술에 밥은 항상 제공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스렌지하고 주방이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자기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 ” (참여자 B)

- “(여인숙 형태라 부엌은) 없어요. (식사는 방 안에서) 그냥 해 먹고 그릇 같은 거는 그냥 (방 안의) 화장실에서 씻고 그러는 거야” (참여자 E)
 - “(부엌은) 없고, (방) 안에서 그냥 가스레인지, (냉장고는) 있습니다” (참여자 F)
 - “... 크게 주방이 있어 가지고 ... 김치랑 밥은 고시원은 대부분 다 김치랑 밥은 다 제공 해주니까 ... 근데 무한이긴 한데 확실히 무한이다 보니까 질은 떨어지죠. 엄청 싼 김치랑, 쌀도 엄청 싼 쌀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주는 걸로 만족하죠. 솔직히” (참여자 H)
- 화장실/목욕시설: 여인숙/여관의 경우 방안에 샤워기가 달린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경우가 있음.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공동 화장실과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며, 화장실 변기 개수와 샤워기 개수가 부족한 편임. 주택의 경우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이 방안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동네 목욕탕을 이용함. 수세식 변기인 경우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거주민은 관절이 좋지 않아 다리가 매우 아프다고 함.
- “화장실은 공동 ... (공동주택) 건물 안에 있는데 공동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참여자 C)
 - “...(방안에 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참여자 E)
 - “... 샤워하는 곳이 두 곳 있긴 한데, 그런데 크게 밀리지 않아요. (샤워기가 있는) 샤워실이 두 개가 있어요. ... 화장실은 근데 있긴 한데 한 곳 두 곳 ... 화장실은 한 개인데, 화장실 안에 변기가 한 개라고 보면 돼서,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화장실은 다 작게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 제가 있는 곳은 4층 1개밖에 없어서” (참여자 H)
 - “아니, 그전에는 사람 수가 많았는데, 다 이사 가고, 우리 혼자만 있어, 그래 갖고 원래 옛날부터 화장실이 두 개라, 공동으로 쓰니까, 근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는 안 쓰고 하나만, 화장실 사용하지 ... 완전히 폭 앓는 수세식 ... 앓아 있으면 다리 좀 아프지 ... 자다 ... 집에서 내려가려면 계단이 좀 있어 화장실 쪽 가려면”
 - “(씻는 것은) 화장실에서, 샤워기가 달려서” (참여자 I)
- 세탁: 여인숙/여관, 고시원/텔의 경우 공동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함. 주택의 경우도 공동세탁기를 두고 있거나, 쪽방상담소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손세탁하여 옥상에 널거나 숙웃 정도는 방안에 널어 말린다고 함. 세탁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 세탁기만큼은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함.
- “세탁기는, 요즘에는, (상담소) 여기 운영을 잘 안 하니까, 여기 올 일이 잘 없고, 세탁기는 공동으로 (공동주택) 그 밑에만 쓰는 세탁기 한 대 딱 있고 ... (개인적으로 산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 (참여자 C)
 - “아무리 가진 거 없이 살아도, 세탁기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면” (참여자 D)
 - “세탁은, 옥상에 보면, 세탁기가 있어요. 샷시로, 가건물이라고 그러는데 ... 거기서 해서 그냥 옥상에서 널어서 ... 세탁은 주로 내가 손으로 하고, 거기 세탁기 있거든요. 단체로 하는 세탁기가 있는데, 나는 뭐 세탁기 사용할 줄도 모르고, 특별히 옷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재 간단히 풀어 가지고 제가 손수 빨아 ... 널려고 하면, 밖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널면 되는데, 그거 남이 보면 (좀 그래서), 씻으면, (방 안) 문고리에 딱 걸어 놓으면 다 마르더라고요” (참여자 E)
 - “세탁기, 이런 세탁기 하나 있으니까, (말리는 데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2층 위에 보면, 빨래터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 햇빛 들고 하는 빨래터” (참여자 G)
 - “(세탁기) 한 개 있어요.”(참여자 H)
 - “(세탁은 상담소에 들고 와서) 많이 하지요. ... 쇼핑백 큰데다가, 담아가, (상담소) 여기서 한 시간 돌리면 (탈수된 걸 집에 가져가 널고) ... 그 외 조그마한 건 내가 빨아 입고” (참여자 J)

6. 여름철과 겨울철의 어려운 점: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여부 및 유지가 어려운 이유

- 겨울 난방시설: 주택의 경우 LPG 혹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지만 가스비가 부담스러워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고시텔의 경우 중앙식 난방기가 있으며 전기장판을 사용함. 여인숙의 경우 전기판넬로 되어 있으나 노후화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장판을 사용한다고 함. 이처럼 전기장판 이외의 난방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건물 외벽과 창문이 노후되어 윗풍이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잠자리가 외벽에 밀착되어 심지어 외벽과 창문을 접하고 있는 신체 부위만 심하게 추위를 체감하기도 한다고 함.
 - “없어요. 전기장판 말고는 ... 어떨 때는 많이 쓰면 (전기세) 2~3만 원 되고 ... ” (참여자 A)
 - “전기장판 ... 그냥 뭐 난방 시설이 조금 안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크게는 아니고, 뭐 난방시설이 조금, 적게 부족한 거 그거 단점 하나 하고” (참여자 C)
 - “(난방)시설은 보니까 판넬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여자 D)
 - “처음에는 밑에, (전기)판넬을 해놨는데, 다 방에 판넬을 해놨는데, (전기)판넬이 따뜻하려면 밑에 얇게 깔아야 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판넬 그건 다 꺼버리고, 이제 (전기)판넬 위에 두툼하게 깔아 갖고 (그) 위에 전기장판 ... 밑에 이 정도 깔고, 전기장판도 (상당소) 여기서 주는 거, 이만한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안 주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몇 명만 주는, 우리 담당자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전기장판까지 이 정도 두꺼운 거 주더군요. 그거 깔고 자니까 훨씬 더 ... 윗풍은 있지, 크게는 안 추운데, 한쪽에 있어서, 왼쪽이 역수로 춥지. (왼쪽이 추운 이유가) 잠을, 여기 창문이, 여기에서 자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텔레비, 냉장고 이게 있으니까, 반대 방향 쪽, 문이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요쪽 편에 있으니까, 사람이 텔레비를 보려 해도 왼쪽으로 누워서, 이쪽으로 있어야 하니까, 윗풍이 세니까, 밖은, 옆이 벽이단 말이에요 ...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도, 오래 되니까는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여자 G)
 - “전기장판 좀 쓰다가 우리 집은 겨울철에는 좀 추워, 여름철에는 덥고 ... 기름 보일러 틀어도 ... 그 손 따뜻하게 하는 거(온풍기) ... 좀 쓰고 그래요 ” (참여자 I)
 - “도시가스 ... 가스비도 ... 반인가 나오고 ...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비도 많이 나올 때는 1만원, 안 나오면 8천원, 6천 원 ... 전기장판 있죠, 따로, 침대 밑에 장판을 깔아서 조금 틀어 놓으면 바닥은 따뜻하고” (참여자 J)
- 여름 냉방시설: 고시원/텔의 경우 중앙식 냉방기를 사용하며, 여인숙의 경우 개별 냉방기를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추가 요금을 내고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개별 냉방기가 있지만 전기세가 비싸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서늘한 곳을 찾아가거나 선풍기를 사용한다고 함.
 - “더울 때는 서늘한 집 찾아다니다, 밖에 가서, 그 ○○아파트가 시원하거든요. 거기 앉아 있고 또 (복지관 또는 문화센터) 공부하러 가니까 거기 가면 또 시원하고, ... 안 할 때 ... 나가 밖에 앉아 있고 ... 여름에 전기세가 겁나서 ... (전기세) 2~3만원, 너무 아껴 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모자르면 안 되니까요. ... ” (참여자 A)
 - “에어컨은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선풍기가 좀 쓰고” (참여자 C)
 - “에어컨은 없어요. 선풍기(를 사용하죠)” (참여자 E)
 - “여름에는 더우니까, 내가 에어컨을 하나 달아놨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못 쓰고, 저녁에만 (집에) 들어가, 여름에는 맨날 나간다니까, 돌아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러는데,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가고 ... (에어컨은) 사장이 (설치)하는데, 내가 돈 10만원 주고 설치했는데, 왜냐면 여인숙에 전기세 많이 나는데, 누가 그 에어컨을 달

- 아 좁니까, 여인숙 같은 데는 아예 에어컨이라는 게 없습니다 ... 여름에는 내가 조금 1~2만 원 더 주지” (참여자 G)
- “여름에는 엄청 너무 더웠는데, 선풍기가 있어서, 뭔가 제공을 해주긴 했는데, 여름에 엄청 더운데, 겨울은 솔직히 그렇게 딱, 지금 겨울에는 솔직히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그런 거 없어서 ... (중앙식 에어컨은) 켜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계속 틀지 않으니까” (참여자 H)
 - “여름철에 에어컨, 에어컨도 별로, 없지, 더울 때는 한 번, 자주 틀면 안 좋잖아요. 선풍기 좀 많이 트는 편이고” (참여자 I)
 - “(에어컨)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 깎아주는 것도 비해서, ... 내가 많이 쓰면, ... 그런데 크게 그리 답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 선풍기가 있고요. 요만한 거” (참여자 J)

7. 현재 거처의 물리적 상태: 면적, 채광·환풍, 소음, 범람·습기·곰팡이·누수, 건물노후화, 화재위험

- 면적: 공간이 비좁고, 침대 및 수납장이 고정되어 있어, 키 또는 체구가 큰 사람의 경우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고 함. 비록 노숙 보다 낮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청소도하고 치우며 살려면 최소 3~4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함.
 -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침대 발채에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넓이가 여기까지 딱 돼 있겠지요. 그리고 캐비닛 있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예 세트로 딱 제작이 되어 있으니깐, 안그랬으면 내가 뜯어냈죠” (참여자 B)
 - “... 제가 신체가 좀 남들보다 좀 큼니다. ... 침대도 있는 데다가 ...서랍장이 이만한 게 나오거든요. ... 발을 넣고 하니까, 구부렸다, 몸부림치고, 사람이 항상 그대로 못 자잖아요. 뒤척이고 이럴 때 항상 부딪히고 ... 테이블이 있으니까 한 40cm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물건을 넣고 하니까, 발을(다리를) 퍼면 이 속에 들어가 ...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내 바람은 ...” (참여자 B)
 - “비좁고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 옆으로 벽 쪽으로 옷 같은 거 걸어 놓고, 앞에 냉장고 하나 놓고, TV 놓고, 그리고 옆에 좀 남은 거에다 침대 하나 놓으면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여자 D)
 - “... 방이 좀 넓은 거면 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 세 평 정도, 네 평 정도만 돼도, 그 원이 없고 ... 방에서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방이 좀 있어 가지고, 치울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침대고 말고는 아무런 공간이 없으니까” (참여자 D)
 - “(좁더라도) 짐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노숙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참여자 E)
 - “보통 침대 놓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을 펴야 되잖아요. 공간 남는 게 이렇게 잘 안 될 정도로 (좁아서) ... 조금만 넓었으면” (참여자 J)
- 채광, 환풍: 여인숙/여관, 고시원/텔과 같이 방을 배정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창문이 일률적으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창문 유무에 따라 방값이 달라질 경우 주거비가 부담되기도 하며, 주거비가 창문유무에 상관없이 같은 경우 창문 있는 방을 선호할 경우 까탈스런 사람으로 시비가 생길까봐 배정되는 대로 거주한다고 함. 주택의 경우 당초 창문이 없었는데 도배를 하면서 창문을 새로 내면서 채광과 환기 문제를 해소된 경우도 있음.
 - “이상하게 설계를 ... 다 똑같은데, ... 복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창문이 없고 서쪽으로 도로변에

- 창문이 있어요 ... 나는 창문 없는, 그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 좀 나은 방도 안 있겠습니까, 다 안 들어가 봐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 마음은 있는데 굳이 손가락질을 받고(싶지 않아), 그런 (창문 있는 방을 달라는) 식으로 안 했습니다.” (참여자 B)
- “(건물에는) 창문은 맨 끝방에는 창문이 있고, 창문 없는 방도 있고, 그냥 열고 들어가는 문 위에 창문 없는 방도 있고, 창문이 또 있는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자 D)
 - “처음에 오니까, 방에 제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서는 제일 작은 방인데, 창문이 이렇게 벽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열어놓고, 공기 같은 거는, 자주 환기시키고, 그렇게 해요. (창문) 그게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고, 그렇거든요. ... (2층 방값은 창문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똑같아요. ... 2층하고 3층이 있는데, 3층은 방이 조금 커요, (3층) 방은 조금 큰데, 그 대신 조금 비싸지, 한 2~3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2층하고 3층하고 보면 ... 3층 사람들 보니까, 많이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3층이) 위에서 차단을 시켜주니까 (더위가) 덜하지” (참여자 D)
 - “내가 문은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항상 열어 놓거든요.” (참여자 F)
 - “창문은 큼니다. 창문은 이만하죠 ... 나는 창문을 한 번씩 열어 놓기 때문에 습기 차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참여자 G)
 - “창문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인데, 있는 곳은 좀 돈이 더 들어가고,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 12월쯤에 여기서 ... 예산 쪽으로 부족했다고, 들어가서 좀 싼 방을 했는데, 어떻게 뭐 ... 근데 그때는 좀 뭐가 그래도 창문 있는 데를 원했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싸니까 ... 근데 그래도 몇 만 원 차이가 ... 근데 ...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서 지금 차라리 싼 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H)
 - “...전에 도배할 때 창문을 새로 좋게 했기 때문에 ... 근데 (창이 서쪽 방향이라) 햇빛이 ... 좀 늦게 들어오지” (참여자 I)
 - “... (부엌 싱크대로 가면) 창문이 조그마한 거 있어요 ... 화장실은 창문이 없고, 화장실 환기는 환풍기가 있어서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 (팬이 돌아가요)” (참여자 J)
- 소음: 여인숙/여관, 고시원/텔의 경우 벽이 방음장치 없이 합판으로 되어 방들이 딱 붙어 있어 숨쉬는 소리, 텔레비(전) 등 소음이 많다고 함. 간혹 주사로 인한 고성 등의 소란을 경험한 적도 있다고 함. 이와 같이 여인숙은 여러 명이 출구 하나를 이용하여 복도를 이용하기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 조심해야 되나, 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동일한 건물 출입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각 층에 한 두 가구씩 별도의 현관 등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좀더 자유롭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임.
- “소음에 좀 신경이 많이 씩니다. 방음 장치가 안 돼 있고요 합판에 목재 그거 이제 가면 잘 막아놨지 그 전에 조금 숨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다들 텔레비(전) 좀 크게 들리면 다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옆 방에 누가 주무시면 밖에 나갈 때도 문도 조심스럽게 닫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문 쾅 닫고 이러면, 조용한데” (참여자 B)
 - “여인숙에는 옆에 주위에 사람이 몇 사람들 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너무 소리가 울리고 ... 저녁에 들어와도,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에) 있는 데는. 별 그거 터치도 없이 지내고” (참여자 C)
 - “전에는 처음에 갈 적에는 새벽 술 먹고 떠드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이사) 보내고, 이러니까, 다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조용합니다. (조용해 진 건) 한 1년 전쯤 됐죠.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시끄럽고, 막 방에서 밤새 술 먹고 시부리가 깨는 경우들이 있지, 밤은, 잠을 못 잡니다.” (참여자

자 G)

- “이렇게 들릴 때가 대부분이긴 하죠.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고시원이 엄청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여자 H)
- “근데 소리가 조금 크게 하면 들리는 것 같아요 ... (합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다가 대었나 봐요” (참여자 J)

○ 범람·습기·곰팡이·누수: 낙후된 마을의 노후화된 주택에 사는 경우 비가 오면 바닷물 등이 넘쳐 집에 들어오기도 함. 노후화된 여인숙/여관, 고시원/텔의 경우 방수처리를 해도 잠시 뿐 건물 자체에 누수가 생긴다고 함. 간혹 누수 방지를 하였다 해도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이 피어 옷이 상하기도 함.

- “... 비가 세면 합판을 엮고 고쳐가며 살아 ... 그 동네는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넘어오고 집에까지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소) 선생님이 전화로 조심하라 하고 이러면 (물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제 좀 개조가 돼서 물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는데 ...” (참여자 A)
- “... 태풍 오고 이러면, 물이 들어오는 바닷가 옆이니깐, 낮아서,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게 되어 우리 까지 물이 안 오고, 옆에만 차, 옆에만 물이” (참여자 A)
- “천장에서 새고, 벽에서 물이 흐릅니다. 벽에서, 그러니까 그 방이 한마디로 말해서 노화가 되었다는 거죠. 건물 자체가. 빗물 새는 거 때문에 그 주인하고 수년 동안은 엄청 싸웠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옥상에서 방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페인트만 칠해줘요. 페인트를 칠하니깐 처음에 한 달 가량은 괜찮더군요. 벽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 정도만 나지 흐르는 거는 없어졌어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물 새는 게) 돌아와요.” (참여자 D)
- “한번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안에 (습기가) 끼더라고, 그래 갖고 곰팡이 지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물건을 방 한쪽으로) 여기로 옮겨놓고서 (도배·방수처리) 싹 다 하고, 그 뒤로는 괜찮더라고요, 그거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 (물이) 새면 바로 방수를 하더라고,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E)
- “누수는 조금 있었어요. 여름에 옷을 보니까 소매에 곰팡이가 조금 피고” (참여자 J)

○ 건물노후화: 문, 배관 등이 썩어 내려 앉아도 고쳐도 소용없을 정도로 건물 전체가 노후되어 있고, 여인숙 등 사업주도 건물을 임대하여 세를 놓고 있는지 건물 개보수에 관심이 없고 꺼린다고 함. 그나마 도배·장판을 하거나 부엌창문 샷시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비가) 새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래 되어서 다 썩어 내려 앉아서, ... 그렇다고 해서 ...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그걸 고쳐 놓으려면, 전체 다 뜯어야 돼,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라, ... 뜯으면 같아야 돼, 대체로 ... 내가 볼 때는 여관 주인도 (전/월)세로 하는 건가, 할머니가 하는데, 나이도 나보다 더 십여년 더 많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그냥말하기 싫어서, 그냥 얼굴 붉히고 막 그런 거 싫어서 웬만한 거는,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다 고쳐버리거든, 소소하게 불이 안 오고, 형광등이 안 오고해서, 내가 다 사서, 내가 다 고쳐버린다고” (참여자 F)
- “(4년 동안) 장판은 다시 깔았는데 도배는 안 됩니다. 옛날 건물에, 도배를 어떤 걸로 했는가 하면, 벽지가 안 붙습니다. 그게 오래 된 건데, 코팅이 돼서 ... 물 묻어도 안 떨어집니다” (참여자 G)
- “도배만 하고, 부엌에 샷시 하고” (참여자 I)

○ 건물노후화: 노후화된 일반 주택의 경우 겨울철에 수도가 얼어서 주인집 등에서 물을 얻어오거나, 수도가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좀 열어두어 소량의 물이 흘러나오게 한다고 함. 다가구이지만 옆집이 빈집들이어서 수도가 어는 원인을 못 찾아 집주인은 수리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함.

- “우리 집에는 옛날 집이니까, 겨울철 되면 수도가 얼어. ... 어디서 새는가는 몰라도, 연결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몰라도, ... 작년에 겨울철 물이 얼어가 식겁했다 ... 그렇게 되면, 밑에 집, 아는 집에 가서 길러 와, 먹을 물을 ... 고치려면 우리가 고쳐야 해. 하도 오래되니까, 안 고쳐준다 ... 주인 집 며느리가 전화가 와, 물 쭉쭉 들어놓으라고 ... 엄청 추우면 ... 나는 겨울철 되면 수도 좀 안 얼게 해주면 좋겠다. 단지 그것밖에 없어. 화장실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숙달이 되고, 겨울철에 엄청 추울 때 물, 그것만 좀 안 얼게 해주면 좋겠는데” (참여자 I)
- 화재위험: 고시원/텔의 경우 목재로 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밀접하게 붙어 있고, 여인숙/여관의 경우 방 안에서 간이취사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비록 소방 및 안점 조치 및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두고 있지만 화재시 제대로 작동할런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남. 주택 역시도 다가구가 사는 터라 화재시 1개의 공동 출입구를 통한 대피는 어려워 창문으로 대피할 생각을 할 정도임. 각자 방에 소화기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 참여자 중에도 소화기를 방에 두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고시텔이 칸막이가 전부 목재로 돼 있다 아닙니까 ... 단일 이게 안 되고 방화·방수 그게 안 되니까, (화재위험) 그게 단지 하나 염려 되는데...” (참여자 B)
- “어떤 사람들은 가스렌즈 조그만 거 해놓고, 나는 그걸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재보다도 내 자신이 그걸 몹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스 쓰는 거를. 불안해서, 그거 될까 봐서, 될 수 있으면 (가스렌즈) 그것을 안 쓰고, 내가 밥 해 먹는 밥솥을, 끓여 먹는 것도 밥솥에다 그냥” (참여자 D)
- “...(방 안에서) 야외용 가스 그거 쓸 적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항상 그 옆에는 소화기를 (두고) ... (복도에)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스레인지가 그전에는 놓아져 있는데, 소방 점검 나오고 나니까, 그 사용을 못하게 하더군요. 그 옆에 차단기가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치우고” (참여자 E)
- “(가스불) 그거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거든, 가스라든지, 가스레인을 쓰고 나면, 가스레인지 안에 (가스를) 넣어 놓는 일이 없거든, 다 빼내지. 소화기가 있어도, 내가 제일 불안한 게 (화재) 그거라, 진짜 마음이 불안한 게,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없거든, 옆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안하다니까, 진짜 내가 그래서 진짜 옮겨야 되는데, ... 술 먹고 와서, 불안하다니까, 싸우는거야, 불안한 게 없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재라, 화재가 제일 걱정이라, ... (스프링클러) 아주 옛날거라 (작동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방에 작은 소화기가) 나도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되니까 안 되더라고. ... (화재예방) 그건 뭐 내가 따로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이)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는데” (참여자 F)
- “누구든지 간에,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내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재가 제일 걱정이고, 사실은 거기는 화재 한 번 났다 하면, 내가 볼 때는, 뭐 골목이 딱, 거기, 앞으로 안 나가면 나갈 데가 없는데, 큰 건물처럼 비상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이리 보면 마음이 항상 쓰여,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 같으면 신경이 덜 쓰이는데, 저녁에 보면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있는 게, 사람 진짜 신경이 쓰인다니까, 다들 어차피 어려운 생활로 들어 왔는데,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바라는 것이지, 신경 많이 안 쓰고 안전하게, 제일보면, 내가, 내가 아니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들어보면, 진짜 화재가 났다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뭐 우리야 뭐 죽지는 안 하겠지 ...” (참여자 F)
- “화재, 화재는 솔직히 좀 걱정이 안 되긴 해요. 소화기가 다 있기도 하고” (참여자 H)
- “(소화기가) 문 입구에 ... 하나 있어요 ... (스프링클러) 그거는 없고, 뿌리는 거, 그게 입구에 ...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화재가 만약 났을 때는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창문을 뛰쳐나가면, 그것도 한 3미터, 4미터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 (화재시 창문으로) 나갈 때는 다리부터 나가야 되

조 ... ‘창문에 끈 하나 딱 달아놓으면 내가 잡고 내려갈 수 있겠다’ ... ‘이 창문을 안으로 뜯어내고 끈을 내든지’ 해야지 ... 그래서 그런 (화재) 위험은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사니까 ... 연세가 들어가지고, 몸도 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참여자 J)

8. 주거환경: 의료시설, 대중교통, 치안, 청소·쓰레기처리 상태

- 대중교통: 참여자 대다수가 여인숙·여관, 고시원/텔, 다가구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어도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편리로 인한 병원·복지관·상담소·구청·주민센터·시장·마트 등과 같은 의료·복지·관공서·생활근린시설과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임.
 - “교통 상황은 좋습니다 ... 마을버스 있습니다 ... 버스는 돈을 내고 ... 조그만 가서 지하철이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걸어서 ○○○까지 오면 됩니다. 그 동네가 참 좋은 동네인데 ... 그런데 ... 이제 철거되는 집이라니까” (참여자 A)
 - “(관할구)자기끼리 일을 주면, 일단 ○○구만 주기 때문에, ○○구 내에 일을 주고, (집은) ○○역 바로 입구에, 지하철 내려가면 한 3분만에 내려가고” (참여자 F)
 - "교통은 괜찮아요, 지하철 바로 5분만 걸어가니까" (참여자 G)
- 청소·쓰레기처리 상태: 여인숙/여관, 고시원/텔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주거지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및 샤워기, 취사실 및 취사도구, 세탁기 등의 청소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함. 특히 설거지에 적합한 세척설비 및 도구가 없고 심지어 청소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화장실에서 식기를 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복도는 사장이 하고, 방에는, 나는 조금 반 결백증 같은 것이 있어서, 몸도 이틀에 한 번씩 씻어야 되고, 방에 먼지 있는 것도 못 보니, 먼지도 계속 닦고 쓸고, 텔레비(전)도 다 닦고 다 합니다, 주인은 있어도 진짜 화장실 청소 평생 가도 안 합니다. 바닥만 한 번씩 솔 갖고 문지르고, 그것도 내가 한 열 번 하면 그들은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화장실도 내가 그릇 씻고 이러는데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 바로 옆에 물 나오면 그릇 닦는 데, 발 밟고 다니는데, 거기 걸어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참여자 G)

9.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변환경의 열악함, 외로움·고립감·우울증·울분, 답답함·스트레스·힘듦, 기타(물가인상으로 부엌에서의 조리 감소)

- 거처의 열악한 시설: 당초 마구간을 개조한 주택이라 부엌 등 공간이 협소하고 수도 등 시설이 열악함.
 - “부엌에, 이 공간이 작으니깐, 딱 앉아서 머리 감고, 걸상이 하나 있어요. 쪼그려 앉아 다리부터 살살 ... (샤워기) 없어요. 물을 받아 놓고 ... 따뜻한 물은 없어요 ... 찬물을 커피 끓이는 거기에 ... 데워 갖고 ... 좋은 게 아니지, 부엌이 작으니까, ... 옛날에 거기 일본 사람 소 마구간이 ... 있다가 ... 피난민들이 와서 집을 조금 늘려서 부엌도 만들고 ... 그 마구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래서 2층 올리고 살림살이가 ... 그런 동네가 동네지, 집이 집이 아니지” (참여자 A)
- 거처의 열악한 시설: 방안에서의 취사, 화장실에서 설거지,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옴.
 - “(방 안에서) 음식 같은 것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을 해 먹을 때는 전기밥솥에다 그렇게 해서...(그

- 릿을) 씻을 때는 밖으로...나가서 씻어야 되고, 방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잠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밥 솥에다 그냥 끓여 먹습니다” (참여자 D)
- “겨울에는 물이 차가우니까 보일러를 튼다고 튼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모르는데, 한 11월쯤 이때쯤 되면 보일러를 켭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받습니다. ... 그 보일러가, 한 사람이 틀고 물을 쓰게 되면 한 5분도 안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찬물이 나와요.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한 2월쯤 되죠. ...처음에 틀었을 때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그럼, 미지근한 물, 이것도 찬물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씁니다. 그럼 한 3분 이상 지나, 완전히 그냥 찬물이 나오고” (참여자 D)
 - “... 물은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따뜻한 물은 쓸 수 있지, 여럿이 쓰면 이제 따뜻한 물이 찬물로 나오고 그러지” (참여자 E)
 - “그것도 한 2년 동안은 물이 뜨거워서 못 하겠더라, 요즘은 기름 값이 비싸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물살도 약해지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씻고 하지는 않는데, 최소한 그릇 씻고 하는 거, 화장실에서 거기 한다 아닙니까, 화장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여자 F)
- 주변환경의 열악함: 빈집이 방치되어 무너짐으로 위험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
- “... 다 나가고 빈 집이 많거든요 ... 빈 집은 벽이 내려앉고 ... 골목마다 스텔트는 내려오려고 달랑 달랑 떨어지고 있고, 붉은 흙물이 떠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개조는 좀 했으면 싶어, ... 근데 철거되는 동네라서 ... 요구해 봤자 안 들어 ... 나라 땅이고 ... 진흙을 쌓은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 온기가 있어서 좀 오래 가지만 떠나고 나면 내려앉거든요. 스텔트가 막 달랑달랑하고 떨어지고 막 흙이 막 무너지고 ...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참여자 A)
 - “주택인데 우리가 2층이거든. 2층에 있는 사람 대부분 이사 다 가고, 이제 나만 있는데 ... 주인 집이 따로 있어, 1층에 제일 밑에 ... 옛날보다 사람이 많이 나가서 빈 집이 많아 ... 이 집도 빈 집, ... 저쪽 편도 계단 내려가면 빈 집이 엄청 많아, 철도 땅이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이 많아” (참여자 I)
- 외로움·고립감·우울함·울분
- “... 전혀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참여자 A)
 - “집에 있으면, 우울증을 제가 한번 앓아보니까요. 겁나더라고 ... 없다고 그냥 집에 우두커니 하고 있으면, 완전히 사람이 밑에 깔아지고” (참여자 E)
 - “... 평생 동안 술을 안 마십니다. 담배는 피우죠, 담배는 밥을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내가 가진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냥 울분이 터지니까. 옥상이 있거든요. 3층 옥상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앉았으면, 다 털어서, 속 끓여서, 천불이 나서 못 삽니다. 담배를 다 피우면 그 순간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고 내려와서...” (참여자 D)
- 답답함·스트레스·힘듦
- “아침에 일어나면 위생관리 같은 거 하고요. 답답하고 이러면, 주로 가는 데, 자갈치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구경하고, 사람 구경도 좀 하고 ... 보통 한 10시쯤 내가 취침하잖아요. 자다가 복도나 이런 데 옆 사람들은 약주 한잔하고 오시다 보면 떠들고 ... 켜다니까, 그럼, 그게 뭐 1시든, 2시든, 이러면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못 자니까, 뜯눈으로 밤새 들어보고, 그러면 그거 다 감수해야지, 뭐, 술 드시는 사람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약주나 잡수고 ... (담배) 한 갑, 한 이틀, 끊을 수는 있는데, 습관성이 된 건지, 잘 안 돼요. ... 술을 많이, 자주 먹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 양이 많습니다.

소주 한 5병 먹습니다 (참여자 B)”

- “(거의) 고시원에 있긴 한데,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계속 건조 ... 일단 17시간 18시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대부분이 거의 다 ...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그게 더 걱정이다 보니 ... (심리지원을) 받긴 했었는데 솔직히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 그래서 오히려 걷는 게 더 편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 (심리상담 등) 하면 좋긴 한데, 물론 하면 엄청 좋죠, 심리 상담하고 하면 좋은데 굳이” (참여자 H)
- “또 평생 담배 못 끊겠더라고요. 아무리 끊어 보려고 해도 못 끊겠더라고요, 힘들고, 이 담배 앓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 F)

○ 기타: 혼자 사는 쪽방 주민의 경우 물가 인상으로 재료를 사서 부엌에서 조리를 하는 것보다, 아침을 거르고 식당에서 점심 한 끼를 사먹는 방식으로 식비를 절감함. 일반 주택의 경우 조리가 가능한 부엌이 있어도 조리 및 식사 횟수가 줄고 부식비가 들지 않는 간편식을 먹게 됨.

- “혼자 있는 사람이라 사먹지 ... 그러니깐 돈 많이 들지 ... 혼자 있으면 해 먹으면 버리는 게 많잖아 ... 올라서 8천원 해 ... 아침 굶고 점심 먹으러 가거든, 한 끼는 굶거든” (참여자 A)
- “요새는 고춧가루니 뭐니 물가가 다 올랐으니깐, 전에 김치 5천원어치 사면 몇 끼 먹었는데, 요새 5천원씩 얼마 되도 안해, 양념값이 비싸니깐” (참여자 I)

10. 이웃과의 관계: 정서적 관계 형성, 사람들과 교류, 마음터놓음·이야기나눔·인사 정도, 연락 끊음

○ 쪽방상담소 등 상담원과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 전혀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던데, 선생님이 ... 고마워요 ...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만 있다가 ...” (참여자 A)

○ 지역 복지관 및 문화관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 “... 활발하게 문화원이 생겨가지고 ... 나눔터가 생겨 활발합니다 ... 요일마다 인형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물감 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신체 운동도 하고 그러니 모두가 그리 사니까, 이제 마치고 나면, 서로가 ‘어, 내일 보자’ 하고 다니지, 그 전에는 서로가 못 잡아먹어 가지고 ... 나눔터 밖에 안 갑니다 ... 하루 한 2시간 정도...” (참여자 A)
- “아무래도 좀 다니다 보면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복지관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 집에 있으면, 우울증을 제가 한번 앓아보니까요. 겁나더라고 그거 (우울증)...뇌경색도 오고 ... 이제 틀니도 하고 막 이랬을 적에, 막 우울증이 오더라고,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막 다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 복지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밌다 하면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이 웃고, 그렇게라도, 이렇게, 좀 활기차게 살아야지” (참여자 E)

○ 거주지 주민과 인사 및 간식 건넨 등 가볍게 교류하는 정도이며,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는 어려움.

- “... 고시원 와서, 한 사람 사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귀가 좀 장애가 있더라고요 ... 그분은 많이

- 챙겨줘야 ... 음식을 좀 얻어 ... 나눠주고 ... 그러는데 ... 그 사람이 전번에는 고맙다고 컵라면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안 가져와도 된다고 앞으로 가오지 마라고 ... 고맙더라고... 외출하면 만두 같은 거 사 들고 오거든요. 나하고 방 하나 둘 두 칸 사이에...” (참여자 B)
- “... 그냥 인사하고 얘기도 하고, 가끔,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좀 하나 사 오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딱 본채만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데 있다 보면,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그 사는 사람들 보면” (참여자 D)
 - “솔직히 마음 트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 트러블 있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자기 일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게” 참여자 B)
 - “대부분 혼자다 보니까 쉽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참여자 C)
 - “(평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참여자 G)
 - “이야기를 뭔가 인사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깊은 대화는 깊은 관계로는 안 가죠. ...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딱히 대화할 연령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쨌든 대화할 거리도 없고 담배라도 피우면 만약에 아저씨들하고 담배피면서 이야기도 할 텐데 담배도 안 피우니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참가자 H)
 - “가끔씩만 만나면 인사는 하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참여자 I)
- 원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어울리는 성격이었는데 노숙 후 친구들과의 연락을 먼저 끊음.
- “친구들은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친구들하고 사이는, 제가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제가 오히려 친구들 다 모아서 노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끊었어요. 그 친구들 아마 제 이름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제가 다 그냥 끊고 ... 지금 보면 그게 제일 후회되죠. 친구들이라도 남겨둘 걸.” (참여자 H)

11. 범죄피해경험

- CCTV가 있는 건물의 경우 절도 등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함
- “건물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뭐 도둑놈이 들어오지도 않고, 없다 보니깐, CCTV가 다 있으니까, 건물 안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층마다 다 있고, 계단마다 다 있고 하니깐, 그런데 누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와서 훔쳐갔니, 술 먹고 와서도 행패를 부렸니,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아직까지는” (참여자 D)

12.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비 대비 만족도, 퇴거 위협 여부 와 그 이유

- 월세 오름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고시텔(촌)보다 넓고 창문이 있어서 좀 비싸지만 낫다고 생각함. 월세를 2만원(3년만에 8% 증가) 올린 뒤 이어서 1개월만에 3만원(1개월만에 12% 추가 증가)을 더 올림. 한해 5만원이 오른 금액으로는 현 주거지에서 살 수 없다고 거주자가 말하자 그때서야 집주인이 추가로 3만원 올리는 것 없던 일로 하고, 당초 25만원에서 2만원만 더 올린 금액인 27만원을 내는 것으로 하였다고 함.
- “(3년 전) 처음 들어 갈 때 25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 2만원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27만 원을 줬는데, 또 한 달 있니깐, 3만원을 더 주라는 걸라, 30만원 주라고 하는 거라, 난 못 있는다고 했거든요. 그리 주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 이야기 했더라면, 그냥 나도 좀 썩

데로 갈 거라고 하고 있는 중에, 27만원 주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 창문이 다 있었어요. ... 고시텔은 창문 없는 데는, 딱 1평 아닙니까, 그거는 20만원, 냉장고, 텔레비(전) 좀 주면서 22만원 받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래도 그것보다 (27만원이지만 창문 있고) 훨씬 낫거든요. ... 그리고 여기는 내가 손수 밥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밥 안 해 먹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참여자 F)

- 공동임대주택 주거비 및 공과금 지원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임. 지원되는 주거비와 공과금 지원에 대해 참여자는 잘 모른 경우가 다수임.
 - “... 옛날 말로 따지면, 사글세 ... 국가에서 나오는 거, 뭐, 책정대로, 주는대로, 내는 거지 ... 자주는 안 내고, 일 년에 몇 번씩 ... 전기세나, 물세나, 다 그렇고 ... 그냥 혜택이 많으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거기에 두 달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석 달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 (부담) 크게는 없어요.” (참여자 C)
- 집주인의 병세 악화에 따른 퇴거 우려와 익숙한 주거형태의 사라짐에 대한 우려
 - “아래층 (주인) 할매가 살아, 그런데 치매에 걸렸어 ...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시면, ... 나가라 할 것 같아 ... 그러면 임대 주택을 가야 되나, 요새는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높게 다 지어서 ... 임대 아파트는 있는데, ... 주택이 사라진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 일반 주택, 연립주택, 그런 게 낫지, ... 다리가 아픈 데, 높은 데는(힘들지)” (참여자 I)
- 철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그간 철거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익숙해진 탓도 있고, 현재 거주지가 오래된 주거지라 하여도 위치상 개발될 여지가 없는 곳이어서 철거 우려가 없다고 함.
 - “...여인숙 같은 데는 옛날 건물이 돼 놓으니까는 이게 철거가 돼 가고, 또 옮기고, 저기 가면 또 철거돼 가고 또 옮기고... 철거에 대해서 그거는 괜찮죠 ... 그쪽에는 철거될 만한 공간이 안 되는데 ... 옛날 건물인데, 노화가 되고, 물이 새고 그런 건물들은 철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골목 안에 있는 거는, 그 옛날 건물이라도, 그 뒤에, 저 안에, 꺼져 있는 부분이라 철거를 잘 못하지요” (참여자 C)

IV.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거지에서의 지원 서비스

13.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쪽방상담소, 복지 시설 및 단체

- 쪽방상담소 및 복지시설로부터 재난대피 연락, 생필품 제공, 교육 안내, 입원수속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음
 - “ ... 골목마다 ... 흠이 별정계 내려가고 스텔라 비가 오고 눈이 오면 ... 우리 선생님 전화가 와요. 오늘 이렇게 하니 조심하고 빨리 옮기라고, 전화 오는 게 선생님 밖에 없어요. ... 쪽방에서 식료품하고 이런 거 여기서 주고, 또 ... 문화원에서 가면 ... 라면이나 이런 거, 또 김치 이런 걸 또 주고 ... ” (참여자 A)
 - “... 복지시설, 여기서 의지를 많이 하지요. 양말 같은 거 속옷 의복 같은 거 ...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또 한 번씩 부식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 폰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시 복지사님하고 통화가 되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잠깐 왔다 가라 하면 물품 갖다가 지원받고 ... 주변에서 많이 도와 주셨고요. (쪽방상담소) 선생님이 변동사항,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통화가 되니

- 까, 수시로 전화합니다. 안 그러면 문자해서, 그럼 나도 연락하면, 뭐 일 있다고 언제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럼, 알코올교육, 금연교육, 매일 참석하거든요.” (참여자 B)
- “우리 고시원 앞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복지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회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많이 도와줍니다. 국악 같은 거 뭐 또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강좌 같은 거 하고 ... 그 분들 도움으로 해서 많이 받았습시다. 지금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연락 되니까, 부식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밑반찬 같은 거, 한 번씩 수녀님이 담아왔다고, 집에, 가지러 오라고 전화해 주면, 가까우니까, 붙어 있거든요. 그래 갔다 오고” (참여자 B)
 - “우리 (쪽방상담소)사무실에서도 주로 반찬이 많이 나가든, 김이라든지, 참치라든지, 자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 김치찌개 김치 같은 (걸 만들어 먹고).” (참여자 F)
 -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요. ...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면 꼭 보호자를 찾아요. 보호자를. 그러면 막 병원에서 싸워야 돼, 없다, 노숙자가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쪽방상담소)여기에 의뢰하고, (상담원이) 이렇게 와서 (입원수속) 하고 하면 바로...” (참여자 E)

14. 주거복지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경험: 주거급여(월세보조·집수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주거지원, 주거관련정보제공 등

- 참여자들은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월 17~23만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음. 주거급여에서 초과되는 주거비용(월세)은 지원받는 기초생활비 등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종종 인상되는 주거비용(월세)에 비해 지원받는 기초생활비 등은 한정되어 있어 생계가 빠듯함. 간혹 주거급여가 누락되어 주거비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옛날에, 아는 분이, (쪽방상담소) 여기 소장님이셔서, 알게 돼서” (참여자 C)
 - “(월세/주거급여로) 지금 19만 원 내죠”(참여자 G)
 - “돈 한 달에 47~48만 원 나오는 걸로, 솔직하게 생활이 안 되거든요 ... (월세가) 처음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7만 원 ” (참여자 F)
 - “찾아봤거든요. 오늘 (주거급여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 긴급 생계비 같은 거는 웬만하면 빨리빨리 주는데, 긴급하니까, 근데 주거급여 같은 거는 상황 맞춰서, (주거급여) 이게 누락이 되서, 한 달씩 밀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참여자 H)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 노숙자쉼터·쪽방상담소·주거급여·긴급생계비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 정보에 접근성이 높다면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함.
 -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임대비 정보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참여자 C)
 -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 노숙자 쉼터도 몰랐고 노숙자 쉼터나 쪽방을 통해서 우리 나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엄청 많아요. 진짜,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주거 급여나 긴급 생계비 같은 거, 다른 것도 청년 관련된 지원이 진짜 많아요. 받을 수 있으면 아마 받을 수 있으면 엄청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냥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 많은데, 그것만 알면 돼요, 솔직히 지금도 엄청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나 나처럼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해도, 솔직히 저도 노숙하고 바로 이렇게 일 년 만에

이 상황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 노숙후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 솔직히 나은 건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엄청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도 나라가 청년이나 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이런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고” (참여자 H)

-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상향 이전과 같은 주거의 안정성은 특히 청년 비주택 거주민에게는 직업 훈련, 일자리 확보, 대학 진학/복학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함.
-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어요. 왜냐면 언제까지 막노동하고 서빙 알바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당장 해결해야 될 것만 좀 해결하고, 이제 만약에 LH 임대주택에 가고, 거기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 ... 그래서 나라 사랑, 나라 배움 카드 ...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배움 생각은 많아요. ...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예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내년 중반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생각이 있고,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고 대학교(복학)도 알아볼 생각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참여자 H)

15.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입주 의사 여부와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익숙하고 정이 들어서, 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주거지이지만 수리해서라도 살고 싶다고 함.
- “흙벽이 무너지고 빈집에는 ... 흙이 무너져 ... 밀고 오는 중이고 ... 흙이 넘쳐 ... (기울어진 흙벽이) 장롱에 받쳐져서 못 넘어오고 있거든. ... 하지만 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안 고쳐주면 제가 고치더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 그 동네가 너무 좋으니까, 이사 ... 갈 때 되면 가더라도 ... 좋아요 ...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정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자 A)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건강 상의 이유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해서 고시원/텔과 같이 기본적인 밥과 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의료원에서 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약은 한 달 분씩 주거든요. ... 그 약을 아침저녁으로 먹기 때문에 약을 먹으려면 항상 밥을 먹어야 돼요 빈 속에는 못 먹겠더라고, 속이 쓰려서” (참여자 B)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거 이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음.
- “지금 상태로는 내가 마음이 참 많이 피폐해져가고 (주거상향과 같은) 그런, 아직 여유를 가질 능력이 안 됩니다 ... (임대주택) 그거도 옮겨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활하면서 조금 ...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지금, 나도 모르게 참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 생활이예요. 불규칙적이고, 항상 불안해서,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끔씩 잠들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참여자 B)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도시이외의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으나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
- “시골, 농촌 마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도 안 크고, 한 스무 가구, 서른 가구, 이런 동네 있

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곳에, 텃밭 여럿이 있고,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그리 살고 싶어요. ... 아니 그런데 오늘 선생님한테 처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얘기 물어본 사람도 없고 얘기 할 사람도 없고” (참여자 B)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없는 경우: 섬에 가서 살고 싶지만, 딱 일년에 5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 “나는 또 생각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진짜, 이 나이에,...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섬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몇 년 하고, 큰 돈은 아니라도, 조금 일만 주는 것 같으면, (섬으로 갈 거라고) 그리 하겠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조금씩 모으면, 일 년에, 일(자리)만 준다면, 생활하고 해도 한 500만원은 모으겠더라고요. (그런데) 일 년 동안, 일(자리)도 하나도 안 주어지고 하니깐,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 정권이 바뀌어서, 일을 줄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내가 낚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계획대로 맞는 것도 없고 ...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보면 되는 일이 있어야 어떻게 해보지” (참여자 F)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없는 경우: 주거 이진시, 별도의 살림도구를 마련하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함.

- “근데 마음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 주택이 좀 낫죠. 주택이나 아파트가 좀 나아요. ... (주거 이진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한 70%로, 100%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70% 정도... (월세보다는 보증금 때문에 옮기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살림도 거의 없고, 내가 들어가서, 살림도 준비하려면, 또 몇 개월 정도 걸리고 ...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 다 있으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고” (참여자 C)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없는 경우: 건강도 좋지 않은 데, 교통이 좋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동네로 이사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음.

- “(주거 이전) 그걸 다 묵살한 거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안 되네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사상으로 가야 된다, 금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건강이 마땅치 않으니,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A동에 사는데, (부산진구) A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게 아무 것도 안 되던데요. ... 작년인가, 어느 기관 사람인데 얘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서는 ‘(북구) B동으로 가라, (북구) B동에, 방에 들어갈 때가 있다’, ‘거기 아니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오래 사니까, 교통이 좋고, 오래 사니까, 그 집을 떠나 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이제 다른” (참여자 D)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없는 경우: 이주할 곳이 교통편 및 편의시설이 열악한 곳에 위치함.

- “... LH에서 다세대 주택 이렇게 ... 저도 한 두번 보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몸이 좀, 뇌경색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좋고, 높은 데는 못가서, ... 조만간 LH에서 또 보라고 할 것 같아요 ... 지금은 평지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전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위에서 차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 보면 많이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 이제 다시 보러 가라고 하겠지, 그래서 쪽방에서 (주거상향지원) 그거 해주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한 두어번 가봤어요. 저도 ...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교통은 조금 따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전철이라든가, 버스도, 이렇게 바로 탈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나이 먹을수록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잖아요. 높은 곳에 살면 밑에 내려와서 살아라, 병원 같은 데, 시장 같은

데 가까운 데 살아라. 이제 그러잖아요. 모든 생활을 하기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다못해 복지관을 간다고 하더라도, 복지관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무 많이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참여자 E)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지만 입주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모아 제대로 주거지로 옮기려고 3년 간 적금을 모으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돈벌이가 되는 일을 구하기 어려움.
 - “옮길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다시 옮기게 된다 해도 난 그렇게는 살기는 싫어 가지고. 수급비 몇 푼씩 나오는 거 하고, 노령연금이 30만 원씩 나옵니다. 그거 하고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가 문제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죠.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핑계로 해서 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일거리만 있으면, 한 2만원, 3만원만 줘도, 10시간이면 막 해버립니다. 농땡이 안 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있으면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없죠. 작년부터 거의 끊어져 버렸죠. 콜레라(코로나) 발생하고 난 당시부터 지금 금년까지 한 3년째 되는데, 겨우 나가면, (월)20만원 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다음에 날 안 부릅니다. 주는 대로 받으면 그다음 번에 가서 다시 또 일거리가 있으면 부르는데...그거 때문에 할 수 없이...한 번 시키면은 이제 그냥 일 끝날 때까지 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쉬는 시간 없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돈을 많이 달라, 적다 많다, 이거는 말을 안 합니다. ...없어서 죽는다 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산다 ... 내 밥을 한 끼 굶는다 해도. 그 돈은 틀림없이 내가 맞춰 넣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 3년 한 6개월 동안 집어넣거든요(저금하였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내가 미루지를 앉았거든요. 그 돈을 집어넣으라는 날짜에는 틀림없이 넣었습니다 ... 그러게 지금 당장 (집을) 옮겨 본들, 가진 거 없이, 또 지금까지 이런 저런 또 고만합니다(거기서거기입니다). ... 지금 현재 나가가지고 A 라는 집에서 살다가 B 라는 집에서 살게 되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옮겨 봤자 또 형편이 이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지를 앉았어요.”(참여자 D)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지만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 거주하는 곳보다도 더 노후화 되어 있고 보증금과 월세, 별도의 살림도구를 장만해야하는 비용, 공과금 등이 부담된다고 함.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적당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고 관할 구청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함.
 - “나는 많이 (주거상향) 신청을 해 봤는데 ... 왜냐면, 우리 형편에는 임대아파트고, 저 LH에서하는 원룸이고, 이런 데 가면 완전 다 삭았더라고요. 집이 다 썩어서, 오래 되서, 썩어서, 안 나가니까, (임대)했지, 원룸식인데, 원룸인데 ...완전히 다 썩었어요. 이만한 창고에, 냉장고를 이만한 거 하나 놔 놔는데, 냉장고 열다가 쓰러질 뻔했었어요. 쉬어 빠져 갖고, 있지요, 그런 걸 안 치고 왜 놔 두었는지 몰라, 들어가는 사람 치우라고 하는 건가” (참여자 G)
 - “아무것도 없어 못 들어간다니깐.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 돈은, 돈이 임대주택 들어가면 230만원이지, 보증금 230 아닙니까,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영구 임대주택, 보증금 230만 원에다가 새로 물건 사면 500만 원이 있어야, 거기 들어간다(이주한다) 아닙니까,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500만원, 한 20년 돼야, 500만원 될 란가, 모을 란가, (생계비) 이 빠듯하게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거 돈 모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참여자 G)
 -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전에, 해놓은 거 보면, (보증금) 100만원에 25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또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구청에 가서, 구청장한테도 찾아 갔어요. ‘이러고 있는데, 좀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빌려주면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을 갚겠다’ ...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보더라, 우리 회원들하고

- 뭐 하는 데 보면, 뭐 35만원, 40만원, 그런데는 못 가거든요. 한 달에 40만원이면, 전기세, 물세까지 50만원 나가야 되는데, (생계비) 돈 70만원 쥐가, (주거비·공과금) 50만원 나가며는 ... 우리는 35만원, 40만원짜리는 엄두도 못 내요” (참여자 G)
- “도배장관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짹짹한데, 그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 싱크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가스렌지 사야지, 텔레비(전) 사야 돼, 냉장고 사야지, 세탁기 사야지, 세탁기 없으면 빨래도 못 합니다. 요만한데 목욕탕, 임대주택이 이만하거든요, 목욕탕. 화장실하고 목욕탕이 이만하는데 빨래도 못 합니다. 손빨래도 ...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들어가 어떻게 살 건지,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참여자 G)
 - “... 딱히 솔직히 내가 혼자데, 원룸이라거나 임대주택에 있으면, 필요한 게 있는데, 여인숙에는 지금 필요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냉장고도 어지간해서는 잘 안 줍니다. 전기세 나온다고. 근데 우리 같은 데는, 전기세를 우리가 신청해서 한 달에 만 몇천원씩 이렇게 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냉장고라도 갖다 주지, 안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쓰면, 한 2만원 돈 나오고, 차감대가 나오고, 요즘 겨울, 전기세 많이 안 쓰는 봄·가을이나 이럴 때는 1만 3천원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만 6천원” (참여자 G)
 - “임대주택이나 뭐든지 막 다녀봐도 안 되니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거라, (동래구) C동이어서 그러는가, 서면 쪽, 중구는, 내가 아는 사람 ... 고시텔에 있다가 몸이 아프다 이러니까는 새마을인가 ... 500만원 ... 해주고, 또 동생은 술 먹고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야기해서 300만원에 25만원짜리, 동광동 가면 원룸이 있거든요. 300만원에 30만원짜리 얻어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래구) C동에는 내가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해 보고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 보고” (참여자 G)
 - “(동래구) C동에 보면, 이만한 쪽지 붙여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데 보면, 100만원에 25만원짜리, 300만원에 35만원, 500만원에 45만원, 보증금이 많을수록 엄청 올리더라고요. 100만원에 25만원. 100만원만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25만 원짜리, 여인숙보다는 낫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쭈그려 앉아서, 화장실 옆에서 수도물 오는데서 그릇 씻고 쭈그려 앉아서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그러니까, 원룸에 싱크대 있으니까, 거기서 씻고 이러면 무릎은 덜 아프거든 ... 지금 100만원에 25만원짜리 내놨는데도, 지금 당장 100만원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라. ... 저런 데 가서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이러니까는, 관공서도” (참여자 G)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지만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집은 좋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지원서비스를 알아 볼 당시 지원받지 못하는 경험으로 다시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우리 집 ... 계단도 많이 안 있고 약간 있는 집이라 ... 길이 평평해 ... 그전에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를 알아보는 것을) 한 번 했는데, ... 모라동도 나오고, 개금도 나오고, 다대포도 나오고, ... LH 임대하는데, 돈도 그렇고, 뭐 돈도 없잖아 ... 490(만원) 얼마가, 처음에 들어갈 때 ... 그전에 물어 물어, 한 번 갔어, 근데 ○○동 사거리 있는 쪽인데, 아이고, 완전히 쪽 들어가, 시장가기도 멀고 슈퍼냐고, 조그만 가게 슈퍼 하나 있고, 동네도 아주 캄캄한 동네, 쪽 들어가더라고, 그 집은 참 좋더라고, 근데 너무 멀고 시장도 멀고, 버스 타러 오려면 한참 나와 ... (시장이 가깝고) 돈 있으면 갔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 65세 넘어가야 지원해 줄 란가” (참여자 I)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지만 포기한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움을 알고는 이후 다시 알아보지 않음.

- “LH에서 옛날에 6천만 원 갖고 전세 그걸 준다고, 그걸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에 저당이 조금이라도 잡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조건이 많더라고요. ... 보통 건물들이 조그마한 담보나 저당이 잡혀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 십원도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 (집주인들도) 원하지 않았지, 못 구해서 ... 3년, 4년 전이니까 ... (다시) 안 알아봤습니다. 그냥 그런대로 살다 보니까 또 곧 적응이 되고” (참여자 J)
-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어 현재 신청한 경우: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임.
- “저번 달인가, LH 임대, 청년 임대에서 연락이 왔었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되면 한 2~3월은 돼야 아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 청년임대주택 그거였던 거 같아요. LH 그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신청은 다 해놓고 이제 집만 구해지면 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한 2월 3월은 돼야, 아마 ... 보증금은 없고, 아마 월세도 엄청 낮게 책정 되어서, 이제 그거를 내면 될 것 같아요. ... 그래도 원룸이니까 돈은 엄청 안 비싼데 어쨌든 원룸에 사는 거니까 ... 근데 (살림장만 비용에 대한 부담) 그런 건 있긴 한데 저는 일단 LH는, LH에서 해 주는 거라고, LH가 관리하는 원룸이다 보니까 아마 다 돼 있다고 들었어요” (참여자 H)

16. 이외 사회복지 소요: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지원

- 의료지원으로 인해, 입원, 진료, 약비용 등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괜찮아요. 가면 1500원 주고 약값도 500원 주고 그러면 되니까요” (참여자 A)
- “여기 선생님이 연결해 줘서, 구청에 의료급여 신청을 해 갖고, 1종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복지사님, 참 고맙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교통비만 부담해요 ... 고마운 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의료원 아녘니까, 연산동 가면 거기서 16번 출구로 나가면, 병원 가는 셔틀버스가 30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고맙더라고요 교통비는 하루 왕복 하면 3천 원만 딱 되거든요. ... 그 분들 통해서 병원에 다녔어요. 그 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오라고 해서 가면은, 보건소 가고, 기초 진료 받고, 진료 올려서 끊어주면, 그 선생님이 데리고 의료원까지 갔다가, 약 처방 받고, 진료 받고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참여자 B)
- “약값 500원, 이랬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져서, 지금은 복지가 조금 되어 가지고, ... 그걸로 삭감하고 돈을 안 내고, 이제 초과 같은 데 가면 돈을 내더라고요 ... 틀니를 ... 돈을 받더라고 4,000원 씩” (참여자 E)
- “처음 뇌경색이 왔을 적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노숙생활을 했는데 ... 간호기록을 ... 부산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료기록) 그런 걸 ... 공유가 다 되잖아요 ... 이렇게 조그마한 의원에, 조그마한 병원 같으면, 공단에서 복지사 선생님이 안 있지만 ... 큰 데는 다 와 계시더라고 ... 그래서 제가 입원하면서,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못 걸으니까, 상담 좀 하게 해 줘라’ 하고, 상담해서 이 용을 하는 형태가 되고, (병원) 나오면서 돈 만원 내놓고 왔죠. 만원이라고 해서 ... 수납할 때, 이제 퇴원하라고 하잖아요. 수납하러 가니까 ..., 거기서 나오는 선생님들은,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렇게 복지...” (참여자 E)
- “저는 허리 협착증이, 4번 5번이 협착증하고, 옛날 허리가, 1번이 옛날에 압박 골절 되어서 그거는 이제 하도 오래 되놓으니까, 이게 붙어 버렸어요. 지금 4번 5번이 협착증이 있으니까,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물리치료하러 다니고, 치료비는 안 듭니다. (당초 치료비가 1회에) 물리치료 하는데 보니까 1만 7천원인가, 한 달에 한 여덟 번에서 한 열 번 정도, 그거는 내가 주는 돈 아닙니다. 국민 건강

우리는 1종이 돼서” (참여자 G)

- “허리 협착증이 있고 그러니까, 물리치료 좀 가는 편이지... 만약에 10월이잖아요. 10월 1일부터 6일까지는 공짜고, 7일부터는 1,000원씩 내고 ... 매일은 안 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네 번은 가 ... 약값도 적고 약값도 500원씩 ...” (참여자 I)

○ 복지관의 컴퓨터·스마트폰·댄스 등 교육지원을 통해 교류·운동·학습을 하며 여가를 보낸다고 함.

-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교춤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낮에 거기 가서 이것저것 하고, 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 가서 그렇게 보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배운다는 것보다도, 내가 집이 있으면 뭐 하나, 그냥 운동 삼아 살살 걸어가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참여자 E)

○ 나이 많다고 돈벌이가 되던 현장 일은 구할 수 없고, 그나마 구청에서 주는 4시간 정도의 일이라도 하는 것이 즐겁고 돈벌이가 되기에 생계비를 받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함.

- “요즘 같은 때는, 일이 없고, 집에 자다가, 집에 누워 있다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쌓여서...나이 많다고, 계속 내가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 안 된다 하길래, 할 수 없어. 이렇게(집에 누워 있고 스트레스 쌓이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일하고 할 때는 즐겁고, 참 재미있게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 일하면, 나가면 하루 십 몇 만원은 ... 차라리 (생계비) 이 돈 안 줘도, 원래 내가 일하러 가면, 생계비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일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는 일은 거의 4시간 밖에 안 주거든 ... 현장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예 받아주는 데가 없고, 구청에서 주는 일이라도 주면,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가까이 되거든요.” (참여자 F)
- “어떻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참, 일이 좀 많아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주면 좋겠는데, ... 제발하고, 한 3년 만, 일을 좀 해 주면, 내가 뭐 하나 해 갖고, 내 생각대로, 진짜, 조용한데, 섬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하고 싶은데” (참여자 F)

○ 나이가 많다고 일자리가 없는데,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직이 어려움, 그래서 주거상황을 위한 보증금 마련 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함.

- 80세 가까이 되죠. 목재소에 일을 다녔습니다. 목재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큰 나무 그냥, 이거 전부 다 만드는데, 거기를 다녔습니다. 내가 아침 6시에 나가 7시에 시작하고, (저녁) 6시에 끝났는데, 그 한 4년 동안에, 돈 4만 원씩 받고 다녔으니까, 13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오후 다섯시 다리가 휘청휘청하면 쓰러질 것 같아도, 돈을 받는 순간에는, 하찮지만 사실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 되면 또 할 수 없이 나가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 목재소가, 2019년 코로나가 그때 즈음, 그 목재소가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일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참여자 D)

○ 나이가 많다고 일자리가 없는데다,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까지 축소되어 돈벌이가 줄고, 거주지 도배·장판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함.

- “(3년간 도배·장판을 한 적이) 아주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냥, 환경으로 치면 말할 수도 없고. 뭐 또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에서 일을 조금 주고 하더라도, 올해는 아예 안 주더라고, 몇 번을 동사무소, 구청에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인원은 많이 줄어서도 안 된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조금 젊은 쪽에는 젊은 쪽을 택하고 우리는 나이 많다고” (참여자 F)
-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반찬을 사도, 조금 풍족했는데, 지금 반찬 1만원 사봐야, 이틀만 먹으

면 끝입니다. 반찬 요만한 거, 5,000원이라는데, 한 두 끼, 이틀 정도 먹으면 없거든요. 시장가서 사 먹는데, 근데 요새는 반찬값이, 전에는 12~13만원으로 된다면, 지금은 한 18만 원 정도, 한 달에 18만원 정도, 20만 원 정도, 반찬값이 들어갔는데, 그건 무시 못하겠더라고, 반찬값이, 한 5~6만원 씩은 더 올라갔지, 한 달에” (참여자 G)

○ 젊은 경우, 되려 경험이 없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함.

- “지금도 일을 못 구했거든요. 빨리 구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 일을 아예 안 배운 상태로 지금 있다 보니까, 알바로 면접 보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찾다 보니까,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상하차, 막노동 이쪽으로 제가 하려고는 하는데 ... 근데 (대학) 졸업을 ... 안 해가지고 ... 좀 여유로워 지면, 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대학교 복학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H)
- “뭘 하려고 하는데 면접을 보면 안 되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상하차를 해서 막노동을 하려고 하면 무릎 수술한 게 있어서, 군대에서, 그게 좀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참여자 H)

○ 건강상의 문제와 수급 조건에서 벗어날까봐 우려되어 공공근로 등 일하기가 꺼려짐

- “몸도 불편해가지고 안 되고, 이제 수급 받으면 그런 거 일절 못 하게 하더라고요. 저번에 구청에서 교육받는데,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딱 (수급을) 끊고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옛날에 몸 다치는 바람에 그거 때문에 ... 치료는 잘 안 하고...또 그리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일할 능력도 안 되고” (참여자 B)
- “잘못 나가면 큰 일 나, (다칠까 봐요?) 아니, 수급이 안 될까 봐 ... 그래, 전에는 동사무소 한 번 갔어, 공공근로 한다고, 우리 ○○동에서, 플랜카드도 붙여놨더라, 그래서 한번 갔다. 가서 애원복걸을 했어, 이 수급자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돈이 쪼달리니, 공공근로라도 좀 하면 안 되냐 하니깐, ‘그 (수급비) 돈 갖고 아껴 쓰세요’ 그러더라고” (참여자 I)
- “기초 수급자가 되니깐,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욱.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깐, 두 가지를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살겠더라고 그냥” (참여자 J)

제 4장

모니터링 결과



I. 시민인권모니터단의 실태조사 모니터링 활동 개요

○ 시민인권모니터단의 모니터링 활동 및 활동 후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기간: 2022. 11.01.~2022.11.10.
- 모니터링 활동 인원/건수; 19명/ 30건
- 모니터링 활동 후기: 10건
- 모니터링 활동 후기 내용: 공간(거주지 등), 사람(주민 등), 조사(질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과 단원의견

II. 공간(거주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작은 공간(3평~4평)에서 거주하면서 만족함(4명 모두). 주방 없는 공간에서 살아도 만족하다고 함. 임대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 있냐고 하니 아파트가 살기는 좋으나 병원 멀고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서 이사 갈 계획 없다고 함(4명 모두). (단원 A)
- 11월 8일 부산진구 쪽방을 방문함. 생각보다는 깔끔하고 화장실 시설이 잘되어 있었음. 정부 보조금이 더 많으면 높은 고지대보다 평지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단원 B)
- 11월 9일 오전 부전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니 여인숙 간판이 보였음. 조금은 낡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쪽방 상담소 직원과 함께 여인숙에 사시는 분의 좁은 방으로 들어감. 방은 불편하고 너무 좁았지만 나름대로 잘 가꾸어온 나무들로 딱 차있었음. 급급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이었음. 좁은 복도라 화재나 위험이 산재해 있었음. 그리고 상담소 직원과 또 다른 전포동의 고시원으로 감. 나름대로 걸로 보기에 깔끔한 건물이었었는데 3층 고시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는 두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었고 방 안은 볼 수 없었음. 좁은 주방에서 주민과 만나 이야기 함. 위험해 보였고 냄새나고 개인 사생활이라고는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단원 C)
- 주민들의 거주지는 좁고 비교적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고 방의 위치에 따라 채광이나 소음도 심했고 오래 된 모텔(여관)이라 주방시설 없고 방안에 버너사용 음식 데워 드심. 욕조가 있고 창문이 있는 방은 가격(30만원)이 비교적 높았고 평수에 따라 (20~25만원) 달세가 적용됨.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웠음(침대방 매트 소독 안 되고 정수시설 없고, 화재 위험 높음) (단원 D)
- 약60평의 건물 2층에 40명이 생활하는 공간임. 창문 없는 방도 많고 방들이 연결된 문 위쪽이 작은 모기장이라서 감염 및 소음에 취약함. 공용 세탁실 및 취사실이 있으며, 가스레인지 2구의 조리 기구를 다함께 사용함. (단원 E)
-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비주택 거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이 비록 좁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역 근처라 교통이 편리하고 근처 부대시설 등도 잘 되어있으며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어서 외로움이 덜하다는 생각이 공통적이었음. 방 위쪽 천정은 전체적으로 뚫려있어서 방음이 안되어 불편하지만 옆방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함. (단원 F)
- 2022년 11월 3일 진구쪽방상담소 활동가와 부전시장 근처의 쪽방으로 실태조사함. 실제 자는 곳을 살펴 볼 수는 없었지만, 방문의 간격을 보면, 매우 협소한 공간이라고 추정됨. 홈리스분들이 “창문이 없는 방에 거주 한다”, “창문이 있는 방은 조금 더 비싸다”는 말을 통해서 창문이 없어 환기와 채광이 되지 않는 공간에 거주함을 알 수 있었음. 관리자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 하지만 건물 안에 있는 쪽방의 구조상 환기나 채광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단원 G)

- 2022년 11월 4일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국장님의 안내로 NC백화점 인근(경남공고 부근) 골목의 쪽방촌을 방문한 내용을 개략하여 보고하면, 1) 우선 건물의 외관은 꽤 좋은 4층 정도의 평범한 꽤 좋은 건물이었으나 계단을 올라 걸어간 2층의 쪽방촌은 양복도를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은 집단촌이었음. 2) 베니아 합판으로 벽을 둔 공간에 침대와 간단한 소지품만 둘 정도로 좁은 방에 분위기는 글자 그대로 쪽방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감을 느끼고 특히 화재시에는 위험과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처음 본 방의 구조였음. (단원 H)
- 동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과 2022.11.01. 오전 10시 중앙대로 인근(이전에 여인숙)의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를 함. 방문한 곳은 이전에 여인숙으로 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명이 외출하여서 4명(여자 2명, 남자 2명)을 조사함. 대상자의 거주지는 조용하고 깨끗한 편이며 채광도 잘되고 있는 편임(1층 거주하는 한명만 앞에 있는 도로로 인해 햇볕이 들지 않고 있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의 싱크대의 보수가 필요하며, 목욕은 할 수 있지만 온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음. (단원 I)
- 2022.11.09. 오전10시경 동구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주거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음. 거주 유형, 거주 시기, 거주 비용을 확인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유를 모니터 했음. 저렴한 주거비용과 교통편의 등을 거주이유로 꼽았으며, 거주환경의 불편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봐서 장기거주에 따른 익숙한 주변여건의 환경이 주민들에게는 편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졌음. (단원 J)

Ⅲ. 사람(주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4명(남 3명, 여 1명)의 주민을 만남. 모두 밝고, 긍정적인 분들임. (단원 A)
- 주위 환경이 여러 다세대 주택이라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함. 하지만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람에 대한 거리감은 없는 듯 하였음. (단원 B)
- 대체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듯 보였으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힘들어 보였음. 수급비에서 주거비를 보태서 방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어렵고,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에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다고 하였음.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의지할 곳이 없고 나이가 들어 다리도 아프고 아픈데도 많다고 하였음. (단원 C)
- 거의 하루 일과 중 20시간을 방 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음.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였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보장되지 않았고, 개인 욕실도 없으며,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없어, 현재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하였음. 과거에 좀 더 잘 살 것을 이라는 말도 하였음.(단원 C)
- 대체로 집주인(모텔)과 잘 지낸다고 함. (모텔의 같은 복도)라인 주민들과도 인사 정도나 안부도 건넨다고 함. 대부분 일용직이나 지병으로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모텔 주변 일반 주민들과는 그다지 왕래는 없다 함. 주기적으로 도시락을 쪽방상담소와 동사무소, 봉사단체에서 직원분들이나 봉사자가 가져다주고 도움도 받고 소통하고 있다고 함. (단원 D)
- 면담에 응해주신 60대 중반과 50대 초반의 거주자 다섯 분은 모두 신체가 건강하신 편임. 마음이 우울하다는 말을 하신 분이 계셨음. (단원 E)
- 창문이 있는 방은 방세가 조금 더 비싸고 창문이 없어 갑갑한 방도 있지만 공동화장실과 세면실, 부엌을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며 서로 안부를 전함. 쪽방상담소가 근처에 있어 도움을 받는 점도 커다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음. 임대주택에 가는 것이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다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왕래 없이 단절되는 두려움이 커서 이곳에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음. (단원 F)

- 대부분의 홈리스분들은 친절하고 성실히 답변. 깔끔하고 말씀도 조리있게 잘하심. 인상적인 것은 화재나 홍수 같은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보다도 쪽방상담소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점이었음. 같이 거주 하는 쪽방 이웃들과도 거의 소통하지 않는다고 함.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됨. (단원 G)
- 거주자의 대부분은 생계가 어렵거나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가진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며, 몇 년간 장기 거주자도 있으며 거주하다 보니 이곳 생활에 적응하여 일자리나 취업도 원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지내는 하루살이가 대부분임. 일가 친척간 서로 연락도 두절 된 자가 많은 것 같고, 20명이 집단으로 공동취사하는 장소에서 아침 식사하면 병원진료나 거리를 배회하다 귀가하는 생활로 장래의 희망도 없이 보내는 감을 가짐. (단원 H)
- 대상자들은 생활하는데 만족하지만 매월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해 좀 더 혜택 받기를 원하고 있음.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느낌을 받음. 시간의 흐름에 대한 기억을 잘하지 못하여서(대충하거나 이전의 기억을 거슬러 기억을 하도록 돕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단원 I)
- 주민 대부분이 생계, 의료, 주거의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음. 쪽방촌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로서 동네의 주거환경 및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했음. 이웃과는 대체로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공가가 차츰 늘어나면서 주변환경이 불량해지는 것을 염려하였음. (단원 J)

IV. 조사(질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질문지가 좀 많다는 생각은 했음 (단원 B)
- 주거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좁다, 곰팡이나 누수, 주변인에게 위협을 느꼈던 경험)과 달세나 현재 처한 상황(무직,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공간에 있는 시간, 바라는 희망 주거환경(주택, 원룸, 다세대아파트)조사였고, 바라는 것(현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님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도 있었음. 적절한 조사(매뉴얼)이었음. (단원 D)
- LH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함. 현재 월세 20만원~24만원 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음. 하지만 다섯 분 모두 임대주택에는 안가고 싶다고 대답했음. 이유는 모두 동일하게 1.외롭다. 2.아플 때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음. (단원 E)
- 비주택 거주민들이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는 모두 성실하게 응대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명하였음. 쪽방상담소 직원과의 유대감이 느껴졌음. 쪽방상담소 직원은 그들이 대답하는 말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잘 파악하여 질문하고 체크하였음.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실시해서 그런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에 익숙해 하는 분위기였음. 한 분씩 차례대로 모니터링 하고 나가는 모습이 체계적으로 느껴졌음. (단원 F)
- 질문지 글자가 작아서 홈리스분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음. 간혹 한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음.(쉬운 문법이 틀림) 마지막에 쪽방에 만족하냐는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비추면 쪽방은 만족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변화가 가능하다면 다들 더 나은 조건의 방에서 지내기를 원할 것 같음. (단원 G)
- 쪽방상담소 담당자는 주민들의 신상을 상세히 알고 주민들은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불편 사항과 건의할 점을 중심으로 하여 장래의 희망을 청취함.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칸막

이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 전화나 대화에 신경이 쓰임. 좋은 점은 시내 중심가에 있으니 병원 가기가 용의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음.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음. (단원 H)

- 조사 질문지의 내용이 대상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글 읽는 것을 힘들어 하여서 내용을 읽어 주면서 설명을 같이 하였지만 연세가 많거나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려워함. (단원 I)
- 거주하는 공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주거의 노후화 및 단독의 목욕시설이 없는 등 거처의 열악한 시설을 어려움으로 꼽았음. 주거에 대한 상담을 받았지만, 차후 도움이나 지원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토로했음. (단원 J)

V. 단원 의견

- 4분 모두 밝고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가졌던 긴장감은 없어짐. 남성분들도 거주 공간은 매우 깨끗하게 하고 살고 있었음. 불편함을 긍정으로 바꿔 살고 있는 사람들 세계와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세계를 보게 되었음. 쪽방촌이라 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허름한, 티비에서 나오는 거주 공간처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달랐음. 여성분 거주 공간은 빌라이지만 1층이고, 공동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어 크게 놀라웠음. (단원 A)
- 사는 게 무엇인지 너무 안타까웠고 눈물이 쏟아질 뻔하여 감추느라 혼이 났음. 그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음. 답답하고 좁고 누추한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곳에 어떻게 머무르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있는지, 많은 궁금증이 마음 한편에서 커져만 갔음. 상담소 직원과 내가 갔을 때 그분들은 늘 고마움을 표현했음. 별일 아닌 일인데도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임. 그 모습이 눈에 선함. 그들이 느끼는 깊은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음.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음. (단원 C)
- 인권모니터 활동으로 쪽방 상담소의 활동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주위에 노숙하시는 분들 보다 모텔이나 고시텔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해보였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의·식·주가 중요한데 조사과정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도 참 소중하다 느꼈음. 추위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같은 주거 공간에 사람들과의 왕래와 서로 소통함이 이분들에게 심신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주면(개인적 의견) 주거문제만 이라도 해결되면 삶의 의지도 더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실 분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함. (단원 D)
-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많이 보았음.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임. 그런데 낯선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단원 E)
-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기초생활 대상자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음. 임대주택을 선택 가겠다는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과 고독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음. 임대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쪽방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조금은 더 나은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단원 F)
- 평소에 생각하던 홈리스들분과는 다른 느낌이었음. 이웃 아저씨 느낌이라까, 홈리스분들에게 적절한 공간과 위생시설이 마련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음. 생각보다 주변에 부전시장이나 시민공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쪽방에 있다고 하셨음.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음. (단원 G)

- 주민들이 살아 가야할 희망을 갖고, 자립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정서적 지도를 도모하고 친밀한 관계의 일가·친척·지인·이웃을 찾고, 상호유대를 맺도록 결연단체를 조성하여 협력하였으면 함. 우선 화재시 위험의 공간을 피하도록 모색함. 귀촌이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였으면 함. (단원 H)
- 4명을 조사하면서 질문이 어렵다 보니 대상자가 답을 할 때 대충 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주거관련에 대한 정보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지만 현재의 주거 환경보다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할 수 없음. 썩크대 교체가 필요해 보이나 주인은 관심이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을 보임. 온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겨울에 불편할 것으로 사료됨. 대상자들은 지금의 환경에 만족한다고 표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월 지원금을 좀 더 올려 주기를 원함(대통령 공약으로 빨리 지원되기를 바램). (단원 I)
-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주거 불편시설물의 보수를 지원받는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모니터를 위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지닌 채 생활하는 주민도 계셨음. 그분들을 위하여 주거개선과 아울러 개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느껴졌음. (단원 J)

제 5장

제 언



I. 조사 결과 요약과 인권

1. 비주택 주거 유형, 그리고 인권

- 조사에 참여한 비주택 거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시원·고시텔 33.5%, 기타(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등 49건) 24.5%, 판잣집, 비닐하우스 8.0% 순으로 나타남.
- 조사한 비주택 주거 유형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객실, 고시원·고시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이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숙식을 해결하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적어도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객실,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67.5% 이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까지 포함한 경우) 92.0% 미만임을 알 수 있음. ▶이처럼 다수가 밀집된 공간일수록, 제대로 된 방음시설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명 밝기 등을 조절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야 함. 또한 소화기·스프링쿨러와 같은 방화시설을 갖추으로써 화재위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비주택 주거 시설 현황, 그리고 인권

- 조사에 참여한 비주택 거주민이 거쳐하는 방의 개수가 1개인 경우가 96.0%이며, 4.0% 정도가 2개 이상으로 나타남.
- 부엌 형태는 공동사용-입식이 38.0%로 가장 높고, 없음 29.5%, 단독사용-입식 (16.5%), 단독사용-재래식(14.5%), 공동사용-재래식(1.5%) 순으로 나타남.
- 화장실 형태는 공동사용-수세식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사용-수세식(25.5%), 공동사용-재래식(6.5%), 단독사용-재래식(3.0%) 순으로 나타남.
- 목욕시설 형태는 공동사용-온수 있음이 43.0%로 가장 높고, 단독사용-온수 있음(24.0%), 없음(23.5%), 공동사용-온수 없음(5.5%), 단독사용에 온수시설 없음(4.0%) 순으로 나타남.
- 난방시설 유무는 있으며 가동함 93.5%로,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5.0%, 없는 경우도 1.5%로 나타났음. 난방시설 가동함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때 난방시설 형태는 전기장판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스보일러 9.1%, 기름보일러 7.6%, 전기보일러 7.1%, 연탄보일러 6.1%, 기타 4.6%, 중앙난방(지역난방) 1.5%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9건)는 전기판넬로 나타남.
- 비주택 주거 시설은 96% 이상이 1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방의 면적 1평 남짓으로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화장실(71.5%), 목욕시설(48.5%), 부엌(39.5%)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시설과 부엌이 아예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방은 물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사생활이 잘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공간임에도 다수가 공동 사용하거나 비좁거나 변기 내지 샤워기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온수 시설조차도 대략 3분 정도 순간적으로 온수가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함. ▶따라서 취사도구가 구비된 부엌에서 적절하게 조리하여 안정적인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야 말로, 거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난방시설의 경우, 93.5%가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의 난방시설은

전기장판이 6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사실상 잠자리용 전기장판이 주거 난방을 대신하고 있는 것임. 특히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23.1%, 6명)보다 남성(70.0%, 119명)이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남성의 경우 전기장판(70.0%, 119명) 사용이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연탄보일러(38.5%, 10명), 전기장판(23.1%, 6명), 가스보일러(19.2%, 5명) 등의 순으로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난방시설 가동에 있어 남녀 격차가 나는 원인은 조사에 참여한 주민의 성별에 따라 거처 종류가 남성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8.2%, 고시원·고시텔 35.3%가 높고, 여성은 판잣집, 비닐하우스 50.0%, 기타 23.1% 순으로 나타는 것에서 기인한 것임. 따라서 숙박업소 객실 및 고시원·고시텔과 같은 거처 유형은 잠자리용 전기장판이 난방시설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거처 유형은 연탄보일러가 난방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거의 주요 기능은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며, 주거권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집에서 살 권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난방시설이 갖추진 주거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3. 비주택 거주 시기와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인권

- 비주택에 거주하기 시작 시기는, 15년 이상 3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년 미만 19.5%, 3년 이상 7년 미만 18.5%, 30년 이상 13.5%, 7년 이상 10년 미만 1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현재 거처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미만 21.0%, 5년 이상 10년 미만 19.5%, 15년 이상 14.5%, 3년 이상 5년 미만 14.0%, 10년 이상 15년 미만 9.0%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비주택 주민들은 비주택 거처에 15년 이상 오랫동안 살면서, 1년 또는 3년 미만 마다 다른 비주택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가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어서 20.5%,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13.5%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은 평일 17.3시간, 주말 18.2시간으로 나타남.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현 거처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남성은 저렴한 주거비가 32.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예전부터 계속 거주해서가 23.1%로 높게 나타남. 또한 거처에 머무르는 시간의 경우, 남성 16.9시간보다 여성이 19.9시간으로 더 많이 거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예전부터 살던 거처에서 장기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8.9시간 가장 많이 거처에 머물며, 비수급의 경우 13.1시간을 거처에서 보는 반면, 수급의 경우 18.2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거처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같이 받는 경우는 23.0시간을 거처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하루 종일 거처에 머물고 있음. ▶**이처럼 비주택 주민은 장기간 하루 대부분을 거처에 머물기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교차분석 결과, 주거급여를 받는 주민은 83%(200명 중 167명)이며, 이들 중 비주택 거처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53.9%(90명), 3년 이상 10년 미만 31.1%(52명), 3년 미만 15.0%(25명)인 반면, 현 거처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3.4%(39명), 3년 이상 10년 미만 38.3%(64명), 3년 미만 38.3%(64명)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주민은 72.0%(144명)이며 이 중 비주택 거처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57.6%(83명)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현 거처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25.7%(37명)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주택 거주민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빈번하

게 비주택에서 비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주민들이 딱히 갈 곳이 없어 그나마 주거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비주택 지역 내에서 좀더 나은 거처를 찾아 이리 저리 옮겨 보지만, 낮은 주거급여만으로는 열악한 거처에서 열악한 거처로 거듭 옮겨 다니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심층면접에서도 주거 상향을 원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주거급여에 맞는 거처로 옮긴 들 거기서 거기이기에 좀 더 나은 거처로 옮기기 위해 적은 소득을 쪼개어 오랫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잦은 실직과 물가 상승으로 쉽사리 주거 상향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함. 따라서 비주택 거주민이 상향된 주거로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급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거주민 스스로 주거 상향 비용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건강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소득이 실제 주거 상향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거상향을 위한 저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4. 비주택 거처의 점유 형태와 주거 비용, 그리고 인권

- 현 거처의 점유형태는 월세 94.0%, 자가 3.0%, 전세 2.0%, 연세, 무상이 각 0.5% 순으로 나타남.
- 주거비(평균)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60만원에 월세 21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1만원이며, 자가는 매입 가격 305만원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가 5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세는 보증금 338만원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2만원, 연세는 20만원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는 ‘있다’가 12.0%로 나타나고,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있다 13.9%, 여성은 있다 0.0%,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있다 20.8%, 생계급여는 있다 25.0%, 의료급여는 있다 66.7%, 주거급여는 있다 22.2%, 생계급여·의료급여는 있다 50.0%,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있다 9.1%, 의료급여·주거급여는 있다 0.0%,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는 있다 8.3%로 나타남. 그리고 <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4명의 연체 이유는 실직, 기타가 각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비 16.7%, 의료비, 부채상환 각 12.5% 순으로 나타남. 이때 기타(7건)의 세부 내용은 수급비 연체, 음주, 일용직을 못 해서 생활비 부족 등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생계·주거급여보다는 의료급여를 받는 거주민이, 음주 및 건강 악화와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세>를 연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주민의 건강 회복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은 주거 안정성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거주민의 건강권과 노동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향상시킬 것임.
- 또한 현 거처 점유형태는 월세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월세 97.7%, 전세, 자가, 연세, 무상 각 0.6%가 높고, 여성은 월세 69.2%, 자가 19.2% 순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나타남. 이는 조사에 참여한 주민의 거처 종류가 남성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8.2%, 고시원·고시텔 35.3%가 높고, 여성은 판잣집, 비닐하우스 50.0%, 기타 23.1% 순으로 나타는 것에서 기인한 것임. 여성의 경우 자가가 1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때 자가의 매입 가격은 305만원 정도인 점, 그리고 여성의 거처 유형이 판잣집, 비닐하우스 50.0%인 점으로 보아, 점유형태가 자가라고 하여도 거처 상태가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비주택 거주민의 경우, ▷보증금 60만원/월세 21만원/월 공과금 1만원(연간 약 324만원) ▷자가 매입 가격 305만원/월 공과금 등 5만원(연간 약 365만원), ▷전세 보증금 338만원/월 공과금 등 2만원(연간 약 362만원), ▷연세 20만원(연간 약 240만원)인 점으로 보아, 연간 주거비는 약 240만원에서 약 365원 정도로 파악됨. 그리고 심층면접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알아봤지만 주거 이전 및 살림도구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 교통이 불편하여, 살던 곳을 떠나야 해서 등의 이유로 주거상향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종사자는 “임대주택 입주를 고민하는 이유 중 입주를 위한 비용의 고민을 말한다. 임대주택 현재 쪽방주민들은 LH임대주택 입주 시 5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수급자의 경우

주거복지재단에서 50만원을 되돌려주고 있다. 그 외 이사비 20만원과 생활용품 20만원도 제공되는데 수급과 비수급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이사비와 생활용품 지원은 2023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경우 쪽방에서 주민확인증을 발급받아 LH에서 주거취약계층 등록을 마친 뒤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에 대한 막연함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최근에 제공되는 임대주택 중에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되는 생활용품들이 최소화 되지만 그 외 빌라, 주택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없으면 침대, 옷장, 식탁, 티비(텔레비전), 세탁기에서부터 심지어 밥솥, 냄비, 후라이팬 등 소소한 용품까지 사야 할 품목들이 많다. 이사비와 생활용품 등 일정 금액이 지원되지만 평균 소비되는 금액은 15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 안에는 심리적 안정액도 포함된다"라고 함.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 중 비용의 부담으로 망설이는 주민에게 평균 25만원의 임대료의 반값인 125,000원에 1년간 제공하고 1년간 매월 125,000원을 저축하여 임대주택 입주시 희망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함. ▶이와 같이 주거 상황을 위한 저축과 저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주거 상황에 대한 동기를 부요하고 주거 상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거권 증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5. 비주택 거주민의 소득 수준 및 생계 비용, 그리고 인권

- 조사에 참여한 거주민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73.5%(이외 조건부 수급이 10.0%, 차상위계층 수급이 4.5%, 비수급이 12.0%)로 나타났고, 이때 생계급여 33.5%, 의료급여 31.7%, 주거급여 34.8%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 결과, 비주택 거주민들 다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갖기 힘든 경우가 다수임.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2022년에는 한시적인 공공근로마저 현저히 줄었다고 함. 심층면접에 참여한 주민들 중, 현재 거처보다 나은 주거로 이전을 위해 매월 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 섬마을 주거지로 옮기려고 자금을 모으는 것이 미뤄졌다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부산시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서비스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부산복지개발원, 2022)에 따르면, 쪽방 주민(다중응답 696명 기준)의 주 수입 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등의 정부 보조금이 50.4%(3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기초연금 15.2%(106명), 월급이나 일당 등 12.2%(85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간 월평균 수입은 전체 평균 77.6만원임. 지출 항목(응답자 1,213명 기준)은 의료비 28.6%(347명), 식비 27.3%(331명), 음주 10.4%(126명)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현재 저축을 하는 주민은 15.1%이며, 이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주거 공간 확보 47.4%, 병원 진료 28.1%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비주택 거주민은 월 약 77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월세 약 20~26만원(공과금 등 포함)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51~57만원으로 식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공간 확보 등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숙박업소의 객실 내지 고시원·고시텔과 같은 공동 취사도구 및 간이 취사도구를 사용하고, 공동으로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해 온 비주택 주민이 단독 생활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장만해야 하는 생활용품구입비와 이사비는 약 150만원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임을 알 수 있음. ▶이에 앞서 제시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1년간 월평균 임대료의 반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약계층 주거 상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함으로써 법·절차적 권리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6.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그리고 인권

-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는 ①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51.8%), ② 냉난방이 취약하다(50.3%) ③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48.7%), ④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42.7%), ⑤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4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외 ⑥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34.2%), ⑦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32.7%), ⑧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29.6%), ⑨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26.6%), ⑩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23.1%), ⑪ 화재 위험이 있다(19.1%), ⑫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18.6%), ⑬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17.1%), ⑭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14.6%), ⑮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12.1%), ⑯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11.1%), ⑰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10.6%) 순으로 나타남.
- 행정규칙 「최저주거기준」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의 [별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주거면적은 14㎡임.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유형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 고시원·고시텔 33.5%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고 51.8%(103명)가 응답함.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응답한 부산지역 쪽방 주민(49명)의 주거 면적은 3.3㎡의 경우 71.0%, 3.4~6.6㎡ 이하의 경우 22.8%, 6.7~9.9㎡ 이하의 경우 6.2% 순으로 평균 4.5㎡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모니터링에서도 일관되게 주거 면적이 1~1.5평으로 매우 협소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이 자신의 거처 안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거나, 윗풍과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협소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물론 자신의 거주지에서조차도 신체에 대한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으며, 비록 ‘적정 주거의 거처’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행정규칙에 명시된 최소 주거면적 14㎡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제 주거용 거처로 사용되는 고시원 등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적정주거의 거처 개선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난방시설의 경우, 난방시설이 있으며 가동한다가 93.5%(187건)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때의 난방시설은 64.0%(126건)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잠자리용 난방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난방시설은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음. ▶비주택 거주민의 다수가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취약한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건강권 증진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 비해 번기 개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별도의 싱크대와 건조대가 없어 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하고 식기류를 건조시키다 보니 비위생적인 경우도 있다고 함. 또한 목욕시설로는 샤워실이 있다 해도 3분~5분 정도 온수가 나오다 말거나, 공동 화장실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해서, 근처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제대로 씻기가 어렵다고 함. 그리고 세탁기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이어서 손세탁을 하거나 쪽방상담소 세탁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작은 크기라 해도 개별 세탁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방지 등을 이유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장기간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처이기에 간이 취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당초 건축물의 용도로 본다면, ‘적정 주거의’이기에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사람이 사는 ‘거처’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입법 및 규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화재방지를 위해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규제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화재방지 시설을 구비·강화하여 ‘적정 주거의 거처’를 ‘적정 주거’로 변모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인권적 주거 정책이란, 주거상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주거상향의 기

회와 여건을 조성해 줌과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처에서의 열악함을 개선하면서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주지하여야 함.

- 심층면접에서 비주택 거주민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한 것은, 좀 더 큰 공간에 거주함과 화재방지였으며, 주거 상황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것이었음. 하지만 건강이 양호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기는 어렵기에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적절한 일자리와 소득을 취하기는 힘든 상황임. 또한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공공일자리가 축소되는 정책과 시책 등에 따라 한시적인 일자리와 저소득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함. ▶따라서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상황에 대한 욕구가 자발적·자립적·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 일자리 정책에서부터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비주택 거주민의 노동권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 짐.

7. 이웃과의 관계 및 범죄 노출 위험, 그리고 인권

- 이웃과의 관계는 인사 정도만 한다 41.0%로 가장 높음. 그리고,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5.0%,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17.5%,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16.5% 순으로 나타남.
- 그나마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 경험은 적으나, 그래도 현 거주지의 동료 거주민에 의해 정신적 괴롭힘(6.0%),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4.0%), 신체적 구타(2.0%), 금품갈취(0.5%), 특정 종교 강요(0.5%)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거주민이 현재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에 대한 다중응답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외로움과 고립감 29.8%, 주거비 부담 27.4%가 높고, 여성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27.3%, 외로움과 고립감 20.5%로 나타났음.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주거비 부담 30.5%, 외로움과 고립감 26.0%, 60대는 외로움과 고립감 32.0%, 주거비 부담 29.5%, 70대 이상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외로움과 고립감 각 28.3%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현 거처에서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보다는 60~70대 이상이 연령에서 더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서 비주택 거주민이 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의 남성이며 현 거처에서의 어려움으로 주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이에 쪽방상담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비주택 거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비주택 거주민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권리와 소통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임. 또한 그간 비주택 주거민들이 주거상황을 한 이후 갑작스럽게 변화된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전달자와 유대감 저하, 이웃주민과의 괴리감 등으로 새 주거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주택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을 감소시키고 상향된 주거지에서 예측한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가며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적절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적정 주거에서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기반 및 연계 기반이 되어 줄 것이며, 이는 비주택 주거민의 주거상황 정책의 실효성을 인권증진과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8. 비주택 거주민의 가장 바라는 점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주거비 부담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25.5%), 외로움과 고립감(23.0%)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비주택 거처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 42.0%, 아니다 58.0%로 나타

났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19.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5%)’ 순으로 나타남. ▶이처럼 비주택 거주민들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면적, 온수시설, 방화시설, 방음시설이 갖춰지기를 바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 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고시원/고시텔 등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최소 면적이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이 22.4% 순으로 나타남. ▶이처럼 거주민들이 호소하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몸을 가눌 수 있는 주거 면적’이 확보되려면, 최소 면적 기준, 방음 및 방화 설비 강화, 그리고 적정 임대료 기준 등이 입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비주택 거주민들이 향후 이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4.5%, 원룸 15.5% 순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은 정부지원 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살던 곳과 동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더 노후화되었거나, 별도의 개별 살림도구 마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함. 게다가 임대주택으로 이전한 후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쪽방과 같은 비주택 주거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함. ▶그래서 비주택 거주민이 임대 주택 등에 입주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례 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지, 경제활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주택 거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배치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으면 함.

II.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1991)」에 따르면,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해석,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함. 적당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서 파생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특히 규약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적절한 주거권의 향유는 어떤 형태의 차별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됨.
 - 주거권을 예를 들어 주거를 단지 머리위에 지붕이 있는 거주지와 동일시한다든가 순전히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기는 등 좁은 의미로 또는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됨. 그보다는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주거권은 다른 인권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약이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도 관계가 있음. 규약의 권리들을 파생시킨 것으로 일컬어지는 “인간 고유의 존엄”은 “주거”라는 용어가 다양한 기타 고려 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하게는 소득이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는 별개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또한 ▶ 제11조 1항은 단순한 주거가 아닌 적절한 주거로 해석되어야 함. 인간정주위원회와 ‘2000년까지 거주지 확보를 위한 범세계적 전략’은 모두 “적절한 주거란 ...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직장과 기본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위치 등을 의미하여, 이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라도 특정 형태의 주거가 “적절한 주거”를 구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

해 고려해야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여러 가지 형태, 즉 임대(공공/민간), 조합주택, 대여, 자가, 긴급 임시주택, 토지나 재산 점유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정주 등으로 존재함. 하지만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함. 그에 따라 당사국은 현재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적절한 주택은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에 필수적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적절한 주거권의 모든 수혜자는 천연의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과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시설, 비상서비스 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 **비용의 적정성.** 주거와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함.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이 소득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당사국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보조금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함. 비용의 적정성 원칙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수준의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천연물질이 주택 건축의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사회의 경우 당사국은 해당 물질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 **거주 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험,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주 가능해야 함. 거주자의 물리적인 안전도 보장되어야 함.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리학 적 분석에 있어서 주거가 질병유발요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즉 부적절하고 결합이 있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이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는 것임
- ▶ **접근성.** 적절한 주거는 권한을 갖는 자들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 혜택받지 못한 집단들에게도 적절한 주거 자원에 대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혜택받지 못한 집단, 즉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상습 지역 거주자 등에게 주거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함. 주택에 관한 법률 및 정책 모두 이들 집단들의 특별한 주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많은 당사국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 모두가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권리로서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정부의 의무가 확실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 ▶ **위치.** 적절한 주거는 직장 선택, 보건의료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함.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 가정의 지출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나 외곽지역에 모두 적용됨. 마찬가지로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됨.
- ▶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발 활동 및 주거 영역의 현대화는 주택의 문화적 차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히 현대적 첨단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보장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양대 국제인권규약과 여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인권과 별개로 볼 수 없음. 이런 관점에서 ▶**인간존엄성의 개념과 비차별 원칙**을 언급하였음. 또한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적절한 주거권을 실현하고 유지하려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점유자와 공동체 기반 그룹 등을 위해), 거주자의 자유,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할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여타 권리의 완전한 향유가 필수 불가결함**.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차원을 구성함.
-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방문결과보고서(A/HRC/40/61/Add.1, 2018)」의 ‘주요사안 3. 비공식 주거지: 고시원, 쪽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함.
 -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그리고 컨테이너 등 비공식 주거지나 주거 목적이 아닌 기준 미달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수가 2005년 5만 7천 가구에서 2015년 39만 4천 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이러한 비공식 주거지의 전체적인 주거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데, 비좁고, 과밀하며, 홍수나 화재에 취약하고, 실내 위생시설이 부재하여 특히 여성이 위험에 노출됨.
 - 특별보고관은 고시원과 쪽방 거주자를 모두 만났음. 고시원은 초기에 학생을 위한 임시 숙박 시설로 지어졌음. 평균적으로 고시원은 3 제곱미터 남짓의 좁은 방으로, 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1인용 침대와 작은 책상이 하나씩 들어가면 딱 찰 정도로 좁음. 고시원은 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관리자가 관리하며, 공용 주방과 공동 위생시설을 가지고 있음. 오늘날 이와 같은 기준 미달의 주거지에는 비단 학생만이 거주하지 않음. 오히려 고시원에는 주로 실직하거나 은퇴한 노인 등 저소득층이 거주함. 비좁은 면적과 기준 미달의 환경을 고려하면 고시원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싸며, 그 비용은 한 달에 22 만원에서 45만원(220에서 450 달러) 수준임.
 - 쪽방은 건설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임시 숙박 시설로, 2.5에서 5 제곱미터 남짓의 단칸방과 공동 주방 및 위생시설로 이루어졌음. 특별보고관은 이와 같은 주거지를 몇 군데 방문했고, 해당 방문을 통해 몇몇 쪽방은 앉아서 자거나 구부린 채 잠을 자야 할 정도로 비좁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쪽방은 월, 주 또는 일 단위의 단기 임대만 가능함. 하지만 이렇게 단기 임대차 계약만 존재함에도 쪽방 거주자의 57 퍼센트는 장기적으로, 약 7년 이상 쪽방에 머뭄.
 - 많은 빈곤층에게 이러한 주거형태는 최후의 보루임. 쪽방에는 하루에 7천원에서 8천원 (약 6에서 7 달러) 또는 한 달에 25만원 (약 220 달러) 수준에서 머물 수 있음. 서울 시내 다수의 쪽방을 조사하던 중, 특별보고관은 쪽방이 대부분 비좁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 수준이 형편없다는 점을 발견했음. 몇몇 방에는 빗물이 새고 있었고, 거주자들은 대체 주거지 마련도 못한 채 쫓겨날 수 있으므로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음.
 - 이러한 비공식 주거 거주자들은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특히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밀려 강제로 퇴거될 위험에 놓여있음. 이러한 주거지는 주로 플라스틱, 나무판자, 판지 등 가연성 자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들은 화재의 위험에도 직면함.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 가장 큰 비공식 주거 지역으로,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함. 낙후되거나 기준 미달의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비닐하우스에서 묵기도 함.
 -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그리고 기타 비공식 주거가 국제인권법 하의 적정한 주거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함.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열두 명의 부상자를 낳은 2018년 11월 9일 고시원 화재 사건을 보면 적절치 못한 주거 환경과 안전설비 미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아직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1번 목표, 11.1번 세부목표와 정부의 인권 의

무에 따라 이러한 비공식 주거를 개선하고 거주자들의 걱정된 주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우려함.

※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SDGs)의 11번 목표는 '회복력 있고 지소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며, 세부목표는 '11-1.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부담가능한 주거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이며, 글로벌 지표는 '11-1 지표는 슬럼, 비공식 주거지, 부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임*

- 「주거기본법(2015)」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특별보고관의 주거 전략에 관한 보고서(A/HRC/37/53)의 내용과 그 방향이 일치해야 함. 해당 법을 시행할 때, 정부는 주거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활용해야 함. 또한, ▶정부는 필요시에 관련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거기본법 시행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함.
 - 정부는 권리기반 주거 전략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7/53)에 명시된 ▶인권 원칙에 따라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과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일관성 있는 국가 행동 계획 또는 전략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
 - 정부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 그 중에서도 11번 목표와 11.1번 세부목표에 맞추어 ▶노숙 인복지법에 정의된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고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정부는 반드시 홈리스가 장기적 주거에 대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 그 대리인, 민간 경비 인력을 포함한 제3자들이 폭력이 아닌 존엄과 존중으로 홈리스를 대하도록 보장해야 함.
 - 정부는 거주자와 협의를 거치고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1번 목표와 11.1번 세부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담하며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국제인권법 상의 최소 적정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모든 주거지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정부는 기준 미달 주거지를 개선한 결과가 부담가능성의 감소, 홈리스의 증가, 가난한 사람들의 시설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 및 해당 맥락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권리기반 주거 전략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원칙 1: 법률과 법적 기준에 기반 두기, ②원칙 2: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우선시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③원칙 3: 포괄적이고 정부 전체를 아우르기, ④원칙 4: 권리기반 참여, ⑤원칙 5: 책임 있는 예산 책정 및 조세정의, ⑥원칙 6: 인권기반 목표 및 타임라인, ⑦원칙 7: 책임 및 모니터링, ⑧원칙 8: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 보장, ⑨원칙 9: 민간 행위자의 의무 명확화 및 금융, 주택, 부동산 시장 규제, ⑩원칙 10: 국제 협력 및 지원 이행
-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이행 지침(A/HRC/43/43, 2020)」의 '지침 7호.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포함한 비공식 주거지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약 4분의 1이 비공식 주거지에 살고 있어 많은 경우 기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재난에 취약하며 불모지에 거주하도록 내몰리고 종종 강제퇴거의 대상이 됨. 비공식 주거지의 매우 부적정한 주거는 전 세계에서 주거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장 만연한 분야임. 이와 동시에 비공식 주거지는 거주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활기차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조성한 중요한 성취이기도 함.
 - 비공식 주거지의 거주자는 종종 차별과 비난을 받으며 주거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권리 보유자로 인식되기보다는 법 위반자나 "침입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음. ▶개선 계획에 따라 거

- 주자가 부적당하고 원래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고용 기회나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되고 적절한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음.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지 접근을 보장하고 비공식 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1.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비공식 주거지의 거주자와 소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여건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행 조치는 다음과 같음.
 - ① 주거지를 개선하는 노력은 설계와 이행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포용적이며 권리에 기반한 참여와 책임이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함. 개선 노력은 거주자가 생계수단을 계속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공동체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가능하면 거주자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함. ▶개선된 주거지를 경제적으로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② 국가는 그것이 가능하고 ▶거주자가 원하는 경우 원래 주거지에 머물 권리를 보호해야 함. 재배치는 거주자의 동의 및 의미 있는 협의와 참여를 거쳐 다른 모든 선택사항을 살핀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함.
 - ③ 정부는 인권 기준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를 개선함에 있어 ▶인권기관 및 법원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함. 또한 개선 계획은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동체와 정보 공유 회의를 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검토하고 감독해야 함. 거주자는 대안적인 제안을 개진하고 요구사항과 개발 우선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 ④ 비공식 주거지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갖춘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을 위한 서비스 토지를 확보해야 함. 국가가 건설된 주택을 제공할 수 없거나 거주자가 원하는 경우 자체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자재와 기술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III.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과제

- 앞서 살펴 본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1991)」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이행 지침(A/HRC/43/43, 2020)」 등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실현방법,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본원칙으로**, ①정부 각 부처와 지역 및 지방 당국은 불리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에게 우선권을 마땅히 제공할 것, ②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회계층에게 이익을 주도록 정책과 법안을 고안하지 말 것을 제시함.
- **적절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주거 환경 개발을 위한 목표를 정의하고, ②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용자원 및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확인하며, ③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책임과 기간을 설정할 것, ④이러한 과정은 기타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모든 영향 받는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의 거주자들 및 그들의 대표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에 광범위하게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반영할 것, ⑤관련 정책(경제, 농업, 환경, 에너지 등)이 규약 제11조에 따른 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이를 위한 협력을 취할 것, ⑥주거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 ⑦정부 및 지자체는 규약 제11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관할권 내의 노숙과 부적합한 주거의 정도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제시함.

- **적절한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기반한 입법방향으로**, ①주거 측면에서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내 집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특히 이러한 집단에는 노숙자와 노숙자 가족, 부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집단, 불법 거주지에 살고 있는 집단, 강제 퇴거를 당한 사람들 및 저소득층 등을 포함할 것), ②주택 소유주(공공 또는 민간)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지원되는 임대료 수준, 유지 보수, 인종 또는 기타 유형의 차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③주거 접근에 대한 배분 및 가용성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주장 가능성, ④비위생적이거나 부적합한 주거 여건과 관련된 소유주에 대한 규제, ⑤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지표(구조-절차-결과: 거주 적합성, 서비스 접근성, 주택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 점유의 안정성)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규정할 것을 제시함.

1. 비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적 기준 제시

- 최소 면적 기준, 방음 및 방화 설비 강화, 그리고 적정 임대료 기준 등에 대한 입법적 기준이 제시되기 바람.
- 이에 관련 조례 등을 발의를 한다면,
 - 당사자, 실무자, 활동가,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 최소 면적 기준, 방음 및 방화 설비 강화, 적정 임대료 기준 제시하고,
 - 쪽방의 범주와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범주를 정하고,
 - 시행 중인 주거복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중복수혜 또는 남용이 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 자칫 법에 의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 고착화되지 않으며,
 - 적정한 주거 제공 방안이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2.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와 쪽방상담소의 통합적 기능 강화

- 비주택 거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배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이에
 - 그간 비주택 주민의 고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을 쪽방상담소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주택 주민의 외로움·고립감·막막함 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사회복지사와 함께 초기상담에서부터 주거상향 상담 등을 함께하면서, 적절한 회복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 주거 상향에 이후 약 3개월간 입주 후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3. 주거상향을 위한 반값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 활성화

-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시 입주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식 비용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 이에
 - 이사비와 생활용품 등 일정 금액이 지원되지만 평균 소비되는 금액은 15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 안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고,
 -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 중 비용의 부담으로 망설이는 주민에게 평균 25만원의 임대료의 반

값인 125,000원에 1년간 제공하고 1년간 매월 125,000원을 저축하여 임대주택 입주시 희망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4. 교통·보행이 편리한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강화

-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상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통과 보행이 편리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제공하기 바람.
- 이에
 - 임대주택을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가기 싫다고 답변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임대주택을 보고 높은 위치와 노후화 된 건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취약계층 대부분이 한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잦은 병원 방문 등의 사유로 교통과 보행이 좋은 위치에 있는 임대주택의 확보가 필요함.
 -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보다는 옵션이 보장되어 초기 입주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희망 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주거복지센터와 역할과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바람.

5.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건강 현황 실태 파악과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 시기적절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방문·동반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바람.
 - 고령화로 대사성 질환과 같은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 문제성 음주, 정신질환이 있을 시 진료 및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 주거 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병원 진료시 동반 및 입원시 간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이와 함께 현 건강 상태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바람.
 - 경제 위기·질병·고령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에서 불안정한 직업으로 혹은 실업 상태로 접어들어,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 주거상향을 위한 주거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통해 사회적 활동 재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 건강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근무시간 및 근무 업종의 발굴을 통한 시의적절한 제공이 필요함.
 - 기본적 의식주 유지 수준을 넘어서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순환적으로 주거의 안정과 심신 회복, 경제적 활동 재개를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주거권 국제기준 자료집: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관련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주거실태조사
- 부산광역시, 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 부산복지개발원, 2023. 부산시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 서비스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장은혜, 2018. 주거권 기본권의 쟁점과 전망
- 황세인, 2015. 쪽방거주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관련 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5호, 2020. 12. 29., 일부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9호, 2020. 12. 15, 일부개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8호, 2021. 6. 30,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3.] [부산광역시조례 제6666호, 2022. 4. 13, 일부개정]
- 「최저주거기준」 [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관련 국제기준

-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1991)」
- 「적정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주거권(A/71/310, 2016)」
-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방문결과보고서(A/HRC/40/61/Add.1, 2018)」
-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이행 지침(A/HRC/43/43, 2020)」

부 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I. 응답자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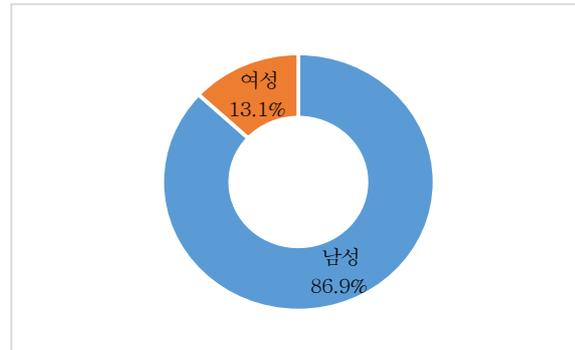
1.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86.9%, 여성 13.1%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항목	빈도	%
남성	173	86.9
여성	26	13.1
합계	199	100.0

<그림 40> 성별



2. 연령대

○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 이하 34.9%, 60대 33.8%, 70대 이상 31.3%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대

항목	빈도	%
50대 이하	68	34.9
60대	66	33.8
70대 이상	61	31.3
합계	195	100.0

<그림 41>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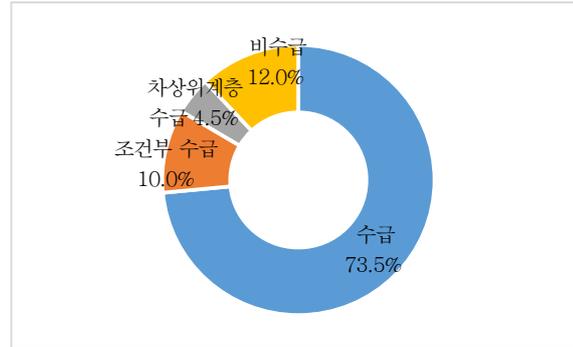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수급 73.5%, 조건부 수급 10.0%, 차상위계층 수급 4.5%, 비수급 12.0%로 나타났음.

<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항목	빈도	%
수급	147	73.5
조건부 수급	20	10.0
차상위계층 수급	9	4.5
비수급	24	12.0
합계	200	100.0

<그림 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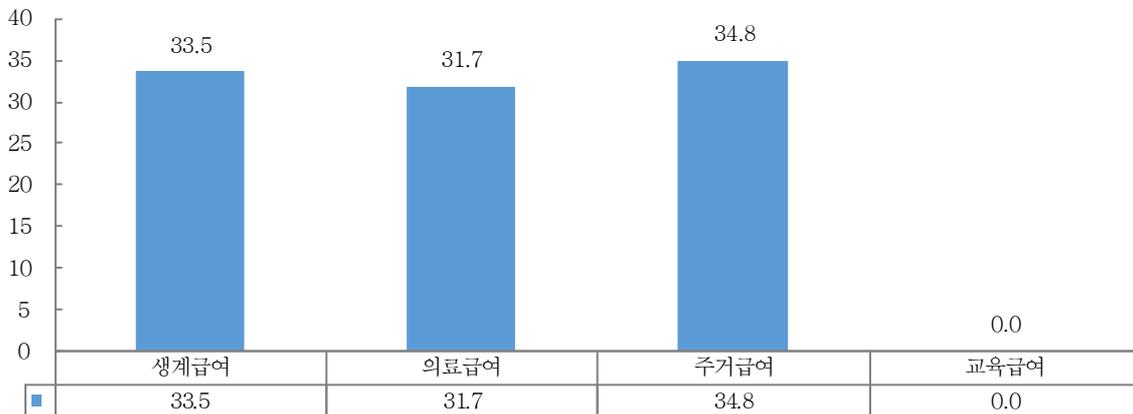
4. 수급 종류 (다중응답)

- 응답자의 수급 종류 (다중응답)는 생계 33.5%, 의료 31.7%, 주거 34.8%, 교육 0.0%로 나타났음.

<표 7> 수급 종류 (다중응답)

항목	빈도	%
생계급여	161	33.5
의료급여	152	31.7
주거급여	167	34.8
교육급여	0	0.0
합계	480	100.0

<그림 43> 수급 종류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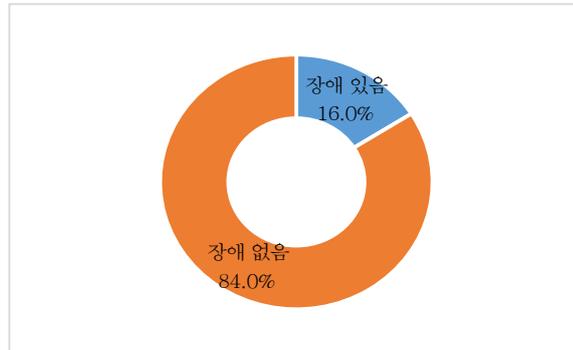
5. 장애 여부

○ 응답자의 장애 여부는 장애 있음 16.0%, 장애 없음 84.0%로 나타났다.

<표 8> 장애 여부

항목	빈도	%
장애 있음	32	16.0
장애 없음	168	84.0
합계	200	100.0

<그림 44> 장애 여부



6. 장애 유형 (다중응답)

○ 응답자의 장애 유형 (다중응답)은 정신 장애 15.4%, 지적/발달 장애 15.4%, 신체 장애 69.2%로 나타났다.

<표 9> 장애 유형 (다중응답)

항목	빈도	%
정신 장애	4	15.4
지적/발달 장애	4	15.4
신체 장애	18	69.2
합계	26	100.0

<그림 45> 장애 유형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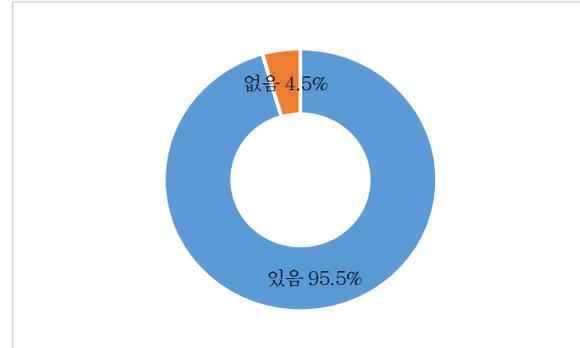
7.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 응답자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는 있음 95.5%, 없음 4.5%로 나타났음.

<표 10>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항목	빈도	%
있음	191	95.5
없음	9	4.5
합계	200	100.0

<그림 46>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Ⅱ. 거주 유형, 시기 및 이유



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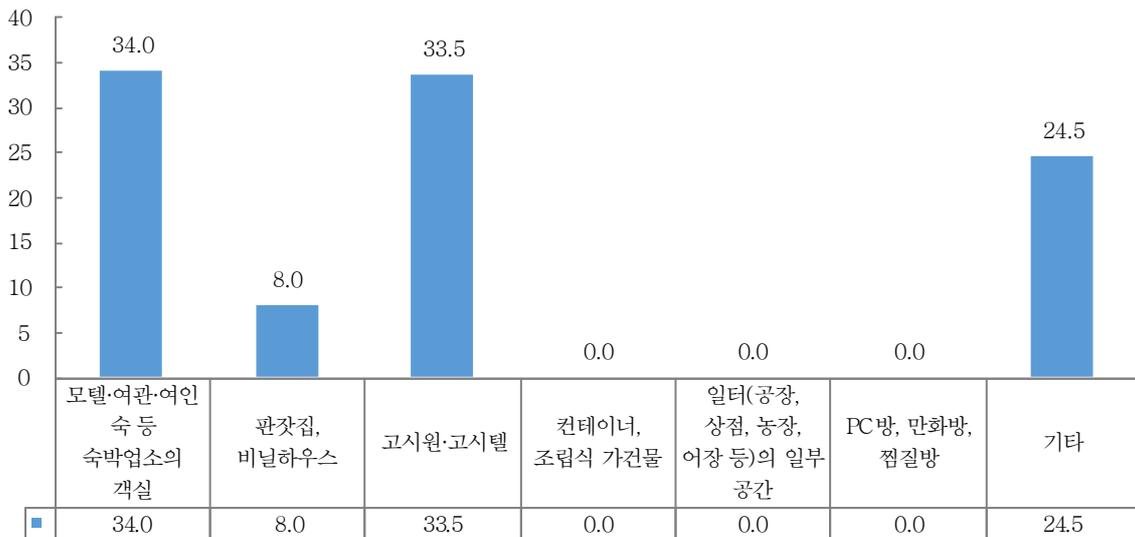
질 문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시원·고시텔 33.5%, 기타 24.5%, 판잣집, 비닐하우스 8.0%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49건)의 세부내용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나타났음.

<표 11>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항목	빈도	%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68	34.0
판잣집, 비닐하우스	16	8.0
고시원·고시텔	67	33.5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	0	0.0
일터(공장, 상점, 농장, 어장 등)의 일부 공간	0	0.0
PC방, 만화방, 찜질방	0	0.0
기타	49	24.5
합계	200	100.0

<그림 47>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8.2%, 고시원·고시텔 35.3%가 높고, 여성은 판잣집, 비닐하우스 50.0%, 기타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고시원·고시텔 57.4%,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2.4%, 60대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7.9%, 기타 31.8%, 70대 이상은 기타 32.8%,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1.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9.5%, 기타 31.3%, 조건부 수급은 고시원·고시텔 70.0%,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25.0%, 차상위 계층 수급은 고시원·고시텔 66.7%,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22.2%, 비수급은 고시원·고시텔 79.2%,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12.5%,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고시원·고시텔 79.2%,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12.5%, 생계급여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75.0%, 고시원·고시텔 25.0%, 의료급여는 고시원·고시텔 100.0%, 주거급여는 고시원·고시텔 66.7%,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고시텔 각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고시원·고시텔 66.7%,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8.9%, 기타 31.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타 각 40.6%, 장애 없음은 고시원·고시텔 38.1%,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32.7%가 높게 나타났음.

<표 12>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

항목			모텔·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의 객실	관갓집, 비닐 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	일터(공장, 상점, 농장, 어장 등)의 일부 공간	PC방, 만화방, 찜질방	기타	계
전 체		(빈도) %	(68) 34.2	(16) 8.0	(66) 33.2				(49) 24.6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66) 38.2	(3) 1.7	(61) 35.3				(43) 24.9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13) 50.0	(5) 19.2				(6) 23.1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2) 32.4		(39) 57.4				(7) 10.3	(68) 100.0
	60대	(빈도) %	(25) 37.9		(20) 30.3				(21) 31.8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9) 31.1	(16) 26.2	(6) 9.8				(20) 32.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8) 39.5	(15) 10.2	(28) 19.0				(46) 31.3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5) 25.0		(14) 70.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1) 11.1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3) 12.5		(19) 79.2				(2) 8.3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3) 12.5		(19) 79.2				(2) 8.3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6) 66.7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1) 9.1	(5) 45.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6) 38.9	(11) 7.6	(31) 21.5				(46) 31.9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3) 40.6	(3) 9.4	(3) 9.4				(13) 40.6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5) 32.7	(13) 7.7	(64) 38.1				(36) 21.4	(168) 100.0

2.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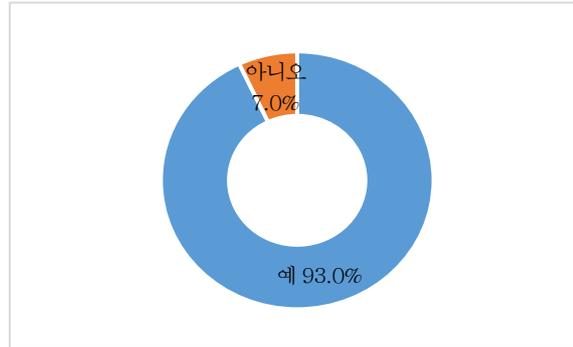
질 문	현재의 거처를 쪽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는 예 93.0%, 아니오 7.0%로 나타났음.

<표 13>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항목	빈도	%
예	186	93.0
아니오	14	7.0
합계	200	100.0

<그림 48>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는 ‘예’ 93.0%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예 93.6%, 아니오 6.4%가 높고, 여성은 예 88.5%, 아니오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예 94.1%, 아니오 5.9%, 60대는 예 92.4%, 아니오 7.6%, 70대 이상은 예 91.8%, 아니오 8.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예 92.5%, 아니오 7.5%, 조건부 수급은 예 95.0%, 아니오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예 100.0%, 아니오 0.0%, 비수급은 예 91.7%, 아니오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예 91.7%, 아니오 8.3%, 생계급여는 예 100.0%, 아니오 0.0%, 의료급여는 예 100.0%, 아니오 0.0%, 주거급여는 예 88.9%, 아니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예 100.0%, 아니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예 90.9%, 아니오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예 100.0%, 아니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예 93.1%, 아니오 6.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예 90.6%, 아니오 9.4%, 장애 없음은 예 93.5%, 아니오 6.5%가 높게 나타났음.

<표 1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의 쪽방 여부

항목			예	아니오	계
전 체		(빈도) %	(185) 93.0	(14) 7.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62) 93.6	(11) 6.4	(173) 100.0
	여성	(빈도) %	(23) 88.5	(3) 11.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4) 94.1	(4) 5.9	(68) 100.0
	60대	(빈도) %	(61) 92.4	(5) 7.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56) 91.8	(5) 8.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6) 92.5	(11) 7.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9) 95.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2) 91.7	(2) 8.3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2) 91.7	(2) 8.3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8) 88.9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0) 90.9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9) 90.6	(3) 9.4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57) 93.5	(11) 6.5	(168) 100.0

3.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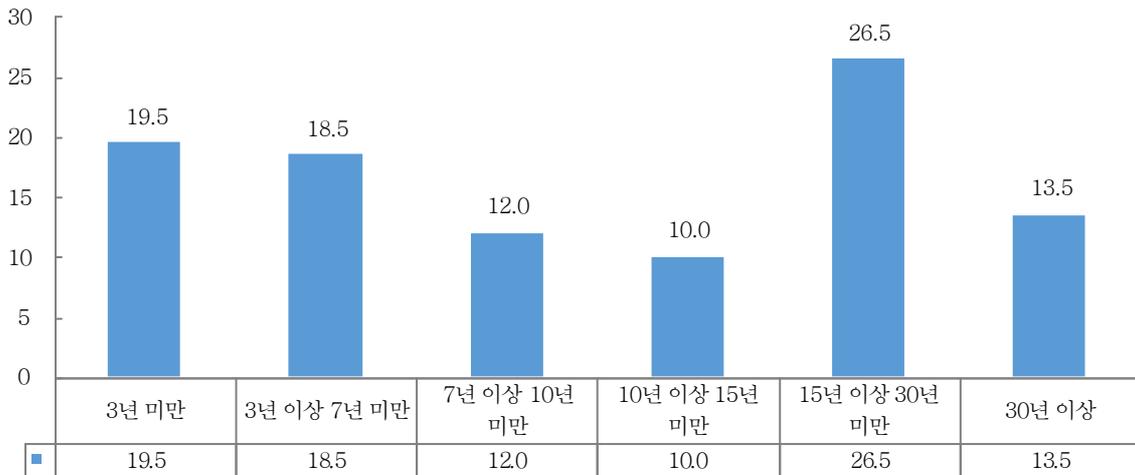
질 문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와 현재 거처에 거주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

-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는 15년 이상 3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년 미만 19.5%, 3년 이상 7년 미만 18.5%, 30년 이상 13.5%, 7년 이상 10년 미만 1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 순으로 나타났음.

<표 15>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항목	빈도	%
3년 미만	39	19.5
3년 이상 7년 미만	37	18.5
7년 이상 10년 미만	24	12.0
10년 이상 15년 미만	20	10.0
15년 이상 30년 미만	53	26.5
30년 이상	27	13.5
합계	200	100.0

<그림 49> 비주택 거처 거주 시작 시기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비주택 거쳐 거주 시작 시기는 15년 이상 30년 미만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15년 이상 30년 미만 30.1%, 3년 이상 7년 미만, 3년 미만 각 20.8%가 높고, 여성은 30년 이상 57.7%, 7년 이상 10년 미만 15.4%,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3년 미만 44.1%, 15년 이상 30년 미만 22.1%, 60대는 3년 이상 7년 미만 30.3%, 15년 이상 30년 미만 28.8%, 70대 이상은 30년 이상 34.4%, 15년 이상 30년 미만 31.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15년 이상 30년 미만 32.7%, 3년 이상 7년 미만 19.0%, 조건부 수급은 3년 미만 5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각 33.3%, 비수급은 3년 미만 50.0%, 3년 이상 7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각 1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3년 미만 50.0%, 3년 이상 7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각 16.7%, 생계급여는 30년 이상 75.0%, 3년 이상 7년 미만 25.0%, 의료급여는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각 33.3%, 주거급여는 3년 미만 55.6%, 7년 이상 10년 미만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3년 미만, 30년 이상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3년 미만 36.4%, 15년 이상 30년 미만 27.3%,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15년 이상 30년 미만 31.9%, 3년 이상 7년 미만 19.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15년 이상 30년 미만 46.9%, 10년 이상 15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30년 이상 각 12.5%, 장애 없음은 15년 이상 30년 미만 22.6%, 3년 미만 22.0%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주 거주 시작 시기

항목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전 체		(빈도) 19.6	(37) 18.6	(23) 11.6	(20) 10.1	(53) 26.6	(27) 13.6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20.8	(36) 20.8	(19) 11.0	(18) 10.4	(52) 30.1	(12) 6.9	(173) 100.0
	여성	(빈도) 11.5	(1) 3.8	(4) 15.4	(2) 7.7	(1) 3.8	(15) 57.7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44.1	(10) 14.7	(5) 7.4	(5) 7.4	(15) 22.1	(3) 4.4	(68) 100.0
	60대	(빈도) 9.1	(20) 30.3	(11) 16.7	(8) 12.1	(19) 28.8	(2) 3.0	(66) 100.0
	70대 이상	(빈도) 3.3	(6) 9.8	(7) 11.5	(6) 9.8	(19) 31.1	(21) 34.4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10.2	(28) 19.0	(16) 10.9	(15) 10.2	(48) 32.7	(25) 17.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50.0	(2) 10.0	(3) 15.0	(4) 20.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22.2	(3) 33.3	(3) 33.3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50.0	(4) 16.7	(2) 8.3	(1) 4.2	(4) 16.7	(1) 4.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50.0	(4) 16.7	(2) 8.3	(1) 4.2	(4) 16.7	(1) 4.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33.3	(1) 33.3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55.6	(1) 11.1	(3) 33.3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36.4	(1) 9.1		(2) 18.2	(3) 27.3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11.1	(28) 19.4	(17) 11.8	(16) 11.1	(46) 31.9	(21) 14.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6.3	(4) 12.5	(3) 9.4	(4) 12.5	(15) 46.9	(4) 12.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22.0	(37) 19.6	(21) 12.5	(16) 9.5	(38) 22.6	(23) 13.7	(168) 100.0

4. 현재 거쳐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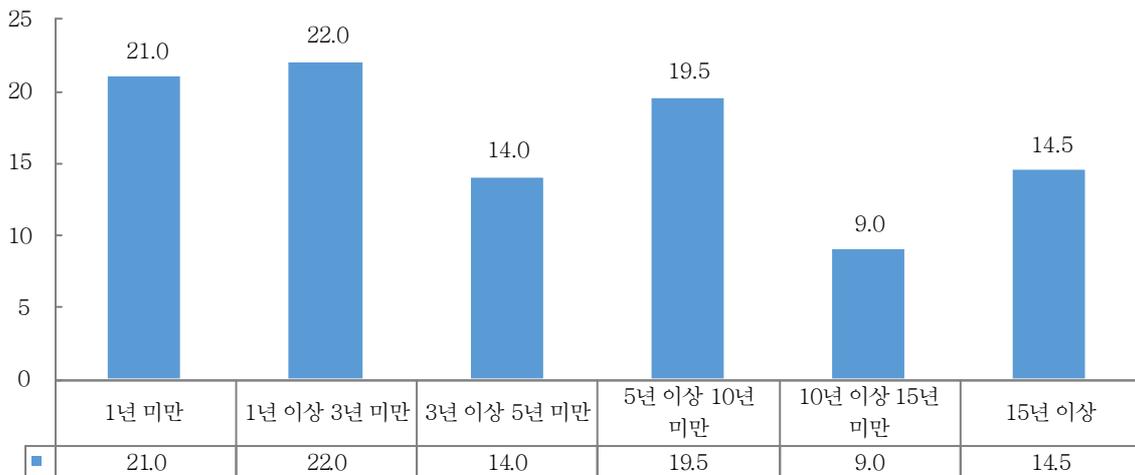
질 문	비주택 거쳐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와 현재 거쳐에 거주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

- 현재 거쳐 거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인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미만 21.0%, 5년 이상 10년 미만 19.5%, 15년 이상 14.5%, 3년 이상 5년 미만 14.0%, 10년 이상 15년 미만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현재 거쳐 거주기간

항목	빈도	%
1년 미만	42	21.0
1년 이상 3년 미만	44	22.0
3년 이상 5년 미만	28	14.0
5년 이상 10년 미만	39	19.5
10년 이상 15년 미만	18	9.0
15년 이상	29	14.5
합계	200	100.0

<그림 50> 현재 거쳐 거주기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재 거쳐 거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1년 이상 3년 미만 24.3%, 1년 미만 23.1%가 높고, 여성은 15년 이상 50.0%, 5년 이상 10년 미만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1년 미만 36.8%, 1년 이상 3년 미만 33.8%, 60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4.2%, 1년 이상 3년 미만 22.7%, 70대 이상은 15년 이상 36.1%, 5년 이상 10년 미만 19.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각 20.4%, 조건부 수급은 1년 미만 50.0%, 1년 이상 3년 미만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5년 이상 10년 미만 44.4%,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각 22.2%, 비수급은 1년 미만 45.8%, 1년 이상 3년 미만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1년 미만 45.8%, 1년 이상 3년 미만 29.2%, 생계급여는 15년 이상 75.0%, 1년 이상 3년 미만 25.0%, 의료급여는 1년 미만 66.7%, 5년 이상 10년 미만 33.3%, 주거급여는 5년 이상 10년 미만 44.4%, 1년 미만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1년 미만, 15년 이상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1년 미만 63.6%, 1년 이상 3년 미만 18.2%,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1년 이상 3년 미만 22.2%, 5년 이상 10년 미만 20.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1년 이상 3년 미만, 15년 이상 각 25.0%, 장애 없음은 1년 미만 22.6%, 1년 이상 3년 미만 21.4%가 높게 나타났음.

<표 1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쳐 거주기간

항목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전 체		(빈도) 21.1	(44) 22.1	(28) 14.1	(38) 19.1	(18) 9.0	(29) 14.6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23.1	(42) 24.3	(27) 15.6	(33) 19.1	(15) 8.7	(16) 9.2	(173) 100.0
	여성	(빈도) 7.7	(2) 7.7	(1) 3.8	(5) 19.2	(3) 11.5	(13) 5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36.8	(23) 33.8	(7) 10.3	(9) 13.2	(2) 2.9	(2) 2.9	(68) 100.0
	60대	(빈도) 18.2	(15) 22.7	(12) 18.2	(16) 24.2	(6) 9.1	(5) 7.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4.9	(6) 9.8	(8) 13.1	(12) 19.7	(10) 16.4	(22) 36.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12.9	(30) 20.4	(27) 18.4	(30) 20.4	(16) 10.9	(25) 17.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50.0	(5) 25.0	(1) 5.0	(3) 15.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22.2	(2) 22.2		(4) 44.4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45.8	(7) 29.2		(2) 8.3	(1) 4.2	(3) 12.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45.8	(7) 29.2		(2) 8.3	(1) 4.2	(3) 12.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33.3	(2) 22.2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63.6	(2) 18.2		(1) 9.1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12.5	(32) 22.2	(27) 18.8	(30) 20.8	(15) 10.4	(22) 15.3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12.5	(8) 25.0	(4) 12.5	(6) 18.8	(2) 6.3	(8) 2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22.6	(38) 21.4	(24) 14.3	(33) 19.6	(16) 9.5	(21) 12.5	(168) 100.0

5.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질 문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은 평일 17.3시간, 주말 18.2시간으로 나타났음.

<표 19>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

항목	평균(시간)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평일	17.3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주말	18.2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20> 응답자 특성별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평일

항목		평균 (시간)	항목		평균 (시간)
전 체		17.3	해당없음		13.1
성별	남성	16.9	생계급여		14.8
	여성	19.9	의료급여		13.7
연령대	50대 이하	15.6	주거급여		16.3
	60대	17.7	생계급여, 의료급여		23.0
	70대 이상	18.9	생계급여, 주거급여		1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18.2	의료급여, 주거급여		20.3
	조건부 수급	16.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18.2
	차상위계층 수급	16.1	장애 있음		16.7
	비수급	13.1	장애 없음		17.4

<표 21> 응답자 특성별 -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무는 시간_주말

항목		평균 (시간)	항목		평균 (시간)
전 체		18.1	해당없음		15.2
성별	남성	17.7	생계급여		17.8
	여성	20.8	의료급여		15.3
연령대	50대 이하	17.4	주거급여		18.7
	60대	17.9	생계급여, 의료급여		23.0
	70대 이상	19.4	생계급여, 주거급여		17.4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18.5	의료급여, 주거급여		23.0
	조건부 수급	19.9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18.6
	차상위계층 수급	16.9	장애 있음		17.0
	비수급	15.2	장애 없음		18.4

6.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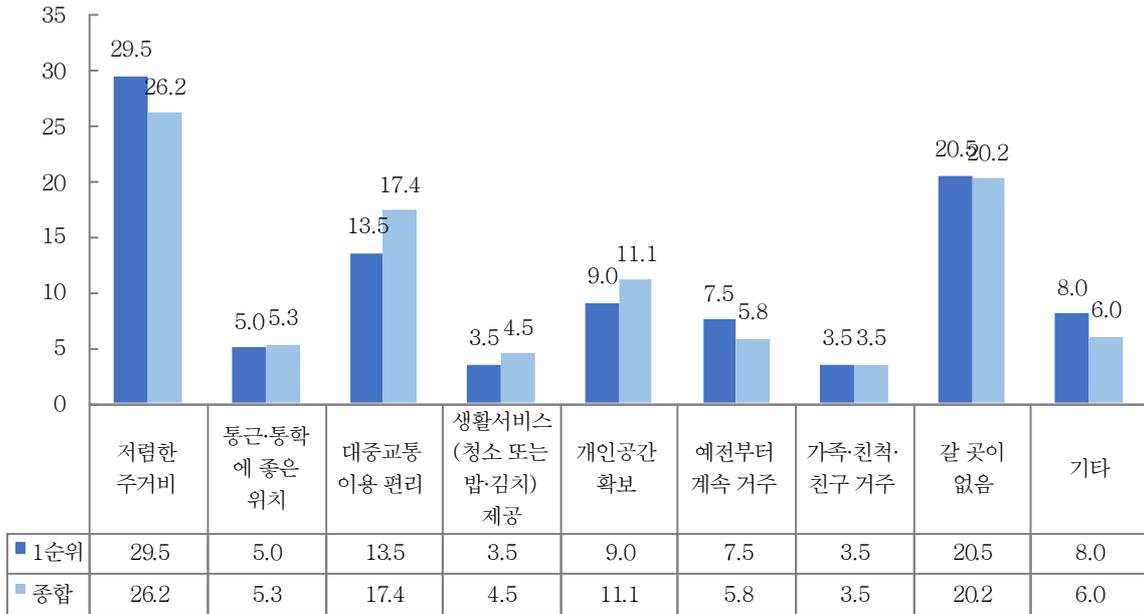
질 문	현재의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음 20.5%, 대중교통 이용 편리 13.5%, 개인공간 확보 9.0%, 기타 8.0%, 예전부터 계속 거주 7.5%,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5.0%,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가족·친척·친구 거주 각 3.5% 순으로 나타났음.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 21.3%, 갈 곳이 없음 19.8%, 개인공간 확보 13.2%,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5.6%,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5.6%, 예전부터 계속 거주, 기타 각 4.1%, 가족·친척·친구 거주 3.6%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97건)는 저렴한 주거비가 2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 곳이 없음 20.2%, 대중교통 이용 편리 17.4%, 개인공간 확보 11.1%, 기타 6.0%, 예전부터 계속 거주 5.8%,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5.3%,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4.5%, 가족·친척·친구 거주 3.5%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24건)의 세부내용은 병원,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이 좋음, 신변안전 등 특이사항 수시확인, 임시주거지원 등으로 나타났음.

<표 22>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저렴한 주거비	59	29.5	45	22.8	104	26.2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10	5.0	11	5.6	21	5.3
대중교통 이용 편리	27	13.5	42	21.3	69	17.4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7	3.5	11	5.6	18	4.5
개인공간 확보	18	9.0	26	13.2	44	11.1
예전부터 계속 거주	15	7.5	8	4.1	23	5.8
가족·친척·친구 거주	7	3.5	7	3.6	14	3.5
갈 곳이 없음	41	20.5	39	19.8	80	20.2
기타	16	8.0	8	4.1	24	6.0
합계	200	100.0	197	100.0	397	100.0

<그림 51>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저렴한 주거비 32.9%, 갈 곳이 없음 20.2%가 높고, 여성은 예전부터 계속 거주 23.1%, 갈 곳이 없음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저렴한 주거비 30.9%, 개인공간 확보 17.6%, 60대는 저렴한 주거비 34.8%, 갈 곳이 없음 19.7%, 70대 이상은 갈 곳이 없음 26.2%, 저렴한 주거비 23.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27.9%, 갈 곳이 없음 20.4%, 조건부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35.0%, 대중교통 이용 편리, 개인공간 확보, 기타 각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55.6%, 갈 곳이 없음 33.3%, 비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갈 곳이 없음 각 25.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저렴한 주거비, 갈 곳이 없음 각 25.0%, 생계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50.0%,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예전부터 계속 거주 각 25.0%, 의료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갈 곳이 없음 각 33.3%,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55.6%, 갈 곳이 없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예전부터 계속 거주, 갈 곳이 없음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36.4%, 대중교통 이용 편리, 개인공간 확보, 갈 곳이 없음 각 18.2%,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대중교통 이용 편리, 기타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27.8%, 갈 곳이 없음 20.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저렴한 주거비 28.1%, 갈 곳이 없음 25.0%, 장애 없음은 저렴한 주거비 29.8%, 갈 곳이 없음 19.6%가 높게 나타났다.

<표 23>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1순위)

항목		저렴한 주거비	통근· 통학에 좋은 위치	대중 교통 이용 편리	생활 서비스 (청소 또는 밥· 김치) 제공	개인 공간 확보	예전 부터 계속 거주	가족· 친척· 친구 거주	갈 곳이 없음	기타	계	
전 체		(빈도) %	(59) 29.6	(10) 5.0	(27) 13.6	(7) 3.5	(18) 9.0	(15) 7.5	(7) 3.5	(40) 20.1	(16) 8.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57) 32.9	(7) 4.0	(24) 13.9	(6) 3.5	(17) 9.8	(9) 5.2	(6) 3.5	(35) 20.2	(12) 6.9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3) 11.5	(3) 11.5	(1) 3.8	(1) 3.8	(6) 23.1	(1) 3.8	(5) 19.2	(4) 15.4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1) 30.9	(5) 7.4	(8) 11.8	(2) 2.9	(12) 17.6	(1) 1.5	(1) 1.5	(11) 16.2	(7) 10.3	(68) 100.0
	60대	(빈도) %	(23) 34.8	(1) 1.5	(9) 13.6	(3) 4.5	(5) 7.6	(3) 4.5	(4) 6.1	(13) 19.7	(5) 7.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4) 23.0	(4) 6.6	(8) 13.1	(2) 3.3	(1) 1.6	(11) 18.0	(2) 3.3	(16) 26.2	(3) 4.9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1) 27.9	(5) 3.4	(20) 13.6	(4) 2.7	(14) 9.5	(15) 10.2	(5) 3.4	(30) 20.4	(13) 8.8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7) 35.0	(2) 10.0	(3) 15.0		(3) 15.0			(2) 10.0	(3) 1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55.6		(1) 11.1					(3) 33.3		(9) 100.0
	비수급	(빈도) %	(6) 25.0	(3) 12.5	(3) 12.5	(3) 12.5	(1) 4.2		(2) 8.3	(6) 2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6) 25.0	(3) 12.5	(3) 12.5	(3) 12.5	(1) 4.2		(2) 8.3	(6) 2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5) 55.6		(1) 11.1		(1) 11.1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2) 18.2		(2) 18.2		(1) 9.1	(2) 18.2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0) 27.8	(5) 3.5	(20) 13.9	(4) 2.8	(14) 9.7	(13) 9.0	(4) 2.8	(29) 20.1	(15) 10.4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9) 28.1	(2) 6.3	(1) 3.1	(1) 3.1	(7) 21.9	(3) 9.4	(1) 3.1	(8) 2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0) 29.8	(8) 4.8	(26) 15.5	(6) 3.6	(11) 6.5	(12) 7.1	(6) 3.6	(33) 19.6	(16) 9.5	(168) 100.0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은 저렴한 주거비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저렴한 주거비 27.5%, 갈 곳이 없음 19.4%가 높고, 여성은 갈 곳이 없음 24.0%, 예전부터 계속 거주 18.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저렴한 주거비 22.8%, 대중교통 이용 편리 20.6%, 60대는 저렴한 주거비 30.3%, 갈 곳이 없음 18.2%, 70대 이상은 저렴한 주거비, 갈 곳이 없음 각 2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25.0%, 갈 곳이 없음 19.2%, 조건부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27.5%, 대중교통 이용 편리 17.5%, 차상위계층 수급은 저렴한 주거비 50.0%, 갈 곳이 없음 27.8%, 비수급은 갈 곳이 없음 27.1%, 저렴한 주거비 22.9%,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갈 곳이 없음 27.1%, 저렴한 주거비 22.9%, 생계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예전부터 계속 거주, 갈 곳이 없음 각 25.0%, 의료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대중교통 이용 편리 각 33.3%,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44.4%, 대중교통 이용 편리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대중교통 이용 편리, 예전부터 계속 거주, 가족·친척·친구 거주, 갈 곳이 없음 각 25.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36.4%, 대중교통 이용 편리 22.7%,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대중교통 이용 편리 33.3%, 저렴한 주거비,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갈 곳이 없음, 기타 각 16.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저렴한 주거비 25.2%, 갈 곳이 없음 19.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저렴한 주거비, 갈 곳이 없음 각 22.2%, 장애 없음은 저렴한 주거비 26.9%, 갈 곳이 없음 19.7%가 높게 나타났음.

<표 24>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다중응답)

항목			저렴한 주거비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대중교통 이용 편리	생활 서비스 (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개인 공간 확보	예전부터 계속 거주	가족·친척·친구 거주	갈 곳이 없음	기타	계
전 체		(빈도) %	(103) 26.0	(20) 5.1	(69) 17.4	(18) 4.5	(44) 11.1	(23) 5.8	(14) 3.5	(79) 19.9	(26) 6.6	(396) 100.0
성별	남성	(빈도) %	(95) 27.5	(16) 4.6	(65) 18.8	(16) 4.6	(42) 12.1	(14) 4.0	(9) 2.6	(67) 19.4	(22) 6.4	(346) 100.0
	여성	(빈도) %	(8) 16.0	(4) 8.0	(4) 8.0	(2) 4.0	(2) 4.0	(9) 18.0	(5) 10.0	(12) 24.0	(4) 8.0	(50)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1) 22.8	(9) 6.6	(28) 20.6	(8) 5.9	(21) 15.4	(3) 2.2	(2) 1.5	(23) 16.9	(11) 8.1	(136) 100.0
	60대	(빈도) %	(40) 30.3	(4) 3.0	(22) 16.7	(6) 4.5	(16) 12.1	(6) 4.5	(5) 3.8	(24) 18.2	(9) 6.8	(132) 100.0
	70대 이상	(빈도) %	(30) 25.0	(7) 5.8	(17) 14.2	(4) 3.3	(6) 5.0	(14) 11.7	(7) 5.8	(30) 25.0	(5) 4.2	(120)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73) 25.0	(13) 4.5	(54) 18.5	(9) 3.1	(34) 11.6	(21) 7.2	(12) 4.1	(56) 19.2	(20) 6.8	(292)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1) 27.5	(4) 10.0	(7) 17.5	(3) 7.5	(5) 12.5	(1) 2.5		(6) 15.0	(3) 7.5	(4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50.0		(2) 11.1	(1) 5.6		(1) 5.6		(5) 27.8		(18) 100.0
	비수급	(빈도) %	(11) 22.9	(3) 6.3	(6) 12.5	(5) 10.4	(5) 10.4		(2) 4.2	(13) 27.1	(3) 6.3	(48)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1) 22.9	(3) 6.3	(6) 12.5	(5) 10.4	(5) 10.4		(2) 4.2	(13) 27.1	(3) 6.3	(48) 100.0
	생계급여	(빈도) %	(2) 25.0	(1) 12.5				(2) 25.0	(1) 12.5	(2) 25.0		(8) 100.0
	의료급여	(빈도) %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8) 44.4		(4) 22.2	(2) 11.1	(1) 5.6			(3) 16.7		(18)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8) 36.4		(5) 22.7		(4) 18.2		(1) 4.5	(4) 18.2		(22)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6)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72) 25.2	(15) 5.2	(49) 17.1	(10) 3.5	(34) 11.9	(20) 7.0	(9) 3.1	(55) 19.2	(22) 7.7	(286)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4) 22.2	(6) 9.5	(11) 17.5	(1) 1.6	(11) 17.5	(3) 4.8	(3) 4.8	(14) 22.2		(63) 100.0
	장애 없음	(빈도) %	(90) 26.9	(14) 4.2	(58) 17.3	(17) 5.1	(33) 9.9	(20) 6.0	(11) 3.3	(66) 19.7	(26) 7.8	(335) 100.0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Ⅲ. 거주 비용



7. 현 거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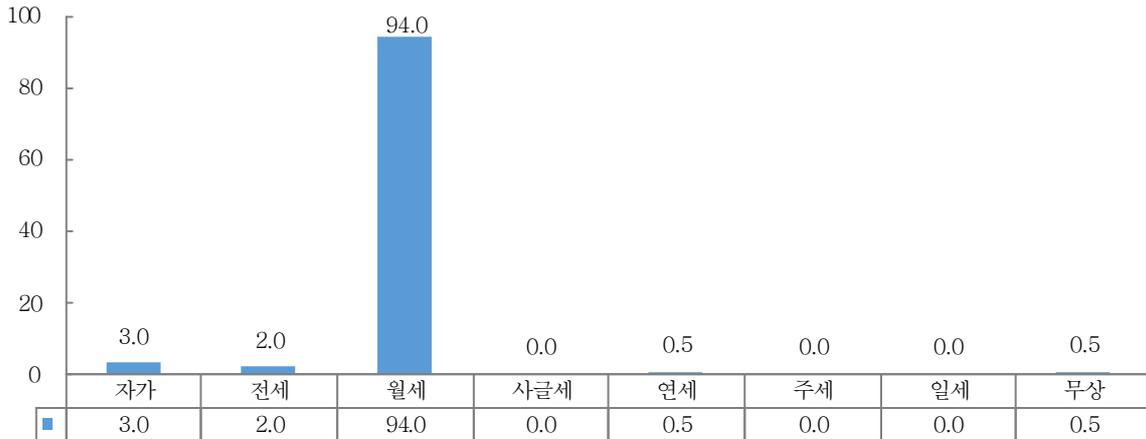
질 문	귀하의 현 거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면적을 표기하고 해당 점유형태에 V 표시하고 해당 점유형태의 주거비를 표기해 주십시오.
-----	--

○ 현 거처 점유형태는 월세 94.0%, 자가 3.0%, 전세 2.0%, 연세, 무상 각 0.5% 순으로 나타났음.

<표 25> 현 거처 점유형태

항목	빈도	%
자가	6	3.0
전세	4	2.0
월세	187	94.0
사글세	0	0.0
연세	1	0.5
주세	0	0.0
일세	0	0.0
무상	1	0.5
합계	199	100.0

<그림 52> 현 거처 점유형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처 점유형태는 월세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월세 97.7%, 전세, 자가, 연세, 무상 각 0.6%가 높고, 여성은 월세 69.2%, 자가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월세 98.5%, 무상 1.5%, 60대는 월세 98.5%, 전세 1.5%, 70대 이상은 월세 83.3%, 자가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월세 93.2%, 자가 3.4%, 조건부 수급은 월세 95.0%, 무상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월세 88.9%, 자가 11.1%, 비수급은 월세 10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월세 100.0%, 생계급여는 자가, 월세 각 50.0%, 의료급여는 월세 100.0%, 주거급여는 월세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자가, 월세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90.9%, 무상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94.4%, 전세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월세 96.9%, 자가 3.1%, 장애 없음은 월세 93.4%, 자가 3.0%가 높게 나타났음.

<표 26>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 점유형태

항목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주세	일세	무상	계
전 체		(빈도) %	(6) 3.0	(4) 2.0	(186) 93.9	(1) 0.5			(1) 0.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0.6	(1) 0.6	(168) 97.7	(1) 0.6			(1) 0.6	(172) 100.0
	여성	(빈도) %	(5) 19.2	(3) 11.5	(18) 6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7) 98.5				(1) 1.5	(68) 100.0
	60대	(빈도) %		(1) 1.5	(65) 98.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6) 10.0	(3) 5.0	(50) 83.3	(1) 1.7				(60)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4	(4) 2.7	(136) 93.2	(1) 0.7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9) 95.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0) 90.9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1	(4) 2.8	(135) 94.4	(1) 0.7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31) 96.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 3.0	(4) 2.4	(156) 93.4	(1) 0.6			(1) 0.6	(167) 100.0

8.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질 문	귀하의 현 거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면적을 표기하고 해당 점유형태에 V 표시하고 해당 점유형태의 주거비를 표기해 주십시오.
-----	--

-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는 자가는 매입 가격 305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5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세는 보증금 338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2만원, 월세는 보증금 60만원, 월세 21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1만원, 연세는 연세 20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27> 현 거처 점유형태의 주거비(평균)

평균(만원)	매입 가격	보증금	월세, 연세	월평균 공과금, 관리비
자가	305			5
전세		338		2
월세		60	21	1
연세			20	0

9.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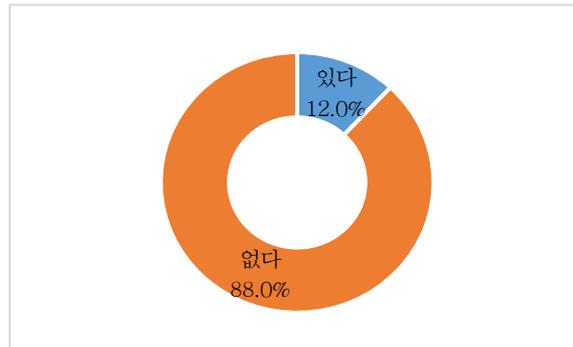
질문	지난 1년 중 월세·사글세·연세·주세·일세를 연체한 적이 1번 이상 있습니까?
----	---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는 있다 12.0%, 없다 88.0%로 나타났음.

<표 28>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항목	빈도	%
있다	24	12.0
없다	176	88.0
합계	200	100.0

<그림 53>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는 ‘있다’가 12.0%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있다 13.9%, 여성은 있다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있다 14.7%, 60대는 있다 13.6%, 70대 이상은 있다 8.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있다 9.5%, 조건부 수급은 있다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있다 22.2%, 비수급은 있다 20.8%,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있다 20.8%, 생계급여는 있다 25.0%, 의료급여는 있다 66.7%, 주거급여는 있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있다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있다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다 8.3%,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있다 12.5%, 장애 없음은 있다 11.9%로 나타났음.

<표 29>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 중 1회 이상 <세> 연체 경험 유무

항목			있다	없다	계
전 체		(빈도) %	(24) 12.1	(175) 87.9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24) 13.9	(149) 86.1	(173)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0) 14.7	(58) 85.3	(68) 100.0
	60대	(빈도) %	(9) 13.6	(57) 86.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5) 8.2	(56) 91.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 9.5	(133) 90.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17) 8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7) 77.8	(9) 100.0
	비수급	(빈도) %	(5) 20.8	(19) 7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5) 20.8	(19) 7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7) 77.8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0) 90.9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2) 8.3	(132) 91.7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28) 8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0) 11.9	(148) 88.1	(168) 100.0

10. <세>를 연체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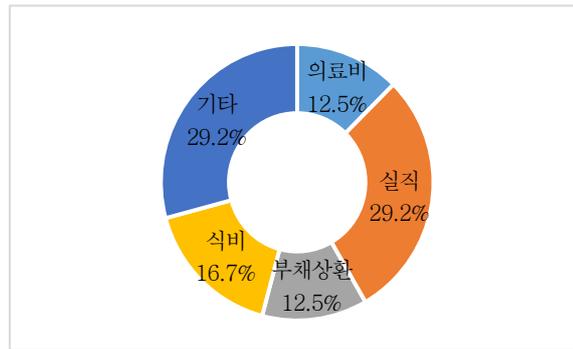
질 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4명의 연체 이유는 실직, 기타가 각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비 16.7%, 의료비, 부채상환 각 12.5%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7건)의 세부 내용은 수급비 연체, 음주, 일용직을 못 해서 생활비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표 30> <세>를 연체한 이유

항목	빈도	%
의료비	3	12.5
실직	7	29.2
부채상환	3	12.5
식비	4	16.7
기타	7	29.2
합계	24	100.0

<그림 54> <세>를 연체한 이유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세>를 연체한 이유는 <세>를 연체한 이유는 실직, 기타가 각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실직, 기타 각 29.2%가 높고,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기타 50.0%, 실직 30.0%, 60대는 식비 33.3%, 실직, 의료비, 기타 각 22.2%, 70대 이상은 실직, 부채상환 각 4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식비, 기타 각 28.6%, 조건부 수급은 실직 66.7%, 기타 33.3%, 차상위계층 수급은 실직, 기타 각 50.0%, 비수급은 실직 40.0%, 의료비, 부채상환, 기타 각 2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실직 40.0%, 의료비, 부채상환, 기타 각 20.0%, 생계급여는 실직 100.0%, 의료급여는 실직 100.0%, 주거급여는 실직, 기타 각 5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식비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기타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기타 33.3%, 식비 25.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식비 50.0%, 의료비, 기타 각 25.0%, 장애 없음은 실직 35.0%, 기타 30.0%가 높게 나타났음.

<표 31> 응답자 특성별 - <세>를 연체한 이유

항목			의료비	실직	부채상환	식비	기타	계
전 체		(빈도) %	(3) 12.5	(7) 29.2	(3) 12.5	(4) 16.7	(7) 29.2	(24) 100.0
성별	남성	(빈도) %	(3) 12.5	(7) 29.2	(3) 12.5	(4) 16.7	(7) 29.2	(24) 100.0
	여성	(빈도) %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 30.0	(1) 10.0	(1) 10.0	(5) 50.0	(10) 100.0
	60대	(빈도) %	(2) 22.2	(2) 22.2		(3) 33.3	(2) 22.2	(9) 100.0
	70대 이상	(빈도) %	(1) 20.0	(2) 40.0	(2) 40.0			(5)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14.3	(2) 14.3	(2) 14.3	(4) 28.6	(4) 28.6	(1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66.7			(1) 33.3	(3)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50.0			(1) 50.0	(2) 100.0
	비수급	(빈도) %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주거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25.0			(2) 50.0	(1) 25.0	(4) 100.0
	장애 없음	(빈도) %	(2) 10.0	(7) 35.0	(3) 15.0	(2) 10.0	(6) 30.0	(20) 100.0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IV. 거주 환경



11. 동네 주거환경

질 문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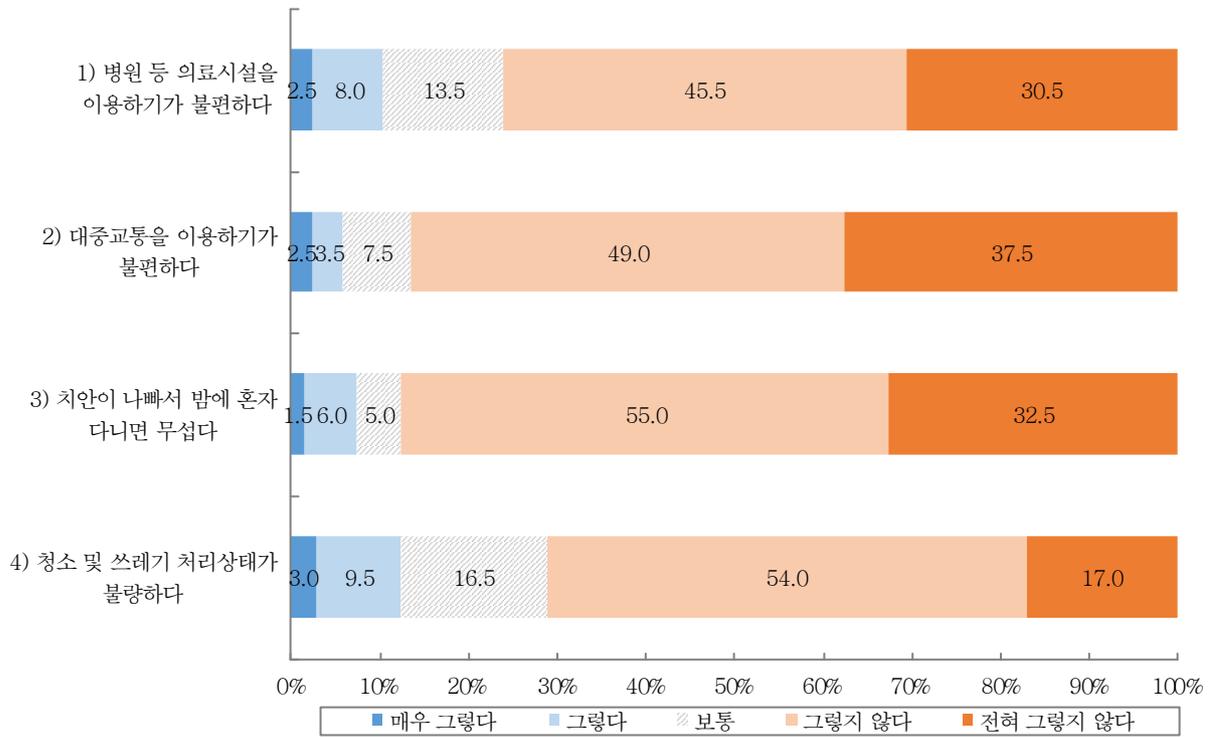
○ 동네 주거환경은

- 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동의 10.5%(매우 그렇다 2.5% + 그렇다 8.0%), 보통 13.5%, 비동의 76.0%(그렇지 않다 45.5% + 전혀 그렇지 않다 30.5%)로 나타났다.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동의 6.0%(매우 그렇다 2.5% + 그렇다 3.5%), 보통 7.5%, 비동의 86.5%(그렇지 않다 49.0% + 전혀 그렇지 않다 37.5%)로 나타났다.
- 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는 동의 7.5%(매우 그렇다 1.5% + 그렇다 6.0%), 보통 5.0%, 비동의 87.5%(그렇지 않다 55.0% + 전혀 그렇지 않다 32.5%)로 나타났다.
-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는 동의 12.5%(매우 그렇다 3.0% + 그렇다 9.5%), 보통 16.5%, 비동의 71.0%(그렇지 않다 54.0% + 전혀 그렇지 않다 17.0%)로 나타났다.

<표 32> 동네 주거환경

항목	(빈도) %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	<보통>	<비 동의>	
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빈도) %	(5) 2.5	(16) 8.0	(27) 13.5	(91) 45.5	(61) 30.5	(21) 10.5	(27) 13.5	(152) 76.0	(200) 100.0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빈도) %	(5) 2.5	(7) 3.5	(15) 7.5	(98) 49.0	(75) 37.5	(12) 6.0	(15) 7.5	(173) 86.5	(200) 100.0
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	(빈도) %	(3) 1.5	(12) 6.0	(10) 5.0	(110) 55.0	(65) 32.5	(15) 7.5	(10) 5.0	(175) 87.5	(200) 100.0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	(빈도) %	(6) 3.0	(19) 9.5	(33) 16.5	(108) 54.0	(34) 17.0	(25) 12.5	(33) 16.5	(142) 71.0	(200) 100.0

<그림 55> 동네 주거환경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동네 주거환경_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6.3%(전혀 그렇지 않다 28.9% + 그렇지 않다 47.4%), 보통 13.9%, 동의 9.8%(그렇다 8.1% + 매우 그렇다 1.7%), 여성은 비동의 73.1%(전혀 그렇지 않다 38.5% + 그렇지 않다 34.6%), 보통 11.5%, 동의 15.4%(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85.3%(전혀 그렇지 않다 45.6% + 그렇지 않다 39.7%), 보통 10.3%, 동의 4.4%(그렇다 4.4% + 매우 그렇다 0.0%), 60대는 비동의 77.3%(전혀 그렇지 않다 25.8% + 그렇지 않다 51.5%), 보통 9.1%, 동의 13.6%(그렇다 12.1% + 매우 그렇다 1.5%), 70대 이상은 비동의 62.3%(전혀 그렇지 않다 19.7% + 그렇지 않다 42.6%), 보통 23.0%, 동의 14.8%(그렇다 8.2% + 매우 그렇다 6.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73.5%(전혀 그렇지 않다 27.2% + 그렇지 않다 46.3%), 보통 14.3%, 동의 12.2%(그렇다 8.8% + 매우 그렇다 3.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95.0%(전혀 그렇지 않다 40.0% + 그렇지 않다 55.0%), 보통 0.0%, 동의 5.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88.9%(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11.1%,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70.8%(전혀 그렇지 않다 45.8%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20.8%,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70.8%(전혀 그렇지 않다 45.8%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20.8%,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88.9%(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11.1%,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63.6%), 보통 0.0%,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4.3%(전혀 그렇지 않다 27.1% + 그렇지 않다 47.2%), 보통 14.6%, 동의 11.1%(그렇다 7.6% + 매우 그렇다 3.5%),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28.1% + 그렇지 않다 34.4%), 보통 18.8%, 동의 18.8%(그렇다 15.6%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78.6%(전혀 그렇지 않다 31.0% + 그렇지 않다 47.6%), 보통 12.5%, 동의 8.9%(그렇다 6.5% + 매우 그렇다 2.4%),

<표 33>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5) 2.5	(16) 8.0	(27) 13.6	(91) 45.7	(60) 30.2	(21) 10.6	(27) 13.6	(151) 75.9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3) 1.7	(14) 8.1	(24) 13.9	(82) 47.4	(50) 28.9	(17) 9.8	(24) 13.9	(132) 76.3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2) 7.7	(3) 11.5	(9) 34.6	(10) 38.5	(4) 15.4	(3) 11.5	(19) 73.1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 4.4	(7) 10.3	(27) 39.7	(31) 45.6	(3) 4.4	(7) 10.3	(58) 85.3	(68) 100.0
	60대	(빈도) %	(1) 1.5	(8) 12.1	(6) 9.1	(34) 51.5	(17) 25.8	(9) 13.6	(6) 9.1	(51) 77.3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	(5) 8.2	(14) 23.0	(26) 42.6	(12) 19.7	(9) 14.8	(14) 23.0	(38) 62.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4	(13) 8.8	(21) 14.3	(68) 46.3	(40) 27.2	(18) 12.2	(21) 14.3	(108) 73.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1) 55.0	(8) 40.0	(1)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6) 66.7	(2) 22.2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5) 20.8	(6) 25.0	(11) 45.8	(2) 8.3	(5) 20.8	(17) 70.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5) 20.8	(6) 25.0	(11) 45.8	(2) 8.3	(5) 20.8	(17) 70.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5) 55.6	(3) 33.3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7) 63.6	(2) 18.2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3.5	(11) 7.6	(21) 14.6	(68) 47.2	(39) 27.1	(16) 11.1	(21) 14.6	(107) 74.3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5) 15.6	(6) 18.8	(11) 34.4	(9) 28.1	(6) 18.8	(6) 18.8	(20) 62.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 2.4	(11) 6.5	(21) 12.5	(80) 47.6	(52) 31.0	(15) 8.9	(21) 12.5	(132) 78.6	(168) 100.0

○ 동네 주거환경_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87.3%(전혀 그렇지 않다 37.6% + 그렇지 않다 49.7%), 보통 8.1%, 동의 4.6%(그렇다 2.9% + 매우 그렇다 1.7%), 여성은 비동의 80.8%(전혀 그렇지 않다 34.6% + 그렇지 않다 46.2%), 보통 3.8%, 동의 15.4%(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94.1%(전혀 그렇지 않다 60.3% + 그렇지 않다 33.8%), 보통 4.4%, 동의 1.5%(그렇다 1.5% + 매우 그렇다 0.0%), 60대는 비동의 89.4%(전혀 그렇지 않다 31.8% + 그렇지 않다 57.6%), 보통 6.1%, 동의 4.5%(그렇다 3.0% + 매우 그렇다 1.5%), 70대 이상은 비동의 73.8%(전혀 그렇지 않다 18.0% + 그렇지 않다 55.7%), 보통 13.1%, 동의 13.1%(그렇다 6.6% + 매우 그렇다 6.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83.0%(전혀 그렇지 않다 31.3% + 그렇지 않다 51.7%), 보통 9.5%, 동의 7.5%(그렇다 4.1% + 매우 그렇다 3.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95.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45.0%), 보통 0.0%, 동의 5.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77.8%),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95.8%(전혀 그렇지 않다 70.8%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4.2%,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95.8%(전혀 그렇지 않다 70.8%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4.2%,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75.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44.4%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72.7%), 보통 9.1%, 동의 9.1%(그렇다 9.1%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10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4.0%(전혀 그렇지 않다 32.6% + 그렇지 않다 51.4%), 보통 9.0%, 동의 6.9%(그렇다 3.5% + 매우 그렇다 3.5%),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34.4%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12.5%, 동의 12.5%(그렇다 9.4%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88.7%(전혀 그렇지 않다 38.1% + 그렇지 않다 50.6%), 보통 6.5%, 동의 4.8%(그렇다 2.4% + 매우 그렇다 2.4%),

<표 34>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5) 2.5	(7) 3.5	(15) 7.5	(98) 49.2	(74) 37.2	(12) 6.0	(15) 7.5	(172) 86.4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3) 1.7	(5) 2.9	(14) 8.1	(86) 49.7	(65) 37.6	(8) 4.6	(14) 8.1	(151) 87.3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2) 7.7	(1) 3.8	(12) 46.2	(9) 34.6	(4) 15.4	(1) 3.8	(21) 80.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3) 4.4	(23) 33.8	(41) 60.3	(1) 1.5	(3) 4.4	(64) 94.1	(68) 100.0
	60대	(빈도) %	(1) 1.5	(2) 3.0	(4) 6.1	(38) 57.6	(21) 31.8	(3) 4.5	(4) 6.1	(59) 89.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	(4) 6.6	(8) 13.1	(34) 55.7	(11) 18.0	(8) 13.1	(8) 13.1	(45) 73.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4	(6) 4.1	(14) 9.5	(76) 51.7	(46) 31.3	(11) 7.5	(14) 9.5	(122) 83.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9) 45.0	(10) 50.0	(1)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7) 77.8	(2) 22.2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6) 25.0	(17) 70.8		(1) 4.2	(23) 95.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6) 25.0	(17) 70.8		(1) 4.2	(23) 95.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5) 55.6	(4) 44.4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 9.1	(8) 72.7	(1) 9.1	(1) 9.1	(1) 9.1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3.5	(5) 3.5	(13) 9.0	(74) 51.4	(47) 32.6	(10) 6.9	(13) 9.0	(121) 84.0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3) 9.4	(4) 12.5	(13) 40.6	(11) 34.4	(4) 12.5	(4) 12.5	(24) 7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 2.4	(4) 2.4	(11) 6.5	(85) 50.6	(64) 38.1	(8) 4.8	(11) 6.5	(149) 88.7	(168) 100.0

○ 동네 주거환경_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92.5%(전혀 그렇지 않다 32.9% + 그렇지 않다 59.5%), 보통 3.5%, 동의 4.0%(그렇다 3.5% + 매우 그렇다 0.6%), 여성은 비동의 53.8%(전혀 그렇지 않다 26.9% + 그렇지 않다 26.9%), 보통 15.4%, 동의 30.8%(그렇다 23.1% + 매우 그렇다 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89.7%(전혀 그렇지 않다 45.6% + 그렇지 않다 44.1%), 보통 4.4%, 동의 5.9%(그렇다 4.4% + 매우 그렇다 1.5%), 60대는 비동의 89.4%(전혀 그렇지 않다 28.8% + 그렇지 않다 60.6%), 보통 4.5%, 동의 6.1%(그렇다 6.1% + 매우 그렇다 0.0%), 70대 이상은 비동의 83.6%(전혀 그렇지 않다 23.0% + 그렇지 않다 60.7%), 보통 6.6%, 동의 9.8%(그렇다 6.6% + 매우 그렇다 3.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86.4%(전혀 그렇지 않다 28.6% + 그렇지 않다 57.8%), 보통 6.1%, 동의 7.5%(그렇다 5.4% + 매우 그렇다 2.0%),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85.0%(전혀 그렇지 않다 40.0% + 그렇지 않다 45.0%), 보통 5.0%, 동의 10.0%(그렇다 10.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91.7%(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41.7%), 보통 0.0%,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91.7%(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41.7%), 보통 0.0%,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75.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10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88.9%(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0.0%,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63.6%), 보통 0.0%,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0.0%),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7.5%(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58.3%), 보통 6.3%, 동의 6.3%(그렇다 4.9% + 매우 그렇다 1.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8.1%(전혀 그렇지 않다 28.1%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12.5%, 동의 9.4%(그렇다 6.3%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89.3%(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56.0%), 보통 3.6%, 동의 7.1%(그렇다 6.0% + 매우 그렇다 1.2%),

<표 35>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3) 1.5	(12) 6.0	(10) 5.0	(110) 55.3	(64) 32.2	(15) 7.5	(10) 5.0	(174) 87.4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0.6	(6) 3.5	(6) 3.5	(103) 59.5	(57) 32.9	(7) 4.0	(6) 3.5	(160) 92.5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6) 23.1	(4) 15.4	(7) 26.9	(7) 26.9	(8) 30.8	(4) 15.4	(14) 53.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3) 4.4	(3) 4.4	(30) 44.1	(31) 45.6	(4) 5.9	(3) 4.4	(61) 89.7	(68) 100.0
	60대	(빈도) %		(4) 6.1	(3) 4.5	(40) 60.6	(19) 28.8	(4) 6.1	(3) 4.5	(59) 89.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 3.3	(4) 6.6	(4) 6.6	(37) 60.7	(14) 23.0	(6) 9.8	(4) 6.6	(51) 83.6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 2.0	(8) 5.4	(9) 6.1	(85) 57.8	(42) 28.6	(11) 7.5	(9) 6.1	(127) 86.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1) 5.0	(9) 45.0	(8) 40.0	(2) 10.0	(1) 5.0	(17) 8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6) 66.7	(3) 33.3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10) 41.7	(12) 50.0	(2) 8.3		(22) 91.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10) 41.7	(12) 50.0	(2) 8.3		(22) 91.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5) 55.6	(3) 33.3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7) 63.6	(2) 18.2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4	(7) 4.9	(9) 6.3	(84) 58.3	(42) 29.2	(9) 6.3	(9) 6.3	(126) 87.5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2) 6.3	(4) 12.5	(16) 50.0	(9) 28.1	(3) 9.4	(4) 12.5	(25) 78.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 1.2	(10) 6.0	(6) 3.6	(94) 56.0	(56) 33.3	(12) 7.1	(6) 3.6	(150) 89.3	(168) 100.0

○ 동네 주거환경_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5.1%(전혀 그렇지 않다 16.2% + 그렇지 않다 59.0%), 보통 15.6%, 동의 9.2%(그렇다 6.9% + 매우 그렇다 2.3%), 여성은 비동의 42.3%(전혀 그렇지 않다 19.2% + 그렇지 않다 23.1%), 보통 23.1%, 동의 34.6%(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17.6%, 동의 7.4%(그렇다 5.9% + 매우 그렇다 1.5%), 60대는 비동의 78.8%(전혀 그렇지 않다 13.6% + 그렇지 않다 65.2%), 보통 10.6%, 동의 10.6%(그렇다 9.1% + 매우 그렇다 1.5%), 70대 이상은 비동의 59.0%(전혀 그렇지 않다 11.5% + 그렇지 않다 47.5%), 보통 21.3%, 동의 19.7%(그렇다 13.1% + 매우 그렇다 6.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13.6% + 그렇지 않다 53.1%), 보통 19.0%, 동의 14.3%(그렇다 11.6% + 매우 그렇다 2.7%),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85.0%(전혀 그렇지 않다 20.0% + 그렇지 않다 65.0%), 보통 10.0%, 동의 5.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88.9%(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11.1%,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79.2%(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45.8%), 보통 8.3%, 동의 12.5%(그렇다 4.2% + 매우 그렇다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79.2%(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45.8%), 보통 8.3%, 동의 12.5%(그렇다 4.2% + 매우 그렇다 8.3%),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88.9%(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11.1%,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63.6%), 보통 0.0%,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12.5% + 그렇지 않다 54.2%), 보통 20.1%, 동의 13.2%(그렇다 10.4% + 매우 그렇다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65.6%(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21.9%, 동의 12.5%(그렇다 12.5%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72.0%(전혀 그렇지 않다 15.5% + 그렇지 않다 56.5%), 보통 15.5%, 동의 12.5%(그렇다 8.9% + 매우 그렇다 3.6%),

<표 36> 응답자 특성별 - 동네 주거환경_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6) 3.0	(19) 9.5	(33) 16.6	(108) 54.3	(33) 16.6	(25) 12.6	(33) 16.6	(141) 70.9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 2.3	(12) 6.9	(27) 15.6	(102) 59.0	(28) 16.2	(16) 9.2	(27) 15.6	(130) 75.1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7) 26.9	(6) 23.1	(6) 23.1	(5) 19.2	(9) 34.6	(6) 23.1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4) 5.9	(12) 17.6	(34) 50.0	(17) 25.0	(5) 7.4	(12) 17.6	(51) 75.0	(68) 100.0
	60대	(빈도) %	(1) 1.5	(6) 9.1	(7) 10.6	(43) 65.2	(9) 13.6	(7) 10.6	(7) 10.6	(52) 78.8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	(8) 13.1	(13) 21.3	(29) 47.5	(7) 11.5	(12) 19.7	(13) 21.3	(36) 59.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 2.7	(17) 11.6	(28) 19.0	(78) 53.1	(20) 13.6	(21) 14.3	(28) 19.0	(98) 66.7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2) 10.0	(13) 65.0	(4) 20.0	(1) 5.0	(2) 10.0	(17) 8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6) 66.7	(2) 22.2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1) 4.2	(2) 8.3	(11) 45.8	(8) 33.3	(3) 12.5	(2) 8.3	(19) 7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1) 4.2	(2) 8.3	(11) 45.8	(8) 33.3	(3) 12.5	(2) 8.3	(19) 7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5) 55.6	(3) 33.3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7) 63.6	(2) 18.2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5) 10.4	(29) 20.1	(78) 54.2	(18) 12.5	(19) 13.2	(29) 20.1	(96) 66.7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7) 21.9	(13) 40.6	(8) 25.0	(4) 12.5	(7) 21.9	(21) 65.6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6) 3.6	(15) 8.9	(26) 15.5	(95) 56.5	(26) 15.5	(21) 12.5	(26) 15.5	(121) 72.0	(168) 100.0

12. 이웃과의 사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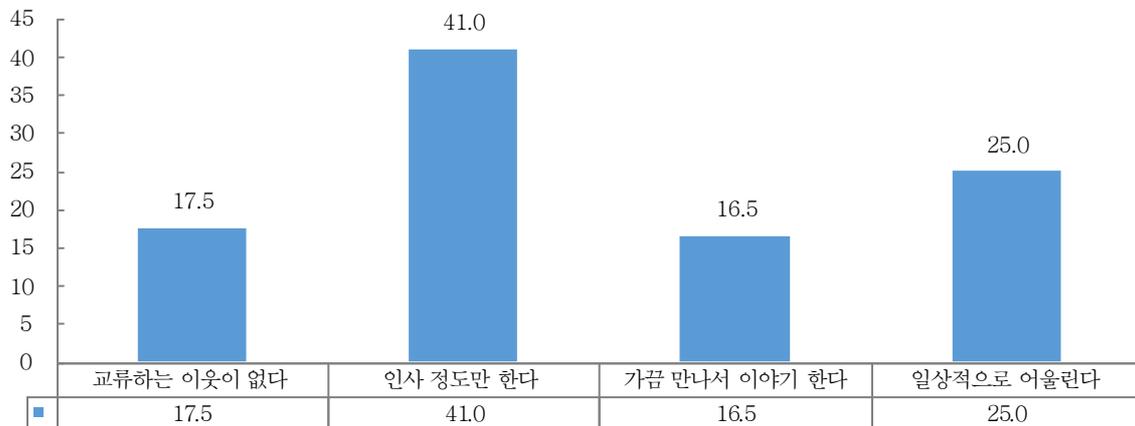
질 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이웃과의 사회 관계는 인사 정도만 한다가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5.0%,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17.5%,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16.5% 순으로 나타났음.

<표 37> 이웃과의 사회 관계

항목	빈도	%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35	17.5
인사 정도만 한다	82	41.0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33	16.5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50	25.0
합계	200	100.0

<그림 56> 이웃과의 사회 관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이웃과의 사회 관계는 인사 정도만 한다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인사 정도만 한다 43.9%,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3.7%가 높고, 여성은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34.6%,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26.9%,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인사 정도만 한다 36.8%,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5.0%, 60대는 인사 정도만 한다 43.9%,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4.2%, 70대 이상은 인사 정도만 한다 41.0%,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7.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인사 정도만 한다 38.1%,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7.2%, 조건부 수급은 인사 정도만 한다 55.0%,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인사 정도만 한다 66.7%,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2.2%, 비수급은 인사 정도만 한다 37.5%,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25.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인사 정도만 한다 37.5%,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25.0%, 생계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50.0%, 의료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66.7%,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33.3%, 주거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66.7%,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36.4%,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27.3%,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인사 정도만 한다 39.6%,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5.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37.5%, 인사 정도만 한다 28.1%, 장애 없음은 인사 정도만 한다 43.5%,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22.6%가 높게 나타났음.

<표 38> 응답자 특성별 - 이웃과의 사회 관계

항목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인사 정도만 한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계	
전 체		(빈도) %	(35) 17.6	(81) 40.7	(33) 16.6	(50) 25.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28) 16.2	(76) 43.9	(28) 16.2	(41) 23.7	(173) 100.0
	여성	(빈도) %	(7) 26.9	(5) 19.2	(5) 19.2	(9) 34.6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5) 22.1	(25) 36.8	(11) 16.2	(17) 25.0	(68) 100.0
	60대	(빈도) %	(11) 16.7	(29) 43.9	(10) 15.2	(16) 24.2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8) 13.1	(25) 41.0	(11) 18.0	(17) 27.9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4) 16.3	(56) 38.1	(27) 18.4	(40) 27.2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11) 55.0	(3) 15.0	(2) 1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6) 66.7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6) 25.0	(9) 37.5	(3) 12.5	(6) 2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6) 25.0	(9) 37.5	(3) 12.5	(6) 2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6) 66.7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4) 36.4	(1) 9.1	(3) 27.3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4) 16.7	(57) 39.6	(27) 18.8	(36) 25.0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8) 25.0	(9) 28.1	(3) 9.4	(12) 3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7) 16.1	(73) 43.5	(30) 17.9	(38) 22.6	(168) 100.0

13.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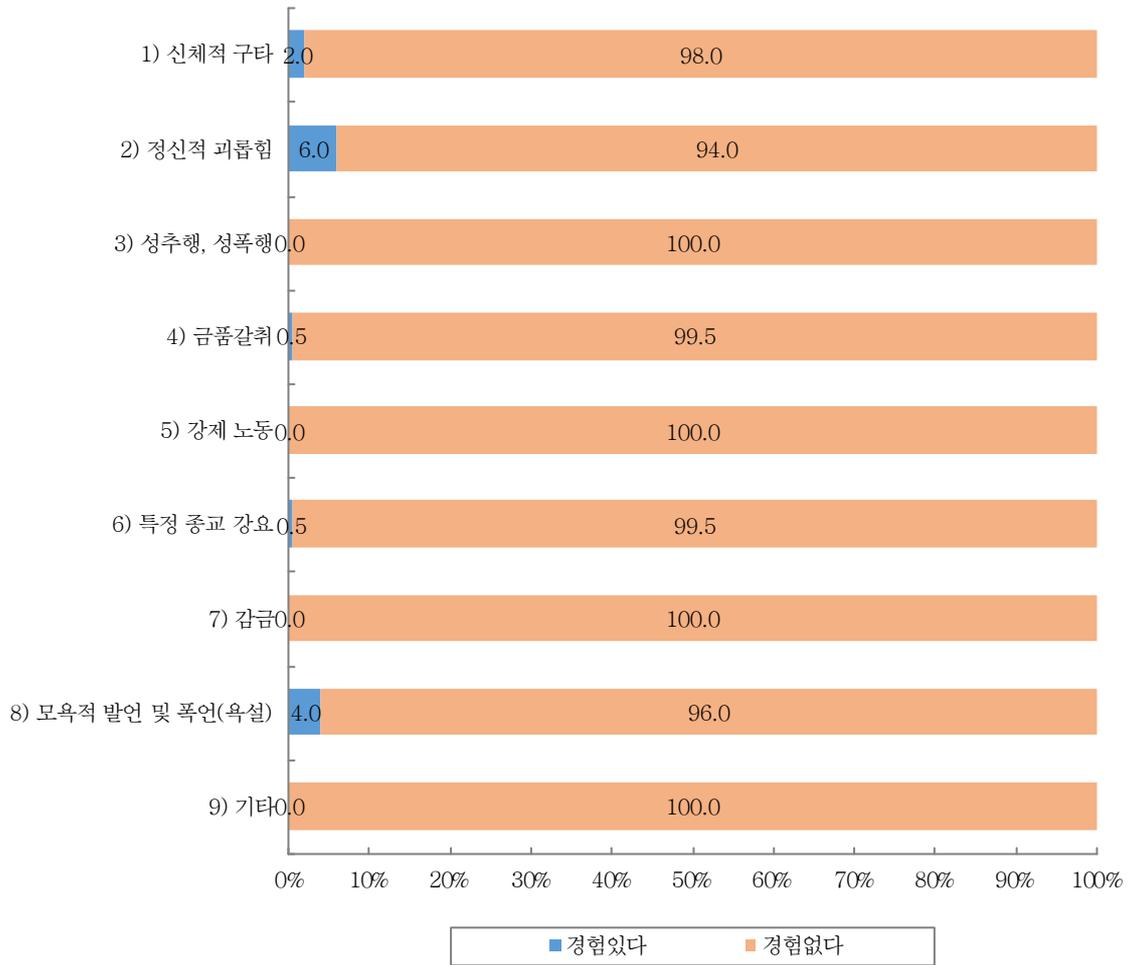
○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는

- 1) 신체적 구타는 경험 있다 2.0%, 경험 없다 98.0%로 나타났음.
- 2) 정신적 괴롭힘은 경험 있다 6.0%, 경험 없다 94.0%로 나타났음.
- 3) 성추행, 성폭행은 경험 없다 100.0%로 나타났음.
- 4) 금품갈취는 경험 있다 0.5%, 경험 없다 99.5%로 나타났음.
- 5) 강제 노동은 경험 없다 100.0%로 나타났음.
- 6) 특정 종교 강요는 경험 있다 0.5%, 경험 없다 99.5%로 나타났음.
- 7) 감금은 경험 없다 100.0%로 나타났음.
- 8)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은 경험 있다 4.0%, 경험 없다 96.0%로 나타났음.

<표 39>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1) 신체적 구타	4	2.0	195	98.0	199	100.0
2) 정신적 괴롭힘	12	6.0	187	94.0	199	100.0
3) 성추행, 성폭행	0	0.0	199	100.0	199	100.0
4) 금품갈취	1	0.5	198	99.5	199	100.0
5) 강제 노동	0	0.0	199	100.0	199	100.0
6) 특정 종교 강요	1	0.5	198	99.5	199	100.0
7) 감금	0	0.0	199	100.0	199	100.0
8)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8	4.0	191	96.0	199	100.0
9) 기타	0	0.0	0	100.0	0	100.0

<그림 57>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에서 해당 경험 유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40>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1) 신체적 구타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4) 2.0	(194) 98.0 100.0
성별	남성	(빈도) %	(4) 2.3	(168) 97.7 100.0
	여성	(빈도) %		(26) 100.0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67) 98.5 100.0
	60대	(빈도) %	(2) 3.1	(63) 96.9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60) 98.4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 2.7	(142) 97.3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39) 97.2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31) 96.9 100.0
	장애 없음	(빈도) %	(3) 1.8	(164) 98.2 100.0

<표 41>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2) 정신적 괴롭힘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2) 6.1	(186) 93.9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8) 4.7	(164) 95.3	(172) 100.0
	여성	(빈도) %	(4) 15.4	(22) 84.6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5) 7.4	(63) 92.6	(68) 100.0
	60대	(빈도) %	(2) 3.1	(63) 9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3) 4.9	(58) 95.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4	(141) 96.6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16) 8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3) 12.5	(21) 8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3) 12.5	(21) 8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39) 97.2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2) 7.2	(155) 92.8	(167) 100.0

<표 42>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3) 성추행, 성폭행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98) 100.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72) 100.0	(172)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5) 10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6) 100.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3) 100.0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67) 100.0	(167) 100.0

<표 43>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4) 금품갈취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 0.5	(197) 99.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0.6	(171) 99.4	(172)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5) 10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60) 98.4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6) 100.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3) 100.0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 0.6	(166) 99.4	(167) 100.0

<표 44>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5) 강제 노동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98) 100.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72) 100.0	(172)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5) 10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6) 100.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3) 100.0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67) 100.0	(167) 100.0

<표 45>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6) 특정 종교 강요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 0.5	(197) 99.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0.6	(171) 99.4	(172)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5) 10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60) 98.4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 0.7	(145) 99.3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0.7	(142) 99.3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 0.6	(166) 99.4	(167) 100.0

<표 46>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7) 감금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198) 100.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72) 100.0	(172)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5) 10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6) 100.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3) 100.0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67) 100.0	(167) 100.0

<표 47> 응답자 특성별 - [해당 경험 유무]_8) 모욕적 발언 및 폭언(육설)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계
전 체		(빈도) %	(8) 4.0	(190) 96.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5) 2.9	(167) 97.1	(172) 100.0
	여성	(빈도) %	(3) 11.5	(23) 88.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66) 97.1	(68) 100.0
	60대	(빈도) %	(2) 3.1	(63) 9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	(57) 93.4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 4.1	(140) 95.9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0) 90.9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39) 97.2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31) 96.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7) 4.2	(160) 95.8	(167) 100.0

13_1.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표 48>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빈도	%
동료 거주인	4	100.0
일반 시민	0	0.0
사회복지시설 직원	0	0.0
경찰	0	0.0
기타	0	0.0
합계	4	100.0

<그림 58>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49> 응답자 특성별 - 신체적 구타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찰	기타	계
전 체		(빈도) 4 %					(4) 100.0
성별	남성	(빈도) 4 %					(4) 100.0
	여성	(빈도) 0 %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1 %					(1) 100.0
	60대	(빈도) 2 %					(2) 100.0
	70대 이상	(빈도) 1 %					(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4 %					(4) 100.0
수급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4 %					(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1 %					(1) 100.0
	장애 없음	(빈도) 3 %					(3) 100.0

13.2.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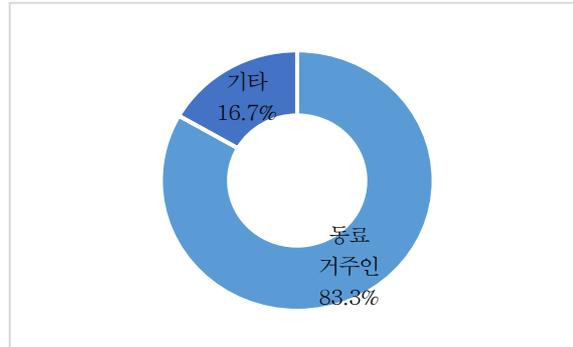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83.3%, 기타 16.7%로 나타났음.

<표 50>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빈도	%
동료 거주인	10	83.3
일반 시민	0	0.0
사회복지시설 직원	0	0.0
경찰	0	0.0
기타	2	16.7
합계	12	100.0

<그림 59>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51> 응답자 특성별 - 정신적 괴롭힘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찰	기타	계
전 체		(빈도) %	(10) 83.3			(2) 16.7	(12) 100.0
성별	남성	(빈도) %	(6) 75.0			(2) 25.0	(8) 100.0
	여성	(빈도) %	(4) 100.0				(4)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5) 100.0				(5) 100.0
	60대	(빈도) %	(1) 50.0			(1) 50.0	(2) 100.0
	70대 이상	(빈도) %	(3) 100.0				(3)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 60.0			(2) 40.0	(5)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100.0				(4) 100.0
	비수급	(빈도) %	(3) 100.0				(3)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의료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장애 여부	장애 없음	(빈도) %	(10) 83.3			(2) 16.7	(12) 100.0

13_3.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표 52>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빈도	%
동료 거주인	1	100.0
일반 시민	0	0.0
사회복지시설 직원	0	0.0
경찰	0	0.0
기타	0	0.0
합계	1	100.0

<그림 60>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53> 응답자 특성별 - 금품갈취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찰	기타	계
전 체		(빈도) %	(1) 100.0				(1)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100.0				(1) 100.0
연령대	70대 이상	(빈도) %	(1) 100.0				(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수급종류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장애 여부	장애 없음	(빈도) %	(1) 100.0				(1) 100.0

13_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100.0%로 나타났음.

<표 54>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빈도	%
동료 거주인	1	100.0
일반 시민	0	0.0
사회복지시설 직원	0	0.0
경찰	0	0.0
기타	0	0.0
합계	1	100.0

<그림 61>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55> 응답자 특성별 - 특정 종교 강요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찰	기타	계
전 체		(빈도) %	(1) 100.0				(1)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100.0				(1) 100.0
연령대	70대 이상	(빈도) %	(1) 100.0				(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수급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장애 없음	(빈도) %	(1) 100.0				(1) 100.0

13_5.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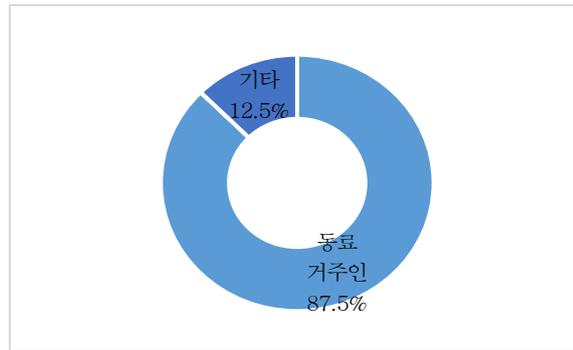
질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는 동료 거주인 87.5%, 기타 12.5%로 나타났음.

<표 56>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빈도	%
동료 거주인	7	87.5
일반 시민	0	0.0
사회복지시설 직원	0	0.0
경찰	0	0.0
기타	1	12.5
합계	8	100.0

<그림 62>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행위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57> 응답자 특성별 - 모욕적 발언 및 폭언(욕설) 경험 있는 경우, 행위자 (다중응답)

항목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찰	기타	계
전 체		(빈도) %	(7) 87.5			(1) 12.5	(8) 100.0
성별	남성	(빈도) %	(4) 80.0			(1) 20.0	(5) 100.0
	여성	(빈도) %	(3) 100.0				(3)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50.0			(1) 50.0	(2) 100.0
	60대	(빈도) %	(2) 100.0				(2) 100.0
	70대 이상	(빈도) %	(4) 100.0				(4)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83.3			(1) 16.7	(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수급종류	생계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100.0				(1) 100.0
	장애 없음	(빈도) %	(6) 85.7			(1) 14.3	(7) 100.0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V. 거주 공간



14. 현 거주지 내부시설

14_1.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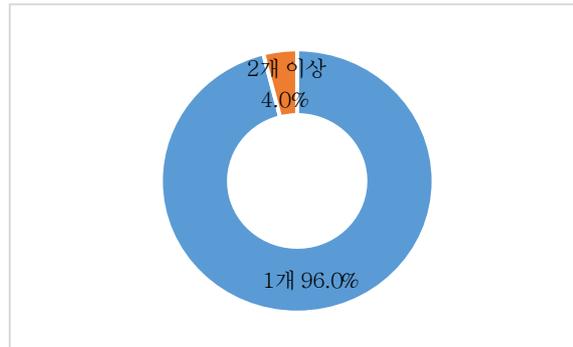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는 1개 96.0%, 2개 이상 4.0%로 나타났음.

<표 58>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항목	빈도	%
1개	192	96.0
2개 이상	8	4.0
합계	200	100.0

<그림 63>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는 '1개'가 96.0%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1개 97.1%, 2개 이상 2.9%가 높고, 여성은 1개 88.5%, 2개 이상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1개 100.0%, 2개 이상 0.0%, 60대는 1개 93.9%, 2개 이상 6.1%, 70대 이상은 1개 93.4%, 2개 이상 6.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1개 94.6%, 2개 이상 5.4%, 조건부 수급은 1개 100.0%, 2개 이상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1개 100.0%, 2개 이상 0.0%, 비수급은 1개 100.0%, 2개 이상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1개 100.0%, 2개 이상 0.0%, 생계급여는 1개 100.0%, 2개 이상 0.0%, 의료급여는 1개 100.0%, 2개 이상 0.0%, 주거급여는 1개 100.0%, 2개 이상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1개 100.0%, 2개 이상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1개 100.0%, 2개 이상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1개 94.4%, 2개 이상 5.6%,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1개 93.8%, 2개 이상 6.3%, 장애 없음은 1개 96.4%, 2개 이상 3.6%가 높게 나타났음.

<표 59>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침실(방)_개수

항목			1개	2개 이상	계
전 체		(빈도) %	(191) 96.0	(8) 4.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68) 97.1	(5) 2.9	(173) 100.0
	여성	(빈도) %	(23) 88.5	(3) 11.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	(62) 93.9	(4) 6.1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57) 93.4	(4) 6.6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9) 94.6	(8) 5.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36) 94.4	(8) 5.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0) 93.8	(2) 6.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62) 96.4	(6) 3.6	(168) 100.0

14_2.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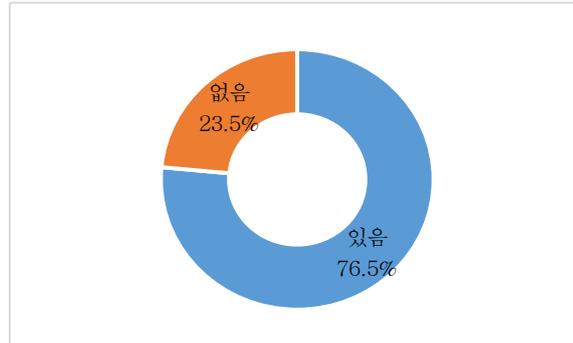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는 있음 76.5%, 없음 23.5%로 나타났다.

<표 60>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항목	빈도	%
있음	153	76.5
없음	47	23.5
합계	200	100.0

<그림 64>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는 '있음'이 76.5%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있음 77.5%, 여성은 있음 7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있음 70.6%, 60대는 있음 80.3%, 70대 이상은 있음 80.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있음 81.6%, 조건부 수급은 있음 6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있음 44.4%, 비수급은 있음 6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있음 66.7%, 생계급여는 있음 50.0%, 의료급여는 있음 66.7%, 주거급여는 있음 55.6%,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있음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72.7%,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66.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80.6%,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있음 87.5%, 장애 없음은 있음 74.4%로 나타났다.

<표 6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거주하는 방의 창문 유무

항목			있음	없음	계
전 체		(빈도) %	(153) 76.9	(46) 23.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34) 77.5	(39) 22.5	(173) 100.0
	여성	(빈도) %	(19) 73.1	(7) 26.9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8) 70.6	(20) 29.4	(68) 100.0
	60대	(빈도) %	(53) 80.3	(13) 19.7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9) 80.3	(12) 19.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20) 81.6	(27) 18.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3) 65.0	(7) 3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4) 44.4	(5) 55.6	(9) 100.0
	비수급	(빈도) %	(16) 66.7	(8) 33.3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6) 66.7	(8) 33.3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5) 55.6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8) 72.7	(3) 27.3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6) 80.6	(28) 19.4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8) 87.5	(4) 12.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25) 74.4	(43) 25.6	(168) 100.0

14_3.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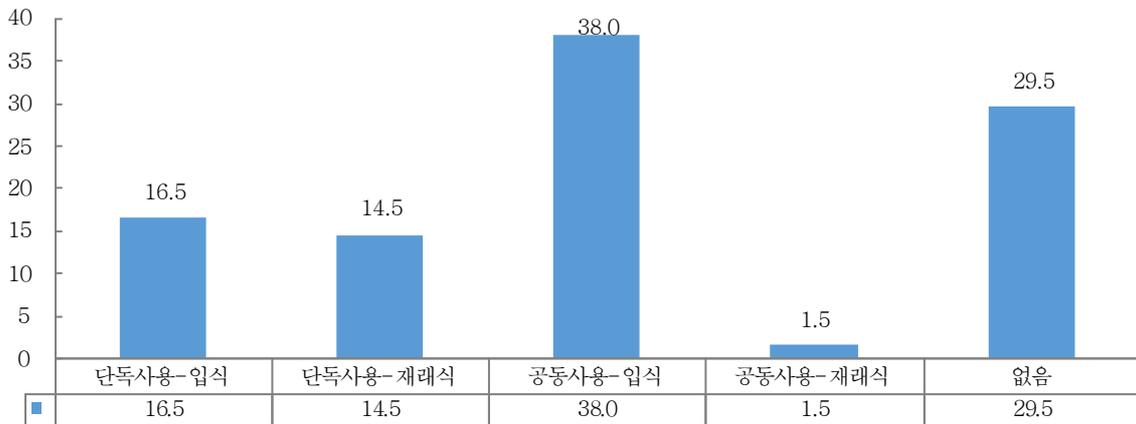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는 공동사용-입식이 3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없음 29.5%, 단독사용-입식 16.5%, 단독사용-재래식 14.5%, 공동사용-재래식 1.5% 순으로 나타났음.

<표 62>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항목	빈도	%
단독사용-입식	33	16.5
단독사용-재래식	29	14.5
공동사용-입식	76	38.0
공동사용-재래식	3	1.5
없음	59	29.5
합계	200	100.0

<그림 6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는 공동사용-입식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공동사용-입식 39.3%, 없음 34.1%가 높고, 여성은 단독사용-재래식 46.2%, 단독사용-입식, 공동사용-입식 각 26.9%,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공동사용-입식 61.8%, 없음 27.9%, 60대는 없음 36.4%, 공동사용-입식 31.8%, 70대 이상은 단독사용-재래식 29.5%, 단독사용-입식 26.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없음 34.0%, 공동사용-입식 25.9%, 조건부 수급은 공동 사용-입식 70.0%, 없음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공동사용-입식 66.7%, 없음 22.2%, 비수급은 공동사용-입식 75.0%, 없음 12.5%,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공동사용-입식 75.0%, 없음 12.5%, 생계급여는 단독사용-재래식 75.0%, 공동사용-입식 25.0%, 의료급여는 공동사용-입식 100.0%,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입식 66.7%, 없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단독사용-입식, 없음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입식 45.5%, 없음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입식 66.7%, 없음 33.3%, 생 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없음 33.3%, 공동사용-입식 28.5%,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없음 46.9%, 단독사용-입식 34.4%, 장애 없음은 공동사용-입식 43.5%, 없음 26.2%가 높게 나타났음.

<표 63>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부엌 형태

항목		단독사용-입식	단독사용-재래식	공동사용-입식	공동사용-재래식	없음	계	
전 체		(빈도) %	(33) 16.6	(29) 14.6	(75) 37.7	(3) 1.5	(59) 29.6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26) 15.0	(17) 9.8	(68) 39.3	(3) 1.7	(59) 34.1	(173) 100.0
	여성	(빈도) %	(7) 26.9	(12) 46.2	(7) 26.9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5) 7.4	(1) 1.5	(42) 61.8	(1) 1.5	(19) 27.9	(68) 100.0
	60대	(빈도) %	(11) 16.7	(10) 15.2	(21) 31.8		(24) 36.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6) 26.2	(18) 29.5	(10) 16.4	(2) 3.3	(15) 24.6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0) 20.4	(27) 18.4	(38) 25.9	(2) 1.4	(50) 34.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14) 70.0		(4) 2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6) 66.7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1) 4.2	(18) 75.0	(1) 4.2	(3) 12.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1) 4.2	(18) 75.0	(1) 4.2	(3) 12.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6) 66.7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5) 45.5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9) 20.1	(24) 16.7	(41) 28.5	(2) 1.4	(48) 33.3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1) 34.4	(3) 9.4	(3) 9.4		(15) 46.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2) 13.1	(26) 15.5	(73) 43.5	(3) 1.8	(44) 26.2	(168) 100.0

14_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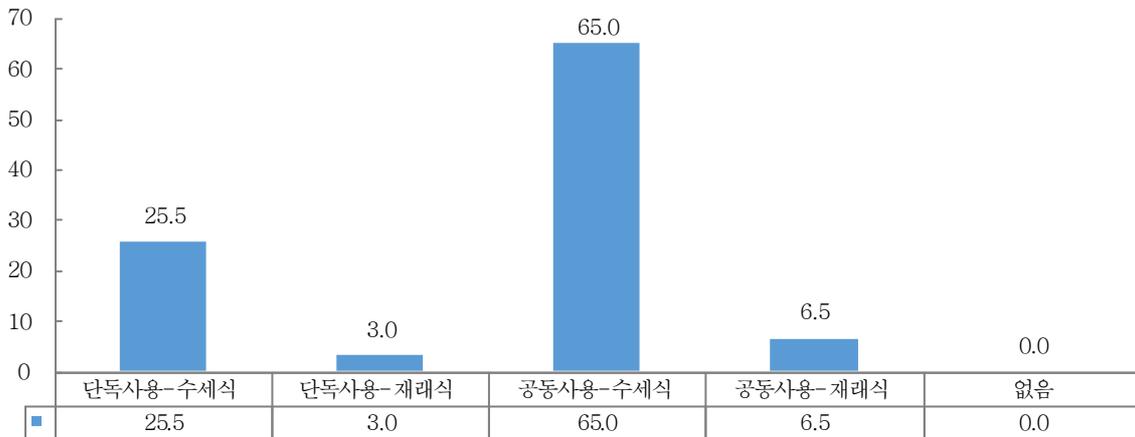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는 공동사용-수세식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사용-수세식 25.5%, 공동사용-재래식 6.5%, 단독사용-재래식 3.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4>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항목	빈도	%
단독사용-수세식	51	25.5
단독사용-재래식	6	3.0
공동사용-수세식	130	65.0
공동사용-재래식	13	6.5
없음	0	0.0
합계	200	100.0

<그림 66>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는 공동사용-수세식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공동사용-수세식 61.3%, 단독사용-수세식 27.7%가 높고, 여성은 공동사용-수세식 88.5%, 단독사용-수세식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공동사용-수세식 69.1%, 단독사용-수세식 25.0%, 60대는 공동사용-수세식 57.6%, 단독사용-수세식 30.3%, 70대 이상은 공동사용-수세식 67.2%, 단독사용-수세식 21.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공동사용-수세식 59.9%, 단독사용-수세식 30.6%, 조건부 수급은 공동사용-수세식 80.0%, 단독사용-수세식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공동사용-수세식 88.9%, 공동사용-재래식 11.1%, 비수급은 공동사용-수세식 75.0%, 공동사용-재래식 1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공동사용-수세식 75.0%, 공동사용-재래식 16.7%, 생계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100.0%, 의료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100.0%,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88.9%, 공동사용-재래식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공동사용-재래식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63.6%, 단독사용-수세식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수세식 59.7%, 단독사용-수세식 31.3%,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공동사용-수세식 53.1%, 단독사용-수세식 37.5%, 장애 없음은 공동사용-수세식 67.3%, 단독사용-수세식 23.2%가 높게 나타났음.

<표 65>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화장실 형태

항목		단독사용-수세식	단독사용-재래식	공동사용-수세식	공동사용-재래식	없음	계	
전 체		(빈도) %	(51) 25.6	(6) 3.0	(129) 64.8	(13) 6.5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8) 27.7	(6) 3.5	(106) 61.3	(13) 7.5	(173) 100.0	
	여성	(빈도) %	(3) 11.5		(23) 88.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7) 25.0		(47) 69.1	(4) 5.9	(68) 100.0	
	60대	(빈도) %	(20) 30.3	(4) 6.1	(38) 57.6	(4) 6.1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3) 21.3	(2) 3.3	(41) 67.2	(5) 8.2	(61)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45) 30.6	(6) 4.1	(88) 59.9	(8) 5.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16) 8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8) 88.9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18) 75.0	(4) 16.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18) 75.0	(4) 16.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8) 88.9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7) 63.6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5) 31.3	(6) 4.2	(86) 59.7	(7) 4.9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2) 37.5	(3) 9.4	(17) 53.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39) 23.2	(3) 1.8	(113) 67.3	(13) 7.7	(168) 100.0

14_5.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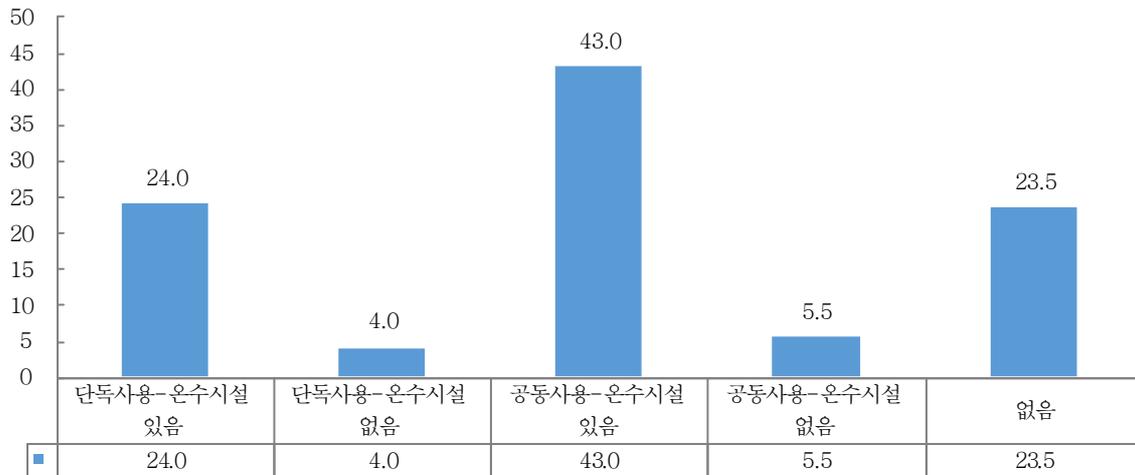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이 4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4.0%, 없음 23.5%,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5.5%,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4.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항목	빈도	%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48	24.0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8	4.0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86	43.0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11	5.5
없음	47	23.5
합계	200	100.0

<그림 6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46.2%,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6.6%가 높고, 여성은 없음 65.4%,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63.2%,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6.5%, 60대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42.4%,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5.8%, 70대 이상은 없음 49.2%,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19.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없음 30.6%,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29.9%, 조건부 수급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70.0%,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30.0%, 차상위계층 수급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88.9%, 없음 11.1%, 비수급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83.3%,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83.3%,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8.3%, 생계급여는 없음 75.0%,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25.0%, 의료급여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100.0%,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77.8%,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없음 각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없음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각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31.9%,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없음 각 27.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없음 각 37.5%, 장애 없음은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48.8%,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21.4%가 높게 나타났음.

<표 67>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목욕시설 형태

항목		단독사용-온수 시설 있음	단독사용-온수 시설 없음	공동사용-온수 시설 있음	공동사용-온수 시설 없음	없음	계	
전 체		(빈도) %	(48) 24.1	(8) 4.0	(85) 42.7	(11) 5.5	(47) 23.6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6) 26.6	(8) 4.6	(80) 46.2	(9) 5.2	(30) 17.3	(173) 100.0
	여성	(빈도) %	(2) 7.7		(5) 19.2	(2) 7.7	(17) 65.4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8) 26.5	(1) 1.5	(43) 63.2	(2) 2.9	(4) 5.9	(68) 100.0
	60대	(빈도) %	(17) 25.8	(5) 7.6	(28) 42.4	(3) 4.5	(13) 19.7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2) 19.7	(2) 3.3	(11) 18.0	(6) 9.8	(30) 49.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0) 27.2	(8) 5.4	(44) 29.9	(10) 6.8	(45) 30.6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6) 30.0		(14) 7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8) 88.9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20) 83.3	(1) 4.2	(1) 4.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20) 83.3	(1) 4.2	(1) 4.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7) 77.8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5) 45.5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2) 37.5	(1) 3.1	(4) 12.5	(3) 9.4	(12) 3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36) 21.4	(7) 4.2	(82) 48.8	(8) 4.8	(35) 20.8	(168) 100.0

14_6.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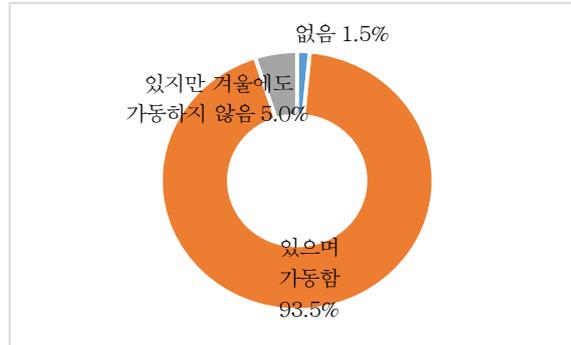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는 없음 1.5%, 있으며 가동함 93.5%,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5.0%로 나타났다.

<표 68>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항목	빈도	%
없음	3	1.5
있으며 가동함	187	93.5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10	5.0
합계	200	100.0

<그림 68>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는 ‘있으며 가동함’이 93.5%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있으며 가동함 92.5%,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5.8%가 높고, 여성은 있으며 가동함 10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있으며 가동함 95.6%,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4.4%, 60대는 있으며 가동함 90.9%,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7.6%, 70대 이상은 있으며 가동함 95.1%,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3.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있으며 가동함 93.9%,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4.1%, 조건부 수급은 있으며 가동함 95.0%,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있으며 가동함 66.7%,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33.3%, 비수급은 있으며 가동함 10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있으며 가동함 100.0%, 생계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100.0%, 의료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66.7%,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33.3%, 주거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77.8%,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81.8%, 없음,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각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으며 가동함 94.4%,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4.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있으며 가동함 100.0%, 없장애 없음은 있으며 가동함 92.3%,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6.0%가 높게 나타났음.

<표 69>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유무

항목		없음	있으며 가동함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계
전 체		(빈도) %	(186) 93.5	(10) 5.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60) 92.5	(10) 5.8	(173)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5) 95.6	(3) 4.4	(68) 100.0
	60대	(빈도) %	(60) 90.9	(5) 7.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58) 95.1	(2) 3.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8) 93.9	(6) 4.1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9) 95.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6) 66.7	(3) 33.3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7) 77.8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9) 9.1	(1)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36) 94.4	(6) 4.2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55) 92.3	(10) 6.0	(168) 100.0

14_7.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질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	-----------------------------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는 전기장판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스보일러 9.1%, 기름보일러 7.6%, 전기보일러 7.1%, 연탄보일러 6.1%, 기타 4.6%, 중앙난방(지역난방) 1.5%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9건)은 전기판넬로 나타났음.

<표 70>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항목	빈도	%
연탄보일러	12	6.1
기름보일러	15	7.6
가스보일러	18	9.1
전기보일러	14	7.1
중앙난방(지역난방)	3	1.5
전기장판	126	64.0
기타	9	4.6
합계	197	100.0

<그림 69>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는 전기장판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전기장판 70.0%,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각 7.6%가 높고, 여성은 연탄보일러 38.5%, 전기장판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전기장판 70.6%, 전기보일러 16.2%, 60대는 전기장판 69.2%, 기름보일러 10.8%, 70대 이상은 전기장판 50.0%, 연탄보일러 2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전기장판 63.9%, 기름보일러 10.4%, 조건부 수급은 전기장판 60.0%, 전기보일러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전기장판 88.9%, 연탄보일러 11.1%, 비수급은 전기장판 58.3%, 전기보일러 25.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전기장판 58.3%, 전기보일러 25.0%, 생계급여는 연탄보일러 75.0%, 전기장판 25.0%, 의료급여는 전기보일러 66.7%, 전기장판 33.3%, 주거급여는 전기장판 77.8%,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각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가스보일러, 전기장판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전기장판 90.0%, 연탄보일러 1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전기장판 66.7%, 기타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전기장판 64.1%,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각 9.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전기장판 59.4%, 가스보일러 18.8%, 장애 없음은 전기장판 64.8%, 전기보일러 8.5%가 높게 나타났음.

<표 7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주지 내부시설] 난방시설 형태

항목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중앙난방 (지역난방)	전기장판	기타	계	
전 체		(빈도) %	(12) 6.1	(15) 7.7	(18) 9.2	(14) 7.1	(3) 1.5	(125) 63.8	(9) 4.6	(196) 100.0
성별	남성	(빈도) %	(2) 1.2	(13) 7.6	(13) 7.6	(13) 7.6	(3) 1.8	(119) 70.0	(7) 4.1	(170) 100.0
	여성	(빈도) %	(10) 38.5	(2) 7.7	(5) 19.2	(1) 3.8		(6) 23.1	(2) 7.7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5) 7.4	(11) 16.2	(1) 1.5	(48) 70.6	(2) 2.9	(68) 100.0
	60대	(빈도) %		(7) 10.8	(5) 7.7	(2) 3.1	(1) 1.5	(45) 69.2	(5) 7.7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2) 20.0	(7) 11.7	(7) 11.7	(1) 1.7	(1) 1.7	(30) 50.0	(2) 3.3	(60)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1) 7.6	(15) 10.4	(14) 9.7	(3) 2.1	(2) 1.4	(92) 63.9	(7) 4.9	(14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5) 25.0		(12) 60.0	(2) 1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3) 12.5	(6) 25.0	(1) 4.2	(14) 58.3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3) 12.5	(6) 25.0	(1) 4.2	(14) 58.3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1) 11.1		(7) 77.8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					(9) 90.0		(10)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8) 5.6	(14) 9.9	(14) 9.9	(5) 3.5	(2) 1.4	(91) 64.1	(8) 5.6	(142)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3) 9.4	(6) 18.8		(1) 3.1	(19) 59.4	(1) 3.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0) 6.1	(12) 7.3	(12) 7.3	(14) 8.5	(2) 1.2	(107) 64.8	(8) 4.8	(165) 100.0

15. 현재 거주 상태

질 문	현재 거처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

○ 현재 거주 상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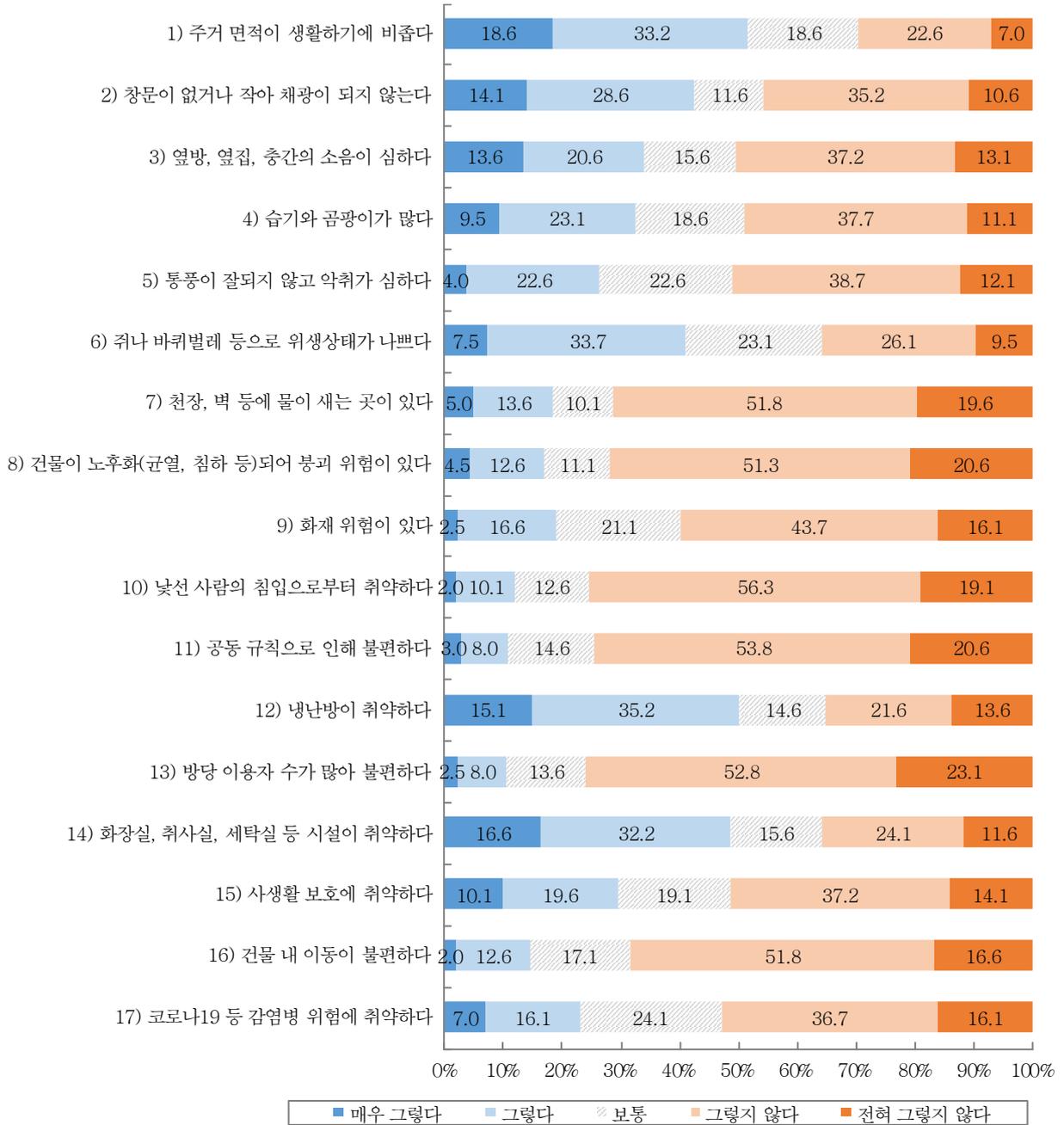
- 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는 동의 51.8%(매우 그렇다 18.6% + 그렇다 33.2%), 보통 18.6%, 비동의 29.6%(그렇지 않다 22.6% + 전혀 그렇지 않다 7.0%)로 나타났다.
-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는 동의 42.7%(매우 그렇다 14.1% + 그렇다 28.6%), 보통 11.6%, 비동의 45.7%(그렇지 않다 35.2% + 전혀 그렇지 않다 10.6%)로 나타났다.
- 3)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는 동의 34.2%(매우 그렇다 13.6% + 그렇다 20.6%), 보통 15.6%, 비동의 50.3%(그렇지 않다 37.2% + 전혀 그렇지 않다 13.1%)로 나타났다.
-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는 동의 32.7%(매우 그렇다 9.5% + 그렇다 23.1%), 보통 18.6%, 비동의 48.7%(그렇지 않다 37.7% + 전혀 그렇지 않다 11.1%)로 나타났다.
- 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는 동의 26.6%(매우 그렇다 4.0% + 그렇다 22.6%), 보통 22.6%, 비동의 50.8%(그렇지 않다 38.7% + 전혀 그렇지 않다 12.1%)로 나타났다.
-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는 동의 41.2%(매우 그렇다 7.5% + 그렇다 33.7%), 보통 23.1%, 비동의 35.7%(그렇지 않다 26.1% + 전혀 그렇지 않다 9.5%)로 나타났다.
- 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는 동의 18.6%(매우 그렇다 5.0% + 그렇다 13.6%), 보통 10.1%, 비동의 71.4%(그렇지 않다 51.8% + 전혀 그렇지 않다 19.6%)로 나타났다.
- 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동의 17.1%(매우 그렇다 4.5% + 그렇다 12.6%), 보통 11.1%, 비동의 71.9%(그렇지 않다 51.3% + 전혀 그렇지 않다 20.6%)로 나타났다.
- 9) 화재 위험이 있다는 동의 19.1%(매우 그렇다 2.5% + 그렇다 16.6%), 보통 21.1%, 비동의 59.8%(그렇지 않다 43.7% + 전혀 그렇지 않다 16.1%)로 나타났다.
- 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동의 12.1%(매우 그렇다 2.0% + 그렇다 10.1%), 보통 12.6%, 비동의 75.4%(그렇지 않다 56.3% + 전혀 그렇지 않다 19.1%)로 나타났다.
- 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동의 11.1%(매우 그렇다 3.0% + 그렇다 8.0%), 보통 14.6%, 비동의 74.4%(그렇지 않다 53.8% + 전혀 그렇지 않다 20.6%)로 나타났다.
- 12) 냉난방이 취약하다는 동의 50.3%(매우 그렇다 15.1% + 그렇다 35.2%), 보통 14.6%, 비동의 35.2%(그렇지 않다 21.6% + 전혀 그렇지 않다 13.6%)로 나타났다.

- 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는 동의 10.6%(매우 그렇다 2.5% + 그렇다 8.0%), 보통 13.6%, 비동의 75.9%(그렇지 않다 52.8% + 전혀 그렇지 않다 23.1%)로 나타났음.
- 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는 동의 48.7%(매우 그렇다 16.6% + 그렇다 32.2%), 보통 15.6%, 비동의 35.7%(그렇지 않다 24.1% + 전혀 그렇지 않다 11.6%)로 나타났음.
- 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동의 29.6%(매우 그렇다 10.1% + 그렇다 19.6%), 보통 19.1%, 비동의 51.3%(그렇지 않다 37.2% + 전혀 그렇지 않다 14.1%)로 나타났음.
- 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는 동의 14.6%(매우 그렇다 2.0% + 그렇다 12.6%), 보통 17.1%, 비동의 68.3%(그렇지 않다 51.8% + 전혀 그렇지 않다 16.6%)로 나타났음.
- 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는 동의 23.1%(매우 그렇다 7.0% + 그렇다 16.1%), 보통 24.1%, 비동의 52.8%(그렇지 않다 36.7% + 전혀 그렇지 않다 16.1%)로 나타났음.

<표 72> 현재 거주 상태

항목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	<보통>	<비 동의>	
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빈도 %)	(37) 18.6	(66) 33.2	(37) 18.6	(45) 22.6	(14) 7.0	(103) 51.8	(37) 18.6	(59) 29.6	(199) 100.0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	(빈도 %)	(28) 14.1	(57) 28.6	(23) 11.6	(70) 35.2	(21) 10.6	(85) 42.7	(23) 11.6	(91) 45.7	(199) 100.0
3) 열방, 열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빈도 %)	(27) 13.6	(41) 20.6	(31) 15.6	(74) 37.2	(26) 13.1	(68) 34.2	(31) 15.6	(100) 50.3	(199) 100.0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빈도 %)	(19) 9.5	(46) 23.1	(37) 18.6	(75) 37.7	(22) 11.1	(65) 32.7	(37) 18.6	(97) 48.7	(199) 100.0
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	(빈도 %)	(8) 4.0	(45) 22.6	(45) 22.6	(77) 38.7	(24) 12.1	(53) 26.6	(45) 22.6	(101) 50.8	(199) 100.0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	(빈도 %)	(15) 7.5	(67) 33.7	(46) 23.1	(52) 26.1	(19) 9.5	(82) 41.2	(46) 23.1	(71) 35.7	(199) 100.0
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	(빈도 %)	(10) 5.0	(27) 13.6	(20) 10.1	(103) 51.8	(39) 19.6	(37) 18.6	(20) 10.1	(142) 71.4	(199) 100.0
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	(빈도 %)	(9) 4.5	(25) 12.6	(22) 11.1	(102) 51.3	(41) 20.6	(34) 17.1	(22) 11.1	(143) 71.9	(199) 100.0
9) 화재 위험이 있다	(빈도 %)	(5) 2.5	(33) 16.6	(42) 21.1	(87) 43.7	(32) 16.1	(38) 19.1	(42) 21.1	(119) 59.8	(199) 100.0
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	(빈도 %)	(4) 2.0	(20) 10.1	(25) 12.6	(112) 56.3	(38) 19.1	(24) 12.1	(25) 12.6	(150) 75.4	(199) 100.0
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	(빈도 %)	(6) 3.0	(16) 8.0	(29) 14.6	(107) 53.8	(41) 20.6	(22) 11.1	(29) 14.6	(148) 74.4	(199) 100.0
12) 냉난방이 취약하다	(빈도 %)	(30) 15.1	(70) 35.2	(29) 14.6	(43) 21.6	(27) 13.6	(100) 50.3	(29) 14.6	(70) 35.2	(199) 100.0
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	(빈도 %)	(5) 2.5	(16) 8.0	(27) 13.6	(105) 52.8	(46) 23.1	(21) 10.6	(27) 13.6	(151) 75.9	(199) 100.0
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빈도 %)	(33) 16.6	(64) 32.2	(31) 15.6	(48) 24.1	(23) 11.6	(97) 48.7	(31) 15.6	(71) 35.7	(199) 100.0
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	(빈도 %)	(20) 10.1	(39) 19.6	(38) 19.1	(74) 37.2	(28) 14.1	(59) 29.6	(38) 19.1	(102) 51.3	(199) 100.0
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	(빈도 %)	(4) 2.0	(25) 12.6	(34) 17.1	(103) 51.8	(33) 16.6	(29) 14.6	(34) 17.1	(136) 68.3	(199) 100.0
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	(빈도 %)	(14) 7.0	(32) 16.1	(48) 24.1	(73) 36.7	(32) 16.1	(46) 23.1	(48) 24.1	(105) 52.8	(199) 100.0

<그림 70> 현재 거처 상태



[응답자 특성별 분석]

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29.1%(전혀 그렇지 않다 5.8% + 그렇지 않다 23.3%), 보통 18.6%, 동의 52.3%(그렇다 34.3% + 매우 그렇다 18.0%), 여성은 비동의 30.8%(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15.4%), 보통 19.2%, 동의 50.0%(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30.9%(전혀 그렇지 않다 7.4% + 그렇지 않다 23.5%), 보통 11.8%, 동의 57.4%(그렇다 35.3% + 매우 그렇다 22.1%), 60대는 비동의 36.9%(전혀 그렇지 않다 6.2% + 그렇지 않다 30.8%), 보통 18.5%, 동의 44.6%(그렇다 24.6% + 매우 그렇다 20.0%), 70대 이상은 비동의 21.3%(전혀 그렇지 않다 8.2% + 그렇지 않다 13.1%), 보통 26.2%, 동의 52.5%(그렇다 41.0% + 매우 그렇다 1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31.5%(전혀 그렇지 않다 6.8% + 그렇지 않다 24.7%), 보통 21.9%, 동의 46.6%(그렇다 32.9% + 매우 그렇다 13.7%),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20.0%(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10.0%), 보통 15.0%, 동의 65.0%(그렇다 45.0% + 매우 그렇다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66.7%(그렇다 44.4% + 매우 그렇다 22.2%), 비수급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8.3%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8.3%, 동의 66.7%(그렇다 20.8% + 매우 그렇다 45.8%),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8.3%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8.3%, 동의 66.7%(그렇다 20.8% + 매우 그렇다 45.8%), 생계급여는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0.0%, 동의 75.0%(그렇다 75.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33.3%, 동의 66.7%(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33.3%), 주거급여는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55.6%(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9.1%(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0.0%), 보통 36.4%, 동의 54.5%(그렇다 45.5% + 매우 그렇다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66.7%(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1.5%(전혀 그렇지 않다 7.0% + 그렇지 않다 24.5%), 보통 21.0%, 동의 47.6%(그렇다 32.9% + 매우 그렇다 14.7%),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43.8%(전혀 그렇지 않다 9.4% + 그렇지 않다 34.4%), 보통 28.1%, 동의 28.1%(그렇다 21.9% + 매우 그렇다 6.3%), 장애 없음은 비동의 26.9%(전혀 그렇지 않다 6.6% + 그렇지 않다 20.4%), 보통 16.8%, 동의 56.3%(그렇다 35.3% + 매우 그렇다 21.0%)로 나타났다.

<표 7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37) 18.7	(66) 33.3	(37) 18.7	(44) 22.2	(14) 7.1	(103) 52.0	(37) 18.7	(58) 29.3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31) 18.0	(59) 34.3	(32) 18.6	(40) 23.3	(10) 5.8	(90) 52.3	(32) 18.6	(50) 29.1	(172) 100.0
	여성	(빈도) %	(6) 23.1	(7) 26.9	(5) 19.2	(4) 15.4	(4) 15.4	(13) 50.0	(5) 19.2	(8) 30.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5) 22.1	(24) 35.3	(8) 11.8	(16) 23.5	(5) 7.4	(39) 57.4	(8) 11.8	(21) 30.9	(68) 100.0
	60대	(빈도) %	(13) 20.0	(16) 24.6	(12) 18.5	(20) 30.8	(4) 6.2	(29) 44.6	(12) 18.5	(24) 3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7) 11.5	(25) 41.0	(16) 26.2	(8) 13.1	(5) 8.2	(32) 52.5	(16) 26.2	(13) 21.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0) 13.7	(48) 32.9	(32) 21.9	(36) 24.7	(10) 6.8	(68) 46.6	(32) 21.9	(46) 31.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9) 45.0	(3) 15.0	(2) 10.0	(2) 10.0	(13) 65.0	(3) 15.0	(4) 2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4) 44.4		(3) 33.3		(6) 66.7		(3) 33.3	(9) 100.0
	비수급	(빈도) %	(11) 45.8	(5) 20.8	(2) 8.3	(4) 16.7	(2) 8.3	(16) 66.7	(2) 8.3	(6) 2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1) 45.8	(5) 20.8	(2) 8.3	(4) 16.7	(2) 8.3	(16) 66.7	(2) 8.3	(6) 2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3) 33.3		(3) 33.3	(1) 11.1	(5) 55.6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5) 45.5	(4) 36.4		(1) 9.1	(6) 54.5	(4) 36.4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1) 14.7	(47) 32.9	(30) 21.0	(35) 24.5	(10) 7.0	(68) 47.6	(30) 21.0	(45) 31.5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7) 21.9	(9) 28.1	(11) 34.4	(3) 9.4	(9) 28.1	(9) 28.1	(14) 43.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35) 21.0	(59) 35.3	(28) 16.8	(34) 20.4	(11) 6.6	(94) 56.3	(28) 16.8	(45) 26.9	(167) 100.0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47.1%(전혀 그렇지 않다 9.9% + 그렇지 않다 37.2%), 보통 11.0%, 동의 41.9%(그렇다 26.2% + 매우 그렇다 15.7%), 여성은 비동의 34.6%(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19.2%), 보통 15.4%, 동의 50.0%(그렇다 46.2% + 매우 그렇다 3.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52.9%(전혀 그렇지 않다 19.1% + 그렇지 않다 33.8%), 보통 11.8%, 동의 35.3%(그렇다 19.1% + 매우 그렇다 16.2%), 60대는 비동의 46.2%(전혀 그렇지 않다 9.2% + 그렇지 않다 36.9%), 보통 10.8%, 동의 43.1%(그렇다 33.8% + 매우 그렇다 9.2%), 70대 이상은 비동의 37.7%(전혀 그렇지 않다 3.3% + 그렇지 않다 34.4%), 보통 13.1%, 동의 49.2%(그렇다 34.4% + 매우 그렇다 14.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47.9%(전혀 그렇지 않다 8.9% + 그렇지 않다 39.0%), 보통 9.6%, 동의 42.5%(그렇다 30.8% + 매우 그렇다 11.6%),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45.0%(전혀 그렇지 않다 15.0% + 그렇지 않다 30.0%), 보통 25.0%, 동의 30.0%(그렇다 15.0% + 매우 그렇다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11.1%, 동의 33.3%(그렇다 22.2% + 매우 그렇다 11.1%), 비수급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8.3%), 보통 12.5%, 동의 58.3%(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8.3%), 보통 12.5%, 동의 58.3%(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29.2%),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75.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22.2%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100.0%(그렇다 10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27.3%(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18.2%), 보통 36.4%, 동의 36.4%(그렇다 36.4%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46.9%(전혀 그렇지 않다 8.4% + 그렇지 않다 38.5%), 보통 10.5%, 동의 42.7%(그렇다 28.7% + 매우 그렇다 14.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59.4%(전혀 그렇지 않다 21.9%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9.4%, 동의 31.3%(그렇다 31.3%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43.1%(전혀 그렇지 않다 8.4% + 그렇지 않다 34.7%), 보통 12.0%, 동의 44.9%(그렇다 28.1% + 매우 그렇다 16.8%)로 나타났다.

<표 7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28) 14.1	(57) 28.8	(23) 11.6	(69) 34.8	(21) 10.6	(85) 42.9	(23) 11.6	(90) 45.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27) 15.7	(45) 26.2	(19) 11.0	(64) 37.2	(17) 9.9	(72) 41.9	(19) 11.0	(81) 47.1	(172) 100.0
	여성	(빈도) %	(1) 3.8	(12) 46.2	(4) 15.4	(5) 19.2	(4) 15.4	(13) 50.0	(4) 15.4	(9) 34.6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1) 16.2	(13) 19.1	(8) 11.8	(23) 33.8	(13) 19.1	(24) 35.3	(8) 11.8	(36) 52.9	(68) 100.0
	60대	(빈도) %	(6) 9.2	(22) 33.8	(7) 10.8	(24) 36.9	(6) 9.2	(28) 43.1	(7) 10.8	(30) 46.2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9) 14.8	(21) 34.4	(8) 13.1	(21) 34.4	(2) 3.3	(30) 49.2	(8) 13.1	(23) 37.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7) 11.6	(45) 30.8	(14) 9.6	(57) 39.0	(13) 8.9	(62) 42.5	(14) 9.6	(70) 47.9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3) 15.0	(5) 25.0	(6) 30.0	(3) 15.0	(6) 30.0	(5) 25.0	(9) 4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2) 22.2	(1) 11.1	(5) 55.6		(3) 33.3	(1) 11.1	(5) 55.6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7) 29.2	(3) 12.5	(2) 8.3	(5) 20.8	(14) 58.3	(3) 12.5	(7) 2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7) 29.2	(3) 12.5	(2) 8.3	(5) 20.8	(14) 58.3	(3) 12.5	(7) 2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2) 22.2		(4) 44.4	(2) 22.2	(3) 33.3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4) 36.4	(2) 18.2	(1) 9.1	(4) 36.4	(4) 36.4	(3) 27.3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0) 14.0	(41) 28.7	(15) 10.5	(55) 38.5	(12) 8.4	(61) 42.7	(15) 10.5	(67) 46.9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0) 31.3	(3) 9.4	(12) 37.5	(7) 21.9	(10) 31.3	(3) 9.4	(19) 59.4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8) 16.8	(47) 28.1	(20) 12.0	(58) 34.7	(14) 8.4	(75) 44.9	(20) 12.0	(72) 43.1	(167) 100.0

3)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48.8%(전혀 그렇지 않다 11.0% + 그렇지 않다 37.8%), 보통 15.1%, 동의 36.0%(그렇다 22.1% + 매우 그렇다 14.0%), 여성은 비동의 57.7%(전혀 그렇지 않다 26.9% + 그렇지 않다 30.8%), 보통 19.2%, 동의 23.1%(그렇다 11.5% + 매우 그렇다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42.6%(전혀 그렇지 않다 17.6%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16.2%, 동의 41.2%(그렇다 22.1% + 매우 그렇다 19.1%), 60대는 비동의 43.1%(전혀 그렇지 않다 6.2% + 그렇지 않다 36.9%), 보통 16.9%, 동의 40.0%(그렇다 23.1% + 매우 그렇다 16.9%), 70대 이상은 비동의 67.2%(전혀 그렇지 않다 16.4% + 그렇지 않다 50.8%), 보통 14.8%, 동의 18.0%(그렇다 14.8% + 매우 그렇다 3.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55.5%(전혀 그렇지 않다 13.0% + 그렇지 않다 42.5%), 보통 17.1%, 동의 27.4%(그렇다 18.5% + 매우 그렇다 8.9%),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30.0%(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20.0%), 보통 20.0%, 동의 50.0%(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11.1%, 동의 33.3%(그렇다 22.2% + 매우 그렇다 11.1%), 비수급은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4.2%, 동의 62.5%(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33.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4.2%, 동의 62.5%(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0.0%, 동의 25.0%(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11.1%, 동의 33.3%(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10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6.4%(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6.4%), 보통 27.3%, 동의 36.4%(그렇다 27.3% + 매우 그렇다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66.7%(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2.4%(전혀 그렇지 않다 11.9%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17.5%, 동의 30.1%(그렇다 19.6% + 매우 그렇다 10.5%),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9.4%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12.5%, 동의 37.5%(그렇다 28.1% + 매우 그렇다 9.4%), 장애 없음은 비동의 50.3%(전혀 그렇지 않다 13.8% + 그렇지 않다 36.5%), 보통 16.2%, 동의 33.5%(그렇다 19.2% + 매우 그렇다 14.4%)로 나타났다.

<표 75>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3) 옻방, 옻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27) 13.6	(41) 20.7	(31) 15.7	(73) 36.9	(26) 13.1	(68) 34.3	(31) 15.7	(99) 50.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24) 14.0	(38) 22.1	(26) 15.1	(65) 37.8	(19) 11.0	(62) 36.0	(26) 15.1	(84) 48.8	(172) 100.0
	여성	(빈도) %	(3) 11.5	(3) 11.5	(5) 19.2	(8) 30.8	(7) 26.9	(6) 23.1	(5) 19.2	(15) 57.7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3) 19.1	(15) 22.1	(11) 16.2	(17) 25.0	(12) 17.6	(28) 41.2	(11) 16.2	(29) 42.6	(68) 100.0
	60대	(빈도) %	(11) 16.9	(15) 23.1	(11) 16.9	(24) 36.9	(4) 6.2	(26) 40.0	(11) 16.9	(28) 43.1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2) 3.3	(9) 14.8	(9) 14.8	(31) 50.8	(10) 16.4	(11) 18.0	(9) 14.8	(41) 67.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 8.9	(27) 18.5	(25) 17.1	(62) 42.5	(19) 13.0	(40) 27.4	(25) 17.1	(81) 55.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5) 25.0	(5) 25.0	(4) 20.0	(4) 20.0	(2) 10.0	(10) 50.0	(4) 20.0	(6) 3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2) 22.2	(1) 11.1	(5) 55.6		(3) 33.3	(1) 11.1	(5) 55.6	(9) 100.0
	비수급	(빈도) %	(8) 33.3	(7) 29.2	(1) 4.2	(3) 12.5	(5) 20.8	(15) 62.5	(1) 4.2	(8) 33.3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8) 33.3	(7) 29.2	(1) 4.2	(3) 12.5	(5) 20.8	(15) 62.5	(1) 4.2	(8) 33.3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1) 25.0	(2) 50.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1) 11.1	(1) 11.1	(4) 44.4	(1) 11.1	(3) 33.3	(1) 11.1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3) 27.3	(3) 27.3	(4) 36.4		(4) 36.4	(3) 27.3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5) 10.5	(28) 19.6	(25) 17.5	(58) 40.6	(17) 11.9	(43) 30.1	(25) 17.5	(75) 52.4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 9.4	(9) 28.1	(4) 12.5	(13) 40.6	(3) 9.4	(12) 37.5	(4) 12.5	(16) 5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4) 14.4	(32) 19.2	(27) 16.2	(61) 36.5	(23) 13.8	(56) 33.5	(27) 16.2	(84) 50.3	(167) 100.0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9.3% + 그렇지 않다 40.7%), 보통 19.2%, 동의 30.8%(그렇다 22.7% + 매우 그렇다 8.1%), 여성은 비동의 38.5%(전혀 그렇지 않다 23.1% + 그렇지 않다 15.4%), 보통 15.4%, 동의 46.2%(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55.9%(전혀 그렇지 않다 13.2% + 그렇지 않다 42.6%), 보통 17.6%, 동의 26.5%(그렇다 16.2% + 매우 그렇다 10.3%), 60대는 비동의 49.2%(전혀 그렇지 않다 7.7% + 그렇지 않다 41.5%), 보통 23.1%, 동의 27.7%(그렇다 20.0% + 매우 그렇다 7.7%), 70대 이상은 비동의 41.0%(전혀 그렇지 않다 13.1% + 그렇지 않다 27.9%), 보통 13.1%, 동의 45.9%(그렇다 36.1% + 매우 그렇다 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44.5%(전혀 그렇지 않다 7.5% + 그렇지 않다 37.0%), 보통 19.9%, 동의 35.6%(그렇다 24.7% + 매우 그렇다 11.0%),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70.0%(전혀 그렇지 않다 15.0% + 그렇지 않다 55.0%), 보통 20.0%, 동의 1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1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22.2%,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8.3%, 동의 41.7%(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4.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8.3%, 동의 41.7%(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4.2%),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11.1%, 동의 22.2%(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5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6.4%(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6.4%), 보통 36.4%, 동의 27.3%(그렇다 27.3%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46.9%(전혀 그렇지 않다 8.4% + 그렇지 않다 38.5%), 보통 18.9%, 동의 34.3%(그렇다 22.4% + 매우 그렇다 11.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53.1%(전혀 그렇지 않다 12.5%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21.9%, 동의 25.0%(그렇다 18.8% + 매우 그렇다 6.3%), 장애 없음은 비동의 47.9%(전혀 그렇지 않다 10.8% + 그렇지 않다 37.1%), 보통 18.0%, 동의 34.1%(그렇다 24.0% + 매우 그렇다 10.2%)로 나타났다.

<표 76>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19) 9.6	(46) 23.2	(37) 18.7	(74) 37.4	(22) 11.1	(65) 32.8	(37) 18.7	(96) 48.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4) 8.1	(39) 22.7	(33) 19.2	(70) 40.7	(16) 9.3	(53) 30.8	(33) 19.2	(86) 50.0	(172) 100.0
	여성	(빈도) %	(5) 19.2	(7) 26.9	(4) 15.4	(4) 15.4	(6) 23.1	(12) 46.2	(4) 15.4	(10) 38.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7) 10.3	(11) 16.2	(12) 17.6	(29) 42.6	(9) 13.2	(18) 26.5	(12) 17.6	(38) 55.9	(68) 100.0
	60대	(빈도) %	(5) 7.7	(13) 20.0	(15) 23.1	(27) 41.5	(5) 7.7	(18) 27.7	(15) 23.1	(32) 49.2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8	(22) 36.1	(8) 13.1	(17) 27.9	(8) 13.1	(28) 45.9	(8) 13.1	(25) 41.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6) 11.0	(36) 24.7	(29) 19.9	(54) 37.0	(11) 7.5	(52) 35.6	(29) 19.9	(65) 44.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4) 20.0	(11) 55.0	(3) 15.0	(2) 10.0	(4) 20.0	(14) 7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2) 22.2	(4) 44.4	(2) 22.2	(1) 11.1	(2) 22.2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9) 37.5	(2) 8.3	(6) 25.0	(6) 25.0	(10) 41.7	(2) 8.3	(12) 5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9) 37.5	(2) 8.3	(6) 25.0	(6) 25.0	(10) 41.7	(2) 8.3	(12) 5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1) 11.1	(1) 11.1	(4) 44.4	(2) 22.2	(2) 22.2	(1) 11.1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4) 36.4	(4) 36.4		(3) 27.3	(4) 36.4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7) 11.9	(32) 22.4	(27) 18.9	(55) 38.5	(12) 8.4	(49) 34.3	(27) 18.9	(67) 46.9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6) 18.8	(7) 21.9	(13) 40.6	(4) 12.5	(8) 25.0	(7) 21.9	(17) 53.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7) 10.2	(40) 24.0	(30) 18.0	(62) 37.1	(18) 10.8	(57) 34.1	(30) 18.0	(80) 47.9	(167) 100.0

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51.7%(전혀 그렇지 않다 9.9% + 그렇지 않다 41.9%), 보통 21.5%, 동의 26.7%(그렇다 23.8% + 매우 그렇다 2.9%), 여성은 비동의 42.3%(전혀 그렇지 않다 23.1% + 그렇지 않다 19.2%), 보통 30.8%, 동의 26.9%(그렇다 15.4% + 매우 그렇다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55.9%(전혀 그렇지 않다 16.2% + 그렇지 않다 39.7%), 보통 16.2%, 동의 27.9%(그렇다 23.5% + 매우 그렇다 4.4%), 60대는 비동의 50.8%(전혀 그렇지 않다 7.7% + 그렇지 않다 43.1%), 보통 29.2%, 동의 20.0%(그렇다 16.9% + 매우 그렇다 3.1%), 70대 이상은 비동의 47.5%(전혀 그렇지 않다 11.5% + 그렇지 않다 36.1%), 보통 23.0%, 동의 29.5%(그렇다 24.6% + 매우 그렇다 4.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52.7%(전혀 그렇지 않다 10.3% + 그렇지 않다 42.5%), 보통 19.9%, 동의 27.4%(그렇다 23.3% + 매우 그렇다 4.1%),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6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40.0%), 보통 25.0%, 동의 10.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22.2%(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11.1%), 비수급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12.5%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33.3%, 동의 37.5%(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12.5%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33.3%, 동의 37.5%(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33.3%, 동의 22.2%(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5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4.5%(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45.5%), 보통 9.1%, 동의 36.4%(그렇다 36.4%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3.1%(전혀 그렇지 않다 9.8% + 그렇지 않다 43.4%), 보통 20.3%, 동의 26.6%(그렇다 21.7% + 매우 그렇다 4.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56.3%(전혀 그렇지 않다 15.6%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15.6%, 동의 28.1%(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49.7%(전혀 그렇지 않다 11.4% + 그렇지 않다 38.3%), 보통 24.0%, 동의 26.3%(그렇다 22.2% + 매우 그렇다 4.2%)로 나타났음.

<표 77>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8) 4.0	(45) 22.7	(45) 22.7	(77) 38.9	(23) 11.6	(53) 26.8	(45) 22.7	(100) 50.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5) 2.9	(41) 23.8	(37) 21.5	(72) 41.9	(17) 9.9	(46) 26.7	(37) 21.5	(89) 51.7	(172) 100.0
	여성	(빈도) %	(3) 11.5	(4) 15.4	(8) 30.8	(5) 19.2	(6) 23.1	(7) 26.9	(8) 30.8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 4.4	(16) 23.5	(11) 16.2	(27) 39.7	(11) 16.2	(19) 27.9	(11) 16.2	(38) 55.9	(68) 100.0
	60대	(빈도) %	(2) 3.1	(11) 16.9	(19) 29.2	(28) 43.1	(5) 7.7	(13) 20.0	(19) 29.2	(33) 50.8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3) 4.9	(15) 24.6	(14) 23.0	(22) 36.1	(7) 11.5	(18) 29.5	(14) 23.0	(29) 47.5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 4.1	(34) 23.3	(29) 19.9	(62) 42.5	(15) 10.3	(40) 27.4	(29) 19.9	(77) 52.7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 5.0	(5) 25.0	(8) 40.0	(5) 25.0	(2) 10.0	(5) 25.0	(13) 6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1) 11.1	(3) 33.3	(3) 33.3	(1) 11.1	(2) 22.2	(3) 33.3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9) 37.5	(8) 33.3	(4) 16.7	(3) 12.5	(9) 37.5	(8) 33.3	(7) 2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9) 37.5	(8) 33.3	(4) 16.7	(3) 12.5	(9) 37.5	(8) 33.3	(7) 2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1) 25.0	(2) 50.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1) 11.1	(3) 33.3	(2) 22.2	(2) 22.2	(2) 22.2	(3) 33.3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1) 9.1	(5) 45.5	(1) 9.1	(4) 36.4	(1) 9.1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7) 4.9	(31) 21.7	(29) 20.3	(62) 43.4	(14) 9.8	(38) 26.6	(29) 20.3	(76) 53.1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8) 25.0	(5) 15.6	(13) 40.6	(5) 15.6	(9) 28.1	(5) 15.6	(18) 56.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7) 4.2	(37) 22.2	(40) 24.0	(64) 38.3	(19) 11.4	(44) 26.3	(40) 24.0	(83) 49.7	(167) 100.0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37.8%(전혀 그렇지 않다 9.9% + 그렇지 않다 27.9%), 보통 23.8%, 동의 38.4%(그렇다 31.4% + 매우 그렇다 7.0%), 여성은 비동의 23.1%(전혀 그렇지 않다 7.7% + 그렇지 않다 15.4%), 보통 15.4%, 동의 61.5%(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47.1%(전혀 그렇지 않다 16.2% + 그렇지 않다 30.9%), 보통 22.1%, 동의 30.9%(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5.9%), 60대는 비동의 40.0%(전혀 그렇지 않다 9.2% + 그렇지 않다 30.8%), 보통 23.1%, 동의 36.9%(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7.7%), 70대 이상은 비동의 19.7%(전혀 그렇지 않다 3.3% + 그렇지 않다 16.4%), 보통 23.0%, 동의 57.4%(그렇다 47.5% + 매우 그렇다 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29.5%(전혀 그렇지 않다 5.5% + 그렇지 않다 24.0%), 보통 24.7%, 동의 45.9%(그렇다 37.0% + 매우 그렇다 8.9%),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65.0%(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55.0%), 보통 20.0%, 동의 15.0%(그렇다 1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44.4%,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45.8%(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8.3%, 동의 45.8%(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45.8%(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16.7%), 보통 8.3%, 동의 45.8%(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8.3%), 생계급여는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50.0%, 동의 25.0%(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33.3%, 동의 22.2%(그렇다 22.2%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5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6.4%(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6.4%), 보통 45.5%,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2.9%(전혀 그렇지 않다 7.0% + 그렇지 않다 25.9%), 보통 22.4%, 동의 44.8%(그렇다 35.7% + 매우 그렇다 9.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3.1% + 그렇지 않다 21.9%), 보통 28.1%, 동의 46.9%(그렇다 34.4% + 매우 그렇다 12.5%), 장애 없음은 비동의 37.7%(전혀 그렇지 않다 10.8% + 그렇지 않다 26.9%), 보통 22.2%, 동의 40.1%(그렇다 33.5% + 매우 그렇다 6.6%)로 나타났음.

<표 7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15) 7.6	(67) 33.8	(45) 22.7	(52) 26.3	(19) 9.6	(82) 41.4	(45) 22.7	(71) 35.9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2) 7.0	(54) 31.4	(41) 23.8	(48) 27.9	(17) 9.9	(66) 38.4	(41) 23.8	(65) 37.8	(172) 100.0
	여성	(빈도) %	(3) 11.5	(13) 50.0	(4) 15.4	(4) 15.4	(2) 7.7	(16) 61.5	(4) 15.4	(6) 23.1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 5.9	(17) 25.0	(15) 22.1	(21) 30.9	(11) 16.2	(21) 30.9	(15) 22.1	(32) 47.1	(68) 100.0
	60대	(빈도) %	(5) 7.7	(19) 29.2	(15) 23.1	(20) 30.8	(6) 9.2	(24) 36.9	(15) 23.1	(26) 4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8	(29) 47.5	(14) 23.0	(10) 16.4	(2) 3.3	(35) 57.4	(14) 23.0	(12) 19.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 8.9	(54) 37.0	(36) 24.7	(35) 24.0	(8) 5.5	(67) 45.9	(36) 24.7	(43) 29.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4) 20.0	(11) 55.0	(2) 10.0	(3) 15.0	(4) 20.0	(13) 6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4) 44.4	(2) 22.2	(2) 22.2	(1) 11.1	(4) 44.4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9) 37.5	(2) 8.3	(4) 16.7	(7) 29.2	(11) 45.8	(2) 8.3	(11) 45.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9) 37.5	(2) 8.3	(4) 16.7	(7) 29.2	(11) 45.8	(2) 8.3	(11) 45.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1) 25.0	(2) 50.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3) 33.3	(2) 22.2	(2) 22.2	(2) 22.2	(3) 33.3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5) 45.5	(4) 36.4		(2) 18.2	(5) 45.5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3) 9.1	(51) 35.7	(32) 22.4	(37) 25.9	(10) 7.0	(64) 44.8	(32) 22.4	(47) 32.9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11) 34.4	(9) 28.1	(7) 21.9	(1) 3.1	(15) 46.9	(9) 28.1	(8) 2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1) 6.6	(56) 33.5	(37) 22.2	(45) 26.9	(18) 10.8	(67) 40.1	(37) 22.2	(63) 37.7	(167) 100.0

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4.4%(전혀 그렇지 않다 18.6% + 그렇지 않다 55.8%), 보통 9.3%, 동의 16.3%(그렇다 11.6% + 매우 그렇다 4.7%), 여성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6.9% + 그렇지 않다 23.1%), 보통 15.4%, 동의 34.6%(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80.9%(전혀 그렇지 않다 29.4% + 그렇지 않다 51.5%), 보통 8.8%, 동의 10.3%(그렇다 7.4% + 매우 그렇다 2.9%), 60대는 비동의 80.0%(전혀 그렇지 않다 20.0% + 그렇지 않다 60.0%), 보통 9.2%, 동의 10.8%(그렇다 6.2% + 매우 그렇다 4.6%), 70대 이상은 비동의 50.8%(전혀 그렇지 않다 9.8% + 그렇지 않다 41.0%), 보통 11.5%, 동의 37.7%(그렇다 29.5% + 매우 그렇다 8.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66.4%(전혀 그렇지 않다 15.8% + 그렇지 않다 50.7%), 보통 10.3%, 동의 23.3%(그렇다 16.4% + 매우 그렇다 6.8%),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9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65.0%), 보통 5.0%, 동의 5.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87.5%(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4.2%,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87.5%(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4.2%, 동의 8.3%(그렇다 8.3%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22.2%,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5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63.6%), 보통 9.1%, 동의 9.1%(그렇다 9.1%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10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7.8%(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52.4%), 보통 9.8%, 동의 22.4%(그렇다 15.4% + 매우 그렇다 7.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28.1% + 그렇지 않다 46.9%), 보통 3.1%, 동의 21.9%(그렇다 15.6% + 매우 그렇다 6.3%), 장애 없음은 비동의 70.7%(전혀 그렇지 않다 18.0% + 그렇지 않다 52.7%), 보통 11.4%, 동의 18.0%(그렇다 13.2% + 매우 그렇다 4.8%)로 나타났음.

<표 79>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10) 5.1	(27) 13.6	(20) 10.1	(102) 51.5	(39) 19.7	(37) 18.7	(20) 10.1	(141) 71.2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8) 4.7	(20) 11.6	(16) 9.3	(96) 55.8	(32) 18.6	(28) 16.3	(16) 9.3	(128) 74.4	(172) 100.0
	여성	(빈도) %	(2) 7.7	(7) 26.9	(4) 15.4	(6) 23.1	(7) 26.9	(9) 34.6	(4) 15.4	(13) 5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5) 7.4	(6) 8.8	(35) 51.5	(20) 29.4	(7) 10.3	(6) 8.8	(55) 80.9	(68) 100.0
	60대	(빈도) %	(3) 4.6	(4) 6.2	(6) 9.2	(39) 60.0	(13) 20.0	(7) 10.8	(6) 9.2	(52) 80.0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5) 8.2	(18) 29.5	(7) 11.5	(25) 41.0	(6) 9.8	(23) 37.7	(7) 11.5	(31) 50.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0) 6.8	(24) 16.4	(15) 10.3	(74) 50.7	(23) 15.8	(34) 23.3	(15) 10.3	(97) 66.4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 5.0	(13) 65.0	(5) 25.0	(1) 5.0	(1) 5.0	(18) 9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4) 44.4	(2) 22.2		(3) 33.3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1) 4.2	(12) 50.0	(9) 37.5	(2) 8.3	(1) 4.2	(21) 8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1) 4.2	(12) 50.0	(9) 37.5	(2) 8.3	(1) 4.2	(21) 8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2) 22.2	(3) 33.3	(3) 33.3	(1) 11.1	(2) 22.2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 9.1	(7) 63.6	(2) 18.2	(1) 9.1	(1) 9.1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0) 7.0	(22) 15.4	(14) 9.8	(75) 52.4	(22) 15.4	(32) 22.4	(14) 9.8	(97) 67.8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5) 15.6	(1) 3.1	(15) 46.9	(9) 28.1	(7) 21.9	(1) 3.1	(24) 7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8) 4.8	(22) 13.2	(19) 11.4	(88) 52.7	(30) 18.0	(30) 18.0	(19) 11.4	(118) 70.7	(167) 100.0

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6.7%(전혀 그렇지 않다 20.9% + 그렇지 않다 55.8%), 보통 9.9%, 동의 13.4%(그렇다 9.9% + 매우 그렇다 3.5%), 여성은 비동의 38.5%(전혀 그렇지 않다 19.2% + 그렇지 않다 19.2%), 보통 19.2%, 동의 42.3%(그렇다 30.8% + 매우 그렇다 11.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80.9%(전혀 그렇지 않다 30.9%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10.3%, 동의 8.8%(그렇다 5.9% + 매우 그렇다 2.9%), 60대는 비동의 76.9%(전혀 그렇지 않다 20.0% + 그렇지 않다 56.9%), 보통 10.8%, 동의 12.3%(그렇다 10.8% + 매우 그렇다 1.5%), 70대 이상은 비동의 55.7%(전혀 그렇지 않다 8.2% + 그렇지 않다 47.5%), 보통 11.5%, 동의 32.8%(그렇다 23.0% + 매우 그렇다 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69.2%(전혀 그렇지 않다 16.4% + 그렇지 않다 52.7%), 보통 10.3%, 동의 20.5%(그렇다 14.4% + 매우 그렇다 6.2%),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95.0%(전혀 그렇지 않다 30.0% + 그렇지 않다 65.0%), 보통 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44.4%,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8.3%, 동의 16.7%(그렇다 16.7%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8.3%, 동의 16.7%(그렇다 16.7%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5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27.3% + 그렇지 않다 54.5%), 보통 9.1%, 동의 9.1%(그렇다 9.1%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10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0.6%(전혀 그렇지 않다 16.1% + 그렇지 않다 54.5%), 보통 9.8%, 동의 19.6%(그렇다 13.3% + 매우 그렇다 6.3%),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8.1%(전혀 그렇지 않다 31.3% + 그렇지 않다 46.9%), 보통 12.5%, 동의 9.4%(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6.3%), 장애 없음은 비동의 70.7%(전혀 그렇지 않다 18.6% + 그렇지 않다 52.1%), 보통 10.8%, 동의 18.6%(그렇다 14.4% + 매우 그렇다 4.2%)로 나타났다.

<표 80>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9) 4.5	(25) 12.6	(22) 11.1	(101) 51.0	(41) 20.7	(34) 17.2	(22) 11.1	(142) 71.7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6) 3.5	(17) 9.9	(17) 9.9	(96) 55.8	(36) 20.9	(23) 13.4	(17) 9.9	(132) 76.7	(172) 100.0
	여성	(빈도) %	(3) 11.5	(8) 30.8	(5) 19.2	(5) 19.2	(5) 19.2	(11) 42.3	(5) 19.2	(10) 38.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4) 5.9	(7) 10.3	(34) 50.0	(21) 30.9	(6) 8.8	(7) 10.3	(55) 80.9	(68) 100.0
	60대	(빈도) %	(1) 1.5	(7) 10.8	(7) 10.8	(37) 56.9	(13) 20.0	(8) 12.3	(7) 10.8	(50) 7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8	(14) 23.0	(7) 11.5	(29) 47.5	(5) 8.2	(20) 32.8	(7) 11.5	(34) 55.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9) 6.2	(21) 14.4	(15) 10.3	(77) 52.7	(24) 16.4	(30) 20.5	(15) 10.3	(101) 69.2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3) 65.0	(6) 30.0		(1)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4) 44.4	(3) 33.3	(2) 22.2		(4) 44.4	(5) 55.6	(9) 100.0
	비수급	(빈도) %		(4) 16.7	(2) 8.3	(9) 37.5	(9) 37.5	(4) 16.7	(2) 8.3	(18) 7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4) 16.7	(2) 8.3	(9) 37.5	(9) 37.5	(4) 16.7	(2) 8.3	(18) 7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3) 33.3	(3) 33.3	(3) 33.3		(3) 33.3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 9.1	(6) 54.5	(3) 27.3	(1) 9.1	(1) 9.1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9) 6.3	(19) 13.3	(14) 9.8	(78) 54.5	(23) 16.1	(28) 19.6	(14) 9.8	(101) 70.6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1) 3.1	(4) 12.5	(15) 46.9	(10) 31.3	(3) 9.4	(4) 12.5	(25) 78.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7) 4.2	(24) 14.4	(18) 10.8	(87) 52.1	(31) 18.6	(31) 18.6	(18) 10.8	(118) 70.7	(167) 100.0

9) 화재 위험이 있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61.0%(전혀 그렇지 않다 15.7% + 그렇지 않다 45.3%), 보통 19.8%, 동의 19.2%(그렇다 16.3% + 매우 그렇다 2.9%), 여성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19.2% + 그렇지 않다 30.8%), 보통 30.8%, 동의 19.2%(그렇다 19.2% + 매우 그렇다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57.4%(전혀 그렇지 않다 23.5% + 그렇지 않다 33.8%), 보통 25.0%, 동의 17.6%(그렇다 14.7% + 매우 그렇다 2.9%), 60대는 비동의 63.1%(전혀 그렇지 않다 16.9% + 그렇지 않다 46.2%), 보통 15.4%, 동의 21.5%(그렇다 18.5% + 매우 그렇다 3.1%), 70대 이상은 비동의 60.7%(전혀 그렇지 않다 8.2% + 그렇지 않다 52.5%), 보통 21.3%, 동의 18.0%(그렇다 16.4%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63.0%(전혀 그렇지 않다 11.6% + 그렇지 않다 51.4%), 보통 20.5%, 동의 16.4%(그렇다 13.7% + 매우 그렇다 2.7%),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65.0%(전혀 그렇지 않다 30.0% + 그렇지 않다 35.0%), 보통 20.0%, 동의 15.0%(그렇다 1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44.4%,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41.7%(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16.7%, 동의 41.7%(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4.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41.7%(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16.7%, 동의 41.7%(그렇다 37.5% + 매우 그렇다 4.2%), 생계급여는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50.0%, 동의 25.0%(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5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4.5%(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36.4%), 보통 27.3%,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33.3%(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4.3%(전혀 그렇지 않다 12.6% + 그렇지 않다 51.7%), 보통 19.6%, 동의 16.1%(그렇다 13.3% + 매우 그렇다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68.8%(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43.8%), 보통 28.1%, 동의 3.1%(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58.1%(전혀 그렇지 않다 14.4% + 그렇지 않다 43.7%), 보통 19.8%, 동의 22.2%(그렇다 19.2% + 매우 그렇다 3.0%)로 나타났다.

<표 81>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9) 화재 위험이 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5) 2.5	(33) 16.7	(42) 21.2	(86) 43.4	(32) 16.2	(38) 19.2	(42) 21.2	(118) 59.6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5) 2.9	(28) 16.3	(34) 19.8	(78) 45.3	(27) 15.7	(33) 19.2	(34) 19.8	(105) 61.0	(172) 100.0
	여성	(빈도) %		(5) 19.2	(8) 30.8	(8) 30.8	(5) 19.2	(5) 19.2	(8) 30.8	(13) 5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10) 14.7	(17) 25.0	(23) 33.8	(16) 23.5	(12) 17.6	(17) 25.0	(39) 57.4	(68) 100.0
	60대	(빈도) %	(2) 3.1	(12) 18.5	(10) 15.4	(30) 46.2	(11) 16.9	(14) 21.5	(10) 15.4	(41) 63.1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10) 16.4	(13) 21.3	(32) 52.5	(5) 8.2	(11) 18.0	(13) 21.3	(37) 60.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 2.7	(20) 13.7	(30) 20.5	(75) 51.4	(17) 11.6	(24) 16.4	(30) 20.5	(92) 63.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4) 20.0	(7) 35.0	(6) 30.0	(3) 15.0	(4) 20.0	(13) 6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4) 44.4	(2) 22.2	(2) 22.2	(1) 11.1	(4) 44.4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9) 37.5	(4) 16.7	(3) 12.5	(7) 29.2	(10) 41.7	(4) 16.7	(10) 41.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9) 37.5	(4) 16.7	(3) 12.5	(7) 29.2	(10) 41.7	(4) 16.7	(10) 41.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1) 25.0	(2) 50.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3) 33.3	(3) 33.3	(3) 33.3		(3) 33.3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3) 27.3	(4) 36.4	(2) 18.2	(2) 18.2	(3) 27.3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9) 13.3	(28) 19.6	(74) 51.7	(18) 12.6	(23) 16.1	(28) 19.6	(92) 64.3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9) 28.1	(14) 43.8	(8) 25.0	(1) 3.1	(9) 28.1	(22) 68.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 3.0	(32) 19.2	(33) 19.8	(73) 43.7	(24) 14.4	(37) 22.2	(33) 19.8	(97) 58.1	(167) 100.0

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7.9%(전혀 그렇지 않다 18.6% + 그렇지 않다 59.3%), 보통 12.8%, 동의 9.3%(그렇다 7.6% + 매우 그렇다 1.7%), 여성은 비동의 57.7%(전혀 그렇지 않다 23.1% + 그렇지 않다 34.6%), 보통 11.5%, 동의 30.8%(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3.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77.9%(전혀 그렇지 않다 27.9%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8.8%, 동의 13.2%(그렇다 8.8% + 매우 그렇다 4.4%), 60대는 비동의 75.4%(전혀 그렇지 않다 20.0% + 그렇지 않다 55.4%), 보통 13.8%, 동의 10.8%(그렇다 10.8% + 매우 그렇다 0.0%), 70대 이상은 비동의 72.1%(전혀 그렇지 않다 9.8% + 그렇지 않다 62.3%), 보통 16.4%, 동의 11.5%(그렇다 9.8%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78.1%(전혀 그렇지 않다 14.4% + 그렇지 않다 63.7%), 보통 12.3%, 동의 9.6%(그렇다 7.5% + 매우 그렇다 2.1%),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7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45.0%), 보통 15.0%, 동의 15.0%(그렇다 10.0% + 매우 그렇다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77.8%(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22.2%,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8.3%, 동의 29.2%(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8.3%, 동의 29.2%(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75.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0.0%),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81.8%(전혀 그렇지 않다 36.4% + 그렇지 않다 45.5%), 보통 0.0%, 동의 18.2%(그렇다 18.2%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8.3%(전혀 그렇지 않다 14.0% + 그렇지 않다 64.3%), 보통 12.6%, 동의 9.1%(그렇다 6.3% + 매우 그렇다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1.9%(전혀 그렇지 않다 31.3% + 그렇지 않다 40.6%), 보통 21.9%, 동의 6.3%(그렇다 6.3%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76.0%(전혀 그렇지 않다 16.8% + 그렇지 않다 59.3%), 보통 10.8%, 동의 13.2%(그렇다 10.8% + 매우 그렇다 2.4%)로 나타났다.

<표 82>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4) 2.0	(20) 10.1	(25) 12.6	(111) 56.1	(38) 19.2	(24) 12.1	(25) 12.6	(149) 75.3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3) 1.7	(13) 7.6	(22) 12.8	(102) 59.3	(32) 18.6	(16) 9.3	(22) 12.8	(134) 77.9	(172) 100.0
	여성	(빈도) %	(1) 3.8	(7) 26.9	(3) 11.5	(9) 34.6	(6) 23.1	(8) 30.8	(3) 11.5	(15) 57.7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 4.4	(6) 8.8	(6) 8.8	(34) 50.0	(19) 27.9	(9) 13.2	(6) 8.8	(53) 77.9	(68) 100.0
	60대	(빈도) %		(7) 10.8	(9) 13.8	(36) 55.4	(13) 20.0	(7) 10.8	(9) 13.8	(49) 75.4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6) 9.8	(10) 16.4	(38) 62.3	(6) 9.8	(7) 11.5	(10) 16.4	(44) 72.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 2.1	(11) 7.5	(18) 12.3	(93) 63.7	(21) 14.4	(14) 9.6	(18) 12.3	(114) 78.1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2) 10.0	(3) 15.0	(9) 45.0	(5) 25.0	(3) 15.0	(3) 15.0	(14) 7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4) 44.4	(3) 33.3		(2) 22.2	(7) 77.8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2) 8.3	(6) 25.0	(9) 37.5	(7) 29.2	(2) 8.3	(15) 62.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2) 8.3	(6) 25.0	(9) 37.5	(7) 29.2	(2) 8.3	(15) 62.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3) 33.3	(3) 33.3	(2) 22.2	(1) 11.1	(3) 33.3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5) 45.5	(4) 36.4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9) 6.3	(18) 12.6	(92) 64.3	(20) 14.0	(13) 9.1	(18) 12.6	(112) 78.3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7) 21.9	(13) 40.6	(10) 31.3	(2) 6.3	(7) 21.9	(23) 71.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 2.4	(18) 10.8	(18) 10.8	(99) 59.3	(28) 16.8	(22) 13.2	(18) 10.8	(127) 76.0	(167) 100.0

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18.6% + 그렇지 않다 56.4%), 보통 13.4%, 동의 11.6%(그렇다 8.1% + 매우 그렇다 3.5%), 여성은 비동의 69.2%(전혀 그렇지 않다 34.6% + 그렇지 않다 34.6%), 보통 23.1%, 동의 7.7%(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76.5%(전혀 그렇지 않다 30.9% + 그렇지 않다 45.6%), 보통 8.8%, 동의 14.7%(그렇다 10.3% + 매우 그렇다 4.4%), 60대는 비동의 73.8%(전혀 그렇지 않다 16.9% + 그렇지 않다 56.9%), 보통 15.4%, 동의 10.8%(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3.1%), 70대 이상은 비동의 73.8%(전혀 그렇지 않다 14.8% + 그렇지 않다 59.0%), 보통 18.0%, 동의 8.2%(그렇다 6.6%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78.1%(전혀 그렇지 않다 17.1% + 그렇지 않다 61.0%), 보통 15.1%, 동의 6.8%(그렇다 5.5% + 매우 그렇다 1.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80.0%(전혀 그렇지 않다 40.0% + 그렇지 않다 40.0%), 보통 10.0%, 동의 10.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22.2%, 동의 11.1%(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11.1%), 비수급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20.8%), 보통 12.5%, 동의 37.5%(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20.8%), 보통 12.5%, 동의 37.5%(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8.3%),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75.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55.6%(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33.3%, 동의 11.1%(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4.5%(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36.4%), 보통 36.4%, 동의 9.1%(그렇다 9.1%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9.0%(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60.8%), 보통 13.3%, 동의 7.7%(그렇다 5.6% + 매우 그렇다 2.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37.5%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12.5%, 동의 12.5%(그렇다 12.5%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74.3%(전혀 그렇지 않다 17.4% + 그렇지 않다 56.9%), 보통 15.0%, 동의 10.8%(그렇다 7.2% + 매우 그렇다 3.6%)로 나타났다.

<표 8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6) 3.0	(16) 8.1	(29) 14.6	(106) 53.5	(41) 20.7	(22) 11.1	(29) 14.6	(147) 74.2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6) 3.5	(14) 8.1	(23) 13.4	(97) 56.4	(32) 18.6	(20) 11.6	(23) 13.4	(129) 75.0	(172) 100.0
	여성	(빈도) %		(2) 7.7	(6) 23.1	(9) 34.6	(9) 34.6	(2) 7.7	(6) 23.1	(18) 6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 4.4	(7) 10.3	(6) 8.8	(31) 45.6	(21) 30.9	(10) 14.7	(6) 8.8	(52) 76.5	(68) 100.0
	60대	(빈도) %	(2) 3.1	(5) 7.7	(10) 15.4	(37) 56.9	(11) 16.9	(7) 10.8	(10) 15.4	(48) 73.8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4) 6.6	(11) 18.0	(36) 59.0	(9) 14.8	(5) 8.2	(11) 18.0	(45) 73.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1.4	(8) 5.5	(22) 15.1	(89) 61.0	(25) 17.1	(10) 6.8	(22) 15.1	(114) 78.1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1) 5.0	(2) 10.0	(8) 40.0	(8) 40.0	(2) 10.0	(2) 10.0	(16) 8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2) 22.2	(5) 55.6	(1) 11.1	(1) 11.1	(2) 22.2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7) 29.2	(3) 12.5	(5) 20.8	(7) 29.2	(9) 37.5	(3) 12.5	(12) 5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7) 29.2	(3) 12.5	(5) 20.8	(7) 29.2	(9) 37.5	(3) 12.5	(12) 5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3) 33.3	(4) 44.4	(1) 11.1	(1) 11.1	(3) 33.3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4) 36.4	(4) 36.4	(2) 18.2	(1) 9.1	(4) 36.4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1	(8) 5.6	(19) 13.3	(87) 60.8	(26) 18.2	(11) 7.7	(19) 13.3	(113) 79.0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4) 12.5	(12) 37.5	(12) 37.5	(4) 12.5	(4) 12.5	(24) 75.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6) 3.6	(12) 7.2	(25) 15.0	(95) 56.9	(29) 17.4	(18) 10.8	(25) 15.0	(124) 74.3	(167) 100.0

12) 냉난방이 취약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32.6%(전혀 그렇지 않다 11.0% + 그렇지 않다 21.5%), 보통 12.8%, 동의 54.7%(그렇다 37.8% + 매우 그렇다 16.9%), 여성은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30.8% + 그렇지 않다 19.2%), 보통 26.9%, 동의 23.1%(그렇다 19.2% + 매우 그렇다 3.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30.9%(전혀 그렇지 않다 19.1% + 그렇지 않다 11.8%), 보통 19.1%, 동의 50.0%(그렇다 33.8% + 매우 그렇다 16.2%), 60대는 비동의 38.5%(전혀 그렇지 않다 9.2% + 그렇지 않다 29.2%), 보통 4.6%, 동의 56.9%(그렇다 36.9% + 매우 그렇다 20.0%), 70대 이상은 비동의 36.1%(전혀 그렇지 않다 11.5% + 그렇지 않다 24.6%), 보통 18.0%, 동의 45.9%(그렇다 36.1% + 매우 그렇다 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37.7%(전혀 그렇지 않다 11.0% + 그렇지 않다 26.7%), 보통 15.1%, 동의 47.3%(그렇다 33.6% + 매우 그렇다 13.7%),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3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0.0%), 보통 10.0%, 동의 55.0%(그렇다 40.0% + 매우 그렇다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22.2%(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11.1%), 보통 11.1%, 동의 66.7%(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33.3%), 비수급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4.2%), 보통 16.7%, 동의 58.3%(그렇다 41.7% + 매우 그렇다 1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4.2%), 보통 16.7%, 동의 58.3%(그렇다 41.7% + 매우 그렇다 16.7%), 생계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25.0%, 동의 25.0%(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33.3%), 주거급여는 비동의 22.2%(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11.1%), 보통 22.2%, 동의 55.6%(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9.1%(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0.0%), 보통 18.2%, 동의 72.7%(그렇다 72.7%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66.7%(그렇다 66.7%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8.5%(전혀 그렇지 않다 11.2% + 그렇지 않다 27.3%), 보통 14.0%, 동의 47.6%(그렇다 31.5% + 매우 그렇다 16.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43.8%(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8.8%), 보통 12.5%, 동의 43.8%(그렇다 28.1% + 매우 그렇다 15.6%), 장애 없음은 비동의 33.5%(전혀 그렇지 않다 11.4%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15.0%, 동의 51.5%(그렇다 36.5% + 매우 그렇다 15.0%)로 나타났다.

<표 8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2) 냉난방이 취약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30) 15.2	(70) 35.4	(29) 14.6	(42) 21.2	(27) 13.6	(100) 50.5	(29) 14.6	(69) 34.8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29) 16.9	(65) 37.8	(22) 12.8	(37) 21.5	(19) 11.0	(94) 54.7	(22) 12.8	(56) 32.6	(172) 100.0
	여성	(빈도) %	(1) 3.8	(5) 19.2	(7) 26.9	(5) 19.2	(8) 30.8	(6) 23.1	(7) 26.9	(13) 5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1) 16.2	(23) 33.8	(13) 19.1	(8) 11.8	(13) 19.1	(34) 50.0	(13) 19.1	(21) 30.9	(68) 100.0
	60대	(빈도) %	(13) 20.0	(24) 36.9	(3) 4.6	(19) 29.2	(6) 9.2	(37) 56.9	(3) 4.6	(25) 38.5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8	(22) 36.1	(11) 18.0	(15) 24.6	(7) 11.5	(28) 45.9	(11) 18.0	(22) 36.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0) 13.7	(49) 33.6	(22) 15.1	(39) 26.7	(16) 11.0	(69) 47.3	(22) 15.1	(55) 37.7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8) 40.0	(2) 10.0	(2) 10.0	(5) 25.0	(11) 55.0	(2) 10.0	(7) 3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3) 33.3	(1) 11.1	(1) 11.1	(1) 11.1	(6) 66.7	(1) 11.1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4) 16.7	(10) 41.7	(4) 16.7	(1) 4.2	(5) 20.8	(14) 58.3	(4) 16.7	(6) 2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4) 16.7	(10) 41.7	(4) 16.7	(1) 4.2	(5) 20.8	(14) 58.3	(4) 16.7	(6) 2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3) 33.3	(2) 22.2	(1) 11.1	(1) 11.1	(5) 55.6	(2) 22.2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8) 72.7	(2) 18.2		(1) 9.1	(8) 72.7	(2) 18.2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3) 16.1	(45) 31.5	(20) 14.0	(39) 27.3	(16) 11.2	(68) 47.6	(20) 14.0	(55) 38.5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5) 15.6	(9) 28.1	(4) 12.5	(6) 18.8	(8) 25.0	(14) 43.8	(4) 12.5	(14) 43.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5) 15.0	(61) 36.5	(25) 15.0	(37) 22.2	(19) 11.4	(86) 51.5	(25) 15.0	(56) 33.5	(167) 100.0

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76.2%(전혀 그렇지 않다 20.3% + 그렇지 않다 55.8%), 보통 12.8%, 동의 11.0%(그렇다 8.1% + 매우 그렇다 2.9%), 여성은 비동의 73.1%(전혀 그렇지 않다 42.3% + 그렇지 않다 30.8%), 보통 19.2%, 동의 7.7%(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77.9%(전혀 그렇지 않다 30.9% + 그렇지 않다 47.1%), 보통 10.3%, 동의 11.8%(그렇다 8.8% + 매우 그렇다 2.9%), 60대는 비동의 75.4%(전혀 그렇지 않다 20.0% + 그렇지 않다 55.4%), 보통 13.8%, 동의 10.8%(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3.1%), 70대 이상은 비동의 75.4%(전혀 그렇지 않다 18.0% + 그렇지 않다 57.4%), 보통 14.8%, 동의 9.8%(그렇다 8.2%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77.4%(전혀 그렇지 않다 19.2% + 그렇지 않다 58.2%), 보통 13.0%, 동의 9.6%(그렇다 8.2% + 매우 그렇다 1.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80.0%(전혀 그렇지 않다 45.0% + 그렇지 않다 35.0%), 보통 10.0%, 동의 1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1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77.8%(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11.1%,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20.8%, 동의 16.7%(그렇다 12.5% + 매우 그렇다 4.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29.2%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20.8%, 동의 16.7%(그렇다 12.5% + 매우 그렇다 4.2%),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77.8%(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44.4%), 보통 11.1%,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5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2.7%(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54.5%), 보통 27.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10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76.9%(전혀 그렇지 않다 20.3% + 그렇지 않다 56.6%), 보통 12.6%, 동의 10.5%(그렇다 7.7% + 매우 그렇다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87.5%(전혀 그렇지 않다 40.6% + 그렇지 않다 46.9%), 보통 12.5%,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73.7%(전혀 그렇지 않다 19.8% + 그렇지 않다 53.9%), 보통 13.8%, 동의 12.6%(그렇다 9.6% + 매우 그렇다 3.0%)로 나타났다.

<표 85>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5) 2.5	(16) 8.1	(27) 13.6	(104) 52.5	(46) 23.2	(21) 10.6	(27) 13.6	(150) 75.8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5) 2.9	(14) 8.1	(22) 12.8	(96) 55.8	(35) 20.3	(19) 11.0	(22) 12.8	(131) 76.2	(172) 100.0
	여성	(빈도) %		(2) 7.7	(5) 19.2	(8) 30.8	(11) 42.3	(2) 7.7	(5) 19.2	(19) 73.1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6) 8.8	(7) 10.3	(32) 47.1	(21) 30.9	(8) 11.8	(7) 10.3	(53) 77.9	(68) 100.0
	60대	(빈도) %	(2) 3.1	(5) 7.7	(9) 13.8	(36) 55.4	(13) 20.0	(7) 10.8	(9) 13.8	(49) 75.4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5) 8.2	(9) 14.8	(35) 57.4	(11) 18.0	(6) 9.8	(9) 14.8	(46) 75.4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1.4	(12) 8.2	(19) 13.0	(85) 58.2	(28) 19.2	(14) 9.6	(19) 13.0	(113) 77.4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2) 10.0	(7) 35.0	(9) 45.0	(2) 10.0	(2) 10.0	(16) 8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1) 11.1	(5) 55.6	(2) 22.2	(1) 11.1	(1) 11.1	(7) 77.8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3) 12.5	(5) 20.8	(8) 33.3	(7) 29.2	(4) 16.7	(5) 20.8	(15) 62.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3) 12.5	(5) 20.8	(8) 33.3	(7) 29.2	(4) 16.7	(5) 20.8	(15) 62.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2) 50.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1) 11.1	(4) 44.4	(3) 33.3	(1) 11.1	(1) 11.1	(7) 77.8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6) 54.5	(2) 18.2		(3) 27.3	(8) 72.7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11) 7.7	(18) 12.6	(81) 56.6	(29) 20.3	(15) 10.5	(18) 12.6	(110) 76.9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15) 46.9	(13) 40.6		(4) 12.5	(28) 8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 3.0	(16) 9.6	(23) 13.8	(90) 53.9	(33) 19.8	(21) 12.6	(23) 13.8	(123) 73.7	(167) 100.0

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36.6%(전혀 그렇지 않다 11.0% + 그렇지 않다 25.6%), 보통 15.1%, 동의 48.3%(그렇다 32.0% + 매우 그렇다 16.3%), 여성은 비동의 26.9%(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11.5%), 보통 19.2%, 동의 53.8%(그렇다 34.6% + 매우 그렇다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35.3%(전혀 그렇지 않다 16.2% + 그렇지 않다 19.1%), 보통 14.7%, 동의 50.0%(그렇다 32.4% + 매우 그렇다 17.6%), 60대는 비동의 36.9%(전혀 그렇지 않다 10.8% + 그렇지 않다 26.2%), 보통 12.3%, 동의 50.8%(그렇다 29.2% + 매우 그렇다 21.5%), 70대 이상은 비동의 32.8%(전혀 그렇지 않다 6.6% + 그렇지 않다 26.2%), 보통 21.3%, 동의 45.9%(그렇다 34.4% + 매우 그렇다 1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37.0%(전혀 그렇지 않다 10.3% + 그렇지 않다 26.7%), 보통 14.4%, 동의 48.6%(그렇다 32.9% + 매우 그렇다 15.8%),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15.0%), 보통 25.0%, 동의 50.0%(그렇다 35.0% + 매우 그렇다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33.3%(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37.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8.3%, 동의 54.2%(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37.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8.3%, 동의 54.2%(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29.2%), 생계급여는 비동의 25.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25.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33.3%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22.2%, 동의 44.4%(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50.0%, 동의 50.0%(그렇다 5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9.1%(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9.1%), 보통 36.4%, 동의 54.5%(그렇다 54.5%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66.7%(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7.8%(전혀 그렇지 않다 9.8% + 그렇지 않다 28.0%), 보통 14.0%, 동의 48.3%(그렇다 31.5% + 매우 그렇다 16.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46.9%(전혀 그렇지 않다 21.9%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15.6%, 동의 37.5%(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12.5%), 장애 없음은 비동의 33.5%(전혀 그렇지 않다 9.6% + 그렇지 않다 24.0%), 보통 15.6%, 동의 50.9%(그렇다 33.5% + 매우 그렇다 17.4%)로 나타났다.

<표 86>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33) 16.7	(64) 32.3	(31) 15.7	(47) 23.7	(23) 11.6	(97) 49.0	(31) 15.7	(70) 35.4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28) 16.3	(55) 32.0	(26) 15.1	(44) 25.6	(19) 11.0	(83) 48.3	(26) 15.1	(63) 36.6	(172) 100.0
	여성	(빈도) %	(5) 19.2	(9) 34.6	(5) 19.2	(3) 11.5	(4) 15.4	(14) 53.8	(5) 19.2	(7) 26.9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2) 17.6	(22) 32.4	(10) 14.7	(13) 19.1	(11) 16.2	(34) 50.0	(10) 14.7	(24) 35.3	(68) 100.0
	60대	(빈도) %	(14) 21.5	(19) 29.2	(8) 12.3	(17) 26.2	(7) 10.8	(33) 50.8	(8) 12.3	(24) 3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7) 11.5	(21) 34.4	(13) 21.3	(16) 26.2	(4) 6.6	(28) 45.9	(13) 21.3	(20) 32.8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3) 15.8	(48) 32.9	(21) 14.4	(39) 26.7	(15) 10.3	(71) 48.6	(21) 14.4	(54) 37.0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7) 35.0	(5) 25.0	(3) 15.0	(2) 10.0	(10) 50.0	(5) 25.0	(5) 2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3) 33.3	(3) 33.3		(3) 33.3	(3) 33.3	(3) 33.3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6) 25.0	(2) 8.3	(3) 12.5	(6) 25.0	(13) 54.2	(2) 8.3	(9) 3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6) 25.0	(2) 8.3	(3) 12.5	(6) 25.0	(13) 54.2	(2) 8.3	(9) 3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2) 50.0	(1) 2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3) 33.3	(2) 22.2	(2) 22.2	(1) 11.1	(4) 44.4	(2) 22.2	(3) 33.3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6) 54.5	(4) 36.4	(1) 9.1		(6) 54.5	(4) 36.4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4) 16.8	(45) 31.5	(20) 14.0	(40) 28.0	(14) 9.8	(69) 48.3	(20) 14.0	(54) 37.8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8) 25.0	(5) 15.6	(8) 25.0	(7) 21.9	(12) 37.5	(5) 15.6	(15) 46.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9) 17.4	(56) 33.5	(26) 15.6	(40) 24.0	(16) 9.6	(85) 50.9	(26) 15.6	(56) 33.5	(167) 100.0

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53.5%(전혀 그렇지 않다 14.0% + 그렇지 않다 39.5%), 보통 16.9%, 동의 29.7%(그렇다 18.6% + 매우 그렇다 11.0%), 여성은 비동의 38.5%(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23.1%), 보통 30.8%, 동의 30.8%(그렇다 26.9% + 매우 그렇다 3.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17.6% + 그렇지 않다 32.4%), 보통 11.8%, 동의 38.2%(그렇다 22.1% + 매우 그렇다 16.2%), 60대는 비동의 56.9%(전혀 그렇지 않다 16.9% + 그렇지 않다 40.0%), 보통 16.9%, 동의 26.2%(그렇다 15.4% + 매우 그렇다 10.8%), 70대 이상은 비동의 49.2%(전혀 그렇지 않다 8.2% + 그렇지 않다 41.0%), 보통 27.9%, 동의 23.0%(그렇다 19.7% + 매우 그렇다 3.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55.5%(전혀 그렇지 않다 13.7% + 그렇지 않다 41.8%), 보통 19.2%, 동의 25.3%(그렇다 17.1% + 매우 그렇다 8.2%),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45.0%(전혀 그렇지 않다 10.0% + 그렇지 않다 35.0%), 보통 20.0%, 동의 35.0%(그렇다 20.0% + 매우 그렇다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55.6%, 동의 11.1%(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11.1%), 비수급은 비동의 37.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4.2%, 동의 58.3%(그렇다 41.7% + 매우 그렇다 1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37.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12.5%), 보통 4.2%, 동의 58.3%(그렇다 41.7% + 매우 그렇다 16.7%), 생계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5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33.3%,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22.2%(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11.1%),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5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6.4%(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18.2%), 보통 18.2%, 동의 45.5%(그렇다 45.5%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4.5%(전혀 그렇지 않다 12.6% + 그렇지 않다 42.0%), 보통 19.6%, 동의 25.9%(그렇다 16.1% + 매우 그렇다 9.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68.8%(전혀 그렇지 않다 31.3%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21.9%, 동의 9.4%(그렇다 9.4% + 매우 그렇다 0.0%), 장애 없음은 비동의 47.9%(전혀 그렇지 않다 10.8% + 그렇지 않다 37.1%), 보통 18.6%, 동의 33.5%(그렇다 21.6% + 매우 그렇다 12.0%)로 나타났다.

<표 87>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20) 10.1	(39) 19.7	(37) 18.7	(74) 37.4	(28) 14.1	(59) 29.8	(37) 18.7	(102) 51.5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9) 11.0	(32) 18.6	(29) 16.9	(68) 39.5	(24) 14.0	(51) 29.7	(29) 16.9	(92) 53.5	(172) 100.0
	여성	(빈도) %	(1) 3.8	(7) 26.9	(8) 30.8	(6) 23.1	(4) 15.4	(8) 30.8	(8) 30.8	(10) 38.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1) 16.2	(15) 22.1	(8) 11.8	(22) 32.4	(12) 17.6	(26) 38.2	(8) 11.8	(34) 50.0	(68) 100.0
	60대	(빈도) %	(7) 10.8	(10) 15.4	(11) 16.9	(26) 40.0	(11) 16.9	(17) 26.2	(11) 16.9	(37) 56.9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2) 3.3	(12) 19.7	(17) 27.9	(25) 41.0	(5) 8.2	(14) 23.0	(17) 27.9	(30) 49.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2) 8.2	(25) 17.1	(28) 19.2	(61) 41.8	(20) 13.7	(37) 25.3	(28) 19.2	(81) 55.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15.0	(4) 20.0	(4) 20.0	(7) 35.0	(2) 10.0	(7) 35.0	(4) 20.0	(9) 4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5) 55.6	(3) 33.3		(1) 11.1	(5) 55.6	(3) 33.3	(9) 100.0
	비수급	(빈도) %	(4) 16.7	(10) 41.7	(1) 4.2	(3) 12.5	(6) 25.0	(14) 58.3	(1) 4.2	(9) 3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4) 16.7	(10) 41.7	(1) 4.2	(3) 12.5	(6) 25.0	(14) 58.3	(1) 4.2	(9) 3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1) 11.1	(3) 33.3	(3) 33.3	(1) 11.1	(2) 22.2	(3) 33.3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2) 18.2	(2) 18.2	(2) 18.2	(5) 45.5	(2) 18.2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 9.8	(23) 16.1	(28) 19.6	(60) 42.0	(18) 12.6	(37) 25.9	(28) 19.6	(78) 54.5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 9.4	(7) 21.9	(12) 37.5	(10) 31.3	(3) 9.4	(7) 21.9	(22) 68.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0) 12.0	(36) 21.6	(31) 18.6	(62) 37.1	(18) 10.8	(56) 33.5	(31) 18.6	(80) 47.9	(167) 100.0

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69.2%(전혀 그렇지 않다 13.4% + 그렇지 않다 55.8%), 보통 16.3%, 동의 14.5%(그렇다 12.2% + 매우 그렇다 2.3%), 여성은 비동의 61.5%(전혀 그렇지 않다 38.5% + 그렇지 않다 23.1%), 보통 23.1%, 동의 15.4%(그렇다 15.4% + 매우 그렇다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72.1%(전혀 그렇지 않다 22.1%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17.6%, 동의 10.3%(그렇다 10.3% + 매우 그렇다 0.0%), 60대는 비동의 66.2%(전혀 그렇지 않다 13.8% + 그렇지 않다 52.3%), 보통 15.4%, 동의 18.5%(그렇다 13.8% + 매우 그렇다 4.6%), 70대 이상은 비동의 67.2%(전혀 그렇지 않다 14.8% + 그렇지 않다 52.5%), 보통 16.4%, 동의 16.4%(그렇다 14.8%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68.5%(전혀 그렇지 않다 13.7% + 그렇지 않다 54.8%), 보통 16.4%, 동의 15.1%(그렇다 13.7% + 매우 그렇다 1.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70.0%(전혀 그렇지 않다 30.0% + 그렇지 않다 40.0%), 보통 25.0%, 동의 5.0%(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77.8%(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22.2%,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12.5%, 동의 25.0%(그렇다 16.7% + 매우 그렇다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62.5%(전혀 그렇지 않다 25.0%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12.5%, 동의 25.0%(그렇다 16.7% + 매우 그렇다 8.3%), 생계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75.0% + 그렇지 않다 25.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66.7%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11.1% + 그렇지 않다 55.6%), 보통 22.2%,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5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50.0%), 보통 5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45.5%(전혀 그렇지 않다 18.2% + 그렇지 않다 27.3%), 보통 27.3%, 동의 27.3%(그렇다 27.3%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10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100.0%), 보통 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9.2%(전혀 그렇지 않다 13.3% + 그렇지 않다 55.9%), 보통 17.5%, 동의 13.3%(그렇다 11.9% + 매우 그렇다 1.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71.9%(전혀 그렇지 않다 28.1% + 그렇지 않다 43.8%), 보통 15.6%, 동의 12.5%(그렇다 9.4%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67.7%(전혀 그렇지 않다 14.4% + 그렇지 않다 53.3%), 보통 17.4%, 동의 15.0%(그렇다 13.2% + 매우 그렇다 1.8%)로 나타났다.

<표 88>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처 상태_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4) 2.0	(25) 12.6	(34) 17.2	(102) 51.5	(33) 16.7	(29) 14.6	(34) 17.2	(135) 68.2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4) 2.3	(21) 12.2	(28) 16.3	(96) 55.8	(23) 13.4	(25) 14.5	(28) 16.3	(119) 69.2	(172) 100.0
	여성	(빈도) %		(4) 15.4	(6) 23.1	(6) 23.1	(10) 38.5	(4) 15.4	(6) 23.1	(16) 61.5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7) 10.3	(12) 17.6	(34) 50.0	(15) 22.1	(7) 10.3	(12) 17.6	(49) 72.1	(68) 100.0
	60대	(빈도) %	(3) 4.6	(9) 13.8	(10) 15.4	(34) 52.3	(9) 13.8	(12) 18.5	(10) 15.4	(43) 66.2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9) 14.8	(10) 16.4	(32) 52.5	(9) 14.8	(10) 16.4	(10) 16.4	(41) 67.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1.4	(20) 13.7	(24) 16.4	(80) 54.8	(20) 13.7	(22) 15.1	(24) 16.4	(100) 68.5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5.0	(5) 25.0	(8) 40.0	(6) 30.0	(1) 5.0	(5) 25.0	(14) 7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6) 66.7	(1) 11.1		(2) 22.2	(7) 77.8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4) 16.7	(3) 12.5	(9) 37.5	(6) 25.0	(6) 25.0	(3) 12.5	(15) 62.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4) 16.7	(3) 12.5	(9) 37.5	(6) 25.0	(6) 25.0	(3) 12.5	(15) 62.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2) 22.2	(5) 55.6	(1) 11.1	(1) 11.1	(2) 22.2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3) 27.3	(3) 27.3	(2) 18.2	(3) 27.3	(3) 27.3	(5) 45.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4	(17) 11.9	(25) 17.5	(80) 55.9	(19) 13.3	(19) 13.3	(25) 17.5	(99) 69.2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3) 9.4	(5) 15.6	(14) 43.8	(9) 28.1	(4) 12.5	(5) 15.6	(23) 71.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3) 1.8	(22) 13.2	(29) 17.4	(89) 53.3	(24) 14.4	(25) 15.0	(29) 17.4	(113) 67.7	(167) 100.0

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는

- 성별로는 남성은 비동의 54.7%(전혀 그렇지 않다 14.5% + 그렇지 않다 40.1%), 보통 21.5%, 동의 23.8%(그렇다 16.3% + 매우 그렇다 7.6%), 여성은 비동의 42.3%(전혀 그렇지 않다 26.9% + 그렇지 않다 15.4%), 보통 38.5%, 동의 19.2%(그렇다 15.4% + 매우 그렇다 3.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비동의 45.6%(전혀 그렇지 않다 17.6% + 그렇지 않다 27.9%), 보통 22.1%, 동의 32.4%(그렇다 22.1% + 매우 그렇다 10.3%), 60대는 비동의 63.1%(전혀 그렇지 않다 15.4% + 그렇지 않다 47.7%), 보통 15.4%, 동의 21.5%(그렇다 12.3% + 매우 그렇다 9.2%), 70대 이상은 비동의 54.1%(전혀 그렇지 않다 16.4% + 그렇지 않다 37.7%), 보통 31.1%, 동의 14.8%(그렇다 13.1% + 매우 그렇다 1.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비동의 58.2%(전혀 그렇지 않다 15.1% + 그렇지 않다 43.2%), 보통 23.3%, 동의 18.5%(그렇다 15.1% + 매우 그렇다 3.4%), 조건부 수급은 비동의 45.0%(전혀 그렇지 않다 15.0% + 그렇지 않다 30.0%), 보통 25.0%, 동의 30.0%(그렇다 20.0% + 매우 그렇다 1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55.6%,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비수급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8.3%), 보통 16.7%, 동의 54.2%(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비동의 29.2%(전혀 그렇지 않다 20.8% + 그렇지 않다 8.3%), 보통 16.7%, 동의 54.2%(그렇다 25.0% + 매우 그렇다 29.2%), 생계급여는 비동의 75.0%(전혀 그렇지 않다 75.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25.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는 비동의 66.7%(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66.7%), 보통 0.0%, 동의 33.3%(그렇다 33.3% + 매우 그렇다 0.0%), 주거급여는 비동의 44.4%(전혀 그렇지 않다 22.2% + 그렇지 않다 22.2%), 보통 44.4%, 동의 11.1%(그렇다 11.1%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비동의 0.0%(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0.0%), 보통 100.0%, 동의 0.0%(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63.6%(전혀 그렇지 않다 9.1% + 그렇지 않다 54.5%), 보통 9.1%, 동의 27.3%(그렇다 27.3% + 매우 그렇다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33.3%(전혀 그렇지 않다 0.0% + 그렇지 않다 33.3%), 보통 33.3%, 동의 33.3%(그렇다 0.0% + 매우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비동의 56.6%(전혀 그렇지 않다 14.7% + 그렇지 않다 42.0%), 보통 24.5%, 동의 18.9%(그렇다 14.7% + 매우 그렇다 4.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비동의 68.8%(전혀 그렇지 않다 31.3% + 그렇지 않다 37.5%), 보통 25.0%, 동의 6.3%(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3.1%), 장애 없음은 비동의 49.7%(전혀 그렇지 않다 13.2% + 그렇지 않다 36.5%), 보통 24.0%, 동의 26.3%(그렇다 18.6% + 매우 그렇다 7.8%)로 나타났다.

<표 89>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거주 상태_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동의>	<보통>	<비동의>	계
전 체		(빈도) %	(14) 7.1	(32) 16.2	(47) 23.7	(73) 36.9	(32) 16.2	(46) 23.2	(47) 23.7	(105) 53.0	(198) 100.0
성별	남성	(빈도) %	(13) 7.6	(28) 16.3	(37) 21.5	(69) 40.1	(25) 14.5	(41) 23.8	(37) 21.5	(94) 54.7	(172) 100.0
	여성	(빈도) %	(1) 3.8	(4) 15.4	(10) 38.5	(4) 15.4	(7) 26.9	(5) 19.2	(10) 38.5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7) 10.3	(15) 22.1	(15) 22.1	(19) 27.9	(12) 17.6	(22) 32.4	(15) 22.1	(31) 45.6	(68) 100.0
	60대	(빈도) %	(6) 9.2	(8) 12.3	(10) 15.4	(31) 47.7	(10) 15.4	(14) 21.5	(10) 15.4	(41) 63.1	(65) 100.0
	70대 이상	(빈도) %	(1) 1.6	(8) 13.1	(19) 31.1	(23) 37.7	(10) 16.4	(9) 14.8	(19) 31.1	(33) 54.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4	(22) 15.1	(34) 23.3	(63) 43.2	(22) 15.1	(27) 18.5	(34) 23.3	(85) 58.2	(14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4) 20.0	(5) 25.0	(6) 30.0	(3) 15.0	(6) 30.0	(5) 25.0	(9) 4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55.6	(2) 22.2	(2) 22.2		(5) 55.6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6) 25.0	(4) 16.7	(2) 8.3	(5) 20.8	(13) 54.2	(4) 16.7	(7) 2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6) 25.0	(4) 16.7	(2) 8.3	(5) 20.8	(13) 54.2	(4) 16.7	(7) 2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4) 44.4	(2) 22.2	(2) 22.2	(1) 11.1	(4) 44.4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1) 9.1	(6) 54.5	(1) 9.1	(3) 27.3	(1) 9.1	(7) 63.6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 4.2	(21) 14.7	(35) 24.5	(60) 42.0	(21) 14.7	(27) 18.9	(35) 24.5	(81) 56.6	(143)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1	(1) 3.1	(8) 25.0	(12) 37.5	(10) 31.3	(2) 6.3	(8) 25.0	(22) 68.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3) 7.8	(31) 18.6	(40) 24.0	(61) 36.5	(22) 13.2	(44) 26.3	(40) 24.0	(83) 49.7	(167) 100.0

16.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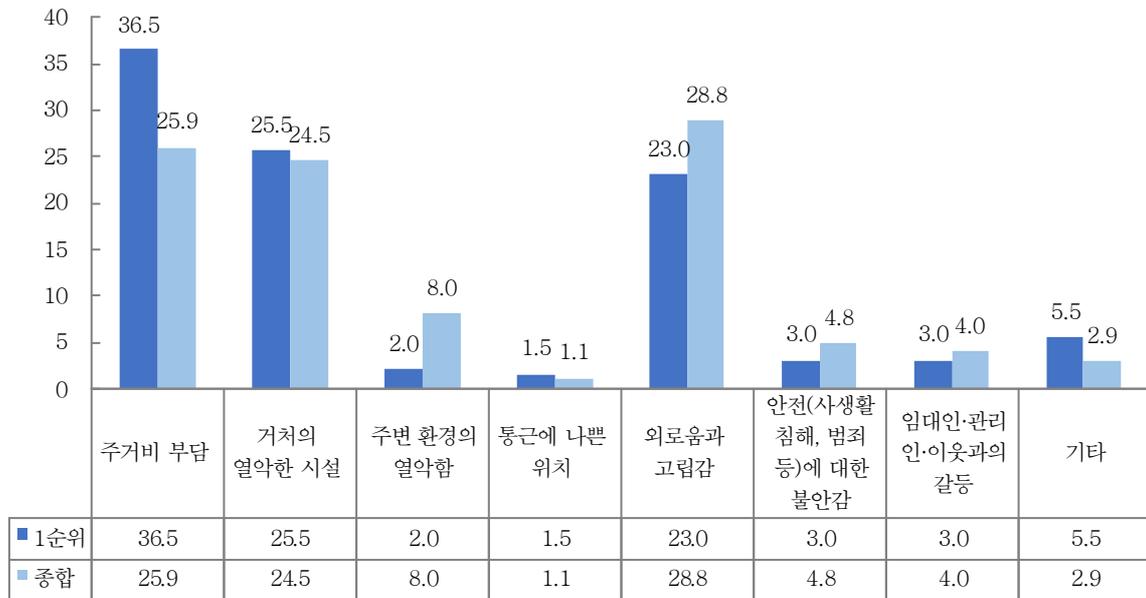
질 문	현재의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1순위 응답은 주거비 부담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 25.5%, 외로움과 고립감 23.0%, 기타 5.5%,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각 3.0%, 주변 환경의 열악함 2.0%, 통근에 나쁜 위치 1.5% 순으로 나타났음.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2순위 응답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처의 열악한 시설 23.4%, 주변 환경의 열악함 14.9%, 주거비 부담 13.7%,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6.9%,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5.1%, 통근에 나쁜 위치 0.6%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75건)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 25.9%, 거처의 열악한 시설 24.5%, 주변 환경의 열악함 8.0%,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4.8%,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4.0%, 기타 2.9%, 통근에 나쁜 위치 1.1%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11건)의 기타 내용은 없음 10건, 건강상태 악화 1건으로 나타났음.

<표 90>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주거비 부담	73	36.5	24	13.7	97	25.9
거처의 열악한 시설	51	25.5	41	23.4	92	24.5
주변 환경의 열악함	4	2.0	26	14.9	30	8.0
통근에 나쁜 위치	3	1.5	1	0.6	4	1.1
외로움과 고립감	46	23.0	62	35.4	108	28.8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6	3.0	12	6.9	18	4.8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6	3.0	9	5.1	15	4.0
기타	11	5.5	0	0.0	11	2.9
합계	200	100.0	175	100.0	375	100.0

<그림 71>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1순위 응답은 주거비 부담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주거비 부담 38.2%, 거처의 열악한 시설 25.4%가 높고, 여성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26.9%, 주거비 부담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주거비 부담 42.6%, 거처의 열악한 시설, 외로움과 고립감 각 22.1%, 60대는 주거비 부담 40.9%, 거처의 열악한 시설, 외로움과 고립감 각 22.7%, 70대 이상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34.4%,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각 24.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주거비 부담 34.0%, 거처의 열악한 시설 26.5%, 조건부 수급은 주거비 부담 45.0%, 외로움과 고립감 1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주거비 부담 55.6%, 거처의 열악한 시설 22.2%, 비수급은 주거비 부담 37.5%, 거처의 열악한 시설 33.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주거비 부담 37.5%, 거처의 열악한 시설 33.3%, 생계급여는 외로움과 고립감 50.0%, 주거비 부담, 기타 각 25.0%, 의료급여는 주거비 부담 66.7%, 주변 환경의 열악함 33.3%,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55.6%, 거처의 열악한 시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거비 부담, 기타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각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34.7%, 거처의 열악한 시설 26.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주거비 부담 50.0%, 외로움과 고립감 21.9%, 장애 없음은 주거비 부담 33.9%, 거처의 열악한 시설 28.6%가 높게 나타났음.

<표 91>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1순위)

항목		주거비 부담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변 환경의 열악함	통근에 나쁜 위치	외로움과 고립감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기타	계	
전 체		(빈도) %	(72) 36.2	(51) 25.6	(4) 2.0	(3) 1.5	(46) 23.1	(6) 3.0	(6) 3.0	(11) 5.5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66) 38.2	(44) 25.4	(3) 1.7	(2) 1.2	(41) 23.7	(5) 2.9	(6) 3.5	(6) 3.5	(173) 100.0
	여성	(빈도) %	(6) 23.1	(7) 26.9	(1) 3.8	(1) 3.8	(5) 19.2	(1) 3.8		(5) 1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9) 42.6	(15) 22.1	(2) 2.9		(15) 22.1	(2) 2.9	(3) 4.4	(2) 2.9	(68) 100.0
	60대	(빈도) %	(27) 40.9	(15) 22.7	(1) 1.5	(1) 1.5	(15) 22.7	(1) 1.5	(2) 3.0	(4) 6.1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5) 24.6	(21) 34.4	(1) 1.6	(2) 3.3	(15) 24.6	(2) 3.3		(5) 8.2	(61)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50) 34.0	(39) 26.5	(2) 1.4	(3) 2.0	(36) 24.5	(4) 2.7	(4) 2.7	(9) 6.1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9) 45.0	(2) 10.0	(2) 10.0		(3) 15.0	(1) 5.0	(2) 10.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55.6	(2) 22.2			(1) 11.1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9) 37.5	(8) 33.3			(6) 25.0	(1) 4.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9) 37.5	(8) 33.3			(6) 25.0	(1) 4.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5) 55.6	(3) 33.3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2) 18.2			(4) 36.4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0) 34.7	(38) 26.4	(3) 2.1	(3) 2.1	(33) 22.9	(4) 2.8	(6) 4.2	(7) 4.9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6) 50.0	(3) 9.4		(1) 3.1	(7) 21.9		(2) 6.3	(3) 9.4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7) 33.9	(48) 28.6	(4) 2.4	(2) 1.2	(39) 23.2	(6) 3.6	(4) 2.4	(8) 4.8	(168) 100.0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다중응답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외로움과 고립감 29.8%, 주거비 부담 27.4%가 높고, 여성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27.3%, 외로움과 고립감 20.5%,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주거비 부담 30.5%, 외로움과 고립감 26.0%, 60대는 외로움과 고립감 32.0%, 주거비 부담 29.5%, 70대 이상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외로움과 고립감 각 28.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외로움과 고립감 29.6%, 주거비 부담 24.8%, 조건부 수급은 주거비 부담 28.2%, 외로움과 고립감 23.1%, 차상위계층 수급은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각 29.4%, 비수급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33.3%,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각 28.9%,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거처의 열악한 시설 33.3%, 주거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감 각 28.9%, 생계급여는 외로움과 고립감 42.9%,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거비 부담,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기타 각 14.3%, 의료급여는 주거비 부담, 주변 환경의 열악함 각 33.3%,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거처의 열악한 시설 각 29.4%,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거비 부담, 거처의 열악한 시설, 기타 각 33.3%,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거처의 열악한 시설, 외로움과 고립감 각 31.6%,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외로움과 고립감 33.3%,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변 환경의 열악함, 주거비 부담,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각 16.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외로움과 고립감 29.0%, 주거비 부담 25.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주거비 부담 29.3%, 외로움과 고립감 27.6%, 장애 없음은 외로움과 고립감 29.0%,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거비 부담 각 25.2%가 높게 나타났음.

<표 92> 응답자 특성별 - 현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다중응답)

항목		주거비 부담	거처의 열악한 시설	주변 환경의 열악함	통근에 나쁜 위치	외로움과 고립감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기타	계	
전 체		(빈도) %	(96) 25.7	(92) 24.7	(30) 8.0	(4) 1.1	(107) 28.7	(18) 4.8	(15) 4.0	(11) 2.9	(373) 100.0
성별	남성	(빈도) %	(90) 27.4	(80) 24.3	(24) 7.3	(3) 0.9	(98) 29.8	(15) 4.6	(13) 4.0	(6) 1.8	(329) 100.0
	여성	(빈도) %	(6) 13.6	(12) 27.3	(6) 13.6	(1) 2.3	(9) 20.5	(3) 6.8	(2) 4.5	(5) 11.4	(44)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0) 30.5	(33) 25.2	(8) 6.1		(34) 26.0	(6) 4.6	(8) 6.1	(2) 1.5	(131) 100.0
	60대	(빈도) %	(36) 29.5	(26) 21.3	(9) 7.4	(2) 1.6	(39) 32.0	(3) 2.5	(3) 2.5	(4) 3.3	(122) 100.0
	70대 이상	(빈도) %	(19) 16.8	(32) 28.3	(13) 11.5	(2) 1.8	(32) 28.3	(7) 6.2	(3) 2.7	(5) 4.4	(113)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68) 24.8	(66) 24.1	(23) 8.4	(4) 1.5	(81) 29.6	(13) 4.7	(10) 3.6	(9) 3.3	(27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1) 28.2	(7) 17.9	(4) 10.3		(9) 23.1	(3) 7.7	(4) 10.3	(1) 2.6	(39)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29.4	(4) 23.5	(2) 11.8		(5) 29.4			(1) 5.9	(17) 100.0
	비수급	(빈도) %	(13) 28.9	(15) 33.3	(1) 2.2		(13) 28.9	(2) 4.4	(1) 2.2		(45)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3) 28.9	(15) 33.3	(1) 2.2		(13) 28.9	(2) 4.4	(1) 2.2		(45)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4.3	(1) 14.3			(3) 42.9		(1) 14.3	(1) 14.3	(7) 100.0
	의료급여	(빈도) %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5) 29.4	(5) 29.4	(2) 11.8		(4) 23.5			(1) 5.9	(17)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6) 31.6	(6) 31.6			(6) 31.6			(1) 5.3	(19)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6.7	(1) 16.7	(1) 16.7		(2) 33.3	(1) 16.7			(6)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8) 25.0	(63) 23.2	(24) 8.8	(4) 1.5	(79) 29.0	(14) 5.1	(13) 4.8	(7) 2.6	(272)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7) 29.3	(12) 20.7	(2) 3.4	(2) 3.4	(16) 27.6	(1) 1.7	(5) 8.6	(3) 5.2	(58) 100.0
	장애 없음	(빈도) %	(80) 25.2	(80) 25.2	(28) 8.8	(2) 0.6	(92) 29.0	(17) 5.4	(10) 3.2	(8) 2.5	(317) 100.0

17.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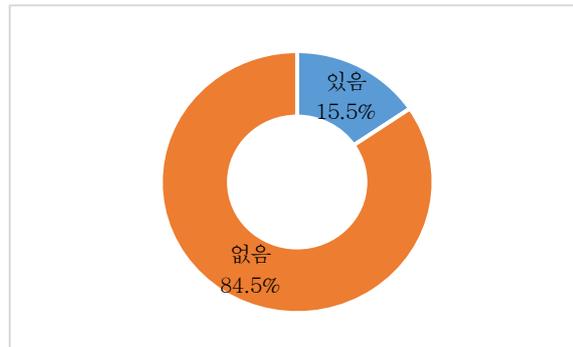
질 문	지난날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주하는 거처에서 침수 및 화재 피해의 경험이 있습니까?
-----	--

○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는 예 15.5%, 아니오 84.5%로 나타났음.

<표 93>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항목	빈도	%
있음	31	15.5
없음	169	84.5
합계	200	100.0

<그림 72>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는 ‘있음’이 15.5%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있음 10.4%, 여성은 있음 5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있음 5.9%, 60대는 있음 10.6%, 70대 이상은 있음 32.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있음 18.4%, 조건부 수급은 있음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있음 22.2%, 비수급은 있음 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있음 8.3%, 생계급여는 있음 75.0%, 의료급여는 있음 0.0%, 주거급여는 있음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있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9.1%,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있음 16.7%,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있음 12.5%, 장애 없음은 있음 16.1%로 나타났음.

<표 94> 응답자 특성별 - 과거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처의 침수 및 화재 피해 경험 유무

항목			있음	없음	계
전 체		(빈도) %	(31) 15.6	(168) 84.4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8) 10.4	(155) 89.6	(173) 100.0
	여성	(빈도) %	(13) 50.0	(13) 5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 5.9	(64) 94.1	(68) 100.0
	60대	(빈도) %	(7) 10.6	(59) 89.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0) 32.8	(41) 67.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7) 18.4	(120) 81.6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7) 77.8	(9) 100.0
	비수급	(빈도) %	(2) 8.3	(22) 91.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8.3	(22) 91.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0) 90.9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4) 16.7	(120) 83.3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4) 12.5	(28) 8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7) 16.1	(141) 83.9	(168) 100.0

17_1.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질 문	침수 및 화재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

○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5> 침수 및 화재 피해 대처 방법

항목	응답 수
양동이 등을 동원하여 직접 물을 퍼냄	9
119 신고 및 출동	3
집 밖으로 대피함	3
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3
집주인한테 알리고, 집주인이 해결함	2
거주지 옮김	2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2
구청에 재해구호 요청	1
구청에서 지원금 수령	1
물을 구해 뿌리고 소화기 사용	1
자연스럽게 빠지고나서 뒷정리를 했다	1

18.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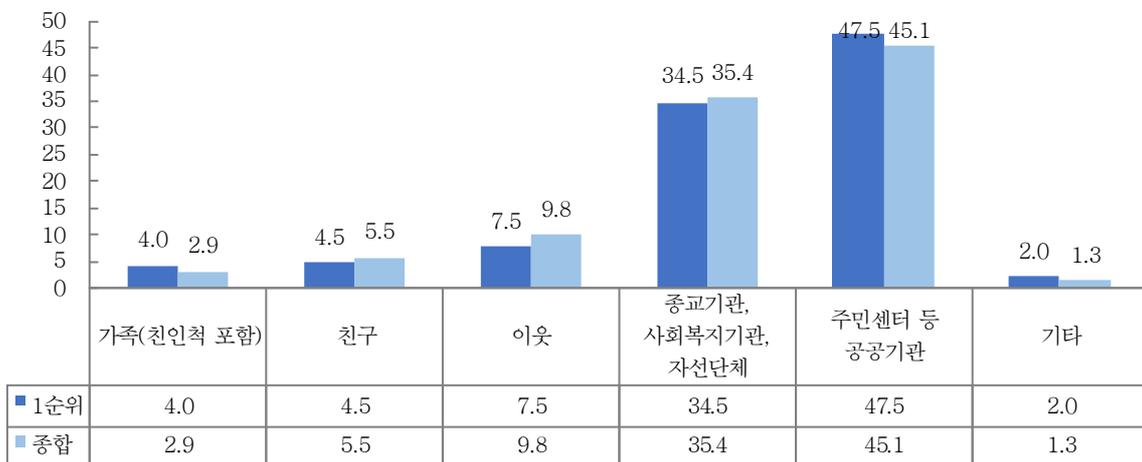
질 문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 곳 또는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1순위 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4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5%, 이웃 7.5%, 친구 4.5%, 가족(친인척 포함) 4.0%,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음.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2순위 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3%, 이웃 12.3%, 친구 6.7%, 가족(친인척 포함) 1.7%, 기타 0.6%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79건)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5.4%, 이웃 9.8%, 친구 5.5%, 가족(친인척 포함) 2.9%,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5건)은 없음 2건, 119, 스스로, 집주인 각 1건으로 나타났음.

<표 96>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가족(친인척 포함)	8	4.0	3	1.7	11	2.9
친구	9	4.5	12	6.7	21	5.5
이웃	15	7.5	22	12.3	37	9.8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69	34.5	65	36.3	134	35.4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95	47.5	76	42.5	171	45.1
기타	4	2.0	1	0.6	5	1.3
합계	200	100.0	179	100.0	379	100.0

<그림 73>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1순위 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3.9%,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4%가 높고, 여성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69.2%,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45.6%,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38.2%, 60대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1.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28.8%, 70대 이상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5.7%,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27.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6.9%,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5.4%, 조건부 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0%,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40.0%, 차상위계층 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66.7%,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가족(친인척 포함) 각 11.1%, 비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8%,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3.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8%,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3.3%,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75.0%,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25.0%, 의료급여는 친구,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각 33.3%,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5.6%, 이웃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4.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8%,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8%,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3.8%,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4%, 장애 없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8.2%,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5%가 높게 나타났음.

<표 97> 응답자 특성별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1순위)

항목		가족(친인척 포함)	친구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기타	계	
전 체		(빈도) %	(8) 4.0	(9) 4.5	(15) 7.5	(69) 34.7	(94) 47.2	(4) 2.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7) 4.0	(8) 4.6	(15) 8.7	(63) 36.4	(76) 43.9	(4) 2.3	(173) 100.0
	여성	(빈도) %	(1) 3.8	(1) 3.8		(6) 23.1	(18) 6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 2.9	(4) 5.9	(4) 5.9	(31) 45.6	(26) 38.2	(1) 1.5	(68) 100.0
	60대	(빈도) %	(2) 3.0	(3) 4.5	(6) 9.1	(19) 28.8	(34) 51.5	(2) 3.0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	(2) 3.3	(4) 6.6	(17) 27.9	(34) 55.7		(61)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6) 4.1	(6) 4.1	(10) 6.8	(52) 35.4	(69) 46.9	(4) 2.7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1) 5.0	(8) 40.0	(9) 4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1) 11.1	(1) 11.1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1) 4.2	(3) 12.5	(8) 33.3	(11) 45.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1) 4.2	(3) 12.5	(8) 33.3	(11) 45.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2) 22.2	(1) 11.1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4) 36.4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3.5	(7) 4.9	(9) 6.3	(53) 36.8	(66) 45.8	(4) 2.8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2) 6.3	(3) 9.4	(11) 34.4	(14) 43.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6) 3.6	(7) 4.2	(12) 7.1	(58) 34.5	(81) 48.2	(4) 2.4	(168) 100.0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 다중응답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4.1%,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5.4%가 높고, 여성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2.3%,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1.2%,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40.5%, 60대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6.1%,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4%, 70대 이상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8.2%,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0.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6.0%,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4.1%, 조건부 수급은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41.0%,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38.5%, 차상위계층 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0.0%,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3.3%, 비수급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3.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9.1%,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3.5%,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9.1%, 생계급여는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각 50.0%, 의료급여는 친구 33.3%, 가족(친인척 포함),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각 16.7%,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4.4%,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66.7%, 이웃 33.3%,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7.9%,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8%,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1%,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5.3%,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0%,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1.7%, 장애 없음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5.1%,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36.1%가 높게 나타났음.

<표 98> 응답자 특성별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받을) 곳(다중응답)

항목		가족(친인척 포함)	친구	이웃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기타	계	
전 체		(빈도) %	(11) 2.9	(21) 5.6	(37) 9.8	(133) 35.3	(170) 45.1	(5) 1.3	(377) 100.0
성별	남성	(빈도) %	(10) 3.0	(19) 5.7	(34) 10.2	(118) 35.4	(147) 44.1	(5) 1.5	(333) 100.0
	여성	(빈도) %	(1) 2.3	(2) 4.5	(3) 6.8	(15) 34.1	(23) 52.3		(44)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 3.1	(9) 6.9	(9) 6.9	(53) 40.5	(54) 41.2	(2) 1.5	(131) 100.0
	60대	(빈도) %	(2) 1.6	(6) 4.7	(15) 11.7	(44) 34.4	(59) 46.1	(2) 1.6	(128) 100.0
	70대 이상	(빈도) %	(5) 4.5	(6) 5.5	(12) 10.9	(34) 30.9	(53) 48.2		(110)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8) 2.9	(14) 5.1	(28) 10.1	(94) 34.1	(127) 46.0	(5) 1.8	(276)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2.6	(3) 7.7	(4) 10.3	(16) 41.0	(15) 38.5		(39)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5.6	(1) 5.6	(1) 5.6	(6) 33.3	(9) 50.0		(18) 100.0
	비수급	(빈도) %	(1) 2.2	(3) 6.5	(4) 8.7	(18) 39.1	(20) 43.5		(46)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2.2	(3) 6.5	(4) 8.7	(18) 39.1	(20) 43.5		(46) 100.0
	생계급여	(빈도) %				(3) 50.0	(3) 50.0		(6) 100.0
	의료급여	(빈도) %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2) 11.1		(2) 11.1	(6) 33.3	(8) 44.4		(18)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5.3			(7) 36.8	(11) 57.9		(19)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33.3	(2) 33.3	(2) 33.3		(6)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 2.2	(16) 5.8	(27) 9.8	(97) 35.3	(124) 45.1	(5) 1.8	(275)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3.3	(5) 8.3	(7) 11.7	(19) 31.7	(27) 45.0		(60) 100.0
	장애 없음	(빈도) %	(9) 2.8	(16) 5.0	(30) 9.4	(115) 36.1	(144) 45.1	(5) 1.6	(319) 100.0

부록
설문조사 통계분석
VI. 거주 지원과 욕구



1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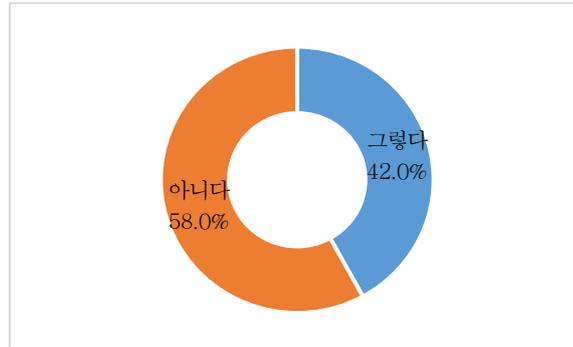
질 문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쪽방(촌) 등 비주택 거처에서 살고 싶습니까?
-----	---------------------------------------

○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은 그렇다 42.0%, 아니다 58.0%로 나타났다.

<표 99>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항목	빈도	%
그렇다	84	42.0
아니다	116	58.0
합계	200	100.0

<그림 74>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은 ‘그렇다’가 42.0%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그렇다 39.3%, 여성은 그렇다 57.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그렇다 32.4%, 60대는 그렇다 42.4%, 70대 이상은 그렇다 52.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그렇다 44.2%, 조건부 수급은 그렇다 45.0%, 차상위계층 수급은 그렇다 33.3%, 비수급은 그렇다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그렇다 29.2%, 생계급여는 그렇다 75.0%, 의료급여는 그렇다 33.3%, 주거급여는 그렇다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그렇다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그렇다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그렇다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그렇다 44.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그렇다 50.0%, 장애 없음은 그렇다 40.5%로 나타났다.

<표 100> 응답자 특성별 -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전 체		(빈도) %	(83) 41.7	(116) 58.3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68) 39.3	(105) 60.7	(173) 100.0
	여성	(빈도) %	(15) 57.7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2) 32.4	(46) 67.6	(68) 100.0
	60대	(빈도) %	(28) 42.4	(38) 57.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32) 52.5	(29) 47.5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5) 44.2	(82) 55.8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9) 45.0	(11) 5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17) 70.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17) 70.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7) 77.8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7) 63.6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4) 44.4	(80) 55.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6) 50.0	(16) 5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68) 40.5	(100) 59.5	(168) 100.0

20.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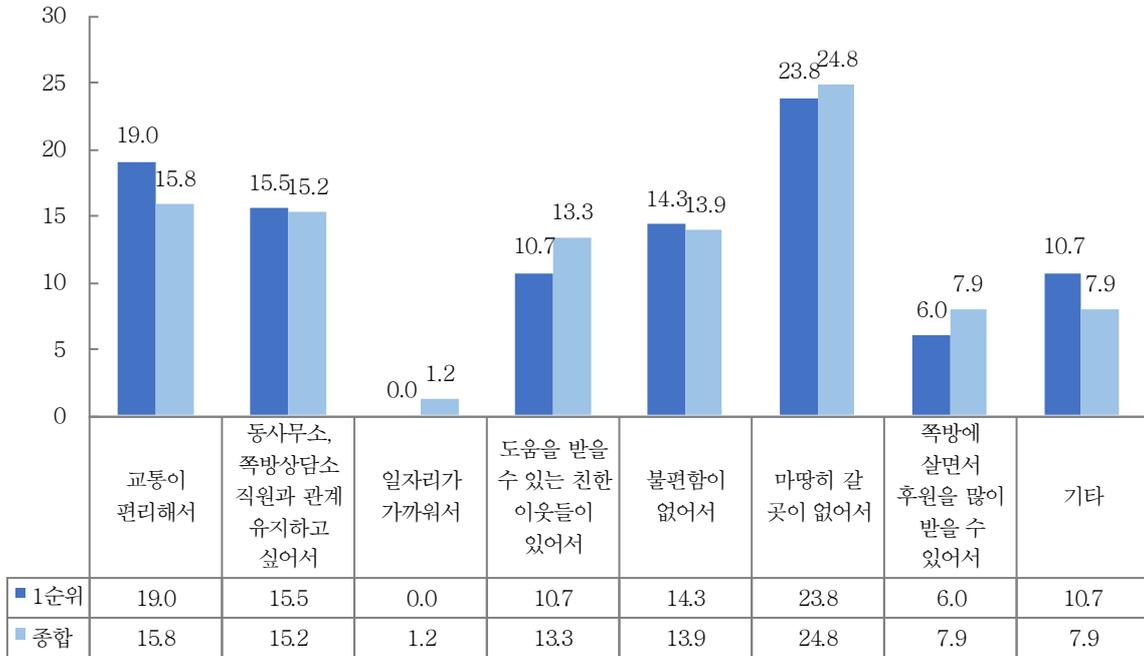
질 문	계속 살고 싶으신 경우,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1순위 결과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19.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5%, 불편함이 없어서 14.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기타 각 10.7%,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6.0%, 일자리가 가까워서 0.0% 순으로 나타났음.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2순위 결과는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16.0%,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4.8%, 불편함이 없어서 13.6%, 교통이 편리해서 12.3%,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9.9%, 기타 4.9%, 일자리가 가까워서 2.5%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165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 15.8%,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2%, 불편함이 없어서 13.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13.3%,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각 7.9%, 일자리가 가까워서 1.2%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13건)의 내용은 금전적 이유, 외로움, 우울함, 고립감 등으로 나타났음.

<표 10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교통이 편리해서	16	19.0	10	12.3	26	15.8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3	15.5	12	14.8	25	15.2
일자리가 가까워서	0	0.0	2	2.5	2	1.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9	10.7	13	16.0	22	13.3
불편함이 없어서	12	14.3	11	13.6	23	13.9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0	23.8	21	25.9	41	24.8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5	6.0	8	9.9	13	7.9
기타	9	10.7	4	4.9	13	7.9
합계	84	100.0	81	100.0	165	100.0

<그림 75>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3.5%, 교통이 편리해서 22.1%가 높고, 여성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6.7%, 불편함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각 2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교통이 편리해서 31.8%,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18.2%, 60대는 불편함이 없어서 21.4%, 교통이 편리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기타 각 17.9%, 70대 이상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34.4%,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교통이 편리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각 12.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6.2%, 불편함이 없어서 16.9%, 조건부 수급은 교통이 편리해서 44.4%,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33.3%, 차상위계층 수급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33.3%, 비수급은 교통이 편리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28.6%,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교통이 편리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28.6%, 생계급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각 33.3%, 의료급여는 교통이 편리해서 100.0%, 주거급여는 교통이 편리해서, 불편함이 없어서 각 5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교통이 편리해서, 동사무소, 쪽방상당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기타 각 25.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3.4%, 동사무소, 쪽방상당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교통이 편리해서 각 17.2%,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43.8%,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18.8%, 장애 없음은 교통이 편리해서 20.6%,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19.1%가 높게 나타났음.

<표 102>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1순위)

항목		교통이 편리해서	동사무소, 쪽방상당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가까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전 체		(빈도) %	(16) 19.3	(13) 15.7	(9) 10.8	(11) 13.3	(20) 24.1	(5) 6.0	(9) 10.8	(83) 100.0	(83) 100.0
성별	남성	(빈도) %	(15) 22.1	(12) 17.6	(6) 8.8	(8) 11.8	(16) 23.5	(2) 2.9	(9) 13.2	(68) 100.0	(68) 100.0
	여성	(빈도) %	(1) 6.7	(1) 6.7	(3) 20.0	(3) 20.0	(4) 26.7	(3) 20.0		(15) 100.0	(15)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7) 31.8	(4) 18.2	(3) 13.6	(1) 4.5	(4) 18.2		(3) 13.6	(22) 100.0	(22) 100.0
	60대	(빈도) %	(5) 17.9	(4) 14.3	(2) 7.1	(6) 21.4	(5) 17.9	(1) 3.6	(5) 17.9	(28) 100.0	(28) 100.0
	70대 이상	(빈도) %	(4) 12.5	(4) 12.5	(4) 12.5	(4) 12.5	(11) 34.4	(4) 12.5	(1) 3.1	(32) 100.0	(32)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10) 15.4	(9) 13.8	(5) 7.7	(11) 16.9	(17) 26.2	(5) 7.7	(8) 12.3	(65) 100.0	(65)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44.4	(3) 33.3	(2) 22.2					(9) 100.0	(9)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3) 100.0
	비수급	(빈도) %	(2) 28.6	(1) 14.3	(1) 14.3		(2) 28.6		(1) 14.3	(7) 100.0	(7)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28.6	(1) 14.3	(1) 14.3		(2) 28.6		(1) 14.3	(7) 100.0	(7) 100.0
	생계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3) 100.0
	의료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주거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7.2	(11) 17.2	(6) 9.4	(11) 17.2	(15) 23.4	(3) 4.7	(7) 10.9	(64) 100.0	(6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12.5	(1) 6.3	(1) 6.3	(1) 6.3	(7) 43.8	(3) 18.8	(1) 6.3	(16) 100.0	(16) 100.0
	장애 없음	(빈도) %	(14) 20.6	(12) 17.6	(8) 11.8	(11) 16.2	(13) 19.1	(2) 2.9	(8) 11.8	(68) 100.0	(68) 100.0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다중응답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4.4%, 교통이 편리해서 17.8%가 높고, 여성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25.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교통이 편리해서 27.3%,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18.2%, 60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5.5%,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6.4%, 70대 이상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7.4%, 불편함이 없어서 17.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5.2%,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5.7%, 조건부 수급은 교통이 편리해서 33.3%,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22.2%, 차상위계층 수급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50.0%, 불편함이 없어서 33.3%, 비수급은 교통이 편리해서 35.7%,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1.4%,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교통이 편리해서 35.7%,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1.4%, 생계급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33.3%, 의료급여는 교통이 편리해서, 일자리가 가까워서 각 50.0%, 주거급여는 불편함이 없어서 50.0%, 교통이 편리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25.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각 25.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각 28.6%,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교통이 편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각 5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5.4%,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16.7%,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9.0%,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22.6%, 장애 없음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3.9%, 교통이 편리해서 17.9%가 높게 나타났음.

<표 103> 응답자 특성별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다중응답)

항목		교통이 편리해서	동사무소, 쪽방상당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가까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타	계	
전 체		(빈도) %	(26) 16.0	(25) 15.3	(2) 1.2	(22) 13.5	(22) 13.5	(40) 24.5	(13) 8.0	(13) 8.0	(163) 100.0
성별	남성	(빈도) %	(24) 17.8	(23) 17.0	(2) 1.5	(15) 11.1	(18) 13.3	(33) 24.4	(8) 5.9	(12) 8.9	(135) 100.0
	여성	(빈도) %	(2) 7.1	(2) 7.1		(7) 25.0	(4) 14.3	(7) 25.0	(5) 17.9	(1) 3.6	(28)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2) 27.3	(7) 15.9	(1) 2.3	(7) 15.9	(4) 9.1	(8) 18.2	(1) 2.3	(4) 9.1	(44) 100.0
	60대	(빈도) %	(8) 14.5	(9) 16.4	(1) 1.8	(5) 9.1	(7) 12.7	(14) 25.5	(4) 7.3	(7) 12.7	(55)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7	(8) 12.9		(10) 16.1	(11) 17.7	(17) 27.4	(8) 12.9	(2) 3.2	(62)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15) 11.8	(20) 15.7		(17) 13.4	(19) 15.0	(32) 25.2	(13) 10.2	(11) 8.7	(12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6) 33.3	(4) 22.2	(2) 11.1	(2) 11.1	(1) 5.6	(3) 16.7			(18)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6.7	(2) 33.3	(3) 50.0			(6) 100.0
	비수급	(빈도) %	(5) 35.7	(1) 7.1		(2) 14.3	(1) 7.1	(3) 21.4		(2) 14.3	(1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5) 35.7	(1) 7.1		(2) 14.3	(1) 7.1	(3) 21.4		(2) 14.3	(1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0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주거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4)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4.3	(2) 28.6	(1) 14.3			(2) 28.6		(1) 14.3	(7)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7) 13.5	(21) 16.7		(17) 13.5	(18) 14.3	(32) 25.4	(11) 8.7	(10) 7.9	(126)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5	(6) 19.4		(3) 9.7	(3) 9.7	(9) 29.0	(7) 22.6	(1) 3.2	(31) 100.0
	장애 없음	(빈도) %	(24) 17.9	(19) 14.2	(2) 1.5	(19) 14.2	(20) 14.9	(32) 23.9	(6) 4.5	(12) 9.0	(134) 100.0

20_1.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과 관련된 경우

-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84명 중 지속 거주 의향이 있는 이유가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때문인 응답자는 25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서적 안정감때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으로 나타났음.

<표 104> 비주택 거처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과 관련된 경우

추후에도 비주택 거처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	현 거처에 계속 머물고싶은 이유는 친분관계 및 정서적 외로움때문이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거 상황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그렇다	그렇다	6	24.0	19	76.0
	아니다	1	1.7	58	98.3
아니다	그렇다	0	0.0	0	0.0
	아니다	2	1.7	114	98.3

21.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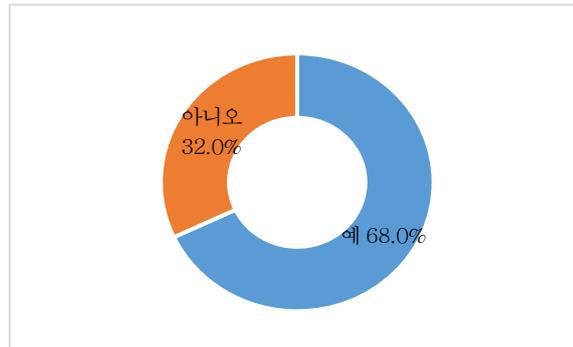
질문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는 예 68.0%, 아니오 32.0%로 나타났다.

<표 105>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항목	빈도	%
예	136	68.0
아니오	64	32.0
합계	200	100.0

<그림 76>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는 '예'가 68.0%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예 71.1%, 여성은 예 46.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예 79.4%, 60대는 예 65.2%, 70대 이상은 예 60.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예 66.0%, 조건부 수급은 예 8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예 77.8%, 비수급은 예 62.5%,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예 62.5%, 생계급여는 예 25.0%, 의료급여는 예 100.0%, 주거급여는 예 88.9%,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예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예 63.6%,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예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예 67.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예 59.4%, 장애 없음은 예 69.6%로 나타났다.

<표 106> 응답자 특성별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유무

항목			예	아니오	계
전 체		(빈도) %	(135) 67.8	(64) 32.2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23) 71.1	(50) 28.9	(173) 100.0
	여성	(빈도) %	(12) 46.2	(14) 53.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54) 79.4	(14) 20.6	(68) 100.0
	60대	(빈도) %	(43) 65.2	(23) 34.8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37) 60.7	(24) 39.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97) 66.0	(50) 34.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7) 85.0	(3) 1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7) 77.8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15) 62.5	(9) 3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5) 62.5	(9) 3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8) 88.9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7) 63.6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97) 67.4	(47) 32.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9) 59.4	(13) 40.6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17) 69.6	(51) 30.4	(168) 100.0

22.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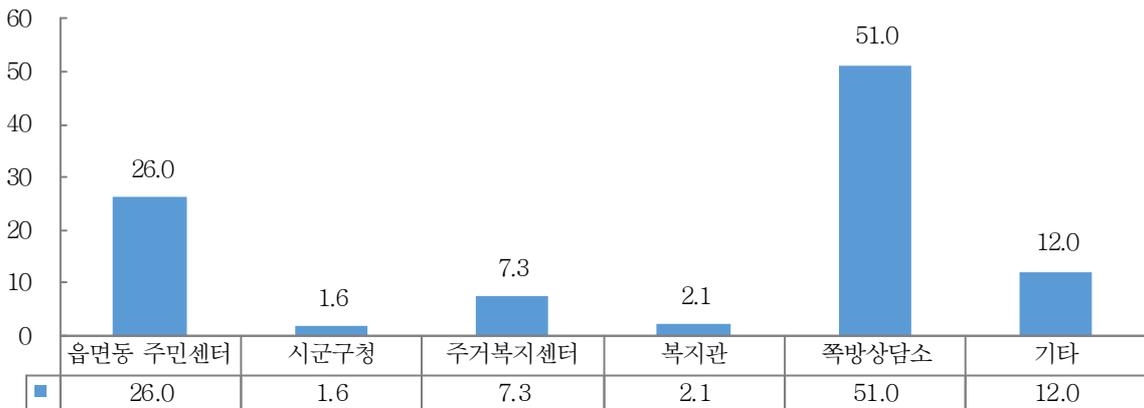
질 문	어디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은 쪽방상담소가 5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26.0%, 기타 12.0%, 주거복지센터 7.3%, 복지관 2.1%, 시군구청 1.6%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 (23건)의 세부내용은 LH공사, 이웃, 가족 등으로 나타났음.

<표 107>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항목	빈도	%
읍면동 주민센터	50	26.0
시군구청	3	1.6
주거복지센터	14	7.3
복지관	4	2.1
쪽방상담소	98	51.0
기타	23	12.0
합계	192	100.0

<그림 77>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다중응답)은 쪽방상담소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쪽방상담소 51.7%, 읍면동 주민센터 26.1%가 높고, 여성은 쪽방상담소 40.0%, 읍면동 주민센터 26.7%,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쪽방상담소 51.3%, 읍면동 주민센터 24.4%, 60대는 쪽방상담소 50.0%, 읍면동 주민센터 23.4%, 70대 이상은 쪽방상담소 51.1%, 읍면동 주민센터 34.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쪽방상담소 51.1%, 읍면동 주민센터 29.5%, 조건부 수급은 쪽방상담소 40.7%, 읍면동 주민센터 22.2%, 차상위계층 수급은 쪽방상담소 50.0%, 기타 25.0%, 비수급은 쪽방상담소 66.7%,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각 11.1%,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쪽방상담소 66.7%,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각 11.1%,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100.0%, 의료급여는 쪽방상담소 50.0%, 주거복지센터, 기타 각 25.0%, 주거급여는 쪽방상담소 62.5%, 기타 25.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쪽방상담소 36.4%, 읍면동 주민센터 27.3%,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쪽방상담소, 기타 각 28.6%,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쪽방상담소 51.8%, 읍면동 주민센터 28.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쪽방상담소 65.4%, 읍면동 주민센터 19.2%, 장애 없음은 쪽방상담소 48.8%, 읍면동 주민센터 27.1%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8> 응답자 특성별 - 정보제공 및 상담 받은 곳(다중응답)

항목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센터	복지관	쪽방상담소	기타	계	
전 체		(빈도) %	(50) 26.2	(3) 1.6	(14) 7.3	(4) 2.1	(97) 50.8	(23) 12.0	(191) 100.0
성별	남성	(빈도) %	(46) 26.1	(2) 1.1	(11) 6.3	(4) 2.3	(91) 51.7	(22) 12.5	(176) 100.0
	여성	(빈도) %	(4) 26.7	(1) 6.7	(3) 20.0		(6) 40.0	(1) 6.7	(15)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9) 24.4		(8) 10.3	(2) 2.6	(40) 51.3	(9) 11.5	(78) 100.0
	60대	(빈도) %	(15) 23.4	(3) 4.7	(2) 3.1	(2) 3.1	(32) 50.0	(10) 15.6	(64) 100.0
	70대 이상	(빈도) %	(16) 34.0		(3) 6.4		(24) 51.1	(4) 8.5	(47)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1) 29.5	(2) 1.4	(7) 5.0	(2) 1.4	(71) 51.1	(16) 11.5	(139)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6) 22.2	(1) 3.7	(4) 14.8	(2) 7.4	(11) 40.7	(3) 11.1	(27)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2.5		(1) 12.5		(4) 50.0	(2) 25.0	(8) 100.0
	비수급	(빈도) %	(2) 11.1		(2) 11.1		(12) 66.7	(2) 11.1	(18)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 11.1		(2) 11.1		(12) 66.7	(2) 11.1	(18)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의료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4)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2.5		(5) 62.5	(2) 25.0	(8)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1) 9.1	(1) 9.1	(1) 9.1	(4) 36.4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28.6		(1) 14.3		(2) 28.6	(2) 28.6	(7)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0) 28.4	(2) 1.4	(8) 5.7	(3) 2.1	(73) 51.8	(15) 10.6	(141)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5) 19.2		(1) 3.8		(17) 65.4	(3) 11.5	(26) 100.0
	장애 없음	(빈도) %	(45) 27.1	(3) 1.8	(13) 7.8	(4) 2.4	(81) 48.8	(20) 12.0	(166) 100.0

23.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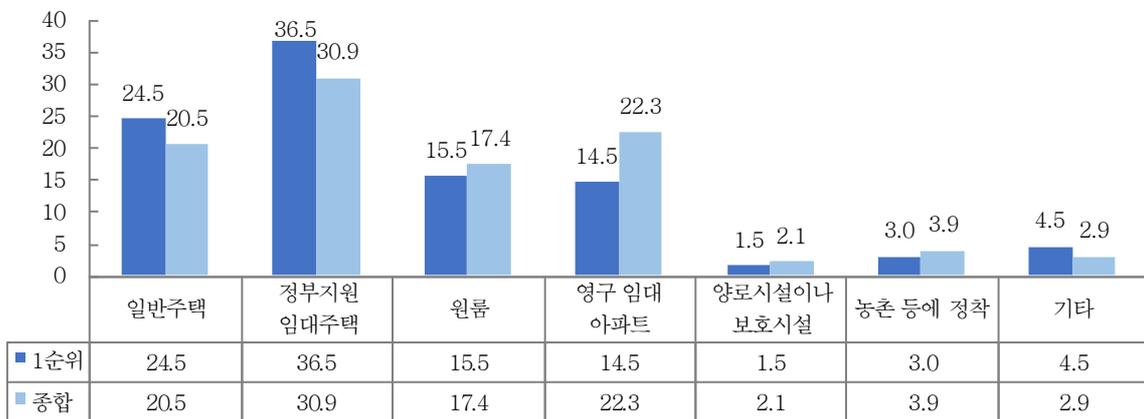
질 문	이주가 가능하다면 주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1순위 응답은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4.5%, 원룸 15.5%, 영구 임대 아파트 14.5%, 기타 4.5%, 농촌 등에 정착 3.0%,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1.5% 순으로 나타났다.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2순위 응답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3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지원 임대주택 24.9%, 원룸 19.5%,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16.2%, 농촌 등에 정착 4.9%,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2.7%,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 1, 2순위 종합결과(385건)는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 22.3%,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0.5%, 원룸 17.4%, 농촌 등에 정착 3.9%, 기타 2.9%,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11건)의 내용은 특별히 원하는 곳 없음, 산 속, 현재가 좋음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9>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49	24.5	30	16.2	79	20.5
정부지원 임대주택	73	36.5	46	24.9	119	30.9
원룸	31	15.5	36	19.5	67	17.4
영구 임대 아파트	29	14.5	57	30.8	86	22.3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3	1.5	5	2.7	8	2.1
농촌 등에 정착	6	3.0	9	4.9	15	3.9
기타	9	4.5	2	1.1	11	2.9
합계	200	100.0	185	100.0	385	100.0

<그림 78>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1순위 응답은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7.0%,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3.1%가 높고, 여성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34.6%, 정부지원 임대주택 30.8%,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35.3%,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6.5%, 60대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42.4%, 영구 임대 아파트 16.7%, 70대 이상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36.1%, 정부지원 임대주택 29.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6.7%,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2.4%, 조건부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50.0%,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30.0%, 차상위계층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44.4%,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원룸 각 22.2%, 비수급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33.3%, 원룸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33.3%, 원룸 29.2%, 생계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50.0%, 영구 임대 아파트,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각 25.0%, 의료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66.7%, 정부지원 임대주택 33.3%, 주거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원룸 각 44.4%,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영구 임대 아파트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45.5%, 원룸 36.4%,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정부지원 임대주택, 원룸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39.6%,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2.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43.8%,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8.1%, 장애 없음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5.1%,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3.8%가 높게 나타났음.

<표 110> 응답자 특성별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1순위)

항목		일반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정부지원 임대주택	원룸	영구 임대 아파트	양로시설 이나 보호 시설	농촌 등에 정착	기타	계	
전 체		(빈도) %	(49) 24.6	(72) 36.2	(31) 15.6	(29) 14.6	(3) 1.5	(6) 3.0	(9) 4.5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0) 23.1	(64) 37.0	(29) 16.8	(24) 13.9	(3) 1.7	(6) 3.5	(7) 4.0	(173) 100.0
	여성	(빈도) %	(9) 34.6	(8) 30.8	(2) 7.7	(5) 19.2			(2) 7.7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8) 26.5	(24) 35.3	(16) 23.5	(7) 10.3	(1) 1.5	(1) 1.5	(1) 1.5	(68) 100.0
	60대	(빈도) %	(9) 13.6	(28) 42.4	(9) 13.6	(11) 16.7	(1) 1.5	(5) 7.6	(3) 4.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2) 36.1	(18) 29.5	(5) 8.2	(10) 16.4	(1) 1.6		(5) 8.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3) 22.4	(54) 36.7	(18) 12.2	(26) 17.7	(2) 1.4	(6) 4.1	(8) 5.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6) 30.0	(10) 50.0	(4) 2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2) 22.2	(4) 44.4	(2) 22.2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8) 33.3	(5) 20.8	(7) 29.2	(3) 12.5			(1) 4.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8) 33.3	(5) 20.8	(7) 29.2	(3) 12.5			(1) 4.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4) 44.4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5) 45.5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2) 22.2	(57) 39.6	(15) 10.4	(24) 16.7	(2) 1.4	(6) 4.2	(8) 5.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9) 28.1	(14) 43.8		(3) 9.4	(1) 3.1	(3) 9.4	(2) 6.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0) 23.8	(59) 35.1	(31) 18.5	(26) 15.5	(2) 1.2	(3) 1.8	(7) 4.2	(168) 100.0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다중응답은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0.3%, 영구 임대 아파트 21.7%가 높고, 여성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4.8%, 영구 임대 아파트 28.3%,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29.9%, 원룸 23.9%, 60대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33.3%, 영구 임대 아파트 22.2%, 70대 이상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28.7%,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영구 임대 아파트 각 25.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0.6%, 영구 임대 아파트 22.4%, 조건부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2.5%, 원룸, 영구 임대 아파트 각 22.5%, 차상위계층 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3.3%, 원룸 22.2%, 비수급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0.4%, 영구 임대 아파트 26.1%,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0.4%, 영구 임대 아파트 26.1%, 생계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농촌 등에 정착 각 28.6%, 의료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정부지원 임대주택 각 33.3%, 주거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33.3%, 원룸 27.8%,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50.0%,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영구 임대 아파트 각 25.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정부지원 임대주택, 원룸 각 27.3%,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원룸, 영구 임대 아파트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31.5%, 영구 임대 아파트 2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38.3%,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23.3%, 장애 없음은 정부지원 임대주택 29.5%, 영구 임대 아파트 22.8%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1> 응답자 특성별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다중응답)

항목		일반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정부지원 임대주택	원룸	영구 임대 아파트	양로시설 이나 보호 시설	농촌 등에 정착	기타	계	
전 체		(빈도) %	(79) 20.6	(118) 30.8	(66) 17.2	(86) 22.5	(8) 2.1	(15) 3.9	(11) 2.9	(383) 100.0
성별	남성	(빈도) %	(68) 20.2	(102) 30.3	(64) 19.0	(73) 21.7	(7) 2.1	(14) 4.2	(9) 2.7	(337) 100.0
	여성	(빈도) %	(11) 23.9	(16) 34.8	(2) 4.3	(13) 28.3	(1) 2.2	(1) 2.2	(2) 4.3	(4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8) 20.9	(40) 29.9	(32) 23.9	(27) 20.1	(1) 0.7	(4) 3.0	(2) 1.5	(134) 100.0
	60대	(빈도) %	(21) 16.7	(42) 33.3	(22) 17.5	(28) 22.2	(3) 2.4	(6) 4.8	(4) 3.2	(126) 100.0
	70대 이상	(빈도) %	(29) 25.2	(33) 28.7	(10) 8.7	(29) 25.2	(4) 3.5	(5) 4.3	(5) 4.3	(115)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9) 21.0	(86) 30.6	(44) 15.7	(63) 22.4	(6) 2.1	(13) 4.6	(10) 3.6	(281)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8) 20.0	(13) 32.5	(9) 22.5	(9) 22.5	(1) 2.5			(4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16.7	(6) 33.3	(4) 22.2	(2) 11.1	(1) 5.6	(2) 11.1		(18) 100.0
	비수급	(빈도) %	(9) 19.6	(14) 30.4	(10) 21.7	(12) 26.1			(1) 2.2	(46)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9) 19.6	(14) 30.4	(10) 21.7	(12) 26.1			(1) 2.2	(46) 100.0
	생계급여	(빈도) %	(2) 28.6	(1) 14.3		(1) 14.3	(1) 14.3	(2) 28.6		(7) 100.0
	의료급여	(빈도) %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2) 11.1	(6) 33.3	(5) 27.8	(3) 16.7		(1) 5.6	(1) 5.6	(18)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25.0	(2) 50.0		(1) 25.0				(4)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6) 27.3	(6) 27.3	(6) 27.3	(3) 13.6		(1) 4.5		(22)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6.7	(1) 16.7	(2) 33.3	(2) 33.3				(6)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6) 20.3	(87) 31.5	(43) 15.6	(63) 22.8	(7) 2.5	(11) 4.0	(9) 3.3	(276)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4) 23.3	(23) 38.3	(3) 5.0	(12) 20.0	(2) 3.3	(4) 6.7	(2) 3.3	(60) 100.0
	장애 없음	(빈도) %	(65) 20.0	(96) 29.5	(64) 19.7	(74) 22.8	(6) 1.8	(11) 3.4	(9) 2.8	(325) 100.0

24.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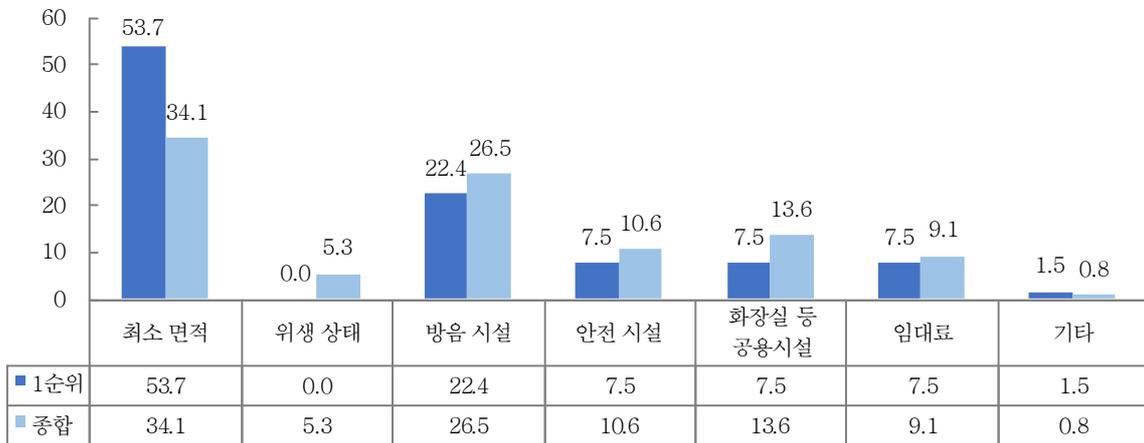
질 문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에 의한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1순위 응답은 최소 면적이 5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 22.4%, 안전 시설, 화장실 등 공용시설, 임대료 각 7.5%, 기타 1.5%, 위생 상태 0.0%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2순위 응답은 방음 시설이 3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장실 등 공용시설 20.0%, 안전 시설, 최소 면적 각 13.8%, 위생 상태, 임대료 각 10.8%, 기타 0.0%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132건)는 최소 면적이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음 시설 26.5%, 화장실 등 공용시설 13.6%, 안전 시설 10.6%, 임대료 9.1%, 위생 상태 5.3%,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1건)은 현재에 만족함으로 나타났음.

<표 112>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최소 면적	36	53.7	9	13.8	45	34.1
위생 상태	0	0.0	7	10.8	7	5.3
방음 시설	15	22.4	20	30.8	35	26.5
안전 시설	5	7.5	9	13.8	14	10.6
화장실 등 공용시설	5	7.5	13	20.0	18	13.6
임대료	5	7.5	7	10.8	12	9.1
기타	1	1.5	0	0.0	1	0.8
합계	67	100.0	65	100.0	132	100.0

<그림 79>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1순위 응답은 최소 면적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최소 면적 55.7%, 방음 시설 21.3%가 높고, 여성은 최소 면적, 화장실 등 공용시설 각 4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최소 면적 51.3%, 방음 시설 28.2%, 60대는 최소 면적 60.0%, 안전 시설 15.0%, 70대 이상은 최소 면적 66.7%, 화장실 등 공용시설, 기타 각 16.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최소 면적 57.1%, 방음 시설 21.4%, 조건부 수급은 최소 면적 50.0%, 방음 시설 21.4%, 차상위계층 수급은 최소 면적 66.7%, 방음 시설 33.3%, 비수급은 최소 면적 47.4%, 방음 시설 21.1%,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최소 면적 47.4%, 방음 시설 21.1%, 생계급여는 최소 면적 100.0%, 의료급여는 방음 시설 66.7%, 최소 면적 33.3%,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방음 시설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60.0%, 방음 시설 4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안전 시설, 임대료 각 5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61.3%, 방음 시설 12.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방음 시설 66.7%, 화장실 등 공용시설 33.3%, 장애 없음은 최소 면적 56.3%, 방음 시설 20.3%가 높게 나타났음.

<표 113>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1순위)

항목		최소 면적	위생 상태	방음 시설	안전 시설	화장실 등 공용시설	임대료	기타	계	
전 체		(빈도) %	(36) 54.5		(14) 21.2	(5) 7.6	(5) 7.6	(1) 1.5	(66) 100.0	
성별	남성	(빈도) %	(34) 55.7		(13) 21.3	(5) 8.2	(3) 4.9	(5) 8.2	(1) 1.6	(61) 100.0
	여성	(빈도) %	(2) 40.0		(1) 20.0		(2) 40.0			(5)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0) 51.3		(11) 28.2	(2) 5.1	(2) 5.1	(4) 10.3		(39) 100.0
	60대	(빈도) %	(12) 60.0		(2) 10.0	(3) 15.0	(2) 10.0	(1) 5.0		(20) 100.0
	70대 이상	(빈도) %	(4) 66.7				(1) 16.7	(1) 16.7		(6)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6) 57.1		(6) 21.4	(2) 7.1	(2) 7.1	(1) 3.6	(1) 3.6	(28)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7) 50.0		(3) 21.4	(1) 7.1	(1) 7.1	(2) 14.3		(14)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4) 66.7		(2) 33.3					(6) 100.0
	비수급	(빈도) %	(9) 47.4		(4) 21.1	(2) 10.5	(2) 10.5	(2) 10.5		(19)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9) 47.4		(4) 21.1	(2) 10.5	(2) 10.5	(2) 10.5		(19)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3) 50.0		(3) 50.0					(6)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60.0		(2) 40.0					(5)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9) 61.3		(4) 12.9	(2) 6.5	(3) 9.7	(2) 6.5	(1) 3.2	(31)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6.7		(1) 33.3			(3) 100.0
	장애 없음	(빈도) %	(36) 56.3		(13) 20.3	(5) 7.8	(4) 6.3	(5) 7.8	(1) 1.6	(64) 100.0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중응답은 최소 면적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최소 면적 35.0%, 방음 시설 26.7%가 높고, 여성은 화장실 등 공용시설 30.0%, 방음 시설, 최소 면적, 임대료 각 2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최소 면적 33.3%, 방음 시설 24.4%, 60대는 최소 면적 35.9%, 방음 시설 25.6%, 70대 이상은 최소 면적, 방음 시설 각 36.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최소 면적 31.5%, 방음 시설 25.9%, 조건부 수급은 최소 면적 32.1%, 방음 시설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최소 면적 41.7%, 방음 시설 33.3%, 비수급은 최소 면적 36.8%, 방음 시설 26.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최소 면적 36.8%, 방음 시설 26.3%, 생계급여는 최소 면적, 방음 시설 각 50.0%, 의료급여는 최소 면적, 방음 시설 각 33.3%,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방음 시설, 화장실 등 공용시설 각 33.3%,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방음 시설 각 3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임대료 50.0%, 안전 시설, 최소 면적 각 25.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최소 면적 33.3%, 방음 시설 25.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방음 시설, 화장실 등 공용시설 각 33.3%, 장애 없음은 최소 면적 34.9%, 방음 시설 26.2%가 높게 나타났음.

<표 114> 응답자 특성별 -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다중응답)

항목		최소 면적	위생 상태	방음 시설	안전 시설	화장실 등 공용시설	임대료	기타	계	
전 체		(빈도) %	(44) 33.8	(7) 5.4	(34) 26.2	(14) 10.8	(18) 13.8	(12) 9.2	(1) 0.8	(130) 100.0
성별	남성	(빈도) %	(42) 35.0	(7) 5.8	(32) 26.7	(13) 10.8	(15) 12.5	(10) 8.3	(1) 0.8	(120) 100.0
	여성	(빈도) %	(2) 20.0		(2) 20.0	(1) 10.0	(3) 30.0	(2) 20.0		(10)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6) 33.3	(6) 7.7	(19) 24.4	(8) 10.3	(10) 12.8	(9) 11.5		(78) 100.0
	60대	(빈도) %	(14) 35.9	(1) 2.6	(10) 25.6	(5) 12.8	(6) 15.4	(3) 7.7		(39) 100.0
	70대 이상	(빈도) %	(4) 36.4		(4) 36.4		(2) 18.2	(1) 9.1		(1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7) 31.5	(3) 5.6	(14) 25.9	(7) 13.0	(9) 16.7	(3) 5.6	(1) 1.9	(5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9) 32.1	(2) 7.1	(7) 25.0	(3) 10.7	(4) 14.3	(3) 10.7		(28)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41.7		(4) 33.3		(2) 16.7	(1) 8.3		(12) 100.0
	비수급	(빈도) %	(14) 36.8	(2) 5.3	(10) 26.3	(4) 10.5	(3) 7.9	(5) 13.2		(38)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4) 36.8	(2) 5.3	(10) 26.3	(4) 10.5	(3) 7.9	(5) 13.2		(38) 100.0
	생계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의료급여	(빈도) %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4) 33.3		(4) 33.3		(4) 33.3			(12)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30.0	(2) 20.0	(3) 30.0		(1) 10.0	(1) 10.0		(10)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25.0			(1) 25.0		(2) 50.0		(4)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0) 33.3	(3) 5.0	(15) 25.0	(8) 13.3	(10) 16.7	(3) 5.0	(1) 1.7	(60)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16.7		(2) 33.3		(2) 33.3	(1) 16.7		(6) 100.0
	장애 없음	(빈도) %	(44) 34.9	(7) 5.6	(33) 26.2	(14) 11.1	(16) 12.7	(11) 8.7	(1) 0.8	(126) 100.0

2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질문	귀하가 경험했던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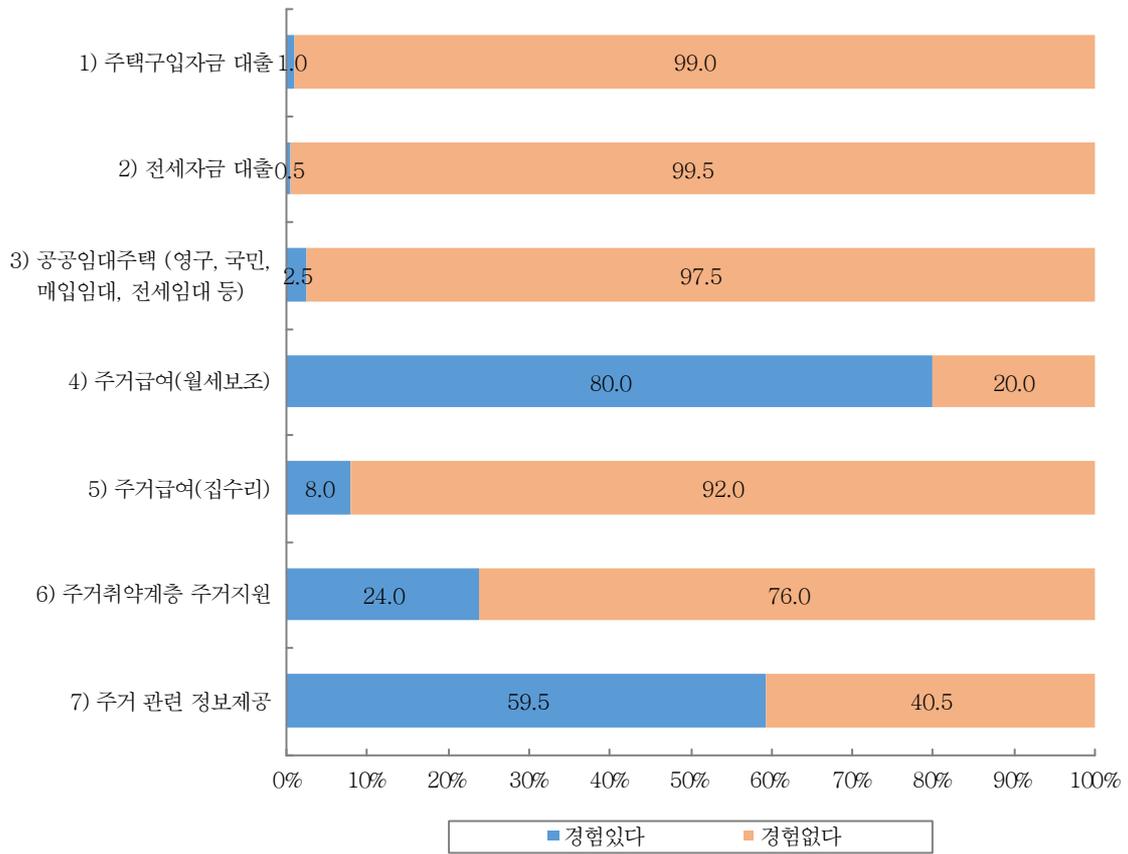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는

- 1)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경험 있다 1.0%, 경험 없다 99.0%로 나타났다.
- 2) 전세자금 대출은 경험 있다 0.5%, 경험 없다 99.5%로 나타났다.
-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경험 있다 2.5%, 경험 없다 97.5%로 나타났다.
- 4) 주거급여(월세보조)는 경험 있다 80.0%, 경험 없다 20.0%로 나타났다.
- 5) 주거급여(집수리)는 경험 있다 8.0%, 경험 없다 92.0%로 나타났다.
-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경험 있다 24.0%, 경험 없다 76.0%로 나타났다.
- 7) 주거 관련 정보제공은 경험 있다 59.5%, 경험 없다 40.5%로 나타났다.

<표 115>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항목	경험 있다		경험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1) 주택구입자금 대출	2	1.0	198	99.0	200	100.0
2) 전세자금 대출	1	0.5	199	99.5	200	100.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5	2.5	195	97.5	200	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	160	80.0	40	20.0	200	100.0
5) 주거급여(집수리)	16	8.0	184	92.0	200	100.0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48	24.0	152	76.0	200	10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	119	59.5	81	40.5	200	100.0

<그림 80>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11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1) 주택구입자금 대출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	(2) 1.0	(197) 99.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2) 1.2	(171) 98.8	(173)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67) 98.5	(68) 100.0
	60대	(빈도) %	(1) 1.5	(65) 98.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1.4	(145) 98.6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9.1	(10) 90.9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0.7	(143) 99.3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 1.2	(166) 98.8	(168) 100.0

<표 11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2) 전세자금 대출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0.5	(198) 99.5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0.6	(172) 99.4	(173) 100.0
	여성	(빈도) %	(26) 100.0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68) 100.0	(68) 100.0
	60대	(빈도) 1.5	(65) 98.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47) 100.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0) 10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4.2	(23) 95.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4.2	(23) 95.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44) 100.0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2) 100.0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0.6	(167) 99.4	(168) 100.0

<표 11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2.5	(194) 97.5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1.7	(170) 98.3	(173) 100.0
	여성	(빈도) 7.7	(24) 9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2.9	(66) 97.1	(68) 100.0
	60대	(빈도) 3.0	(64) 97.0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61) 100.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2.7	(143) 97.3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	(24) 10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24) 10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1) 100.0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3.5	(139) 96.5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3.1	(31) 96.9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2.4	(164) 97.6	(168) 100.0

<표 11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4) 주거급여(월세보조)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	(159) 79.9	(40) 20.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44) 83.2	(29) 16.8	(173) 100.0
	여성	(빈도) %	(15) 57.7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8) 70.6	(20) 29.4	(68) 100.0
	60대	(빈도) %	(60) 90.9	(6) 9.1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47) 77.0	(14) 23.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30) 88.4	(17) 11.6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5) 75.0	(5) 2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7) 77.8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8) 33.3	(16) 66.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8) 33.3	(16) 66.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7) 77.8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0) 90.9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30) 90.3	(14) 9.7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7) 84.4	(5) 15.6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133) 79.2	(35) 20.8	(168) 100.0

<표 120>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5) 주거급여(집수리)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8.0	(183) 92.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5.8	(163) 94.2	(173) 100.0
	여성	(빈도) 23.1	(20) 76.9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2.9	(66) 97.1	(68) 100.0
	60대	(빈도) 4.5	(63) 95.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18.0	(50) 82.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9.5	(133) 90.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5.0	(19) 9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9) 100.0	(9) 100.0
	비수급	(빈도) 4.2	(23) 95.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4.2	(23) 95.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25.0	(3) 7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주거급여	(빈도) %	(9) 100.0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9.1	(10) 90.9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8.3	(132) 91.7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6.3	(30) 93.8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8.3	(154) 91.7	(168) 100.0

<표 121>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23.6	(152) 76.4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24.3	(131) 75.7	(173) 100.0
	여성	(빈도) 19.2	(21) 80.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39.7	(41) 60.3	(68) 100.0
	60대	(빈도) 24.2	(50) 75.8	(66) 100.0
	70대 이상	(빈도) 4.9	(58) 95.1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15.0	(125) 85.0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55.0	(9) 4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33.3	(6) 66.7	(9) 100.0
	비수급	(빈도) 50.0	(12) 50.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50.0	(12) 50.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100.0	(3) %	(3) 100.0
	주거급여	(빈도) 44.4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18.1	(118) 81.9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15.6	(27) 84.4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25.6	(125) 74.4	(168) 100.0

<표 12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항목		경험있다	경험없다	계
전 체		(빈도) 59.8	(80) 40.2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61.8	(66) 38.2	(173) 100.0
	여성	(빈도) 46.2	(14) 53.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66.2	(23) 33.8	(68) 100.0
	60대	(빈도) 63.6	(24) 36.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50.8	(30) 49.2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60.5	(58) 39.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70.0	(6) 3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62.5	(9) 3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62.5	(9) 3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100.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33.3	(6) 66.7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45.5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61.8	(55) 38.2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62.5	(12) 37.5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58.9	(69) 41.1	(168) 100.0

26.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질 문	귀하가 경험했던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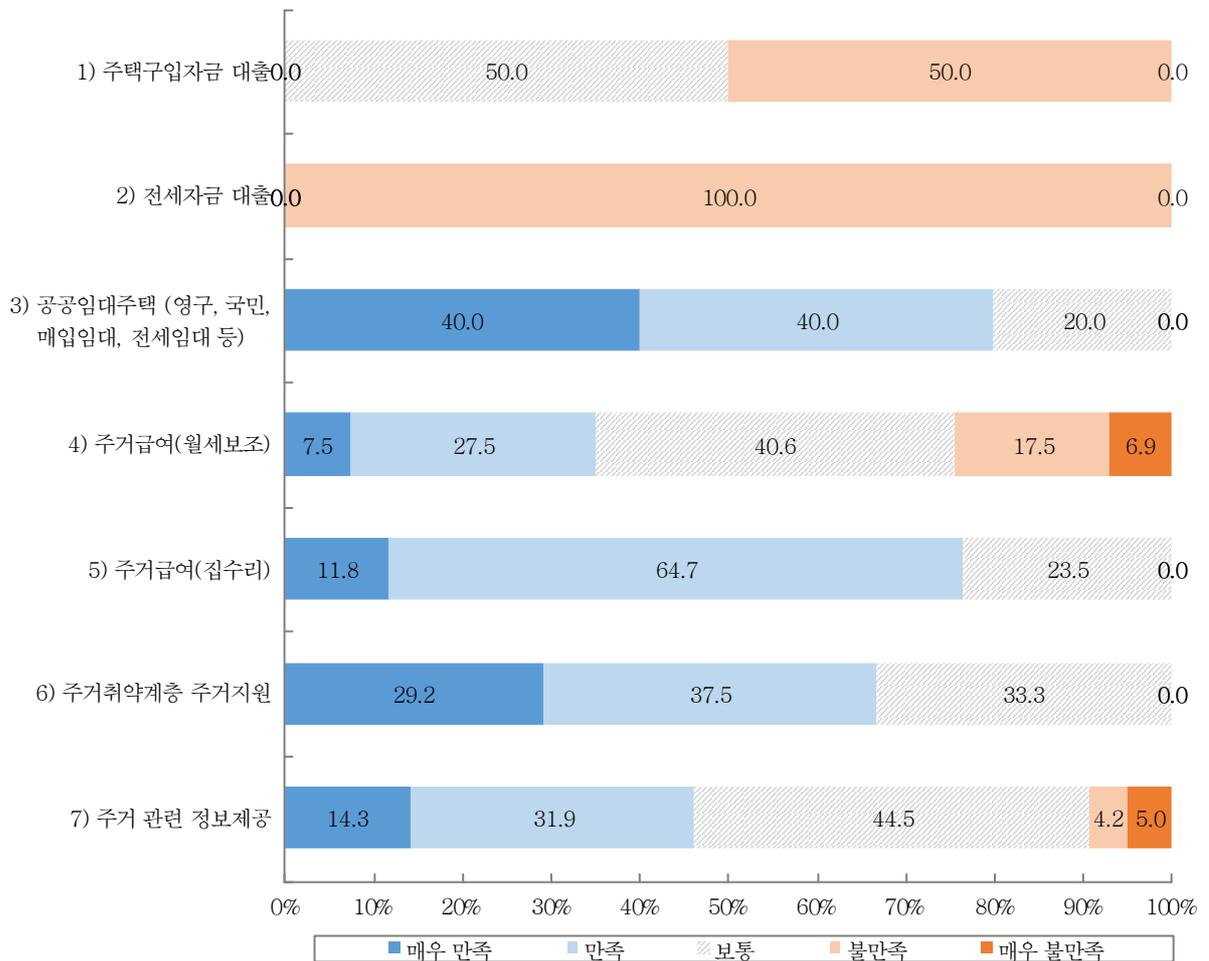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 1)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족 0.0%(매우 만족 0.0% + 만족 0.0%), 보통 50.0%, 불만족 50.0%(불만족 5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 2) 전세자금 대출은 만족 0.0%(매우 만족 0.0% + 만족 0.0%), 보통 0.0%, 불만족 100.0%(불만족 10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 3) 공공임대주택은 만족 80.0%(매우 만족 40.0% + 만족 40.0%), 보통 20.0%, 불만족 0.0%(불만족 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 4) 주거급여(월세보조)는 만족 35.0%(매우 만족 7.5% + 만족 27.5%), 보통 40.6%, 불만족 24.4%(불만족 17.5%의료+ 매우 불만족 6.9%)로 나타났음.
- 5) 주거급여(집수리)는 만족 76.5%(매우 만족 11.8% + 만족 64.7%), 보통 23.5%, 불만족 0.0%(불만족 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만족 66.7%(매우 만족 29.2% + 만족 37.5%), 보통 33.3%, 불만족 0.0%(불만족 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 7) 주거 관련 정보제공은 만족 46.2%(매우 만족 14.3% + 만족 31.9%), 보통 44.5%, 불만족 9.2%(불만족 4.2% + 매우 불만족 5.0%)로 나타났음.
- 8) 기타는 만족 0.0%(매우 만족 0.0% + 만족 0.0%), 보통 0.0%, 불만족 0.0%(불만족 0.0% + 매우 불만족 0.0%)로 나타났음.

<표 123>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항목	(빈도) %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1) 주택구입자금 대출	(빈도) %	(0) 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2) 100.0
2) 전세자금 대출	(빈도) %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빈도) %	(2) 40.0	(2) 40.0	(1) 20.0	(0) 0.0	(0) 0.0	(4) 80.0	(1) 20.0	(0) 0.0	(5) 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	(빈도) %	(12) 7.5	(44) 27.5	(65) 40.6	(28) 17.5	(11) 6.9	(56) 35.0	(65) 40.6	(39) 24.4	(160) 100.0
5) 주거급여(집수리)	(빈도) %	(2) 11.8	(11) 64.7	(4) 23.5	(0) 0.0	(0) 0.0	(13) 76.5	(4) 23.5	(0) 0.0	(17) 100.0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빈도) %	(14) 29.2	(18) 37.5	(16) 33.3	(0) 0.0	(0) 0.0	(32) 66.7	(16) 33.3	(0) 0.0	(48) 10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	(빈도) %	(17) 14.3	(38) 31.9	(53) 44.5	(5) 4.2	(6) 5.0	(55) 46.2	(53) 44.5	(11) 9.2	(119) 100.0

<그림 81>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1)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5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50.0%), 보통 5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0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60대는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5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50.0%), 보통 5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수급 종류별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0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없음은 불만족 5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50.0%), 보통 5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로 나타났다.

<표 124>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1) 주택구입자금 대출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여성	(빈도) %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60대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수급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장애 여부	장애 없음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2) 전세자금 대출은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연령대별로는 60대는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비수급은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없음은 불만족 10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00.0%), 보통 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로 나타났다.

<표 125>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2) 전세자금 대출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연령대	60대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비수급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장애 여부	장애 없음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33.3% + 매우 만족 66.7%), 여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50.0% + 매우 만족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0.0% + 매우 만족 50.0%), 60대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50.0% + 매우 만족 5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50.0% + 매우 만족 50.0%), 조건부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0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 수급 종류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0.0%, 만족 80.0%(만족 40.0% + 매우 만족 40.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장애 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5.0%, 만족 75.0%(만족 25.0% + 매우 만족 50.0%)로 나타났음.

<표 12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2) 40.0	(2) 40.0	(1) 20.0		(4) 80.0	(1) 20.0		(5) 100.0
성별	남성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여성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60대	(빈도) %	(1) 50.0	(1) 50.0			(2) 100.0			(2)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2) 50.0	(2) 50.0			(4) 100.0			(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수급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40.0	(2) 40.0	(1) 20.0		(4) 80.0	(1) 20.0		(5)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장애 없음	(빈도) %	(2) 50.0	(1) 25.0	(1) 25.0		(3) 75.0	(1) 25.0		(4) 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는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25.0%(매우 불만족 6.9% + 불만족 18.1%), 보통 41.7%, 만족 33.3%(만족 26.4% + 매우 만족 6.9%), 여성은 불만족 20.0%(매우 불만족 6.7% + 불만족 13.3%), 보통 26.7%, 만족 53.3%(만족 40.0% + 매우 만족 13.3%),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18.8%(매우 불만족 8.3% + 불만족 10.4%), 보통 35.4%, 만족 45.8%(만족 31.3% + 매우 만족 14.6%), 60대는 불만족 26.7%(매우 불만족 8.3% + 불만족 18.3%), 보통 45.0%, 만족 28.3%(만족 25.0% + 매우 만족 3.3%), 70대 이상은 불만족 27.7%(매우 불만족 4.3% + 불만족 23.4%), 보통 36.2%, 만족 36.2%(만족 29.8% + 매우 만족 6.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28.5%(매우 불만족 7.7% + 불만족 20.8%), 보통 40.0%, 만족 31.5%(만족 27.7% + 매우 만족 3.8%), 조건부 수급은 불만족 13.3%(매우 불만족 6.7% + 불만족 6.7%), 보통 53.3%, 만족 33.3%(만족 20.0% + 매우 만족 13.3%), 차상위계층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42.9%, 만족 57.1%(만족 42.9% + 매우 만족 14.3%), 비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5.0%, 만족 75.0%(만족 25.0% + 매우 만족 5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5.0%, 만족 75.0%(만족 25.0% + 매우 만족 50.0%), 의료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0.0% + 매우 만족 100.0%), 주거급여는 불만족 14.3%(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4.3%), 보통 42.9%, 만족 42.9%(만족 42.9%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30.0%(매우 불만족 10.0% + 불만족 20.0%), 보통 40.0%, 만족 30.0%(만족 20.0% + 매우 만족 1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33.3%(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33.3%), 보통 33.3%, 만족 33.3%(만족 33.3%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26.2%(매우 불만족 7.7% + 불만족 18.5%), 보통 42.3%, 만족 31.5%(만족 27.7% + 매우 만족 3.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불만족 14.8%(매우 불만족 7.4% + 불만족 7.4%), 보통 44.4%, 만족 40.7%(만족 29.6% + 매우 만족 11.1%), 장애 없음은 불만족 26.3%(매우 불만족 6.8% + 불만족 19.5%), 보통 39.8%, 만족 33.8%(만족 27.1% + 매우 만족 6.8%)로 나타났음.

<표 12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4) 주거급여(월세보조)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12) 7.5	(44) 27.7	(64) 40.3	(28) 17.6	(11) 6.9	(56) 35.2	(64) 40.3	(39) 24.5	(15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0) 6.9	(38) 26.4	(60) 41.7	(26) 18.1	(10) 6.9	(48) 33.3	(60) 41.7	(36) 25.0	(144) 100.0
	여성	(빈도) %	(2) 13.3	(6) 40.0	(4) 26.7	(2) 13.3	(1) 6.7	(8) 53.3	(4) 26.7	(3) 20.0	(15)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7) 14.6	(15) 31.3	(17) 35.4	(5) 10.4	(4) 8.3	(22) 45.8	(17) 35.4	(9) 18.8	(48) 100.0
	60대	(빈도) %	(2) 3.3	(15) 25.0	(27) 45.0	(11) 18.3	(5) 8.3	(17) 28.3	(27) 45.0	(16) 26.7	(60) 100.0
	70대 이상	(빈도) %	(3) 6.4	(14) 29.8	(17) 36.2	(11) 23.4	(2) 4.3	(17) 36.2	(17) 36.2	(13) 27.7	(47)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5) 3.8	(36) 27.7	(52) 40.0	(27) 20.8	(10) 7.7	(41) 31.5	(52) 40.0	(37) 28.5	(130)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3.3	(3) 20.0	(8) 53.3	(1) 6.7	(1) 6.7	(5) 33.3	(8) 53.3	(2) 13.3	(15)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4.3	(3) 42.9	(3) 42.9			(4) 57.1	(3) 42.9		(7) 100.0
	비수급	(빈도) %	(4) 50.0	(2) 25.0	(2) 25.0			(6) 75.0	(2) 25.0		(8)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4) 50.0	(2) 25.0	(2) 25.0			(6) 75.0	(2) 25.0		(8) 100.0
	의료급여	(빈도) %	(2) 100.0					(2) 100.0			(2) 100.0
	주거급여	(빈도) %		(3) 42.9	(3) 42.9	(1) 14.3		(3) 42.9	(3) 42.9	(1) 14.3	(7)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	(2) 20.0	(4) 40.0	(2) 20.0	(1) 10.0	(3) 30.0	(4) 40.0	(3) 30.0	(10)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3.8	(36) 27.7	(55) 42.3	(24) 18.5	(10) 7.7	(41) 31.5	(55) 42.3	(34) 26.2	(130)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 11.1	(8) 29.6	(12) 44.4	(2) 7.4	(2) 7.4	(11) 40.7	(12) 44.4	(4) 14.8	(27) 100.0
	장애 없음	(빈도) %	(9) 6.8	(36) 27.1	(53) 39.8	(26) 19.5	(9) 6.8	(45) 33.8	(53) 39.8	(35) 26.3	(133) 100.0

5) 주거급여(집수리)는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0.0%, 만족 70.0%(만족 70.0% + 매우 만족 0.0%), 여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4.3%, 만족 85.7%(만족 57.1% + 매우 만족 28.6%),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3.3%, 만족 66.7%(만족 33.3% + 매우 만족 33.3%), 60대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70대 이상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7.3%, 만족 72.7%(만족 63.6% + 매우 만족 9.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1.4%, 만족 78.6%(만족 71.4% + 매우 만족 7.1%), 조건부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비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0.0% + 매우 만족 50.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0.0% + 매우 만족 50.0%), 생계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0.0% + 매우 만족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0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6.7%, 만족 83.3%(만족 83.3% + 매우 만족 0.0%),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66.7% + 매우 만족 33.3%), 장애 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8.6%, 만족 71.4%(만족 64.3% + 매우 만족 7.1%)로 나타났다.

<표 12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5) 주거급여(집수리)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2) 11.8	(11) 64.7	(4) 23.5		(13) 76.5	(4) 23.5		(17) 100.0
성별	남성	(빈도) %		(7) 70.0	(3) 30.0		(7) 70.0	(3) 30.0		(10) 100.0
	여성	(빈도) %	(2) 28.6	(4) 57.1	(1) 14.3		(6) 85.7	(1) 14.3		(7)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60대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70대 이상	(빈도) %	(1) 9.1	(7) 63.6	(3) 27.3		(8) 72.7	(3) 27.3		(1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 7.1	(10) 71.4	(3) 21.4		(11) 78.6	(3) 21.4		(14)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비수급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0) 83.3	(2) 16.7		(10) 83.3	(2) 16.7		(12)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장애 없음	(빈도) %	(1) 7.1	(9) 64.3	(4) 28.6		(10) 71.4	(4) 28.6		(14) 100.0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3.3%, 만족 66.7%(만족 35.7% + 매우 만족 31.0%), 여성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0.0%, 만족 80.0%(만족 60.0% + 매우 만족 2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40.7%, 만족 59.3%(만족 25.9% + 매우 만족 33.3%), 60대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5.0%, 만족 75.0%(만족 56.3% + 매우 만족 18.8%), 70대 이상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66.7% + 매우 만족 33.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40.9%, 만족 59.1%(만족 45.5% + 매우 만족 13.6%), 조건부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45.5%, 만족 54.5%(만족 27.3% + 매우 만족 27.3%), 차상위계층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3.3%, 만족 66.7%(만족 33.3% + 매우 만족 33.3%), 비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8.3%, 만족 91.7%(만족 33.3% + 매우 만족 58.3%),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8.3%, 만족 91.7%(만족 33.3% + 매우 만족 58.3%), 의료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3.3%, 만족 66.7%(만족 0.0% + 매우 만족 66.7%),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5.0%, 만족 75.0%(만족 75.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100.0%, 만족 0.0%(만족 0.0% + 매우 만족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42.3%, 만족 57.7%(만족 38.5% + 매우 만족 19.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20.0%, 만족 80.0%(만족 40.0% + 매우 만족 40.0%), 장애 없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34.9%, 만족 65.1%(만족 37.2% + 매우 만족 27.9%)로 나타났다.

<표 12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14) 29.8	(18) 38.3	(15) 31.9			(32) 68.1	(15) 31.9		(47) 100.0
성별	남성	(빈도) %	(13) 31.0	(15) 35.7	(14) 33.3			(28) 66.7	(14) 33.3		(42) 100.0
	여성	(빈도) %	(1) 20.0	(3) 60.0	(1) 20.0			(4) 80.0	(1) 20.0		(5)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9) 33.3	(7) 25.9	(11) 40.7			(16) 59.3	(11) 40.7		(27) 100.0
	60대	(빈도) %	(3) 18.8	(9) 56.3	(4) 25.0			(12) 75.0	(4) 25.0		(16) 100.0
	70대 이상	(빈도) %	(1) 33.3	(2) 66.7				(3) 100.0			(3)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 13.6	(10) 45.5	(9) 40.9			(13) 59.1	(9) 40.9		(22)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3) 27.3	(3) 27.3	(5) 45.5			(6) 54.5	(5) 45.5		(11)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비수급	(빈도) %	(7) 58.3	(4) 33.3	(1) 8.3			(11) 91.7	(1) 8.3		(12)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58.3	(4) 33.3	(1) 8.3			(11) 91.7	(1) 8.3		(12)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3) 75.0	(1) 25.0			(3) 75.0	(1) 25.0		(4)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00.0				(2) 100.0		(2)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19.2	(10) 38.5	(11) 42.3			(15) 57.7	(11) 42.3		(26)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40.0	(2) 40.0	(1) 20.0			(4) 80.0	(1) 20.0		(5) 100.0
	장애 없음	(빈도) %	(12) 27.9	(16) 37.2	(15) 34.9			(28) 65.1	(15) 34.9		(43) 10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은

- 성별로는 남성은 불만족 8.4%(매우 불만족 3.7% + 불만족 4.7%), 보통 45.8%, 만족 45.8%(만족 29.9% + 매우 만족 15.9%), 여성은 불만족 16.7%(매우 불만족 16.7% + 불만족 0.0%), 보통 33.3%, 만족 50.0%(만족 50.0% + 매우 만족 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불만족 4.4%(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4.4%), 보통 46.7%, 만족 48.9%(만족 26.7% + 매우 만족 22.2%), 60대는 불만족 9.5%(매우 불만족 4.8% + 불만족 4.8%), 보통 40.5%, 만족 50.0%(만족 40.5% + 매우 만족 9.5%), 70대 이상은 불만족 16.1%(매우 불만족 12.9% + 불만족 3.2%), 보통 48.4%, 만족 35.5%(만족 25.8% + 매우 만족 9.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불만족 9.0%(매우 불만족 6.7% + 불만족 2.2%), 보통 48.3%, 만족 42.7%(만족 32.6% + 매우 만족 10.1%), 조건부 수급은 불만족 14.3%(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14.3%), 보통 50.0%, 만족 35.7%(만족 28.6% + 매우 만족 7.1%), 차상위계층 수급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비수급은 불만족 6.7%(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6.7%), 보통 20.0%, 만족 73.3%(만족 26.7% + 매우 만족 46.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불만족 6.7%(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6.7%), 보통 20.0%, 만족 73.3%(만족 26.7% + 매우 만족 46.7%), 의료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0.0% + 매우 만족 50.0%),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0.0%, 만족 100.0%(만족 10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50.0%, 만족 50.0%(만족 50.0%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4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40.0%), 보통 40.0%, 만족 20.0%(만족 20.0% + 매우 만족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66.7%, 만족 33.3%(만족 33.3% + 매우 만족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불만족 9.0%(매우 불만족 6.7% + 불만족 2.2%), 보통 49.4%, 만족 41.6%(만족 31.5% + 매우 만족 10.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불만족 0.0%(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 0.0%), 보통 60.0%, 만족 40.0%(만족 15.0% + 매우 만족 25.0%), 장애 없음은 불만족 11.1%(매우 불만족 6.1% + 불만족 5.1%), 보통 41.4%, 만족 47.5%(만족 35.4% + 매우 만족 12.1%)로 나타났다.

<표 130>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전 체		(빈도) %	(17) 14.3	(38) 31.9	(53) 44.5	(5) 4.2	(6) 5.0	(55) 46.2	(53) 44.5	(11) 9.2	(119) 100.0
성별	남성	(빈도) %	(17) 15.9	(32) 29.9	(49) 45.8	(5) 4.7	(4) 3.7	(49) 45.8	(49) 45.8	(9) 8.4	(107) 100.0
	여성	(빈도) %		(6) 50.0	(4) 33.3		(2) 16.7	(6) 50.0	(4) 33.3	(2) 16.7	(12)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0) 22.2	(12) 26.7	(21) 46.7	(2) 4.4		(22) 48.9	(21) 46.7	(2) 4.4	(45) 100.0
	60대	(빈도) %	(4) 9.5	(17) 40.5	(17) 40.5	(2) 4.8	(2) 4.8	(21) 50.0	(17) 40.5	(4) 9.5	(42) 100.0
	70대 이상	(빈도) %	(3) 9.7	(8) 25.8	(15) 48.4	(1) 3.2	(4) 12.9	(11) 35.5	(15) 48.4	(5) 16.1	(3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9) 10.1	(29) 32.6	(43) 48.3	(2) 2.2	(6) 6.7	(38) 42.7	(43) 48.3	(8) 9.0	(89)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 7.1	(4) 28.6	(7) 50.0	(2) 14.3		(5) 35.7	(7) 50.0	(2) 14.3	(14)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비수급	(빈도) %	(7) 46.7	(4) 26.7	(3) 20.0	(1) 6.7		(11) 73.3	(3) 20.0	(1) 6.7	(15)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46.7	(4) 26.7	(3) 20.0	(1) 6.7		(11) 73.3	(3) 20.0	(1) 6.7	(15) 100.0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20.0	(2) 40.0	(2) 40.0		(1) 20.0	(2) 40.0	(2) 40.0	(5)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9) 10.1	(28) 31.5	(44) 49.4	(2) 2.2	(6) 6.7	(37) 41.6	(44) 49.4	(8) 9.0	(89)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5) 25.0	(3) 15.0	(12) 60.0			(8) 40.0	(12) 60.0		(20) 100.0
	장애 없음	(빈도) %	(12) 12.1	(35) 35.4	(41) 41.4	(5) 5.1	(6) 6.1	(47) 47.5	(41) 41.4	(11) 11.1	(99) 100.0

27.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질 문	현재 귀하께서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서비스와 필요성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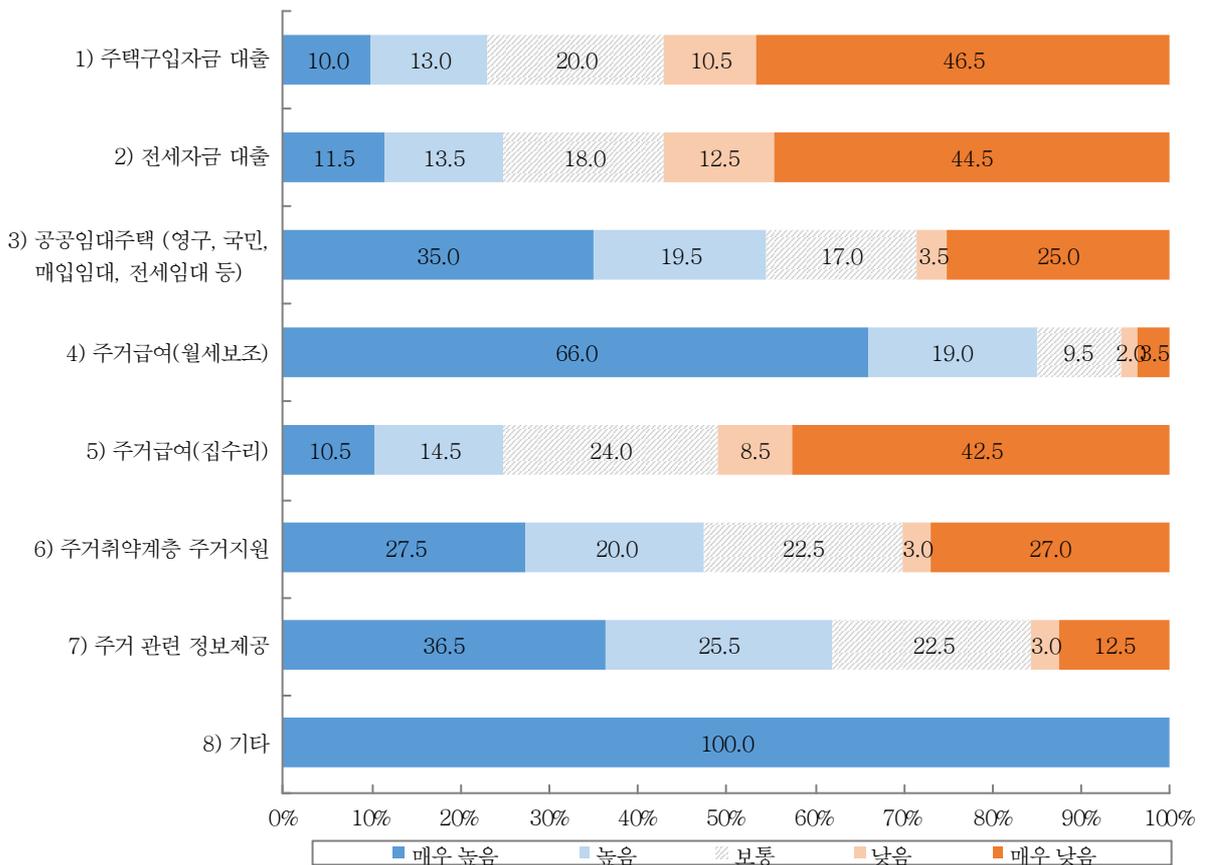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은

- 1)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높음 23.0%(매우 높음 10.0% + 높음 13.0%), 보통 20.0%, 낮음 57.0%(낮음 10.5% + 매우 낮음 46.5%)로 나타났음.
- 2) 전세자금 대출은 높음 25.0%(매우 높음 11.5% + 높음 13.5%), 보통 18.0%, 낮음 57.0%(낮음 12.5% + 매우 낮음 44.5%)로 나타났음.
- 3) 공공임대주택은 높음 54.5%(매우 높음 35.0% + 높음 19.5%), 보통 17.0%, 낮음 28.5%(낮음 3.5% + 매우 낮음 25.0%)로 나타났음.
- 4) 주거급여(월세보조)는 높음 85.0%(매우 높음 66.0% + 높음 19.0%), 보통 9.5%, 낮음 5.5%(낮음 2.0% + 매우 낮음 3.5%)로 나타났음.
- 5) 주거급여(집수리)는 높음 25.0%(매우 높음 10.5% + 높음 14.5%), 보통 24.0%, 낮음 51.0%(낮음 8.5% + 매우 낮음 42.5%)로 나타났음.
-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높음 47.5%(매우 높음 27.5% + 높음 20.0%), 보통 22.5%, 낮음 30.0%(낮음 3.0% + 매우 낮음 27.0%)로 나타났음.
- 7) 주거 관련 정보제공은 높음 62.0%(매우 높음 36.5% + 높음 25.5%), 보통 22.5%, 낮음 15.5%(낮음 3.0% + 매우 낮음 12.5%)로 나타났음.
- 8) 기타는 높음 100.0%(매우 높음 10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로 나타났음.

<표 131>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항목	(빈도) %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높음>	<보통>	<낮음>	
1) 주택구입자금 대출	(20) 10.0	(26) 13.0	(40) 20.0	(21) 10.5	(93) 46.5	(46) 23.0	(40) 20.0	(114) 57.0	(200) 100.0	
2) 전세자금 대출	(23) 11.5	(27) 13.5	(36) 18.0	(25) 12.5	(89) 44.5	(50) 25.0	(36) 18.0	(114) 57.0	(200) 100.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70) 35.0	(39) 19.5	(34) 17.0	(7) 3.5	(50) 25.0	(109) 54.5	(34) 17.0	(57) 28.5	(200) 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	(132) 66.0	(38) 19.0	(19) 9.5	(4) 2.0	(7) 3.5	(170) 85.0	(19) 9.5	(11) 5.5	(200) 100.0	
5) 주거급여(집수리)	(21) 10.5	(29) 14.5	(48) 24.0	(17) 8.5	(85) 42.5	(50) 25.0	(48) 24.0	(102) 51.0	(200) 100.0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55) 27.5	(40) 20.0	(45) 22.5	(6) 3.0	(54) 27.0	(95) 47.5	(45) 22.5	(60) 30.0	(200) 10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	(73) 36.5	(51) 25.5	(45) 22.5	(6) 3.0	(25) 12.5	(124) 62.0	(45) 22.5	(31) 15.5	(200) 100.0	
8) 기타	(1) 100.0					(1) 100.0			(1) 100.0	

<그림 82>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



[응답자 특성별 분석]

1)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23.7%(매우 높음 10.4% + 높음 13.3%), 보통 22.0%, 낮음 54.3%(낮음 8.7% + 매우 낮음 45.7%), 여성은 높음 19.2%(매우 높음 7.7% + 높음 11.5%), 보통 7.7%, 낮음 73.1%(낮음 23.1% + 매우 낮음 50.0%),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26.5%(매우 높음 14.7% + 높음 11.8%), 보통 23.5%, 낮음 50.0%(낮음 5.9% + 매우 낮음 44.1%), 60대는 높음 22.7%(매우 높음 10.6% + 높음 12.1%), 보통 16.7%, 낮음 60.6%(낮음 12.1% + 매우 낮음 48.5%), 70대 이상은 높음 18.0%(매우 높음 3.3% + 높음 14.8%), 보통 19.7%, 낮음 62.3%(낮음 14.8% + 매우 낮음 47.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23.1%(매우 높음 8.2% + 높음 15.0%), 보통 19.7%, 낮음 57.1%(낮음 10.2% + 매우 낮음 46.9%), 조건부 수급은 높음 15.0%(매우 높음 15.0% + 높음 0.0%), 보통 25.0%, 낮음 60.0%(낮음 5.0% + 매우 낮음 5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22.2%(매우 높음 11.1% + 높음 11.1%), 보통 11.1%, 낮음 66.7%(낮음 22.2% + 매우 낮음 44.4%), 비수급은 높음 29.2%(매우 높음 16.7% + 높음 12.5%), 보통 20.8%, 낮음 50.0%(낮음 12.5% + 매우 낮음 37.5%),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29.2%(매우 높음 16.7% + 높음 12.5%), 보통 20.8%, 낮음 50.0%(낮음 12.5% + 매우 낮음 37.5%), 생계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100.0%(낮음 25.0% + 매우 낮음 75.0%), 의료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66.7%(낮음 0.0% + 매우 낮음 66.7%), 주거급여는 높음 33.3%(매우 높음 22.2% + 높음 11.1%), 보통 22.2%, 낮음 44.4%(낮음 22.2% + 매우 낮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36.4%(매우 높음 9.1% + 높음 27.3%), 보통 18.2%, 낮음 45.5%(낮음 0.0% + 매우 낮음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100.0%(낮음 0.0% + 매우 낮음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21.5%(매우 높음 9.0% + 높음 12.5%), 보통 20.8%, 낮음 57.6%(낮음 10.4% + 매우 낮음 47.2%),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28.1%(매우 높음 12.5% + 높음 15.6%), 보통 21.9%, 낮음 50.0%(낮음 12.5% + 매우 낮음 37.5%), 장애 없음은 높음 22.0%(매우 높음 9.5% + 높음 12.5%), 보통 19.6%, 낮음 58.3%(낮음 10.1% + 매우 낮음 48.2%)로 나타났다.

<표 13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1) 주택구입자금 대출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92) 46.2	(21) 10.6	(40) 20.1	(26) 13.1	(20) 10.1	(113) 56.8	(40) 20.1	(46) 23.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79) 45.7	(15) 8.7	(38) 22.0	(23) 13.3	(18) 10.4	(94) 54.3	(38) 22.0	(41) 23.7	(173) 100.0
	여성	(빈도) %	(13) 50.0	(6) 23.1	(2) 7.7	(3) 11.5	(2) 7.7	(19) 73.1	(2) 7.7	(5) 1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30) 44.1	(4) 5.9	(16) 23.5	(8) 11.8	(10) 14.7	(34) 50.0	(16) 23.5	(18) 26.5	(68) 100.0
	60대	(빈도) %	(32) 48.5	(8) 12.1	(11) 16.7	(8) 12.1	(7) 10.6	(40) 60.6	(11) 16.7	(15) 22.7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9) 47.5	(9) 14.8	(12) 19.7	(9) 14.8	(2) 3.3	(38) 62.3	(12) 19.7	(11) 18.0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9) 46.9	(15) 10.2	(29) 19.7	(22) 15.0	(12) 8.2	(84) 57.1	(29) 19.7	(34) 23.1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1) 55.0	(1) 5.0	(5) 25.0		(3) 15.0	(12) 60.0	(5) 25.0	(3) 1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4) 44.4	(2) 22.2	(1) 11.1	(1) 11.1	(1) 11.1	(6) 66.7	(1) 11.1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9) 37.5	(3) 12.5	(5) 20.8	(3) 12.5	(4) 16.7	(12) 50.0	(5) 20.8	(7) 2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9) 37.5	(3) 12.5	(5) 20.8	(3) 12.5	(4) 16.7	(12) 50.0	(5) 20.8	(7) 2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2) 22.2	(2) 22.2	(1) 11.1	(2) 22.2	(4) 44.4	(2) 22.2	(3) 33.3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2) 18.2	(3) 27.3	(1) 9.1	(5) 45.5	(2) 18.2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8) 47.2	(15) 10.4	(30) 20.8	(18) 12.5	(13) 9.0	(83) 57.6	(30) 20.8	(31) 21.5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2) 37.5	(4) 12.5	(7) 21.9	(5) 15.6	(4) 12.5	(16) 50.0	(7) 21.9	(9) 28.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81) 48.2	(17) 10.1	(33) 19.6	(21) 12.5	(16) 9.5	(98) 58.3	(33) 19.6	(37) 22.0	(168) 100.0

2) 전세자금 대출은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26.0%(매우 높음 11.6% + 높음 14.5%), 보통 19.1%, 낮음 54.9%(낮음 11.0% + 매우 낮음 43.9%), 여성은 높음 19.2%(매우 높음 11.5% + 높음 7.7%), 보통 11.5%, 낮음 69.2%(낮음 23.1% + 매우 낮음 46.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30.9%(매우 높음 19.1% + 높음 11.8%), 보통 19.1%, 낮음 50.0%(낮음 8.8% + 매우 낮음 41.2%), 60대는 높음 24.2%(매우 높음 12.1% + 높음 12.1%), 보통 15.2%, 낮음 60.6%(낮음 12.1% + 매우 낮음 48.5%), 70대 이상은 높음 19.7%(매우 높음 3.3% + 높음 16.4%), 보통 19.7%, 낮음 60.7%(낮음 16.4% + 매우 낮음 44.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23.8%(매우 높음 8.2% + 높음 15.6%), 보통 18.4%, 낮음 57.8%(낮음 12.9% + 매우 낮음 44.9%), 조건부 수급은 높음 20.0%(매우 높음 20.0% + 높음 0.0%), 보통 20.0%, 낮음 60.0%(낮음 5.0% + 매우 낮음 5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22.2%(매우 높음 11.1% + 높음 11.1%), 보통 0.0%, 낮음 77.8%(낮음 22.2% + 매우 낮음 55.6%), 비수급은 높음 37.5%(매우 높음 25.0% + 높음 12.5%), 보통 20.8%, 낮음 41.7%(낮음 12.5% + 매우 낮음 29.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37.5%(매우 높음 25.0% + 높음 12.5%), 보통 20.8%, 낮음 41.7%(낮음 12.5% + 매우 낮음 29.2%), 생계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100.0%(낮음 25.0% + 매우 낮음 75.0%), 의료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66.7%(낮음 0.0% + 매우 낮음 66.7%), 주거급여는 높음 33.3%(매우 높음 22.2% + 높음 11.1%), 보통 11.1%, 낮음 55.6%(낮음 22.2% + 매우 낮음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5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36.4%(매우 높음 9.1% + 높음 27.3%), 보통 18.2%, 낮음 45.5%(낮음 0.0% + 매우 낮음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100.0%(낮음 0.0% + 매우 낮음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23.6%(매우 높음 9.7% + 높음 13.9%), 보통 18.1%, 낮음 58.3%(낮음 13.2% + 매우 낮음 45.1%),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31.3%(매우 높음 18.8% + 높음 12.5%), 보통 21.9%, 낮음 46.9%(낮음 12.5% + 매우 낮음 34.4%), 장애 없음은 높음 23.8%(매우 높음 10.1% + 높음 13.7%), 보통 17.3%, 낮음 58.9%(낮음 12.5% + 매우 낮음 46.4%)로 나타났다.

<표 133>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2) 전세자금 대출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88) 44.2	(25) 12.6	(36) 18.1	(27) 13.6	(23) 11.6	(113) 56.8	(36) 18.1	(50) 25.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76) 43.9	(19) 11.0	(33) 19.1	(25) 14.5	(20) 11.6	(95) 54.9	(33) 19.1	(45) 26.0	(173) 100.0
	여성	(빈도) %	(12) 46.2	(6) 23.1	(3) 11.5	(2) 7.7	(3) 11.5	(18) 69.2	(3) 11.5	(5) 19.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8) 41.2	(6) 8.8	(13) 19.1	(8) 11.8	(13) 19.1	(34) 50.0	(13) 19.1	(21) 30.9	(68) 100.0
	60대	(빈도) %	(32) 48.5	(8) 12.1	(10) 15.2	(8) 12.1	(8) 12.1	(40) 60.6	(10) 15.2	(16) 24.2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7) 44.3	(10) 16.4	(12) 19.7	(10) 16.4	(2) 3.3	(37) 60.7	(12) 19.7	(12) 19.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6) 44.9	(19) 12.9	(27) 18.4	(23) 15.6	(12) 8.2	(85) 57.8	(27) 18.4	(35) 23.8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11) 55.0	(1) 5.0	(4) 20.0		(4) 20.0	(12) 60.0	(4) 20.0	(4) 2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5) 55.6	(2) 22.2		(1) 11.1	(1) 11.1	(7) 77.8		(2) 22.2	(9) 100.0
	비수급	(빈도) %	(7) 29.2	(3) 12.5	(5) 20.8	(3) 12.5	(6) 25.0	(10) 41.7	(5) 20.8	(9) 37.5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7) 29.2	(3) 12.5	(5) 20.8	(3) 12.5	(6) 25.0	(10) 41.7	(5) 20.8	(9) 37.5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3) 33.3	(2) 22.2	(1) 11.1	(1) 11.1	(2) 22.2	(5) 55.6	(1) 11.1	(3) 33.3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2) 18.2	(3) 27.3	(1) 9.1	(5) 45.5	(2) 18.2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5) 45.1	(19) 13.2	(26) 18.1	(20) 13.9	(14) 9.7	(84) 58.3	(26) 18.1	(34) 23.6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1) 34.4	(4) 12.5	(7) 21.9	(4) 12.5	(6) 18.8	(15) 46.9	(7) 21.9	(10) 31.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78) 46.4	(21) 12.5	(29) 17.3	(23) 13.7	(17) 10.1	(99) 58.9	(29) 17.3	(40) 23.8	(168) 100.0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54.9%(매우 높음 34.1% + 높음 20.8%), 보통 18.5%, 낮음 26.6%(낮음 2.3% + 매우 낮음 24.3%), 여성은 높음 53.8%(매우 높음 42.3% + 높음 11.5%), 보통 7.7%, 낮음 38.5%(낮음 11.5% + 매우 낮음 26.9%),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58.8%(매우 높음 42.6% + 높음 16.2%), 보통 14.7%, 낮음 26.5%(낮음 4.4% + 매우 낮음 22.1%), 60대는 높음 59.1%(매우 높음 36.4% + 높음 22.7%), 보통 15.2%, 낮음 25.8%(낮음 1.5% + 매우 낮음 24.2%), 70대 이상은 높음 44.3%(매우 높음 23.0% + 높음 21.3%), 보통 21.3%, 낮음 34.4%(낮음 4.9% + 매우 낮음 29.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52.4%(매우 높음 31.3% + 높음 21.1%), 보통 19.7%, 낮음 27.9%(낮음 2.7% + 매우 낮음 25.2%), 조건부 수급은 높음 55.0%(매우 높음 45.0% + 높음 10.0%), 보통 15.0%, 낮음 30.0%(낮음 10.0% + 매우 낮음 2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55.6%(매우 높음 33.3% + 높음 22.2%), 보통 11.1%, 낮음 33.3%(낮음 0.0% + 매우 낮음 33.3%), 비수급은 높음 66.7%(매우 높음 50.0% + 높음 16.7%), 보통 4.2%, 낮음 29.2%(낮음 4.2% + 매우 낮음 25.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66.7%(매우 높음 50.0% + 높음 16.7%), 보통 4.2%, 낮음 29.2%(낮음 4.2% + 매우 낮음 25.0%), 생계급여는 높음 25.0%(매우 높음 25.0% + 높음 0.0%), 보통 25.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의료급여는 높음 66.7%(매우 높음 66.7%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주거급여는 높음 55.6%(매우 높음 33.3% + 높음 22.2%), 보통 11.1%, 낮음 33.3%(낮음 11.1% + 매우 낮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45.5%(매우 높음 27.3% + 높음 18.2%), 보통 9.1%, 낮음 45.5%(낮음 0.0% + 매우 낮음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33.3%(매우 높음 0.0% + 높음 33.3%), 보통 33.3%, 낮음 33.3%(낮음 0.0% + 매우 낮음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54.2%(매우 높음 34.0% + 높음 20.1%), 보통 19.4%, 낮음 26.4%(낮음 3.5% + 매우 낮음 22.9%),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56.3%(매우 높음 37.5% + 높음 18.8%), 보통 12.5%, 낮음 31.3%(낮음 3.1% + 매우 낮음 28.1%), 장애 없음은 높음 54.2%(매우 높음 34.5% + 높음 19.6%), 보통 17.9%, 낮음 28.0%(낮음 3.6% + 매우 낮음 24.4%)로 나타났다.

<표 134>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49) 24.6	(7) 3.5	(34) 17.1	(39) 19.6	(70) 35.2	(56) 28.1	(34) 17.1	(109) 54.8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2) 24.3	(4) 2.3	(32) 18.5	(36) 20.8	(59) 34.1	(46) 26.6	(32) 18.5	(95) 54.9	(173) 100.0
	여성	(빈도) %	(7) 26.9	(3) 11.5	(2) 7.7	(3) 11.5	(11) 42.3	(10) 38.5	(2) 7.7	(14) 53.8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5) 22.1	(3) 4.4	(10) 14.7	(11) 16.2	(29) 42.6	(18) 26.5	(10) 14.7	(40) 58.8	(68) 100.0
	60대	(빈도) %	(16) 24.2	(1) 1.5	(10) 15.2	(15) 22.7	(24) 36.4	(17) 25.8	(10) 15.2	(39) 59.1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8) 29.5	(3) 4.9	(13) 21.3	(13) 21.3	(14) 23.0	(21) 34.4	(13) 21.3	(27) 44.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37) 25.2	(4) 2.7	(29) 19.7	(31) 21.1	(46) 31.3	(41) 27.9	(29) 19.7	(77) 52.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2) 10.0	(3) 15.0	(2) 10.0	(9) 45.0	(6) 30.0	(3) 15.0	(11) 5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1) 11.1	(2) 22.2	(3) 33.3	(3) 33.3	(1) 11.1	(5) 55.6	(9) 100.0
	비수급	(빈도) %	(6) 25.0	(1) 4.2	(1) 4.2	(4) 16.7	(12) 50.0	(7) 29.2	(1) 4.2	(16) 66.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6) 25.0	(1) 4.2	(1) 4.2	(4) 16.7	(12) 50.0	(7) 29.2	(1) 4.2	(16) 66.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2) 50.0	(1) 2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1) 11.1	(1) 11.1	(2) 22.2	(3) 33.3	(3) 33.3	(1) 11.1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1) 9.1	(2) 18.2	(3) 27.3	(5) 45.5	(1) 9.1	(5) 45.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3) 22.9	(5) 3.5	(28) 19.4	(29) 20.1	(49) 34.0	(38) 26.4	(28) 19.4	(78) 54.2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9) 28.1	(1) 3.1	(4) 12.5	(6) 18.8	(12) 37.5	(10) 31.3	(4) 12.5	(18) 56.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1) 24.4	(6) 3.6	(30) 17.9	(33) 19.6	(58) 34.5	(47) 28.0	(30) 17.9	(91) 54.2	(168) 100.0

4) 주거급여(월세보조)는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86.7%(매우 높음 68.2% + 높음 18.5%), 보통 10.4%, 낮음 2.9%(낮음 1.2% + 매우 낮음 1.7%), 여성은 높음 73.1%(매우 높음 50.0% + 높음 23.1%), 보통 3.8%, 낮음 23.1%(낮음 7.7% + 매우 낮음 15.4%),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86.8%(매우 높음 73.5% + 높음 13.2%), 보통 10.3%, 낮음 2.9%(낮음 1.5% + 매우 낮음 1.5%), 60대는 높음 86.4%(매우 높음 68.2% + 높음 18.2%), 보통 12.1%, 낮음 1.5%(낮음 1.5% + 매우 낮음 0.0%), 70대 이상은 높음 80.3%(매우 높음 54.1% + 높음 26.2%), 보통 6.6%, 낮음 13.1%(낮음 3.3% + 매우 낮음 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86.4%(매우 높음 66.0% + 높음 20.4%), 보통 8.2%, 낮음 5.4%(낮음 1.4% + 매우 낮음 4.1%), 조건부 수급은 높음 80.0%(매우 높음 75.0% + 높음 5.0%), 보통 20.0%,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88.9%(매우 높음 66.7% + 높음 22.2%), 보통 0.0%, 낮음 11.1%(낮음 11.1% + 매우 낮음 0.0%), 비수급은 높음 79.2%(매우 높음 58.3% + 높음 20.8%), 보통 12.5%, 낮음 8.3%(낮음 4.2% + 매우 낮음 4.2%),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79.2%(매우 높음 58.3% + 높음 20.8%), 보통 12.5%, 낮음 8.3%(낮음 4.2% + 매우 낮음 4.2%), 생계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25.0% + 높음 25.0%), 보통 0.0%, 낮음 50.0%(낮음 25.0% + 매우 낮음 25.0%), 의료급여는 높음 66.7%(매우 높음 66.7%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주거급여는 높음 88.9%(매우 높음 55.6% + 높음 33.3%), 보통 11.1%,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81.8%(매우 높음 63.6% + 높음 18.2%), 보통 18.2%,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100.0%(매우 높음 10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87.5%(매우 높음 69.4% + 높음 18.1%), 보통 8.3%, 낮음 4.2%(낮음 1.4% + 매우 낮음 2.8%),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81.3%(매우 높음 59.4% + 높음 21.9%), 보통 12.5%, 낮음 6.3%(낮음 0.0% + 매우 낮음 6.3%), 장애 없음은 높음 85.7%(매우 높음 67.3% + 높음 18.5%), 보통 8.9%, 낮음 5.4%(낮음 2.4% + 매우 낮음 3.0%)로 나타났다.

<표 135>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4) 주거급여(월세보조)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7) 3.5	(4) 2.0	(19) 9.5	(38) 19.1	(131) 65.8	(11) 5.5	(19) 9.5	(169) 84.9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3) 1.7	(2) 1.2	(18) 10.4	(32) 18.5	(118) 68.2	(5) 2.9	(18) 10.4	(150) 86.7	(173) 100.0
	여성	(빈도) %	(4) 15.4	(2) 7.7	(1) 3.8	(6) 23.1	(13) 50.0	(6) 23.1	(1) 3.8	(19) 73.1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5	(1) 1.5	(7) 10.3	(9) 13.2	(50) 73.5	(2) 2.9	(7) 10.3	(59) 86.8	(68) 100.0
	60대	(빈도) %		(1) 1.5	(8) 12.1	(12) 18.2	(45) 68.2	(1) 1.5	(8) 12.1	(57) 86.4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6) 9.8	(2) 3.3	(4) 6.6	(16) 26.2	(33) 54.1	(8) 13.1	(4) 6.6	(49) 80.3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 4.1	(2) 1.4	(12) 8.2	(30) 20.4	(97) 66.0	(8) 5.4	(12) 8.2	(127) 86.4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4) 20.0	(1) 5.0	(15) 75.0		(4) 20.0	(16) 80.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1) 11.1		(2) 22.2	(6) 66.7	(1) 11.1		(8) 88.9	(9) 100.0
	비수급	(빈도) %	(1) 4.2	(1) 4.2	(3) 12.5	(5) 20.8	(14) 58.3	(2) 8.3	(3) 12.5	(19) 79.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 4.2	(1) 4.2	(3) 12.5	(5) 20.8	(14) 58.3	(2) 8.3	(3) 12.5	(19) 79.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2) 66.7		(1) 33.3	(2) 66.7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3) 33.3	(5) 55.6		(1) 11.1	(8) 88.9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2) 18.2	(7) 63.6		(2) 18.2	(9) 81.8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100.0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2.8	(2) 1.4	(12) 8.3	(26) 18.1	(100) 69.4	(6) 4.2	(12) 8.3	(126) 87.5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2) 6.3		(4) 12.5	(7) 21.9	(19) 59.4	(2) 6.3	(4) 12.5	(26) 81.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 3.0	(4) 2.4	(15) 8.9	(31) 18.5	(113) 67.3	(9) 5.4	(15) 8.9	(144) 85.7	(168) 100.0

5) 주거급여(집수리)는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23.7%(매우 높음 9.2% + 높음 14.5%), 보통 24.3%, 낮음 52.0%(낮음 7.5% + 매우 낮음 44.5%), 여성은 높음 34.6%(매우 높음 19.2% + 높음 15.4%), 보통 23.1%, 낮음 42.3%(낮음 15.4% + 매우 낮음 26.9%),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23.5%(매우 높음 13.2% + 높음 10.3%), 보통 26.5%, 낮음 50.0%(낮음 7.4% + 매우 낮음 42.6%), 60대는 높음 22.7%(매우 높음 6.1% + 높음 16.7%), 보통 21.2%, 낮음 56.1%(낮음 4.5% + 매우 낮음 51.5%), 70대 이상은 높음 27.9%(매우 높음 13.1% + 높음 14.8%), 보통 24.6%, 낮음 47.5%(낮음 13.1% + 매우 낮음 34.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24.5%(매우 높음 9.5% + 높음 15.0%), 보통 25.9%, 낮음 49.7%(낮음 7.5% + 매우 낮음 42.2%), 조건부 수급은 높음 35.0%(매우 높음 25.0% + 높음 10.0%), 보통 15.0%, 낮음 50.0%(낮음 15.0% + 매우 낮음 3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11.1%(매우 높음 0.0% + 높음 11.1%), 보통 11.1%, 낮음 77.8%(낮음 11.1% + 매우 낮음 66.7%), 비수급은 높음 25.0%(매우 높음 8.3% + 높음 16.7%), 보통 25.0%, 낮음 50.0%(낮음 8.3% + 매우 낮음 41.7%),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25.0%(매우 높음 8.3% + 높음 16.7%), 보통 25.0%, 낮음 50.0%(낮음 8.3% + 매우 낮음 41.7%), 생계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25.0%, 낮음 75.0%(낮음 25.0% + 매우 낮음 50.0%), 의료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66.7%(낮음 33.3% + 매우 낮음 33.3%), 주거급여는 높음 22.2%(매우 높음 11.1% + 높음 11.1%), 보통 22.2%, 낮음 55.6%(낮음 11.1% + 매우 낮음 44.4%),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100.0%(매우 높음 5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36.4%(매우 높음 18.2% + 높음 18.2%), 보통 18.2%, 낮음 45.5%(낮음 0.0% + 매우 낮음 45.5%),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66.7%(낮음 0.0% + 매우 낮음 66.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25.0%(매우 높음 10.4% + 높음 14.6%), 보통 24.3%, 낮음 50.7%(낮음 8.3% + 매우 낮음 42.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28.1%(매우 높음 12.5% + 높음 15.6%), 보통 18.8%, 낮음 53.1%(낮음 3.1% + 매우 낮음 50.0%), 장애 없음은 높음 24.4%(매우 높음 10.1% + 높음 14.3%), 보통 25.0%, 낮음 50.6%(낮음 9.5% + 매우 낮음 41.1%)로 나타났다.

<표 136>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5) 주거급여(집수리)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84) 42.2	(17) 8.5	(48) 24.1	(29) 14.6	(21) 10.6	(101) 50.8	(48) 24.1	(50) 25.1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77) 44.5	(13) 7.5	(42) 24.3	(25) 14.5	(16) 9.2	(90) 52.0	(42) 24.3	(41) 23.7	(173) 100.0
	여성	(빈도) %	(7) 26.9	(4) 15.4	(6) 23.1	(4) 15.4	(5) 19.2	(11) 42.3	(6) 23.1	(9) 34.6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9) 42.6	(5) 7.4	(18) 26.5	(7) 10.3	(9) 13.2	(34) 50.0	(18) 26.5	(16) 23.5	(68) 100.0
	60대	(빈도) %	(34) 51.5	(3) 4.5	(14) 21.2	(11) 16.7	(4) 6.1	(37) 56.1	(14) 21.2	(15) 22.7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1) 34.4	(8) 13.1	(15) 24.6	(9) 14.8	(8) 13.1	(29) 47.5	(15) 24.6	(17) 27.9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62) 42.2	(11) 7.5	(38) 25.9	(22) 15.0	(14) 9.5	(73) 49.7	(38) 25.9	(36) 24.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7) 35.0	(3) 15.0	(3) 15.0	(2) 10.0	(5) 25.0	(10) 50.0	(3) 15.0	(7) 3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6) 66.7	(1) 11.1	(1) 11.1	(1) 11.1		(7) 77.8	(1) 11.1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10) 41.7	(2) 8.3	(6) 25.0	(4) 16.7	(2) 8.3	(12) 50.0	(6) 25.0	(6) 25.0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0) 41.7	(2) 8.3	(6) 25.0	(4) 16.7	(2) 8.3	(12) 50.0	(6) 25.0	(6) 25.0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2) 66.7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4) 44.4	(1) 11.1	(2) 22.2	(1) 11.1	(1) 11.1	(5) 55.6	(2) 22.2	(2) 22.2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45.5		(2) 18.2	(2) 18.2	(2) 18.2	(5) 45.5	(2) 18.2	(4) 36.4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61) 42.4	(12) 8.3	(35) 24.3	(21) 14.6	(15) 10.4	(73) 50.7	(35) 24.3	(36) 25.0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6) 50.0	(1) 3.1	(6) 18.8	(5) 15.6	(4) 12.5	(17) 53.1	(6) 18.8	(9) 28.1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69) 41.1	(16) 9.5	(42) 25.0	(24) 14.3	(17) 10.1	(85) 50.6	(42) 25.0	(41) 24.4	(168) 100.0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48.0%(매우 높음 26.6% + 높음 21.4%), 보통 22.5%, 낮음 29.5%(낮음 1.7% + 매우 낮음 27.7%), 여성은 높음 42.3%(매우 높음 30.8% + 높음 11.5%), 보통 23.1%, 낮음 34.6%(낮음 11.5% + 매우 낮음 23.1%),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55.9%(매우 높음 38.2% + 높음 17.6%), 보통 16.2%, 낮음 27.9%(낮음 1.5% + 매우 낮음 26.5%), 60대는 높음 45.5%(매우 높음 24.2% + 높음 21.2%), 보통 22.7%, 낮음 31.8%(낮음 0.0% + 매우 낮음 31.8%), 70대 이상은 높음 37.7%(매우 높음 16.4% + 높음 21.3%), 보통 29.5%, 낮음 32.8%(낮음 8.2% + 매우 낮음 24.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43.5%(매우 높음 23.8% + 높음 19.7%), 보통 26.5%, 낮음 29.9%(낮음 2.7% + 매우 낮음 27.2%), 조건부 수급은 높음 55.0%(매우 높음 50.0% + 높음 5.0%), 보통 15.0%, 낮음 30.0%(낮음 5.0% + 매우 낮음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44.4%(매우 높음 22.2% + 높음 22.2%), 보통 0.0%, 낮음 55.6%(낮음 11.1% + 매우 낮음 44.4%), 비수급은 높음 66.7%(매우 높음 33.3% + 높음 33.3%), 보통 12.5%, 낮음 20.8%(낮음 0.0% + 매우 낮음 20.8%),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66.7%(매우 높음 33.3% + 높음 33.3%), 보통 12.5%, 낮음 20.8%(낮음 0.0% + 매우 낮음 20.8%), 생계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25.0%, 낮음 75.0%(낮음 25.0% + 매우 낮음 50.0%), 의료급여는 높음 33.3%(매우 높음 33.3%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33.3%(낮음 0.0% + 매우 낮음 33.3%), 주거급여는 높음 55.6%(매우 높음 33.3% + 높음 22.2%), 보통 11.1%, 낮음 33.3%(낮음 11.1% + 매우 낮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54.5%(매우 높음 27.3% + 높음 27.3%), 보통 18.2%, 낮음 27.3%(낮음 0.0% + 매우 낮음 27.3%),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0.0%(매우 높음 0.0%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66.7%(낮음 0.0% + 매우 낮음 66.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45.8%(매우 높음 27.8% + 높음 18.1%), 보통 25.0%, 낮음 29.2%(낮음 2.8% + 매우 낮음 26.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40.6%(매우 높음 21.9% + 높음 18.8%), 보통 28.1%, 낮음 31.3%(낮음 0.0% + 매우 낮음 31.3%), 장애 없음은 높음 48.8%(매우 높음 28.6% + 높음 20.2%), 보통 21.4%, 낮음 29.8%(낮음 3.6% + 매우 낮음 26.2%)로 나타났다.

<표 137>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54) 27.1	(6) 3.0	(45) 22.6	(40) 20.1	(54) 27.1	(60) 30.2	(45) 22.6	(94) 47.2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48) 27.7	(3) 1.7	(39) 22.5	(37) 21.4	(46) 26.6	(51) 29.5	(39) 22.5	(83) 48.0	(173) 100.0
	여성	(빈도) %	(6) 23.1	(3) 11.5	(6) 23.1	(3) 11.5	(8) 30.8	(9) 34.6	(6) 23.1	(11) 42.3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8) 26.5	(1) 1.5	(11) 16.2	(12) 17.6	(26) 38.2	(19) 27.9	(11) 16.2	(38) 55.9	(68) 100.0
	60대	(빈도) %	(21) 31.8		(15) 22.7	(14) 21.2	(16) 24.2	(21) 31.8	(15) 22.7	(30) 45.5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5) 24.6	(5) 8.2	(18) 29.5	(13) 21.3	(10) 16.4	(20) 32.8	(18) 29.5	(23) 37.7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40) 27.2	(4) 2.7	(39) 26.5	(29) 19.7	(35) 23.8	(44) 29.9	(39) 26.5	(64) 43.5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5) 25.0	(1) 5.0	(3) 15.0	(1) 5.0	(10) 50.0	(6) 30.0	(3) 15.0	(11) 5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4) 44.4	(1) 11.1		(2) 22.2	(2) 22.2	(5) 55.6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5) 20.8		(3) 12.5	(8) 33.3	(8) 33.3	(5) 20.8	(3) 12.5	(16) 66.7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5) 20.8		(3) 12.5	(8) 33.3	(8) 33.3	(5) 20.8	(3) 12.5	(16) 66.7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2) 50.0	(1) 25.0	(1) 25.0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1) 11.1	(1) 11.1	(2) 22.2	(3) 33.3	(3) 33.3	(1) 11.1	(5) 55.6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3) 27.3		(2) 18.2	(3) 27.3	(3) 27.3	(3) 27.3	(2) 18.2	(6) 54.5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2) 66.7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38) 26.4	(4) 2.8	(36) 25.0	(26) 18.1	(40) 27.8	(42) 29.2	(36) 25.0	(66) 45.8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0) 31.3		(9) 28.1	(6) 18.8	(7) 21.9	(10) 31.3	(9) 28.1	(13) 40.6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44) 26.2	(6) 3.6	(36) 21.4	(34) 20.2	(48) 28.6	(50) 29.8	(36) 21.4	(82) 48.8	(168) 100.0

7) 주거 관련 정보제공은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음 64.7%(매우 높음 37.0% + 높음 27.7%), 보통 22.0%, 낮음 13.3%(낮음 1.7% + 매우 낮음 11.6%), 여성은 높음 46.2%(매우 높음 34.6% + 높음 11.5%), 보통 23.1%, 낮음 30.8%(낮음 11.5% + 매우 낮음 19.2%),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높음 73.5%(매우 높음 44.1% + 높음 29.4%), 보통 17.6%, 낮음 8.8% (낮음 2.9% + 매우 낮음 5.9%), 60대는 높음 63.6%(매우 높음 39.4% + 높음 24.2%), 보통 21.2%, 낮음 15.2%(낮음 0.0% + 매우 낮음 15.2%), 70대 이상은 높음 47.5%(매우 높음 24.6% + 높음 23.0%), 보통 27.9%, 낮음 24.6%(낮음 6.6% + 매우 낮음 18.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높음 59.9%(매우 높음 34.7% + 높음 25.2%), 보통 26.5%, 낮음 13.6%(낮음 2.0% + 매우 낮음 11.6%), 조건부 수급은 높음 75.0%(매우 높음 45.0% + 높음 30.0%), 보통 5.0%, 낮음 20.0%(낮음 10.0% + 매우 낮음 10.0%), 차상위계층 수급은 높음 44.4%(매우 높음 22.2% + 높음 22.2%), 보통 11.1%, 낮음 44.4%(낮음 11.1% + 매우 낮음 33.3%), 비수급은 높음 70.8%(매우 높음 45.8% + 높음 25.0%), 보통 16.7%, 낮음 12.5%(낮음 0.0% + 매우 낮음 12.5%),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높음 70.8%(매우 높음 45.8% + 높음 25.0%), 보통 16.7%, 낮음 12.5%(낮음 0.0% + 매우 낮음 12.5%), 생계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50.0% + 높음 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25.0% + 매우 낮음 25.0%), 의료급여는 높음 33.3%(매우 높음 33.3% + 높음 0.0%), 보통 33.3%, 낮음 33.3%(낮음 0.0% + 매우 낮음 33.3%), 주거급여는 높음 44.4%(매우 높음 22.2% + 높음 22.2%), 보통 22.2%, 낮음 33.3%(낮음 11.1% + 매우 낮음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높음 50.0%(매우 높음 0.0% + 높음 50.0%), 보통 0.0%, 낮음 50.0%(낮음 0.0% + 매우 낮음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63.6%(매우 높음 27.3% + 높음 36.4%), 보통 18.2%, 낮음 18.2%(낮음 0.0% + 매우 낮음 18.2%),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100.0%(매우 높음 33.3% + 높음 66.7%), 보통 0.0%, 낮음 0.0%(낮음 0.0% + 매우 낮음 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높음 61.8%(매우 높음 36.8% + 높음 25.0%), 보통 25.0%, 낮음 13.2%(낮음 2.8% + 매우 낮음 10.4%),
- 장애 유형별로는 장애 있음은 높음 59.4%(매우 높음 46.9% + 높음 12.5%), 보통 31.3%, 낮음 9.4%(낮음 0.0% + 매우 낮음 9.4%), 장애 없음은 높음 62.5%(매우 높음 34.5% + 높음 28.0%), 보통 20.8%, 낮음 16.7%(낮음 3.6% + 매우 낮음 13.1%)로 나타났음.

<표 138>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7) 주거 관련 정보제공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25) 12.6	(6) 3.0	(44) 22.1	(51) 25.6	(73) 36.7	(31) 15.6	(44) 22.1	(124) 62.3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20) 11.6	(3) 1.7	(38) 22.0	(48) 27.7	(64) 37.0	(23) 13.3	(38) 22.0	(112) 64.7	(173) 100.0
	여성	(빈도) %	(5) 19.2	(3) 11.5	(6) 23.1	(3) 11.5	(9) 34.6	(8) 30.8	(6) 23.1	(12) 46.2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4) 5.9	(2) 2.9	(12) 17.6	(20) 29.4	(30) 44.1	(6) 8.8	(12) 17.6	(50) 73.5	(68) 100.0
	60대	(빈도) %	(10) 15.2		(14) 21.2	(16) 24.2	(26) 39.4	(10) 15.2	(14) 21.2	(42) 63.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11) 18.0	(4) 6.6	(17) 27.9	(14) 23.0	(15) 24.6	(15) 24.6	(17) 27.9	(29) 47.5	(61)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7) 11.6	(3) 2.0	(39) 26.5	(37) 25.2	(51) 34.7	(20) 13.6	(39) 26.5	(88) 59.9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2) 10.0	(2) 10.0	(1) 5.0	(6) 30.0	(9) 45.0	(4) 20.0	(1) 5.0	(15) 7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1) 11.1	(1) 11.1	(2) 22.2	(2) 22.2	(4) 44.4	(1) 11.1	(4) 44.4	(9) 100.0
	비수급	(빈도) %	(3) 12.5		(4) 16.7	(6) 25.0	(11) 45.8	(3) 12.5	(4) 16.7	(17) 70.8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3) 12.5		(4) 16.7	(6) 25.0	(11) 45.8	(3) 12.5	(4) 16.7	(17) 70.8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1) 25.0	(1) 25.0			(2) 50.0	(2) 50.0		(2) 50.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1) 33.3	(1) 33.3	(3) 33.3	(9) 100.0
	주거급여	(빈도) %	(2) 22.2	(1) 11.1	(2) 22.2	(2) 22.2	(2) 22.2	(3) 33.3	(2) 22.2	(4) 44.4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18.2		(2) 18.2	(4) 36.4	(3) 27.3	(2) 18.2	(2) 18.2	(7) 63.6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2) 66.7	(1) 33.3			(3) 100.0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5) 10.4	(4) 2.8	(36) 25.0	(36) 25.0	(53) 36.8	(19) 13.2	(36) 25.0	(89) 61.8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3) 9.4		(10) 31.3	(4) 12.5	(15) 46.9	(3) 9.4	(10) 31.3	(19) 59.4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22) 13.1	(6) 3.6	(35) 20.8	(47) 28.0	(58) 34.5	(28) 16.7	(35) 20.8	(105) 62.5	(168) 100.0

8) 기타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139>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서비스 필요성_8) 기타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 체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성별	남성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여성	(빈도) %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60대	(빈도) %								
	70대 이상	(빈도)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비수급	(빈도) %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생계급여	(빈도) %								
	의료급여	(빈도) %								
	주거급여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장애 없음	(빈도) %	(1) 100.0					(1) 100.0	(1) 100.0	

28.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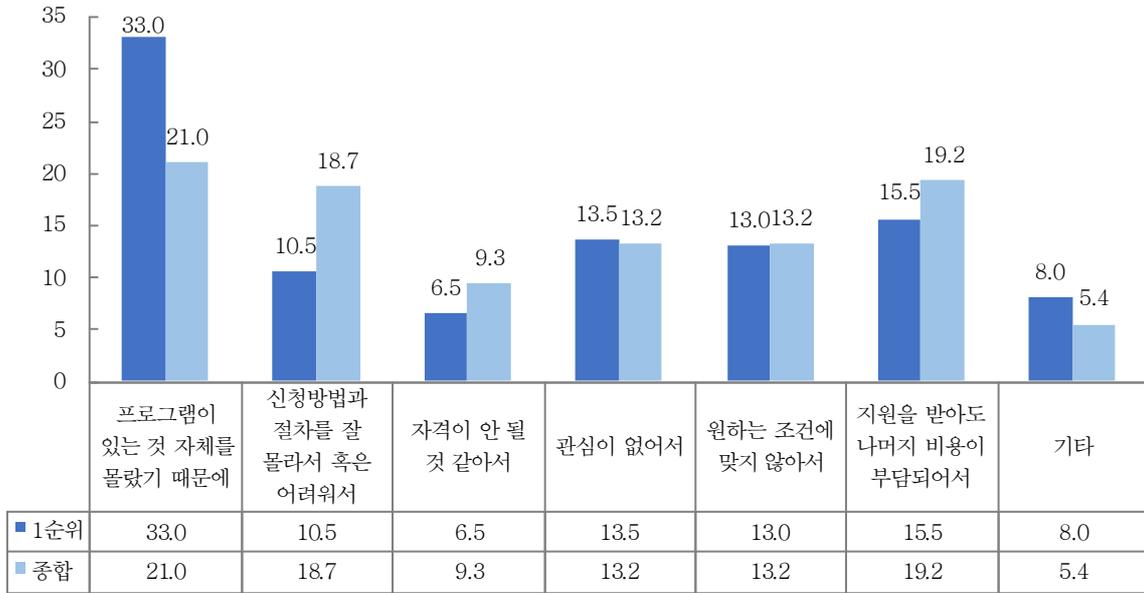
질 문	귀하께서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5.5%, 관심이 없어서 13.5%,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13.0%,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10.5%, 기타 8.0%,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6.5% 순으로 나타났음.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가 2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3.1%,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13.4%, 관심이 없어서 12.9%,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12.4%,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8.1%, 기타 2.7% 순으로 나타났음.
- 1, 2순위 종합결과(386건)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 2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9.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18.7%,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각 13.2%,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9.3%, 기타 5.4%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21건)의 세부내용은 관계단절, 외로움, 상담 후 지원이 안 됐음, 신청 후 대기중, 현재 사는 곳이 좋음 등으로 나타났음.

<표 140>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66	33.0	15	8.1	81	21.0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1	10.5	51	27.4	72	18.7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13	6.5	23	12.4	36	9.3
관심이 없어서	27	13.5	24	12.9	51	13.2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26	13.0	25	13.4	51	13.2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31	15.5	43	23.1	74	19.2
기타	16	8.0	5	2.7	21	5.4
합계	200	100.0	186	100.0	386	100.0

<그림 83>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1순위 응답은 계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0.6%,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7.3%가 높고, 여성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50.0%, 기타 15.4%,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7.9%,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16.2%, 60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0.3%,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8.2%, 70대 이상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44.3%,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3.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0.6%,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7.0%, 조건부 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각 25.0%, 차상위계층 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각 33.3%, 비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54.2%,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25.0%,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54.2%,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25.0%, 생계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75.0%, 관심이 없어서 25.0%, 의료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각 33.3%, 주거급여는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관심이 없어서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기타 각 50.0%,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6.4%, 신청방법

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각 18.2%,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각 33.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9.2%,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8.1%,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각 25.0%, 장애 없음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4.5%,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6.1%가 높게 나타났음.

<표 141>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1순위)

항목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	
전 체		(빈도) %	(66) 33.2	(21) 10.6	(13) 6.5	(26) 13.1	(26) 13.1	(31) 15.6	(16) 8.0	(199) 100.0
성별	남성	(빈도) %	(53) 30.6	(19) 11.0	(12) 6.9	(24) 13.9	(23) 13.3	(30) 17.3	(12) 6.9	(173) 100.0
	여성	(빈도) %	(13) 50.0	(2) 7.7	(1) 3.8	(2) 7.7	(3) 11.5	(1) 3.8	(4) 15.4	(26)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19) 27.9	(10) 14.7	(7) 10.3	(8) 11.8	(11) 16.2	(10) 14.7	(3) 4.4	(68) 100.0
	60대	(빈도) %	(20) 30.3	(5) 7.6	(5) 7.6	(11) 16.7	(6) 9.1	(12) 18.2	(7) 10.6	(66) 100.0
	70대 이상	(빈도) %	(27) 44.3	(6) 9.8	(1) 1.6	(7) 11.5	(6) 9.8	(8) 13.1	(6) 9.8	(61)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45) 30.6	(14) 9.5	(5) 3.4	(20) 13.6	(23) 15.6	(25) 17.0	(15) 10.2	(147)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5) 25.0	(2) 10.0	(1) 5.0	(4) 20.0	(2) 10.0	(5) 25.0	(1) 5.0	(20)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33.3	(3) 33.3	(1) 11.1	(1) 11.1		(1) 11.1		(9) 100.0
	비수급	(빈도) %	(13) 54.2	(2) 8.3	(6) 25.0	(2) 8.3	(1) 4.2			(24)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3) 54.2	(2) 8.3	(6) 25.0	(2) 8.3	(1) 4.2			(24) 100.0
	생계급여	(빈도) %	(3) 75.0			(1) 25.0				(4) 100.0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주거급여	(빈도) %	(1) 11.1	(3) 33.3	(1) 11.1	(3) 33.3		(1) 11.1		(9)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50.0						(1) 50.0	(2)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4) 36.4	(2) 18.2	(1) 9.1	(1) 9.1		(2) 18.2	(1) 9.1	(11)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42) 29.2	(14) 9.7	(5) 3.5	(20) 13.9	(24) 16.7	(26) 18.1	(13) 9.0	(144)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8) 25.0	(8) 25.0	(3) 9.4	(5) 15.6	(2) 6.3	(4) 12.5	(2) 6.3	(32) 100.0
	장애 없음	(빈도) %	(58) 34.5	(13) 7.7	(10) 6.0	(22) 13.1	(24) 14.3	(27) 16.1	(14) 8.3	(168) 100.0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다중응답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은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0.5%,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19.6%가 높고, 여성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31.9%,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3.4%,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1.2%,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19.7%, 60대는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2.7%,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18.0%, 70대 이상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7.6%,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0.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0.5%,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9.4%, 조건부 수급은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1.6%,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18.9%, 차상위계층 수급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7.8%,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2.2%, 비수급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9.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각 18.8%,
 - 수급 종류별로는 해당없음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9.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각 18.8%, 생계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42.9%,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8.6%, 의료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각 16.7%, 주거급여는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27.8%,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2.2%,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기타 각 33.3%,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각 25.0%,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각 25.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20.7%,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18.9%,
 - 장애 여부별로는 장애 있음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각 21.7%, 장애 없음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1.5%,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18.7%가 높게 나타났음.

<표 142> 응답자 특성별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중응답)

항목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	
전 체		(빈도) %	(81) 21.1	(72) 18.8	(36) 9.4	(50) 13.0	(50) 13.0	(74) 19.3	(21) 5.5	(384) 100.0
성별	남성	(빈도) %	(66) 19.6	(61) 18.1	(34) 10.1	(44) 13.1	(47) 13.9	(69) 20.5	(16) 4.7	(337) 100.0
	여성	(빈도) %	(15) 31.9	(11) 23.4	(2) 4.3	(6) 12.8	(3) 6.4	(5) 10.6	(5) 10.6	(47) 100.0
연령대	50대 이하	(빈도) %	(26) 19.7	(28) 21.2	(17) 12.9	(14) 10.6	(18) 13.6	(23) 17.4	(6) 4.5	(132) 100.0
	60대	(빈도) %	(23) 18.0	(19) 14.8	(12) 9.4	(19) 14.8	(17) 13.3	(29) 22.7	(9) 7.0	(128) 100.0
	70대 이상	(빈도) %	(32) 27.6	(24) 20.7	(6) 5.2	(17) 14.7	(12) 10.3	(19) 16.4	(6) 5.2	(116)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빈도) %	(58) 20.5	(51) 18.0	(19) 6.7	(40) 14.1	(42) 14.8	(55) 19.4	(18) 6.4	(283) 100.0
	조건부 수급	(빈도) %	(6) 16.2	(7) 18.9	(5) 13.5	(5) 13.5	(4) 10.8	(8) 21.6	(2) 5.4	(37) 100.0
	차상위계층 수급	(빈도) %	(3) 16.7	(5) 27.8	(3) 16.7	(2) 11.1	(1) 5.6	(4) 22.2		(18) 100.0
	비수급	(빈도) %	(14) 29.2	(9) 18.8	(9) 18.8	(4) 8.3	(4) 8.3	(7) 14.6	(1) 2.1	(48) 100.0
수급종류	해당없음	(빈도) %	(14) 29.2	(9) 18.8	(9) 18.8	(4) 8.3	(4) 8.3	(7) 14.6	(1) 2.1	(48) 100.0
	생계급여	(빈도) %	(3) 42.9	(2) 28.6	(1) 14.3	(1) 14.3				(7) 100.0
	의료급여	(빈도) %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1) 16.7		(6) 100.0
	주거급여	(빈도) %	(3) 16.7	(5) 27.8	(2) 11.1	(3) 16.7	(1) 5.6	(4) 22.2		(18)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빈도) %	(1) 33.3	(1) 33.3					(1) 33.3	(3) 100.0
	생계급여, 주거급여	(빈도) %	(5) 25.0	(5) 25.0	(2) 10.0	(1) 5.0	(3) 15.0	(3) 15.0	(1) 5.0	(20) 100.0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빈도) %	(53) 18.9	(49) 17.5	(20) 7.1	(41) 14.6	(42) 15.0	(58) 20.7	(17) 6.1	(280) 100.0
장애 여부	장애 있음	(빈도) %	(11) 18.3	(13) 21.7	(8) 13.3	(6) 10.0	(7) 11.7	(13) 21.7	(2) 3.3	(60) 100.0
	장애 없음	(빈도) %	(70) 21.5	(59) 18.1	(28) 8.6	(45) 13.8	(44) 13.5	(61) 18.7	(19) 5.8	(326) 100.0

29.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질 문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3>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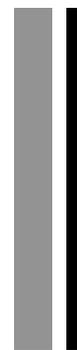
항목	응답수
주거급여 인상 및 지원 강화	11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9
방음시설 강화	8
위생상태 점검 및 관리	8
안전시설 강화	4
주거면적 확대	4
최소면적 확대	4
월세 지원	3
공용시설 확대	2
LH원룸형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한다	1
LH전세임대 공급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1
가전제품등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원 연계가 필요	1
거주공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필요	1
공간이 협소하고 방음시설이 안돼서 여건이 좋아지면 나가고 싶다	1
공공예절에 대한 패널티	1
공공임대주택 증가	1
공동화장실 계단을 오르기가 어렵다	1
공동화장실 이용 불편(이동)	1
공용시설 기능강화	1
교통이 편리한 위치면 좋겠다	1
기초 수급비 상향지원 원함	1
내가 원하는 지역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1
내부(벽,천장 등)수리 필요	1
넓은 평수에 소음이 덜 한 곳에서 살고 싶다	1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단이 없는 곳에 살도록 해주세요	1
방음시설 등 부대시설 확대	1
방충망설치	1
보일러기름지원	1
부대시설 강화	1

항목	응답수
비용 부담없이 임대주택이나 원하는 생활형태로 살 수 있도록 지원 바람	1
사생활 보호기능 강화	1
사생활보호를 위한 방음장치	1
생활급여 상향지원	1
생활비지원	1
서민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1
소음·방음 등 사생활 보호기능 강화	1
수급비를 올려주시면 좋겠다	1
수급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서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가 힘들다	1
수리 신청하는 것이 수월했으면 좋겠다	1
싱크대 교체 원함	1
썩크대 고쳤으면 좋겠다	1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1
욕실과 화장실 따로 설치 (주거비용없이)	1
우울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1
일을 하고 싶다	1
임대료 설정	1
임대료가 저렴하고 더 깨끗한 곳에 살고 싶다	1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위치가 평지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1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1
임대주택이 평지에 있으면 좋겠다	1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살고 싶다.	1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주거지가 필요함	1
전세자금대출 원함	1
좋은 집에 살고 싶다	1
주거복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1
주거비를 주인과 처리하고 본인한테는 생계비만 주는 것을 바란다	1
주거상향 조정부탁	1
주거상향시 집기류(TV, 세탁기 등) 지원연계가 필요함	1
주거생활 생활여건이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1
주거이동시 비용지원 등 필요함	1
주거하는 곳을 편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1
주거환경 개선, 임대료 하향	1
주민센터에서 구입해서 주거비 지원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1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1
쪽방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 (철거 늦게 되길 원함)	1
쪽방이라도 철거 안 되고 계속 살고 싶고, 안 되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1

항목	응답수
폐가 수리해서 임대해주는 정책 활성화	1
현 거주지에서 오래 살고 싶다 (재개발 안했으면 좋겠다)	1
화장실 개조	1
화장실이 너무 좁다	1
화장실 청결	1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1

부록

설문지/질문지/보고서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부산지역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주거권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구 쪽방상담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더불어 귀하의 정보는 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이 부산시의 주거권 증진 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총 28문항)에 답변하시는 시간은 대략 25분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

조사자 기본 정보			
소속기관명			
성명			
조사일시	년	월	일
			시경

담당자: 임 애 정(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인권정책팀 팀장)

문 의: bshumanrights@daum.net / 070-4120-9400 / 051-853-2101

■ 응답자 기본 현황

1. 다음은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시는 내용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출생년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급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수급 <input type="checkbox"/> 비수급	수급 종류 (해당 사항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장애 여부 및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있음(<input type="checkbox"/> 중복 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 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발달 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 없음 <input type="checkbox"/> 신체 장애
등록 주소지	_____시 _____구	연락 가능한 휴대폰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거주 유형

2.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일터의 일부 공간은 일터와 독립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장이나 농장 안에 있지만 작업공간이 아닌 주거용으로 독립된 비닐하우스는 ②, 독립된 컨테이너는 ④로 응답합니다.

- ① 모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② 판잣집, 비닐하우스
- ③ 고시원·고시텔
- ④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
- ⑤ 일터(공장, 상점, 농장, 어장 등)의 일부 공간
- ⑥ PC방, 만화방, 찜질방
- ⑦ 기타(_____)

3. 현재의 거처를 쪽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쪽방은 주로 1인이 거주하는 좁은 방으로,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이 없으며, 판잣집,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거주 시기

4.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와 현재 거처에 거주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비주택 거처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아닌 거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텔, 컨테이너·조립식 가건물, 일터의 일부 공간, PC방·만화방·찜질방 등이 포함됩니다.

1) 시작 시기 년 월

2) 현재 거처 거주기간 년 월

5. 하루 평균 거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거처에 머무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1) 평일(일하는 날) : 시간 분

2) 주말(쉬는 날) : 시간 분

■ 거주 이유

6. 현재의 거처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저렴한 주거비
- ②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 ③ 대중교통 이용 편리
- ④ 생활서비스(청소 또는 밥·김치) 제공
- ⑤ 개인공간 확보
- ⑥ 예전부터 계속 거주
- ⑦ 가족·친척·친구 거주
- ⑧ 갈 곳이 없음
- ⑨ 기타(_____)

▣ 거주 비용

7. 귀하의 현 거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면적을 표기하고 해당 점유 형태에 V 표시하고 해당 점유형태의 주거비를 표기해 주십시오.

- ※ 사글세: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세: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주세: 주 단위로 세를 내는 경우
 ※ 일세: 일 단위로 세를 내는 경우
 ※ 무상: 관사, 사택, 친척집 등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 m ² 또는 □□□□ 평	
<input type="checkbox"/>	1) 자가주택시세	매입 가격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10번으로
<input type="checkbox"/>	2) 전세	보증금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10번으로
<input type="checkbox"/>	3) 월세	보증금 □□□□ 만원 월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8번으로
<input type="checkbox"/>	4) 사글세	□□□□ 월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8번으로
<input type="checkbox"/>	5) 연세	연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8번으로
<input type="checkbox"/>	6) 주세	주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8번으로
<input type="checkbox"/>	7) 일세	일 □□□□ 만원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8번으로
<input type="checkbox"/>	8) 무상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 10번으로

8. 지난 1년 중 월세·사글세·연세·주세·일세를 연체한 적이 1번 이상 있습니까?

① 있다 → 9번으로

② 없다 → 10번으로

9.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의료비

② 실직

③ 부채상환

④ 식비

⑤ 기타(_____)

■ 거주 환경

10.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치안이 나빠서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가 불량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 ② 인사 정도만 한다
- ③ 가끔 만나서 이야기 한다
- ④ 일상적으로 어울린다
- ⑤ 기타(_____)

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내용	경험 여부		행위자				
	있다	없다	동료 거주인	일반 시민	사회 복지 시설 직원	경찰	기타
1) 신체적 구타							
2) 정신적 괴롭힘							
3) 성추행, 성폭행							
4) 금품갈취							
5) 강제 노동							
6) 특정 종교 강요							
7) 감금							
8) 모욕적 발언 및 폭언 (욕설)							
9) 기타(_____)							

■ 거주 공간

1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시설 종류		내용
1) 침실(방)		① 1개 ② 2개 이상
2) 거주하는 방의 창문		① 있음 ② 없음
3)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4)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5)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6) 난방시설	유무	① 없음 ② 있으며 가동함 ③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형태	① 연탄보일러 ② 기름보일러 ③ 가스보일러 ④ 전기보일러 ⑤ 중앙난방(지역난방) ⑥ 전기장판 ⑦ 기타(_____)

14. 현재 거처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거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①	②	③	④	⑤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옆방, 옆집,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상태가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7) 천장, 벽 등에 물이 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건물이 노후화(균열, 침하 등)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화재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동 규칙으로 인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냉난방이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방당 이용자 수가 많아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건물 내 이동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의 거처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주거비 부담
- ② 거처의 열악한 시설
- ③ 주변 환경의 열악함
- ④ 통근에 나쁜 위치
- ⑤ 외로움과 고립감
- ⑥ 안전(사생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⑦ 임대인·관리인·이웃과의 갈등
- ⑧ 기타(_____)

16. 지난날 비주택 거주 공간 및 현재 거주하는 거처에서 침수 및 화재 피해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17번으로

② 아니오 → 18번으로

17. 침수 및 화재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

18.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도움을 받은 곳 또는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족(친인척 포함)

② 친구

③ 이웃

④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선단체

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⑥ 기타(_____)

■ 거주 지원과 욕구

19.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쪽방(촌) 등 비주택 거처에서 살고 싶습니까?

① 그렇다 → 20번으로

② 아니다 → 21번으로

20. 계속 살고 싶으신 경우,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교통이 편리해서

②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③ 일자리가 가까워서

④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⑤ 불편함이 없어서

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⑦ 쪽방에 살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⑧ 기타(_____)

21.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22번으로

② 아니오 → 23번으로

22. 어디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시군구청

③ 주거복지센터

④ 복지관

⑤ 쪽방상담소

⑥ 기타(_____)

23. 이주가 가능하다면 주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② 정부지원 임대주택

③ 원룸

④ 영구 임대 아파트

⑤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⑥ 농촌 등에 정착

⑦ 기타(_____)

24. 현재 고시원·고시텔에 대해 공공에 의한 기준 설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아래의 문항은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1순위 2순위

① 최소 면적

② 위생 상태

③ 방음 시설

④ 안전 시설

⑤ 화장실 등 공용시설

⑥ 임대료

⑦ 기타(_____)

25. 귀하가 경험했던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 경험 여부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주택구입자금 대출							
2) 전세자금 대출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4) 주거급여(월세보조)							
5) 주거급여(집수리)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7) 주거 관련 정보제공							
8) 기타(_____)							

26. 현재 귀하께서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서비스와 필요성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종류	필요성(요구정도)				
	(높음)	(보통)			(낮음)
	5	4	3	2	1
1) 주택구입자금 대출					
2) 전세자금 대출					
3)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4) 주거급여(월세보조)					
5) 주거급여(집수리)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7) 주거 관련 정보제공					
8) 기타(_____)					

27. 귀하께서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 ②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 ③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관심이 없어서
- ⑤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 ⑥ 지원을 받아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⑦ 기타(_____)

28. 거주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방안과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 면접조사 - 반구조화된 질문지 -

1. 주거지에서의 관계적(동거인, 지인) 상황과 경제적(소득·수급) 여건
2. 주거지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
3.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거지에서의 지원 서비스
4. 참여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주거 기준과 주거 환경 간의 차이점
5. 향후 적절한 주거 기준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

※ 임대주택 등 주거 상황을 위한 복지서비스 활용 여부 등

2022년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모니터단> 활동 보고서

작성단원	
작성일	2022. ○. ○.
모니터링일시/장소	

- ※ 아래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정과 사실은 서로 잘 구분될 수 있게 적어주세요
- ※ 개인의 성명 등 개인 정보는 가려주시거나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 공간(거주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사람(주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 조사(질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단원의견	
------	--

2022
부산지역 비주택 거주민 주거 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3년 5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4 코리아빌딩 8층(연산동)
Tel : 051-853-2101 / Fax : 051-853-2102
e-mail : bshumanrights@daum.net

